2006 경북 북부지역 연구총서

경북북부권연구센터편

2006. 6

대구경북연구원

목 차

▣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전략 ·····김 정 호 ·····1

▣ 경북북부권의 산업발전방안 ·····권상장·이민환 ·····39
–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

▣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박 성 용 ·····109
– 안동·영주지역을 중심으로 –

▣ '경북북부지역'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이도선·황종규 ·····147
– 권역성과 SWOT 요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모델개발 연구 ·····황 용 운 ·····213
– 봉화군 닭실 마을을 중심으로 –

▣ 안동지역 문화산업 특성과 발전 전망 ·····권 두 현 ·····289
–안동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

▣ 경북 북부지역 주요 관광거점의 연계화 방안 ·····하동현·남태석 ·····349
–경상북도 북부 4개 도시를 중심으로 –

▣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전보경·성희자 ·····389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전략

김 정 호

목 차

■ 요약 / 3

제1장 서론 ····· 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2장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실태와 그 원인 ····· 10
1. 낙후실태 / 10　　2. 낙후원인 / 12

제3장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17
1.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현황 / 17
2. 문제점과 과제 / 21

제4장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전략 ····· 26
1. 사업내용적 측면 / 26　　2. 사업집행적 측면 / 28

제5장 결론 ····· 33

■ 참고문헌 / 34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경북 북부지역은 농경사회에서 그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토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에 경북 북부지역의 대부분이 속해 있다. 이와 같이 경북 북부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문제점과 성공적 추진전략을 검토함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연구방법은 먼저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모색하고 그 대안으로 성공적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2.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문제점

1) 사업내용적 측면

첫째, 개촉지구사업의 내용은 경북 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의 성을 가져오기 위한 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는데 미흡하다. 즉, 지역의 성장요소인 공업자본의 축적을 위한 사업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경북 북부지역의 입지적 여건상 공업자본의 축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관광시설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경북 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의 혁신역량강화와 인력개발사업의 부재이다. 낙후지역의 원인 중 하나가 주민의 의식과 역량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할지

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낙후지역의 개발정책은 주로 하드웨어에 치중하다보니 중요한 소프트웨어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촉지구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드웨어에 치중된 사업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사업간 연계성 미흡이다. 사업간 연계성의 미흡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촉지구사업과 여타 유사사업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오지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림부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문광부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아 낙후지역의 개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개촉지구사업간에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시·군간에 중복, 연계 미흡한 사업들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넷째, 사업내용의 잦은 변경이다.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은 계획의 신뢰와 지지를 떨어뜨리게 된다. 연동계획과 같이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위하여 꾸준히 수정, 보완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사업계획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며, 집행에 문제가 된다.

2) 사업집행적 측면

첫째, 민자유치의 미흡과 시·군의 대응재원부족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의 상태와 민자유치의 저조는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었다. 전체 사업비에서 지방비와 민자가 8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결과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시·군에서는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에 있어서 엄청난 차질은 많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둘째, 시·군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미흡이다. 11개 시·군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발계획의 단계부터 전체적인 조화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구단위별로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했으나 그렇치 못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단독으로 추진하다보니 유사사업의 중복, 부조화(mismatch)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함양 및 연속성유지에 문제가 있다. 순환보직에 의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심이 부족하며,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는 이 사업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의 기회가 부족하며, 인식도 낮다. 또한 대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은 종합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물리적인 시설에 치중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마인드와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주민참여미흡과 리더십의 개발미흡이다.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그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주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며, 내발적인 지역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투자를 통하여 주민들의 개발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생적인 노력과 함께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지역개발의 방식이 필요하다.

3.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전략

1) 사업내용적 측면

첫째, 주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경북 북부지역의 부존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촉지구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촉지구사업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력산업을 모색하고 집중육성해야 될 것이다.

둘째, 혁신인력육성과 리더십육성사업의 추진이다. 낙후된 지역의 문제는 물리적인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리더십과 인력의 육성과 같은 소프트적인 사업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실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유도 및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혁신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리더십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시·군의 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주민들의 조직화된 리더십도 중요하다.

셋째, 개촉지구사업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간 조정이다. 사업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간 조정의 문제는 추진체계와 관계되는 것으로 사업추진과 그 결과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사업간의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지역 스스로가 협의하여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집행 후 사업의 운영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의 연계사업 추진이다. 개촉지구사업의 관광휴양사업은 유교문화권사업과 연관성이 많다. 때문에 이를 연계시켜 경북 북부지역의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광사업의 유교문화적 정체성 확립은 시·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유교문화적 이미지화, 개념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2) 사업집행적 측면

첫째, 경북 북부지역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이다. 개촉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상공인, 주민은 물론 출향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강조되는 통상적 지역혁신체계와 달리 지자체, 주민, 외부 지역개발전문가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 및 학습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며,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 자긍심 및 자신감 회복 등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내·외부 자원 결합형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내부 인적자원과 외부 인적자원(인근대학, 외부기업 등)이 공동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네트워크이다.

둘째, 추진기구의 설립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개촉지구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법에 조합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경북 북부지역의 개촉지구사업을 위한 일부사무조합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따른 부담이 많다. 따라서 미국의 지역공동체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Regional Communities)를 보완한 경북 북부권 협의회를 설치하여 개촉지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시·군간 연계사업과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제도 도입이다. 추진기구의 역할에 따라 사업간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시·군간 연계사업과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전체적인 컨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개촉지구사업으로 시·군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략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제3섹터방식 또는 지역주민 공모주 발행방식의 적극 활용이다. 개촉지구사업의 성공을 위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우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에 있어서 주민공모주의 발행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제3섹터방식을 통하여 지역주민 공모주 또는 민자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섯째,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 제고와 유치노력이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우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은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업자체가 상당한 타당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투자가 즉 사업지의 도로망, 기반시설, 관련 사업여건 등이 선행되어 민자유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북 북부지역은 농경사회에서 그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토공간의 일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경북북부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전통 속에서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운 자랑스러운 곳이다. 특히 한국유교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곳으로 우리 민족의 얼 혹은 정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문화의 원류요 대동맥인 경북 북부지역이 개발의 사각지대화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된 것이다.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 날로 취약해지는 산업구조,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 등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인구비율, 도로율 등 8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전국하위 30%에 속하는 시, 군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에 경북 북부지역의 대부분이 속해 있다.[1] 이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경북 북부지역인 것이다.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즉, 산업발전의 특성, 입지적 특성, 생활의식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책적, 정주적 매력을 잃어가는 경북 북부지역이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지구사업에 한정하여 이의 문제점과 성공적 추진전략을 검토함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지구는 소백산 주변지구(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일부 380.4㎢), 영주·영양지구(영주시, 영양군 일원 329.4㎢), 상주·의성지구(상주시, 의성군 일원 406.2㎢), 안동·청송지구(안동시, 청송군 일원 452.6㎢)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공간영역의 구분은 지역간 기능연계, 지역간 이동 및 상호작용, 계층구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공간영역의 구분이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경북 북부지역이다.

여기에서 경북 북부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즉 광의적인 것과 협의적인 것이다. 광의적인 영역은 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과 경북서부의 구미, 김천, 그리고 경북 동남부지역 즉 경주, 포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을 경북 북부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경북북부권 행정협의회가 11개 시·군(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으로 구성된 것과 같은 영역이다. 한편 협의적인 영역은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즉 안동, 영주를 중심한 7개 시·군(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의 영역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북을 대구근교권, 포항, 경주 중심의 동해안권, 북부권으로 나누고 있는바 이는 상술한 광의적인 것과 협의적인 것의 중간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경북 북부지역을 중간영역의 차원에서 정하고자 한다. 즉 4개시(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와 5개군(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다. 이를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삼고자 한다. 왜냐하면 광의적 의미에서 포함된 울진군과 영덕군은 상술한 바와 같은 공간영역설정기준에서 볼 때 북부권이라기보다는 포항, 경주중심의 동해안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협의적 의미는 공간영역이 교통, 통신의 발달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점차 확대되어 광역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해안연안지구로서 영덕과 울진의 개발촉진지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연구방법은 먼저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실태를 여러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후 이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와 함께 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모색하고 그 대안으로 성공적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제2장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실태와 그 원인

1. 낙후실태

1) 인구의 격감

경북 북부지역의 인구성장률은 전국과 경북전체의 인구증감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인구가 11.6%로 증가한 반면 경북 북부지역은 22.9%로 감소하여 인구가 격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기간 경북 전체인구가 7.2%의 감소를 보인 것과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의 낙후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구감소는 지역의 낙후성을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구감소가 현저하여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는 지역성장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표 1〉 경북 북부지역의 인구추이

	1988	2003	증가율
전 국	42,014,178(100.0)	46,885,255(100.0)	+11.6
경 북	3,029,016(7.2)	2,811,586(6.0)	-7.2
경 북 북 부 지 역	1,036,873(2.5)	799,764(1.7)	-22.9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1989, 2004.

2) 취약한 산업구조

지역개발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말 현재 광공업은 사업체수를 기준할 경우 8.7%에, 종사자수를 기준할 경우 11.7%에 각각 불과하여 광공업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너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북의 9.8%와 30.7%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북내

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산업구조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지역의 재정과도 연관되어 1인당 지방세부담액도 경북북부의 도시들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표 3참조). 우리나라 지역의 성장메카니즘에 있어서 공업자본의 축적이 지역의 성장을 발동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고려할 때 경북 북부지역의 저개발성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국토개발연구원, 1988:175;남치호 외, 1993). 이와 같이 취약한 제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여 젊은 고학력인구의 정착 및 유입에 실패하게 된다.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또는 공업도시로 떠나게 되는 것이다.

〈표 2〉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2003)

(단위:개소, 명)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경 북	275 (0.2)	2,468 (0.3)	16,477 (9.8)	233,974 (30.7)	152,673 (90.0)	526,673 (69.0)	168,939 (100.0)	763,115 (100.0)
북부지역	113 (0.2)	1,140 (0.7)	4,266 (8.7)	18,744 (11.7)	44,492 (91.0)	139.748 (87.5)	48,871 (100.0)	159,632 (100.0)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04.

〈표 3〉 시급도시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2003)

(단위:원)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전 국	380,651
경 북	305,659
경 북 북 부 지 역	208,574

자료 :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4.

3) 낙후된 생활환경

열악한 교육여건, 의료수준의 부진,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이벤트 기회의 부족 등 각종 생활환경이 낙후된 실정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경북 북부지역의 4개 도시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시설, 고용기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치호 외, 1993). 또한 정주의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3). 즉 북부자원권의 주민들은 자기지역이 살기 좋은 편이 아니라고 16%가 응답하여 경북내 다른 권역의 주민들보다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장래 정주희망에 대한 설문에서도 다음 세대에도 살 것이라는 응답자는 14.7%로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정주의식의 원인은 자녀교육, 취직, 소득 등으로 생활환경이 문제되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하수도, 도로여건 등의 생활편의시설에는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 중에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육여건, 고용기회 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경북 북부지역의 생활환경현황

구 분		하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도로율 (%)	도로 포장율 (%)	주민1인당공원면적 (1,000㎡)	주민1인당병상수 (개)
전 국	시부	88.8	90.8	21.8	86.1	1.9	0.5
	읍부	62.2	74.1	14.4	75.6	0.8	0.6
경 북	시부	64.2	72.4	27.4	73.6	0.06	0.5
	읍부	72.1	71.4	17.0	80.6	1.7	0.5
경북북부	안동시	64.5	66.8	42.8	80.0	0.01	0.7
	영주시	68.7	71.5	28.9	70.9	0.01	0.2
	상주시	42.1	48.9	37.6	77.6	0.02	0.4
	문경시	60.1	70.6	31.6	66.8	0.05	0.7
	의성읍	54.4	78.3	40.4	100.0	3.9	1.0
	청송읍	70.9	56.7	58.8	94.7	0.0	0.05
	영양읍	79.3	76.3	63.7	60.9	3.0	0.4
	예천읍	76.6	70.3	8.8	88.4	0.3	0.4
	봉화읍	84.8	63.0	3.6	90.3	4.5	0.6

자료: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4.

2. 낙후원인

1) 내부적 요인 : 성장요소부재

한 지역 또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한 성장메카니즘 상의 성장요소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업자본의 축적으로 고용기회가 증대되고 외부지역으로의 수출력증대 등이며, 이에 따른 서비스업의 활성화, 인구 증대, 인구구조변화, 지역경제, 재

정력 확충 등에 따라 지역 또는 도시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국토개발연구원, 1988 ; 이양재, 1992 ; 남치호 외, 1993). 경북 북부지역은 이와 같은 성장메카니즘 상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성장요소들의 부재는 후술할 입지적, 정책적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다.

2) 입지적 요인 : 불리한 입지여건

한 지역의 성장은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 주변지역의 여건, 교통조건, 물리적 조건 등의 입지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입지여건은 교통조건과 관계되어 경제적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은 운임부담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소득감소, 투자부족, 낙후성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예로 지방중소도시는 지리적 여건에서 대도시에 인접하여 탄력성을 지닐 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Blair et al., 1996:345; 권상준, 1998:225).

지금까지 성장된 지역들의 입지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도시주변, 경부개발축주변, 임해공업지역인 것이다. 서창원·양진홍(1997: 212)의 연구에서 전국 167개 지역을 대상으로 1995년기준 지역개발 평가분석에서 상위 20위 이내에 속해 있는 도시들은 모두가 상술한 세 가지의 입지적 특성에 <표 6>와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입지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국토개발평가에 의한 상위 20위 이내 도시들의 입지적 특성

입지적특성	도 시 명
대 도 시 주 변	성남, 안양, 광명, 부천, 군포, 시흥, 안산, 고양, 양주, 창원, 양산
경 부 개 발 축 주 변	수원, 용인, 천안, 오산, 청주, 구미
임 해 공 업 지 역	울산, 여천

자료: 서창원 · 양진홍(1997 : 212)의 재구성

첫째,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주변에 입지한 것이다. 우리 나라 도시화정책이 대도시중심으로 편향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입지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있는 수도권내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지방중소도시들도 대도시의 spillover effect에 의한 도시화의 과실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의 주변지역이외의 지역들은 새로운 산업 진흥이 없거나 미미하였기 때문에 지역경제력의 제고를 위한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정세욱, 1990).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토개발평가에서 상위 20위이내 도시들의 상당부분이 대도시주변 특히 서울대도시주변의 입지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도시주변 이외의 지역의 개발은 입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둘째, 경부개발축 주변에 입지하지 못하여 개발에 불리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서울과 부산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연결망 안에 인구집중화, 공업중추기능화, 교통체널화, 대외거래의 전진기지화 등이 형성되어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의 중심이 되었다. 예를 들면 경부개발축 주변의 인구가 전국인구의 73.3%(1995년기준)를, 생산액은 전국 생산액의 80.3%(1995년기준)를 각각 점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서창원·양진홍, 1997:62) 이 축의 주변에 위치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개발에 유리했다.

셋째, 임해지역으로 60, 70년대의 산업입지에 적합하여 공업 및 산업기지로 조성된 지역들은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지역적 역할의 분담으로 순전히 입지성, 경제성,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토개발정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개발된 지역들이다(박수영, 1997:109).

내륙에 위치하면서 상술한 대도시주변, 경부개발축주변이 아닌 지역에 입지한 경북 북부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성장의 외적 유인력을 잃게 되고 더욱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박수영, 1997:109).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은 낙후성을 면키 어려운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지적 요인 : 자기혁신노력의 부족

무엇보다도 지역 스스로의 자기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데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의 주체인 지역민 스스로가 달라지지 않고는 지역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할 경우 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그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맞게 얼마만큼 지역민 스스로의 자기혁신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북 북부지역들은 의존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몸부림을 치는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게 지역개발이란 상급기관의 계획, 예

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기며 소극적이었다. 오래된 경북 북부지역들은 옛날의 명성과 지위만을 구가하며 시대적 상황변화에 대응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 즉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경사회 때의 화려했던 지역상은 사라지고 무기력한 지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관조하면서 대비하는 노력과 현실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결과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민들의 의식과 무관치 않다. 경북 북부지역의 농업적 사회의 기반에 따라 지역민들이 지니고 있는 보수적, 전통주의적, 의타적, 숙명적 의식은 지역개발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지역의 성장은 지역민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식구조, 즉 발전하고자하는 의욕, 개척하고자하는 정신, 변화에 적응하고자하는 적극적 자세 등에 크게 좌우된다(이양재, 1992)고 볼 때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성은 여기에 한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책적 요인: 지역균형개발정책의 효과 미흡

이와 같은 낙후원인에 대응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낙후원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했으나 효율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낙후되어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경제개발의 논리에 기초한 지역개발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60, 70년대의 산업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 개발의 논리가 총량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능률성 혹은 경제성에 있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경제개발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개발논리인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이 규모경제, 집적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졌다. 예를 들면 산업입지정책에 의하여 중화학공업기지(여천, 포항, 울산, 창원 등), 수출산업기지(구미, 마산 등), 특수산업기지(대덕, 반월 등), 공업이전촉진지역(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등) 등 대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공단이 조성된 지역 또는 도시들은 계속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머지 경북 북부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게 되고 지역자체가 점차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중소도시가 성

장하는 동인은 일정 제조업 중에 특화되어 전국적, 국제적 수출업종으로 성장하면서 산업생산성이 증대되고 도시경제기반이 확충에 있음을 실증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8 ; 남치호 외, 1993).

이와 같은 경제개발정책과 함께 국토개발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국토개발정책을 구체화시켜놓은 대표적 계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인 것이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에서 국토개발정책의 골자는 거점개발정책(growth pole policy)이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원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으나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중심의 개발로 지방중소도시의 성장둔화와 침제를 가져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박수영, 1997:210; 정환용,1992). 또한 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대안으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는 지방정주권개발이란 도시화정책으로 지역생활권조정과 성장거점도시육성, 즉 지방대도시를 제1차 성장거점도시를, 지방중소도시를 제2차 성장거점도시로 각각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 1차와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인 성장거점개발은 개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고 지정기준과 사업내용, 투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 또한 지역균형을 위한 실질적 개발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박상우·권혁진, 1997:132; 김용웅, 1996b)[2]. 이에 따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는 지방중소도시의 주력산업의 육성, 신산업지대의 종합개발, 국민여가지대의 조성 등 그간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들 과제의 추진은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방분산형 국토골격형이 향후 국토개발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서창원·양진홍, 1997:200).

이와 같은 경제개발정책과 국토개발정책의 혜택을 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 지역들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에 의한 생산요소의 유도적 배분과정에서 지역마다 받게 되는 정책수혜정도가 큰 지역은 그만큼 성장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인 반면에 작은 지역은 그 만큼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침체 내지 낙후되었던 것이다(이양재, 1992).

2) 핵심적인 지역개발전략으로 성장거점전략을 채택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선도산업이 지역산업과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이 시장의 힘에 의한 입지패턴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허재완, 1997).

제3장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1.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현황

1)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개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조성과 생활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1994년에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도전체면적의 10%이내 범위에서 150㎢ 이상 시·군단위로 전부 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였다. 지구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이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지구를 선정하였다.

〈표 6〉 개발촉진지구의 유형과 지정기준

유형	지정기준
낙후지역형	8개 지표 중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중 1개 이상과 기타 6개 중 1개 이상이 전국 30%미만 지역
균형지역형	광역개발권역 및 특정지역 내에서 지역간 균형개발
도농통합형	시군통합으로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지역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게 된다.

- 개발사업을 지역특화사업, 관광개발사업, 소득기반사업 등 소관부처별 소관사업비를 우선 지원[3)]
- 종토세, 재산세를 5년간 50%감면, 소득세, 법인세 4년간 50%감면
- 절차간소 등 행정지원강화
- 개발사업 대상지 내 개발행위제한

3) 예산은 2004년까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2) 경북 북부지역의 현황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1996년에 일괄적으로 5개 지구와 단계로 지정되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시군에 1821.9㎢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146개 사업(동해연안지구사업 제외)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었다[4]. 사업비는 전체 40,836억원이었으며, 지방비와 민자가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표 7〉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 현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업기간	1996-2003	1997-2005	1998-2004	2000-2006	2001-2007
지구명	소백산주변	산악휴양형	중서부평야	안동호주변	동해연안
해당시군	문경, 예천, 봉화	영주, 영양	상주,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울진
지구면적	380.4㎢	329.4㎢	406.2㎢	452.6㎢	253.3㎢

〈표 8〉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재원별 투자계획(1996)

	건수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145	40,836(100.0)	6,551(16.0)	4,800(11.8)	29,485(72.2)
1차	73	20,270(100.0)	3,119(15.4)	2,136(10.5)	15,015(74.1)
2차	22	3,006(100.0)	936(31.1)	1,075(35.8)	995(33.1)
3차	26	2,787(100.0)	685(24.6)	487(17.5)	1,615(57.9)
4차	24	14,773(100.0)	1,812(12.2)	1,103(7.5)	11,859(80.3)

<표 9>는 2003년말 현재 완료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이다. 전체사업 145건 중 81건(55.9%)만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64건은 촉진대책강구 23건, 폐지검토 22건, 재검토대상 19건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2004년말 현재 추진실적은 95개 사업에 6,158억원을 투자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4%, 지방비 26.9%, 민자 22.8%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계획에 비해 민자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이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02년 안동의 임하댐관광지사업의 폐지로 경북전체 개촉지구사업은 145개이다.

〈표 9〉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현황

	당초계획사업(건)	완료사업	정상추진중인 사업
계	145	23	58
소백산주변지구	73	20	23
산악휴양형지구	22	3	10
중서부평야지구	26	-	13
안동호주변지구	24	-	12

자료 : 건설교통부(2004)

2005년 사업을 평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05년 변경계획에서 사업을 24개 감소하고 1개 신규사업을 계획하여 당초계획에 비하여 전체 30개 사업이 감소되었다. 예산도 2조 9,420억원으로 이 중 국비 21.3%, 지방비 13.9%, 민자 64.8%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계획에서 사업수는 20.7%가 감소되었으며, 예산은 28.0%가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민자가 감소되었다. 이는 과다한 민자유치계획이 사업의 진행에 큰 장애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10〉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변경현황

	당초계획사업(건)	2005년 변경계획사업(건)	증감
계	145	115	△30
소백산주변지구	73	61	△12
산악휴양형지구	22	18	△4
중서부평야지구	26	17	△9
안동호주변지구	24	19	△5

자료: 경상북도(2005)

〈표 11〉 2005년 변경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2,941,940(100.0)	627,111(21.3)	408,702(13.9)	1,906,127(64.8)
소백산주변지구	1,521,578	280,724	225,033	1,015,821
산악휴양형지구	251,046	81,450	65,413	104,183
중서부평야지구	290,788	86,579	39,550	164,659
안동호주변지구	878,528	178,358	78,706	621,464

자료: 경상북도(2005)

2005년의 변경개발계획에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폐지가 24개 사업이며, 폐지이유는 주로 민자유치부진과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나타났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획사업이 폐지되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가 결여된 가운데 사업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집행 시에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이 부족하여 협조가 되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면에서 민자유치의 부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2〉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내역(2005)

	폐지사업(건)	변경사업(건)	신규사업(건)
계	24	6	1
소백산주변지구	문경(4),봉화(2)	문경(1)	-
산악휴양형지구	영주(1), 영양(3)	영양(2)	영주(1)
중서부평야지구	상주(3), 의성(6)	의성(1)	-
안동호주변지구	안동(2), 청송(3)	안동(1), 청송(1)	-

자료: 경상북도(2005)

〈표 13〉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폐지사업 내역(2005)

	폐지사업명		폐지사유
소백산주변지구	문경	버섯재배단지	사업타당성결여(작목반별 개별입지로 단지조성곤란)
		호계농산물유통단지	사업타당성결여(인근 김천, 안동지역에 물류유통단지개발·운영)
		가은모산동굴개발	사업타당성결여(보존가치가 있는 부존자원의 부재)
		유곡역사복원	사업타당성결여(별도의 타당성조사 필요)
	봉화	석천사적공원	사업타당성결여(민속사료관이 청량산도립공원의 민속박물관과 중복)
		사미정휴양단지	사업타당성결여(생태계 파괴)
산악휴양형지구	영주	동부-교촌간 도로	사업타당성결여(주변여건변화와 2002년 우회도로개설)
	영양	죽파임산물가공단지	민자유치부진
		영양계리 먹는 샘물개발	민자유치부진
		본동신토불이관광농원 조성	민자유치부진
중서부평야지구	상주	중동채소절임식품가공단지	민자유치부진
		중동시설채소재배단지	민자유치부진
		상주배시험연구단지	사업타당성결여
	의성	조성지유역개발	민자유치부진, 사업타당성결여(주변여건미비)
		도리원레저단지	민자유치부진, 사업타당성결여(주변여건미비)
		의성마늘연구단지	사업타당성결여(마늘종합타운이 신활력사업으로 개발)
		옥산산채약초농원	민자유치부진, 사업타당성결여(주변여건미비)
		사곡 작약재배단지	주민참여부족, 사업타당성결여(부지확보곤란)
		비안 청정시설채소단지	주민참여부족, 사업타당성결여(부지확보곤란)
안동호주변지구	안동	영상문화마을	민자유치부진
		베스타운	사업타당성결여(생태계보호)
	청송	병부리 버섯재배단지	민자유치부진
		중평 발효식품단지	민자유치부진
		송생 환경농업지구	민자유치부진

자료: 경상북도(2005)

2. 문제점과 과제

1) 사업내용적 측면

(1) 성장동력사업의 부족

시군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성장동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 지역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나 개촉지구사업의 내용은 이에 부족하다. 지역의 성장요소인 공업자본의 축적을 위한 사업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2004년말까지 추진된 개촉지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관광휴양시설과 기반시설에 치중되었다. 2004년말 현재 추진된 95개 사업 중 관광휴양시설 30개, 지역특화사업 7개, 기반시설사업 58개로 관광휴양시설과 기반시설에 92.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물론 경북 북부지역의 입지적 여건상 공업자본의 축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관광시설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다. 하지만 경북 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촉지구사업의 정책목표는 낙후지역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의 중요한 과제는 성장동력산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정책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의 혁신역량강화와 인력개발사업의 부재

상술한 바와 같이 낙후지역의 원인 중 중요한 하나가 주민의 의식과 역량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낙후지역의 개발정책은 주로 하드웨어에 치중하다보니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촉지구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드웨어에 치중된 사업내용이다. 그러니 투자에 비해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며, 오히려 인구는 계속감소하고 있고 산업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강화와 인력개발이 낙후지역에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3) 사업간 연계성 미흡

사업간 연계성의 미흡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촉지구사업과 여타 유사사업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오지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농림부의 농촌종합개발사업, 문광부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등의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아 낙후지역의 개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여타 유사사업과의 조화를 통하여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체계적인 차원에서 개촉지구사업이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군내에서 담당부서가 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접근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개촉지구사업간에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시·군간에 중복, 연계 미흡한 사업들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소백산주변지구를 예를 들어 보면 문경에 골프장, 용연스키장, 완장스키장, 예천에 골프장, 봉화에 봉성골프장, 문수산관광레저단지의 스키장, 골프장 등 한 지구 내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시·군간의 나열식이다보니 시·군의 개발에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크게 3가지분야, 즉 관광휴양, 지역특화, 기반시설로 나누어 사업을 선정하다보니 시·군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다 전략적인 사업의 조합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문경의 호계 농산물유통단지사업은 인근의 김천과 안동지역에 물류유통단지가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경쟁력이 낮아 폐지한 사례이다. 시·군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경쟁우위의 사업으로 지역을 특화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가져오도록 사업간 연계가 필요하다.

〈표 14〉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별 시·군 현황

지구	시·군
소백산주변지구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산악휴양형지구	영주시, 영양군
중서부평야지구	상주시, 의성군
안동호주변지구	안동시, 청송군
동해연안지구	영덕군, 울진군

(4) 사업내용의 잦은 변경

사업계획의 잦은 변경은 계획의 신뢰와 지지를 떨어뜨리게 된다. 연동계획과 같이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위하여 꾸준히 수정, 보완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사업계획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며, 집행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소백산주변지구(문경시, 예천군, 봉화군)는 1996년에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으로 시작되었으나 2005년 5월까지 6차례의 변경이 있었다. 산악휴양형지구(영주시, 영양군)의 경우도 1996년 지구지정과 1997년의 개발계획승인이래 4차례나 변경이 되었다. 중서부평야지구(상주시, 의성군)는 당초 1996년에 지구지정고시가 있었으나 1998년에 지구변경고시를 하였으며, 개발계획을 2005년에 변경고시를 하였다. 안동호주변지구(안동시, 청송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차(2002년과 2005년)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각 지구마다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어 계획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계획의 변경은 개발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기인된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합리성이 결여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에 따른 것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5〉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당초 사업(건)	변경횟수(회)	변경 후 사업(건)
계	145	14	115
소백산주변지구	73	6	61
산악휴양형지구	22	4	18
중서부평야지구	26	2	17
안동호주변지구	24	2	19

2) 사업집행적 측면

(1) 민자유치의 미흡과 시·군의 대응재원부족

경북 북부지역의 낮은 재정자립의 상태와 민자유치의 저조는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었다. 전체 사업비에서 지방비와 민자가 8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 결과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시·군에서는 재원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에 있어서 엄청난 차질은 많은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2004년말 현재 115개 사업에 대한 민자확보는 8.3%에 불과하여 민자유치가 사업의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민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투자유인력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민자유치보다는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2004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의 총 재정규모는 3조 6,137억원으로 경북의 약 29.2%를 차지한다.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4.4%로 경북 전체 평균인 30.4%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영양군과 봉화군은 각각 6.5와 8.6%로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독자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다. 2005년 폐지된 24개 사업 중 약 60 ~ 70%가 민자유치의 부진이 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복합적인 이유인 사업도 있겠지만 그 복합적인 이유에 민자유치부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시 · 군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미흡

11개 시·군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발계획의 단계부터 전체적인 조화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구단위별로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했으나 그렇치 못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단독으로 추진하다보니 유사사업의 중복, 부조화(mismatch)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11개 시·군간 상호연계를 이루어 복합상승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공유, 공동학습 등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혁신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북 북부지역의 개촉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시·군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3)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함양 및 연속성유지 필요

순환보직에 의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심이 부족하며,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는 이 사업

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의 기회가 부족하며, 인식도 낮다. 또한 대부분의 담당공무원들은 종합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 물리적인 시설에 치중될 수밖에 없으며, 지구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마인드와 지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4) 주민참여미흡과 리더십의 개발미흡

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그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주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며, 내발적인 지역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투자를 통하여 주민들의 개발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생적인 노력과 함께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지역개발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개촉지구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개발효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폐지된 사업의 상당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부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성의 사곡 작약재배단지, 비안 청정시설채소단지 등이다.

제4장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전략

1. 사업내용적 측면

1) 주력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강화

경북 북부지역의 부존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촉지구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혹은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 보다 경북 북부지역에 알맞은 적정기술이 무엇이며 부존하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 22). 이는 경제적, 재정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개발의 과실이 경북 북부지역에 귀속시켜 살기좋은 지역,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들게 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 27-28).

이런 의미에서 개촉지구사업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력산업을 모색하고 집중 육성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제조업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경북 북부지역에 고유하게 축적되어온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을 개발하면 된다. 시·군간의 갈라먹기식의 개촉지구사업이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력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시·군별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개촉지구사업의 효과성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2) 혁신인력육성과 리더십육성사업의 추진

상술한 바와 같이 개촉지구사업은 너무 물리적인 시설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낙후된 지역의 문제는 물리적인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적인 리더십과 인력의 육성과 같은 소프트적인 사업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실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유도 및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혁신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리더십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시·군의 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리더십과 주민들의 조직화된 리더십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리더십과 인력의 육성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결국 지역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가 부족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나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 모두 그 근저에는 혁신인력과 리더십이 육성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3) 개촉지구사업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간 조정

사업간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간 조정의 문제는 추진체계와 관계되는 것으로 사업추진과 그 결과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갈라먹기식으로 시·군에 사업을 나열하다보니 동일지구 내 또는 지구간에 상당히 유사사업들이 중복되어 있어 앞으로 상당히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예산의 낭비와 계속적인 민자유치의 곤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업간의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으나 지역 스스로가 협의하여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집행 후 사업의 운영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의 연계사업 추진

경북 북부지역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개촉지구사업을 통하여 지역매력이 점차 강화되고 이에 의하여 자주 찾고 싶은 지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지역으로 지역을 상품화하게 되도록 개촉지구사업을 유교문화권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개촉지구사업의 관광휴양사업은 유교문화권사업과 연관성이 많다. 때문에 이를 연계시켜 경북 북부지역의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광사업의 유교문화적 정체성 확립은 시·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유교문화적 이미지화, 개념화

를 통하여 가능하다.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들어도 유교문화적 이미지화가 이루어진 주제공원(Theme park)을 만드는 것이다. 유교문화적 정신이 살아있는 관광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용역업, 관광편의시설업의 육성을 통하여 경북 북부지역의 관광산업이 여타지역의 관광산업보다 다른 특성화된 것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내 각 시·군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경북 북부지역내 비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북 북부지역내 각 시·군마다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 골프장개발, 스키장개발 등인 것이다. 이와 같은 특색없는 경쟁적 개발사업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경북북부권의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 종합적 차원에서 개촉지구사업과 유교문화권사업이 연계됨으로 경북 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또한 연계 또는 공동사업으로 레저·휴양형 대규모단지를 경북 북부지역 시·군들이 협력하여 개발함으로 강력한 유인력 또는 경쟁력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사업집행적 측면

1) 경북 북부지역의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개촉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상공인, 주민은 물론 출향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강조되는 통상적 RIS와 달리 지자체, 주민, 외부 지역개발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 및 학습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며,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 자긍심 및 자신감 회복 등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내·외부 자원 결합형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내부 인적자원과 외부 인적자원(인근대학, 외부기업 등)이 공동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네트워크이다. 개촉지구사업도 이와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의 구축 속에서 이루어져야 보다 타당성있는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있는 자원의 최대한 활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2) 추진기구의 설립

경북 북부지역의 개촉지구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중심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상술한 네트워크구축의 실체로 이를 통하여 경북북부권의 혁신을 통한 개촉지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추진체계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특정지역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기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지역공동체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Regional Communities), 영국의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일본의 지역개발사업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기구로서 행정협의회가 있으나 집행력이 없어 권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북 북부지역의 개촉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조합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의 개촉지구사업을 위한 일부사무조합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데 따른 부담이 많다. 따라서 미국의 지역공동체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Regional Communities)를 보완한 경북 북부권 협의회를 설치하여 개촉지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성: 11개 시·군의 공무원, 의원, 시민, 산·학·연의 전문인(출향인사포함)으로 구성한다.
- 기능: 미국의 지역공동체협의회(NARC)는 단순히 자문기능을 하나 경북 북부지역협의회는 제한적 심의·의결기능(개촉지구사업의 계획, 집행 및 평가 등)을 부여한다.
- 조직: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의 실무자들과 함께 협의하여 시·군의 행정업무의 조정과 관련 정보 및 기술지원, 관련안건 의견수렴,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한다.
-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는 경북 북부권협의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시·군의 집행기능을 협의한다.
- 추진기구에 의하여 계획안이 수립되고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시 · 군간 연계사업과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제도 도입

추진기구의 역할에 따라 사업간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시·군간 연계사업과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전체적인 컨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개촉지구사업으로 시·군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략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제3섹터방식 또는 지역주민 공모주 발행방식의 적극 활용

개촉지구사업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민자유치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폐지된 사업의 60 ~ 70%가 민자유치부진에 그 이유가 있다. 민자유치가 IMF와 같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어렵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개촉지구사업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민자에 의존한 것도 문제다. 우선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고 보자는 시군의 자세도 문제다.

개촉지구사업의 성공을 위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우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에 있어서 주민공모주의 발행은 의미가 있다. 주민들의 참여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됨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이익이 주민들에게 귀속됨으로 지역주민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제3섹터 방식을 통하여 지역주민 공모주 또는 민자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문경의 외어골프장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사업비 600억원 중 문경시가 200억원을, 주민공모주 40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골프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5)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의 타당성 제고와 유치노력

2005년에 변경된 개발계획의 투자계획에서도 민자가 1,906,127백만원으로 전체사업비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개촉지구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민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우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은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다.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업자체가 상당한 타당

성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의 투자가 즉 사업지의 도로망, 기반시설, 관련 사업여건 등이 선행되어 민자유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경북 북부지역의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성탑산온천개발의 사례

농업자원 이외에는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는 지역환경의 특성상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스쳐가는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로의 개발을 적극 추진코자 한 것이다. 의성 탑산 온천은 1989년 7월 10일 온천을 발견하여 1996년 1월 17일 온천지구로 지정, 개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41,200여평의 넓은 면적에 숙박, 상가,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의성군 봉양면 구산, 도원리 일원의 41,267평정도의 규모에 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1,351백만원으로 국비 5,905백만원, 지방비 5,906백만원, 민자 69,54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말 현재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 1,900백만원, 지방비 1,900백만원, 민자 5,765백만원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자본 민자유치건으로 2005년 5월 14일 탑산온천 개발지내의 전 토지소유자중의 1명이 현제 미국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향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강한 본인의 의지가 있었다. 이들 관계자 7명을 탑산온천에 초청, 온천종합개발계획과 투자에 대한 개발이익 등 여러 가지 투자 조건을 설명하였다. 잘 발달된 교통망 등 투자여건과 조건들은 대부분 만족하나 지역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대도시 인구를 대규모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들에는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이에 탑산온천조합 민자유치 관계자는 직접 미국을 방문하며, 관광지 개발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상주 중동채소절임식품 가공단지의 사례

상주 중동면 간상리 일원에 21,630평의 규모로 채소절임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동강변에 위치하여 채소경작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어 채소 절임식품 가공단지를 계획하였다. 총사업비는 1,500백만원으로 국비 450백만원, 민자 1,050백만원

(70%)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자에 크게 의존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중요하다.

현재 상주농협 중동지소에서 채소절임가공공장을 건립하여 기존 운영하고 있으나 판로문제 등 경영난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공장을 폐업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상주시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산업으로 중동 채소절임식품 가공단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민자유치를 노력하였으나 어려웠다. 2004년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수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촉진대책 강구사업으로 평가되어 대책을 강구 하였으나 특별한 대책이 없어 폐지키로 결정하였다.

당초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계획시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그 지역에 채소절임식품 가공단지 사업이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그 지역에 채소절임식품 가공단지 사업이 적절한 계획인가를 검토 확인후 계획 했어야 하였다. 타당성 분석절차 없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무분별한 계획을 세움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그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향우회 등을 방문 민자유치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농산물 개방 등으로 중국, 필리핀, 칠레 등 외국의 농산품이 물밑 듯이 밀려오고 있어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사업의 불투명으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제5장
결 론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은 지역의 개발잠재력에 바탕을 둔 경쟁우위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값어치가 있고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교의 비극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전략인 것이다. 한 가지는 뒤떨어져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앞서 간다는 자존심이 생기도록 하는 경쟁우위의 확보전략이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개발을 하니 우리 지역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그 개발이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개촉지구사업이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촉지구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추진기구에 의한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혁신적인 리더십과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며 실행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유도 및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혁신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경북 북부지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끝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제도적, 법적 보완을 하며, 이를 통한 꾸준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토개발연구원(1988), 「중소도시의 성장과 구조」

권상준(1998), 「지방도시론」, 서울:박영사.

경상북도(1997), 「북부권 관광개발계획」

경상북도(1999), 「경북 북부권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이벤트성 사업 추진 전략」

김용웅(1996a), "새로운 국토 및 지역정책 방향의 정립", 「국토」, 국토개발연구원, 통권 179호, pp.6-12.

김용웅(1996b),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구조의 형성", 「국토」, 국토개발연구원, 통권 182호, pp.23-27.

김용웅(1997), 21세기 지역개발시책의 새로운 접근,「국토」, 국토개발연구원, 통권 190호, pp.107-117.

남치호·이희재·김춘식(1993), "경북 북부권내 중소도시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성장동인에 관한 연구", 「안동개발연구」, 안동대학교 안동 지역사회 개발 연구소, 제4집, pp.119-186.

류왕렬(1988), 지역개발의 정책과 전략,「지역개발론」, 지역개발학과 교수협의회(편저), 서울: 법문사, pp.35-67.

박상우·권혁진(1997),「지역균형발전시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7-19.

박수영(1997), 「도시행정론」, 서울:박영사.

박양호(1991), "지방중소도시의 정체원인과 발전대책,"「지방행정」,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40권 제451호, pp.55-64.

서창원·양진홍(1997),「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분석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7-55.

신창호(2000), "일본의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한 지역발전 사례", 「국토」, 국토연구원, 통권 220호, pp.36-43.

안건혁(1995), 자족적 도시개발,「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30권 제324호, pp.99-107

이양재(1992),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성장동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27권 제2호, pp.25-54.

이종화(2000), “지역간 협력·제휴를 통한 지역 발전 모델”, 「국토」, 국토연구원, 통권 220호, pp.21-27.

이창수(1991), 지역균형개발과 중소도시의 역할,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40권 제451호, pp.80-90.

이태일(1990), 우리나라 중소도시실태와 육성방안,「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39권 제443호, pp.68-76.

정석희 외(1992),「중소도시 주력산업육성 종합대책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2-24.

정세욱(1990),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재정실태,「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39권 제443호, pp.59-67.

정환용(1992), 한국의 대도시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5대 도시권을 중심으로,「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27권 제1호, pp.35-49.

주성재(1996), 21세기 지방중소도시의 역할 중대방안,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31권 제331호, pp.103-116.

최상철(1995), ‘90년대 국토 및 도시정책의 회고와 전망,「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30권 제324호, pp.90-98.

최양부(1985), “지방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와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지방의 재발견」,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서울:민음사, pp.159-184.

하성규·김재익(199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의 공간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0권 제3호, pp.35-55.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9),「지연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군지역을 중심으로」

허재완(1997), “지역개발정책”, 「국토」, 국토개발연구원, 통권 194호, pp.6-16.

황용주(1987), 2000년대를 향한 지방도시의 개발전략,「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2권 제3호, pp.9-27.

내등정중(편)(1990), 「과소문제と 지방자치제」, 동경 : 다하출판

Blair, J. P., et al.(1996), The Central City Elasticity Hypothesis:A Critical Appraisal of Rusk's Theory of Urban Development,JAPA, Vol.62, No.3.

Koeppen, Dietrich W.(1997), New Regional Planning Processes - Regionalisation Strategies in Germany, paper presented for the 15th conference of PRSCO, Wellington N.Z.

Moon, Bruce(1996), Regional Planning in SE Queensland: The Merit of a Coordinated Policy Approach, paper presented to the ANZRSA conference, Canberra AU

연구자 소개

김 정 호(金正浩)

▷ 상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주요 연구실적

- 경북 북부지역의 낙후원인과 개발전략(학회 발표논문)
- An Urban-Rural Disparity Perspective on City-County Consolidation(학회 발표논문)
- 지방중소도시 개발의 당위성과 네트워크전략에 관한 시론적 연구(학회 발표논문)
- 영구임대주택정책의 효과성 평가(학회 발표논문)
- A Study on the Development Issues and Policies of the Urban-Rural Consolidated Cities(학회 발표논문)
- 중소도시근교 농촌지역의 도·농연계적 개발에 관한 연구(학회 발표논문)
-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학회 발표논문)
- 경북향토산업육성계획(수탁과제 연구보고서)외 연구실적 다수

경북북부권의 산업발전방안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권상장 · 이민환

목 차

■ 요약 / 41

제1장 서언 ····· 4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46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범위 / 47

제2장 경북 북부권의 지역적 특성 ····· 50
1. 경북 북부권 / 50 2. 스위스 / 54

제3장 경북 북부권 산업현황 ····· 57
1. 농업 / 57 2. 관광산업 / 59
3. 기타 산업 / 69 4. 스위스의 산업 / 70

제4장 경북 북부권 산업의 발전방안 ····· 73
1. 농업 / 73 2. 관광산업 / 77
3. 기타 산업 / 95

제5장 결언 ····· 101

■ 참고문헌 / 103 ■ Abstract / 106

요 약

1. 서 언

경북 북부권은 넓은 국토면적에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갖춘 우수한 산업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개발의 미비로 한국 내에서도 가장 개발이 부진한 낙후지역으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북부권과 자연환경 등 산업 환경이 비슷한 스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경북 북부권은 경상북도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등 7개 시·군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이들 지역이 스위스와 유사한 산악지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안동시와 울진군이 포함된 것은 안동시의 호수와 울진군의 해양자원을 연계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경북 북부권의 지역적 특성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동쪽은 청정 동해안과 연접해 있고, 북쪽은 강원도 및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가 많은 산촌지역으로 산업화에서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경북 북부권의 7개 시·군의 총인구는 540,410명이고, 면적은 6,777.4㎢에 달하며 이중 임야면적이 5,138.3㎢로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특히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의 경우 임야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북위 45~48도에 걸쳐 있으며, 연방공화국(20개 Canton 및 6개 Half Canton으로 구성) 체제로 면적은 41,293㎢(한반도의 약 1/5)에 해당하며 인구는 740만명(외국인 20%)에 이르는 소규모 국가에 해당한다. 각 칸톤별로 철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있으면서 스위스 전체는 조화가 잘 이루어진 작은 국가이지만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3. 경북 북부권 산업현황

1) 농업

경북 북부권은 전형적인 산간지역으로 경지면적이 적고 농경지는 주로 하천 유역과 산기슭의 경사지에 형성되어 있다. 내륙산간지대에 위치하여 위도에 비해 기온이 낮고 연교차와 일교차도 크다. 산악지대에서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저온이라 그루갈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가 커서 고품질의 고랭지 과채류 작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은 쌀, 고추, 사과, 인삼, 버섯, 고랭지채소, 화훼 등이다. 하지만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의 급진전으로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지역 농업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2) 관광산업

경북 북부권은 수려한 청정 산악자원, 명산, 계곡,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태백산과 소백산 등의 명산, 깊은 계곡과 물, 온천과 호수, 자연림 등 자연자원과 유불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유적, 그리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가진 다양한 축제와 향토음식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경북 북부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하여 각 시·군별로도 다양한 관광개발전략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대부분 관광지 개발, 관광지 정비, 진입로 확보, 주차장, 안내표지판,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담장 및 화장실 정비 등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계획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행의 경북 북부권 관광개발계획이 전체적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개별 건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런 형태의 관광개발계획은 외지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해당 시·군민의 여가나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3) 기타 산업

경북 북부지역은 특용·약용작물과 과채류의 최대산지로서 바이오산업의 발전 잠재

력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따라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방·바이오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울진에는 해양바이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풍기 일대는 섬유직물업이 발달해 있다.

4) 스위스의 산업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간주도형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즐비하다. 스위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식품, 서비스 관련 산업, 정밀기계, 화학, 섬유산업 등 5개 산업 클러스트(Mega Cluster)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최근에는 바젤, 베른 지역을 중심으로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IT 분야의 새로운 클러스트가 형성되고 있다.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농업과 전통산업의 비중은 축소된 대신 서비스부문은 지속적 성장하고 있다. 농업부분의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가공식품 산업으로 초콜릿, 치즈 및 유아식품 등이 4/5를 점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광광산업은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도시지역 보다 산간지역 비율이 훨씬 높다. 주요 관광상품으로는 산아래 열차, 삶의 원천이고 스위스의 유일한 자연자원인 물, 그리고 알프스 산과 겨울 등 자연자원이다.

경제가 성숙하여 GDP의 70%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창출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스위스 경제와 산업을 떠받치는 대들보 노릇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아 고부가가치의 기계 수출이 세계 3위의 수준으로서 정밀기계, 금속가공기계, 발전 및 선박용 터어빈, 인쇄기기, 사진재료, 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제조 부문이 우수하다.

4. 경북 북부권 산업의 발전방안

1) 농업 발전방안

경작지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스위스식 목장, 스위스의 풍요한 농장 및 농촌마을의 조성, 밀 등 작물의 재배 부활, 춘양목 등 임산물의 조림, 고랭지 채소 등의 재배 증대, 송이 등의 증식과 같은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즉 농촌의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청정지역

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 북부권의 농업 발전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경관보전 직접지불, 환경농업 직접지불 등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제의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이러한 농촌경관을 관광자원화 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하도록 하여 농촌이 자립형 정주공간으로 탈바꿈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2) 관광산업 발전방안

관광산업 발전방안의 기본원칙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악관광과 자연·생태관광의 조화를 통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찾을만한 곳으로 만들고 체류기간을 늘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유교문화와 천연자연 자원이 어우러진 한국형 문화관광의 중심지, 숲·물·꽃·전통이 어우러진 전통문화관광지의 이미지 강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의 확립, 특산품·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등을 특성화하여 스위스 식 관광개발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10~100년간 스위스 같이 기간을 두고 가꿀 필요가 있다. 먼저 경북 북부권의 각 시·군지역에 10경, 10명소, 아름다운 호수·강변(강여울)·해변 1~5개 정도씩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스위스 수준의 세계적 경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박물관·전시관 등도 10개 이상 건립하여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위스식 관광개발을 추구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광산업 개발은 경북 북부권의 자연경관 및 생태,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보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스위스형 호텔, 모텔, 카페, 방갈로의 조성, 스위스와 같은 아름다운 호수의 조성, 호수주변 꽃길, 산책길 조성, 스위스식의 등산철도, 케이블카 건설, 산악도로 조성, 스위스의 고성(castle)의 복원, 스위스식 가로의 조성, 스위스식 박물관 건립, 스위스식 스키장의 건설, 현 인삼축제, 은어축제, 송이축제 등에 한국 전통양식과 스위스 민속양식이 결합된 축제의 개발 등을 통해 청정 산악관광과 자연생태관광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기타 산업 발전방안

경북 북부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 및 관광산업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이어야 하고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에서 적합한 산업은 의료·실버산업, 바이오산업, 식품가공 산업, 문화산업, 생수산업, 청정공기산업, 스포츠산업, 정밀·기계산업, 컨벤션산업 등을 들 수 있다.

5. 결 언

본 연구에서는 경북 북부권을 자연환경 등 산업환경이 유사한 스위스의 산업발전모델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북 북부지역은 풍부한 전통문화, 청정한 자연자원, 다양한 생물자원, 우수한 인적자원 등 스위스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의 천연의 우수한 산업입지를 잘 활용하여 개발한다면 장차 한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권 산업발전 방안은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의 각 시·군별로 특성화된 농산물, 관광상품을 통하여 차별화 하되 경북 북부권 전체는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경북 북부권이 스위스와 같이 주어진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서 언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경북 북부권은 거의 1개 도에 맞먹는 넓은 국토면적에 뛰어난 자연환경을 구비하고 한국 역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갖춘 우수한 산업입지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개발의 미비로 한국 내에서도 가장 개발이 부진한 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자연환경 등 산업 환경이 비슷한 스위스 등 선진국의 관광자원 개발 등 앞선 산업개발의 모델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한국의 스위스, 아시아의 스위스로 각광을 받게 하여 산업상 가장 특별한 발전을 하는 지역으로 변경시킬 산업발전 모델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스위스식 산업발전모델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모델의 하나이다. 스위스는 아주 척박한 토양,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오지라는 산업상 불리를 잘 극복하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산업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세계 제일이고 농업도 독일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있다. 시계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컨벤션산업도 세계적 수준이다. 경북북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형 등 자연환경이 스위스와 크게 닮은 우수한 산업입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 뛰어난 천연의 혜택을 잘 활용할 경우 장차 한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한국의 스위스, 동양의 스위스로 크게 인식되는 등 경북 북부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화시대 지역혁신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국뿐 아니라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북 북부권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을 통해 성장·발전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북 북부권이 상대적 낙후성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국가발전에 있어 스위스식의

장점을 잘 활용하자는 제의는 있으나 국내 특정 지역의 산업발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스위스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잘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그러한 연구방법의 단초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범위

본 연구에서 경북 북부권은 경상북도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등 7개 시·군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이들 지역이 스위스와 유사한 산악지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안동시와 울진군이 포함된 것은 안동시의 호수와 울진군의 해양자원을 연계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산업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산업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적인 산업기반 조성'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농업, 관광산업, 기타 산업(바이오, 식품가공, 의료, 생수, 정밀 산업 등)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경북 북부권은 백두대간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태백산, 소백산, 월악산, 문주산, 일월산 등 아름답고 1,000m가 넘는 고봉준령들이 지역을 감싸고 있는 등 지형이 스위스 형을 많이 닮아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스위스 형으로 자연을 잘 개발할 경우 한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면에서 먼저 농업은 경작지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스위스식 목장, 스위스의 풍요한 농장 및 농촌마을의 조성, 밀 등 작물의 재배 부활, 춘양목 등 임산물의 조림, 고랭지 채소 등의 재배 증대, 송이 등의 증식과 같은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즉 농촌의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정착시키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 개발은 경북 북부권의 자연경관 및 생태,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

하여 보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스위스형 호텔, 모텔, 카페, 방갈로의 조성, 스위스와 같은 아름다운 호수의 조성, 호수주변 꽃길, 산책길 조성, 스위스식의 등산철도, 케이블카 건설, 산악도로 조성, 스위스의 고성(castle)의 복원, 스위스식 가로의 조성, 스위스식 박물관 건립, 스위스식 스키장의 건설, 현인삼축제, 은어축제, 송이축제 등에 한국 전통양식과 스위스 민속양식이 결합된 축제의 개발 등을 통해 청정 산악관광과 자연생태관광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타 산업의 발전방안 역시 농업,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으면서 지역의 청정자연을 최대한 이용하되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즉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정한 공기를 잘 활용한 산업개발, 생수, 청정공기 채취, 일상용 상품 개발산업 등이 좋은 예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는 먼저 한방·바이오 산업, 의료 및 실버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의약품 제조업, 생수산업, 정밀산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의료 및 실버산업의 경우 은퇴 후 최적 거주지를 조성 고소득자들의 노후 거주지를 형성하게 한다. 고소득자의 별장지대 조성, 치매병원 등 노령층의 요양병원건설, 쾌적 환경을 찾아 노령층의 노후 생활을 위해 이 지역에 모여들게 하고 이들에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시설, 복지시설도 최상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실제 미국에는 도시주변에는 인구가 감소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리조트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스위스(바젤)식의 의약품 제조업 육성, 풍기의 섬유산업을 스위스 식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부분적으로 플라스틱, 전자 등의 부품산업도 발전시킨다. 새로운 산업으로 이들 지역에 맞는 산악형 자동차, 산악용 자전거 생산을 위한 산업을 일으킨다. 산악용 자동차의 경우 매연을 일으키는 휘발유·경유사용 자동차가 아니라 스위스 같이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식의 시계제조 등의 금속산업, 발전설비 건설 등의 중장비산업 등은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 타당성 여부 검토 후 방안을 수립한다.

본 스위스 모델식 산업연구는 경북북부와 스위스산업입지 비교분석의 기반위에서 수립·실시하되 문헌연구, 실제상황의 비교연구에 의해 실시한다. 이러한 스위스산업모델 활용에 의한 경북 북부권 산업발전방안이라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장에서는 경상북도 북부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스위스의 경우와 비교한다. 3장에서는 경북 북부권의 산업 현황을 농업, 관광산업,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스위스의 산업구조와 비교한다. 4장에서는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 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5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경북 북부권의 지역적 특성

1. 경북 북부권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 동해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가지고 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태백산, 소백산, 죽령, 조령 등 백두대간의 이남에 위치하여 동쪽은 청정 동해안과 연접해 있고, 북쪽은 강원도 및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북부와 서부의 높고 험준한 소백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가 많은 산촌지역으로 산업화에서 소외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에 속한다.

최근 정부는 2005년 8월 30일 26만3천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정했다. 경북에서는 영주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일부가 포함되어 4만8천ha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산업발전은 더욱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경북 북부권의 7개 시·군의 행정구역 현황과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표 2>에 각각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총 인구는 540,410명이고, 면적은 6,777.4㎢에 달하며 이중 임야면적이 5,138.3㎢로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특히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의 경우 임야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표 2>에서 이들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임야와 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표 1〉 경북 북부권 행정구역 현황

(단위: 개, 명, ㎢, %)

시군별	읍·면·동 수				출장소	통·리 수			면적(㎢)		인구
	계	읍	면	동		계	통	리	총면적	임야면적	
계	95	9	62	24	7	1,997	579	1,418	6,777.4	5,138.3(75.8)	540,410
안동시	24	1	13	10	3	553	279	274	1,530.4	1,075.2(70.3)	173,519
영주시	19	1	9	9	0	400	201	199	668.9	443.2(66.3)	120,882
문경시	14	2	7	5	2	314	99	215	912.2	710.2(77.9)	79,052
영양군	6	1	5	0	1	114	0	114	815.1	699.1(82.7)	20,093
예천군	12	1	11	0	0	265	0	265	660.7	367.4(55.6)	51,825
봉화군	10	1	9	0	0	156	0	156	1,201.0	993.5(85.8)	37,194
울진군	10	2	8	0	1	195	0	195	989.1	849.7(85.9)	57,845

주: 2005년 3월 31일 현재, ( )는 전체 면적에서 임야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경상북도청, 경북통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표 2〉 경북 북부권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하천	대지	기타
경상북도	19,025.3	1,300.3	1,859.4	138.5	44.8	13,746.8	575.2	268.6	1091.7
안동시	1,530.4	127.5	97.8	13.6	2.9	1,075.2	59.9	18.1	135.4
영주시	668.9	70.0	77.1	9.0	1.6	443.2	1.6	11.5	54.9
문경시	912.2	59.5	71.5	4.6	1.9	710.2	16.4	12.5	35.6
봉화군	1,201.0	89.3	47.3	7.4	2.2	993.5	15.4	7.4	38.5
예천군	660.7	84.0	11.1	2.5	2.9	367.4	29.7	11.7	151.4
영양군	815.1	55.8	21.9	0.5	0.9	699.1	14.7	3.8	18.4
울진군	989.1	36.7	45.5	0.1	0.8	849.7	22.3	6.6	27.4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04.

(1) 안동시

안동시는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지맥을 이루고, 낙동강이 시를 관통하여 흐른다. 시의 서남쪽은 비교적 평탄하나 동북쪽은 산이 험준하여 농경지는 거의 산지에 위치하여 있다.

안동시는 봉정사, 도산서원, 안동민속촌, 안동민속박물관, 한국가면미술관 등 대표

적인 문화유산이 많다. 안동탈춤페스티벌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안동호, 임화호, 하회 등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2) 영주시

영주시는 경상북도의 최북단 소백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주봉인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과 죽령을 경계로 하여 도솔봉(1,315m)으로 이어진 소백산 산록 고원부지에 형성되어 있다.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토질이 대부분 사양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어 인삼, 사과 등의 생육에 적절하다.

영주시에는 부석사, 희방사, 소수서원 등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있다. 인삼재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매년 인삼축제가 열린다. 풍기 일대는 섬유직물업이 발달해 왔으며, 풍기에 온천도 새로이 개발되었다.

(3) 문경시

문경시는 경상북도의 서북단 내륙에 위치하여 소백산맥이 서북쪽에 드리워져 있다. 대미산(1,115m), 주흘산(1,075m), 백화산(1,063m), 조령산(1,017m) 등이 있고, 소백산맥 넘어 충주·단양과 접하고 북한강과도 연결된다. 산세가 아치형으로 둘러싸여 산천경개가 수려하다.

문경새재 등 역사적 문화유적이 있고 인근에 최근 왕건 영화촬영 세트장이 조성되어 새재와 더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고 있다. 문경온천도 황토색의 특이한 온천수를 분출하고 있다.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입지도 크게 개선되었다.

(4) 영양군

경상북도 동북부 태백산맥의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대소계곡을 형성하여 산간분지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다.

농경지의 73%가 전(田)인 산간오지이며, 일월산(1,219m)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

관과 풍부한 문화유적을 보전하고 있다. 특산물은 고추가 특히 유명하고, 이외에 사과, 담배, 더덕, 천궁, 어수리, 곰취나물, 산머루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5) 예천군

예천군의 동북쪽에는 소백산맥의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높이 1,000m 이상의 연봉이 잇따르고, 서남쪽에는 낙동강과 내성천변에 비옥한 평야를 이루고 있다.

(6) 봉화군

봉화군은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은 태백산의 연봉으로 강원도 영월·태백·삼척과 인접해 있으며 도처에 산악이 중첩하고 구릉의 기복이 심하다. 따라서 군내에 태백산(1,568m), 오미산(1,071m), 비룡산(1,129m), 구룡산(1,345m), 삼동산(1,178m), 문주산(1,205m), 선달산(1,236m), 각화산(1,176m), 왕두산(1,044m) 등 1,000m 이상 되는 고봉도 많다. 경치로선 도립공원인 청량산(870m)이 으뜸이다. 수계에서는 낙동강 상류를 형성하고 있다.

봉화군은 산세가 수려하고 전체면적의 83%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정수가 흘러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정지역이 되어 있다.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표고가 높고 평지가 협소한 전형적인 산악지역으로 고랭지 채소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복수박도 유명하다. 고급와인인 봉화머루주도 외국에서까지 인정을 받고 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청량산을 위시한 명산과, 국보 및 보물들이 산재해 있다. 청량산, 오전약수터, 다덕약수터, 청옥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최근 낙동강 급류를 타는 래프팅이 개발되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춘양목송이축제, 은어축제, 승부 눈꽃축제 등이 유명하다. 임산물이 풍부하여 춘양목이 유명하고 소천면의 남해룡지역은 천연림을 형성하고 있다.

(7) 울진군

울진군은 경상북도의 최동북단에 위치하여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북으로는 강원도

삼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은 백두대간 끝자락에 위치하고 통고산(1,066m), 백암산(1,003m) 등 높은 산천을 자랑하고, 불영계곡 등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 많다. 덕구온천 등 유명한 온천이 있고 불영사, 성류굴, 망양정 등 유명한 명소가 많아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송이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2. 스위스

스위스는 북위 45~48도에 걸쳐 있으며, 연방공화국(20개 Canton 및 6개 Half Canton으로 구성)[1] 체제로 면적은 41,293㎢(한반도의 약 1/5)에 해당하며 인구는 740만명(외국인 20%)에 이르는 소규모 국가에 해당한다. 740만명에 불과한 스위스인들이 언어별, 지역별로 확연히 구분된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독어(63.7%), 불어(20.4%), 이태리어(6.5%), 로망슈어(0.5%), 기타(9%)로 다양하며 인구 다수가 사용하는 독어도 독일 독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독특한 어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칸톤별로 철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2]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있으면서 스위스 전체는 조화가 잘 이루어진 한 폭의 그림 같은 나라이다.

이와 같이 스위스는 작은 국가이지만 1인당 GDP 규모는 2003년 43,747 달러로 높은 소득수준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서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별 세계 경쟁력 세계 4위, 행복지수 세계 6위, 노벨상 수상자는 인구 비율로 볼 때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의 <표 3>은 2000년 이후 스위스의 경제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표 3〉 스위스의 경제구조

구분 \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GDP(억 달러)	2,460	2,504	2,765	3,218	3,521
실질 GDP 성장률(%)	3.6	1.0	0.3	-0.3	1.8
인구(백만명)	7.2	7.3	7.3	7.3	7.4
인플레율(년 %)	1.5	1.0	0.6	0.6	0.8
교역규모(10억 달러)	197.5	190.1	194.5	222.6	253.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1) 칸톤 밑에 총 약 3,000개의 읍 면(commun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스위스는 칸톤(州)이 모인 국가이며 연방국가를 이루는 칸톤은 독립성이 상당히 강해서 주마다 법률과 국경일 등도 각각 다르다.

다음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위스는 좁은 국토면적 41,293㎢ 중에서도 농경지와 과수원 등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28%에 불과하며, 나머지가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그리고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국가 이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자원이 부족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스위스는 이러한 자연환경이 스위스 경제를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4〉 스위스의 국토이용 현황

(단위: 천 ha)

전체면적	주택, 시설물, 도로	농경지, 과수원, 목초지	산림	불모지, 빙하, 호수 등
4,129(100%)	176(4%)	1,941(47%) -농경지 및 과수원28% -방목지 20%	1,193(29%)	819(20%) -하천, 호수 4% -빙하, 암석지 16%

자료: 박경석(1998, 99)

오늘날 스위스는 일반인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색 있는 도시들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스위스는 1966년부터 UN 제네바 사무소의 소재지로서 경제 · 사회분야의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하나의 외교센터를 이루고 있다. 인구 18만의 제네바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MO(국제이민기구), WMO(세계기상기구),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GATT에 이어 WTO(세계무역기구)의 본부이기도하다.

그 외에도 로잔느(Lausanne)는 인구 12만의 작은 도시지만 이곳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가 있을 뿐 아니라 약 20개가 되는 각종 스포츠연맹(예: 스키연맹, 체조연맹 등)의 본부가 있다. 스위스의 수도인 인구 12만의 베른(Bern)은 UNESCO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기도 하다. 베른에 가장 오래된 유엔 전문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이 1874년부터 자리잡고 있다. 인구 16만의 바젤(Basel)은 프랑스 및 독일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까지 라인강으로 하천수송이 가능하여 스위스 물동량의 80%가 바젤항구를 통해 반 · 출입되고 있다. 바젤협약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하며, 국제결제은행(BIS)의 본부가 소재한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바젤은 스위스 다국적기업인 Novartis와 Roche라는 대형 제약회사가 소재한 화학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취리히(Zurich)는 스위스의 최대 상업도시이자 인구 34만의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다. 취리히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본부가 위치해 있다. 다보스(Davos)는 조그마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1월 개최되면서 최근에는 약 2,000명의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민간단체 대표들의 참가하여 주요 세계 정치·경제·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인 토론장이 되었다. 이와 같이 스위스는 소규모 도시이면서도 각종 국제기구와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또한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이다. 스위스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승고적은 없지만 국토 전역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산천이 정비되어 있고 도로와 녹지 그리고 집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산과 뜰에 초지로 조성할 곳과 임야로 조성할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초지로 유지하는 곳에는 농부들이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소들이 나무의 싹까지 먹도록 방목을 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활짝 피는 제라니움 꽃을 집집마다 베란다와 창문에 놓음으로써 아름다운 동네 모습을 실컷 뽐내도록 하는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자비로 보조금을 주면서 이를 장려한다.

제3장
경북 북부권 산업현황

1. 농업

(1) 여건

경북 북부권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인 내륙지방에 위치한 대륙성 기후대로써 거의 대부분 지역이 산지로 둘러싸여 연교차와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지리적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평균 고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동·서쪽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 강수량은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절반이 내리는 집중강우 현상을 나타내고 겨울철에는 약 10%의 강수량을 보여 겨울 가뭄이 잦은 편이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산간지역으로 경지면적이 많지 않으며 농경지는 주로 하천 유역과 산기슭의 경사지에 형성되어 있다. 내륙산간지대에 위치하여 위도에 비해 기온이 낮고 연교차와 일교차도 크다. 산악지대에서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저온이라 그루갈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가 커서 고품질의 고랭지 과채류 작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표 5〉 기온 및 강수량

(단위: ℃, ㎜)

구 분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동 기상대	평균기온	11.6	-2.9	1.5	5.7	12.3	17.4	20.3	21.5	22.9	19.7	11.8	8.1	0.4
	강수량	1,579.3	19.5	36.5	38.0	188.4	170.1	158.8	405.4	296.5	187.5	19.0	45.7	13.9
울진 기상대	평균기온	16.9	5.4	7.3	10.8	17.1	18.9	23.6	23.3	26.5	23.9	20.2	15.8	9.5
	강수량	1,778.7	54.4	50.3	58.0	157.1	140.0	165.6	234.6	295.8	328.3	41.0	253.2	10.4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04.

(2) 현황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의 급진전으로 농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지역 농업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모든 시·군의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은 쌀, 고추, 사과, 인삼, 버섯, 고랭지채소, 화훼 등이다.

〈표 6〉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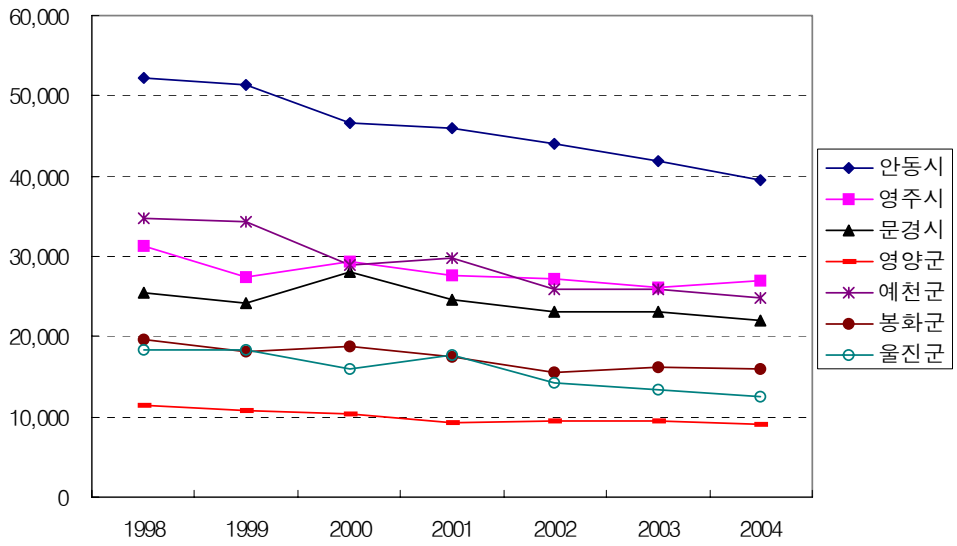
(단위: ha, 가구, 명)

구 분	경 지 면 적(ha)			농가 수	농가인구
	전체	논	밭		
경상북도	291,751	156,777	134,974	212,705	537,447
안동시	20,602	8,279	12,323	15,914	39,558
영주시	14,743	6,652	8,091	9,918	26,927
문경시	11,714	6,287	5,427	8,946	22,093
영양군	6,640	1,805	4,835	3,821	9,029
예천군	18,704	11,975	6,729	10,453	24,755
봉화군	12,421	3,960	8,061	6,493	16,061
울진군	6,353	4,004	2,349	5,255	12,519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04, 통계청,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

〈그림 1〉 경북 북부권 농가인구 추이

(단위: 명)



자료: 통계청, 2004년 농업기본통계조사.

(3) 시 · 군별 농업 개발계획

현재 경북 북부권의 각 시·군은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예컨대 문경시의 경우 지역특화사업으로 문경시 마성면 외어 남호지구 일원에 첨단재배시설과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와 냉동운반차량을 갖춘 버섯재배단지(면적 49,626㎡) 사업과 호계면 우로지구 일원에 저온저장고, 선별장, 집배송시설 등을 갖춘 호계농산물유통단지(면적 55,592㎡) 사업을 추진 중이다.

봉화군은 첨단연구와 농업이 조화된 농업 전원도시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문수산과 청옥산, 청량산을 축으로 삼각구조의 균형개발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화작목 단지 조성, 청정농산물 단지 조성, 대단위 사과수출 종합지구 조성, 축산단지 조성 확대, 한약우단지 조성 확대, 농업개발센타(2000년 완료), 약초시험장 설치(1997년 완료), 첨단 생명공학 연구소 설치,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경지시설·수리시설 대폭 확대, 정주 생활권 개발, 생활·농업용수 개발 확대, 농산물 집하·저장시설 확충, 문화마을 조성 확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전원형 주거환경 조성, 농어촌도로 가로 경관 조성 등이다.

예천군의 경우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농업생산시설 확충 사업, 농촌정주여건 개선 사업, 유통구조 개선 사업, 우수농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 미래지향적인 농업인 육성 사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촉진 사업, 농특산물 시장개척 활성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양군은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사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산지자원화(경제림, 특용수, 강송 등 조림으로 고부가 산림 조성 등) 추진, 산지소득증대(산나물 채취, 송이생산 증대, 산머루 재배, 고로쇠 수액채취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 관광산업

경북 북부권은 수려한 청정 산악자원, 명산, 계곡,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1) 관광지역

관광지는 관광객이 그의 일상생활공간을 떠나서 자신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정시간 동안 체제하는 지역이다. 즉 관광지란 지리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관광공간을 말한다. 현재 경북 북부권의 주요 관광지는 다음의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 경북 북부권 주요 관광지 현황

시·군	주요 관광지
안 동 시	하회마을, 도산온천, 안동댐, 임하댐,
영 주 시	영주순흥, 풍기온천, 부석사
문 경 시	문경온천, 문경상리
영 양 군	선바위와 남이포
예 천 군	예천온천, 회룡포
봉 화 군	오전약수탕, 다덕약수탕, 백천계곡
울 진 군	백암온천, 성류굴

경북 북부권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인 하회마을(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은 170세대가 거주하고 290동의 건물이 있으며, 전체가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국내외의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1999년 4월 엘리자베스Ⅱ 영국여왕이 73세 생일을 기념하여 방문하였으며 'Wonderful Andong' 이라며 감탄한 세계적 문화마을이다. 이 마을은 풍산류씨가 대대로 살아오던 전형적인 집성촌으로서 조선시대의 대유학자 겸암 류운룡 선생과 서애 류성룡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마을 앞쪽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깎아지른 부용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울창한 노송 숲이 절경을 이룬다.

회룡포(예천군 용궁면 대은리)는 물도리 모양으로 강이 둥글게 회전하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성천에서는 맑은 강과 넓은 백사장, 마을 곳곳의 울창한 숲의 풍경을 볼 수 있다. 회룡포는 인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의 모습이다.



〈그림 2〉 회룡포

백천계곡(봉화군 석포면 대현리)은 태백산에서 발원한 해발 650m 이상의 고원을 길게 걸쳐 흐르면서 만든 계곡이다. 주변의 산들과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어 경관이 아름답고 열목어가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곳이다.



〈그림 3〉 백천계곡

선바위와 남이포(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는 유유히 흐르는 반변천과 동천이 만나 큰 강을 이루는데 이 곳의 강변을 남이포라 하고, 그 옆으로 선바위가 있다. 깨끗한 조약돌과 부드러운 모래가 깔린 넓은 백사장으로 여름철 피서지로 좋다.



〈그림 4〉 남이포

부석사(영주시 부석면 북지리)는 676년 의상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펴던 곳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가운데 하나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조사당, 소조여래좌상, 조사당벽화, 무량수전 앞 석등과 같은 많은 문화재가 있다. 그 외에도 영주 순흥마을, 도산서원 등을 비롯한 유명 관광지가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그림 5〉 부석사




〈그림 6〉 영주순흥



〈그림 7〉 도산서원

(2) 관광자원

경북 북부권의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태백산과 소백산 등의 명산, 깊은 계곡과 물, 온천과 호수, 자연림 등 자연자원과 유불문화의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유적, 그리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가진 다양한 축제와 향토음식 등을 들 수 있다.

(가) 공원

먼저 국립공원인 월악산, 소백산을 비롯하여 문경새재와 청량산 도립공원과 같은

명산들은 1,000m 이상으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경관이 뛰어나다. 또한 백두대간 이남에 위치하여 20년 이상된 원시림 지역으로 자연 생태계가 매우 우수하고 열매·나물 등이 풍부하여 야생동물의 먹이 공급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험준한 지리·지형적 특성으로 인위적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조건으로 최적지이며, 산 능선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야생 동식물의 이동과 번식 등 생태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표 8〉 공원 현황

명칭	위치	면적	주요자원 및 시설
월악산(국)	문경시 동로면	77.8	황장산, 문수봉, 하늘재
소백산(국)	영주시, 봉화군	172.3	소백산, 비로봉, 연화봉, 국망봉, 희방사, 희방폭포, 부석사, 철쭉, 주목
문경새재(도)	문경시 문경읍	5.3	조령관문, KBS 촬영장, 새재, 주흘산, 박물관
청량산(도)	봉화군, 안동시	48.8	청량사, 문명산, 김생굴
불영계곡(군)	울진군 울진읍, 근남·서면	25.1	불영계곡, 불영사
덕구온천(군)	울진군 북면	6.1	덕구온천, 계곡

관광자원이 풍부한 문경새재(문경시 문경읍 상초리)는 백두대간의 고산준령이 병풍처럼 이어져 천험의 요새인 조령은 제1관문에서 새재계곡을 따라 제3관문까지 이어진다. 영남대로로서 '영남'이란 명칭도 조령의 남쪽지방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그림 8〉 문경새재(좌), 소백산(우)



〈그림 9〉 청량산



〈그림 10〉 울진 일출

(나)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등

경북 북부권은 공원 외에도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등 각 시·군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특산물이 생산된다. 다음의 <표 9>는 시·군별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등 주요 관광자원을 나타낸 것이다.

〈표 9〉 온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해수욕장, 특산물 현황

구 분	주요 관광자원	특산물
안동시	■ 온천: 도산온천 ■ 관광농원: 하회, 가람, 백운, 목석 ■ 자연휴양림: 계명산	안동소주 하회탈
영주시	■ 온천: 풍기온천 ■ 관광농원: 장수, 소백산 ■ 자연휴양림: 옥녀봉	풍기인삼
문경시	■ 온천: 문경온천 ■ 관광농원: 쌍용 ■ 자연휴양림: 불정	도자기 호산춘(민속주)
영양군	■ 관광농원: 수비, 일월산 ■ 자연휴양림: 검마산, 송방	고추
예천군	■ 온천: 예천온천 ■ 자연휴양림: 학가산우래	각궁(활)
봉화군	■ 자연휴양림: 청옥산	송이버섯
울진군	■ 온천: 덕구온천, 백암온천 ■ 해수욕장: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덕신, 구산, 후포 ■ 관광농원: 백암산, 학고을, 무릉도원, 왕피천 ■ 자연휴양림: 통고산, 구수곡	대게 복수박 고포미역

(다) 문화재

다음의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는 유불문화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5년 6월 현재 177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261개의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200개의 문화재자료가 분포해 있다. 국보로는 안동의 봉정사극락전(제15호), 안동신세동칠층전탑(제16호), 하회탈 및 병산탈(제121호) 등과 영주의 부석사무량수전앞석등(제17호), 부석사무량수전(제18호), 부석사조사당(제19호), 부석사소조여래좌상(제45호), 회헌영정(제111호)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안동시에서는 도산서원, 퇴계종택, 오천문화재단지를 하나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 10〉 지정문화재 현황

시·군	계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사적및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전국	9,947	3,071	308	1,446	466	9	16	464	117	245	4,752	2,413	367	1,641	331	2,124
경북	1,627	543	52	263 (2)②	96	3	2	56	10 (2)	61 (1)	610	325 ②	26	135 ③	124	474
안동	274	73	4	34	2			6	2	25	128	62	5	16	45	73
영주	95	35	7	21	3			3		1	37	25	1	4	7	23
문경	51	14		8(1)	1			3	2		20	13	1	6		17
영양	45	6	1	2				2		1	16	7		4	5	23
예천	71	21		16				2	1(1)	2	27	18	2	2	5	23
봉화	79	15	1	8	1	1		1		3	30	14	1	2	13	34
울진	23	13	2	4			1	6			3	2		1		7

주: ( )내는 동일 문화재가 타 시도와 분산지정된 건수이며, ○내는 시군간 분산지정된 건수임.
자료: 문화재청, 2005년 9월 30일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과, 2005년 6월 20일 현재

(3) 관광상품

각 시·군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향토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들도 개발되어 있다.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다음 <표 11>과 같다.

경북 북부권의 대표적 축제들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영주풍기인삼축제, 봉화춘양목송이축제 등 다양하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전통춤들이 펼쳐지는 대회로 국내외 탈춤공연 및 민속축제, 인형극제, 관광객 참여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3] 영주풍기인삼축제는 신비의 영험으로 가득한 인삼축제로 인삼으로 만든 요리와 직접 캔 인삼도 싼 값에 살 수 있다. 봉화춘양목송이축제는 송이채취 체험행사를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매년 열린다. 송이골 봉화에서 그윽한 송이향과 맛, 자연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다.

3) 2005년 제9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83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릴 만큼 성황을 이루었고, 국제민간예술교류협회(IOV)로부터 185개 회원국 전통축제 중 '올해 최고의 축제'로 성정되기도 하였다.

〈표 11〉 주요 향토문화행사 현황

시·군	행사명	시기	주요 행사 내용
안동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민속축제	9월말~10월초 9월말~10월초	·탈춤마당, 하회마을축제, 전시행사, 참여마당 등 ·전야제, 민속행사, 전통민속체험행사 등
영주시	·풍기인삼축제 ·소백산 철쭉제	10월초 5월말	·인삼캐기, 우량인삼선발, 인삼요리경연 등 ·철쭉꽃길걷기, 장승깍기, 죽령옛길걷기 등
문경시	·한국전통찻사발축제 ·마운틴페스티벌	4월말~5월초 8월말	·전통 찻사발 및 도자기 명품전, 제작 체험 등 ·새재 맨발걷기대회, 산악마라톤, 산악영화제 등
영양군	·영양고추문화축제	9월~10월	·고추따기경연대회, 용놀이, 고추요리 시식회 등
예천군	·예천문화제 ·민물고기잡이축제	10월 중순 8월초	·제등행진, 전통생활도구만들기. 국궁대회 등 ·민물고기잡이체험, 수중달리기, 가훈써주기 등
봉화군	·봉화춘양목송이축제 ·청량문화제 ·은어축제	9월말~10월초 9월말 8월초	·송이채취체험행사, 농특산물전시판매, 전시행사 ·백일장, 놋다리밟기, 전통혼례 재현, 전시회 등 ·은어잡이체험, 야간고기잡이, 토속민물고기전시
울진군	·백암온천제 ·성류문화제	8월 중순 10월초	·온천수신제, 전통주시음회, 향토특산품판매 등 ·성류제향,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백일장 등

자료: 각 시군 홈페이지

또한 주요 체험관광상품으로는 도자기제작, 봉화 래프팅 등이 있다. 도자기제작 체험은 문경도예촌 황담요, 주흘요에서 가능한데, 전통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관람하고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다. 봉화 래프팅(매호 유원지)은 봉화군 명호면 낙동강에서는 청량산의 경관 감상과 함께 낙동강의 급류를 타며 하얗게 쏟아지는 물보라 속에서 모험과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다.

주요 생태관광 상품으로 울진 민물고기전시관은 사라져가는 민물고기를 연구하고 지켜가는 곳이다. 민물고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민물고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교육학습장이 되고 있다.

(4) 시·군별 관광개발계획

경상북도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풍부한 유교문화자원을 발굴·계승하여 세계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나가고, 지역의 전통 유교문화 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개발하여 고부가가

치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0년 ~ 2010년(11년간) 총 사업비 18,681억원(국비 4,207, 지방비 4,595, 민자 9,879)를 투입하여 8개분야 189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대부분 관광지 개발, 관광지 정비, 진입로 확보, 주차장, 안내표지판,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담장 및 화장실 정비 등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계획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 시·군별로도 다양한 관광개발전략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영주시의 경우 2007년까지 종합온천휴양단지 조성, 2011년까지 소백산웰빙테마파크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경시는 갈전휴양단지조성, 진남교반 위락휴양단지 조성, 구랑관광농업단지 조성, 외어골프장 조성, 문경온천지구개발, 용연스키장, 각서스키장, 완장스키장, 새재종합휴양단지 조성, 문경새재청소년수련원, 가은모산동굴개발, 견훤유적지개발, 고요리관광휴양단지조성, 가은 종합휴양단지조성, 마성 고정 수렵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개발계획이 전체적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개별 건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경북 북부권 각 시·군의 관광지 및 관광상품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결국 이런 형태의 관광개발 계획은 외지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해당 시·군민의 여가나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3. 기타 산업

경북 북부지역은 특용·약용작물과 과채류의 최대산지로서 바이오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방·바이오산업이 발달해 있다. 최근 경상북도는 상주-안동-울진 첨단바이오벨트 구축 장기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을 농생물·한방을 포함한 기능성식품 바이오농업 분야 중점육성 지역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그림 11〉 풍기인삼

울진군에서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개최한 '2005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는 25일간 세계 28개국이 참가하여 친환경·유기농 관련 전시, 체험, 학술, 상품개발, 주제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람객이 70만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풍기 일대는 섬유직물업이 발달해 있다.

4. 스위스의 산업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민간주도형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국내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즐비하다. 이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시장을 존중하는 작은 정부에 있다. 즉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농업 부문은 특별 보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은 극도로 기피해 왔다. 규제가 없다보니 스위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식품, 서비스 관련 산업, 정밀기계, 화학, 섬유산업 등 5개 산업 클러스트(Mega Cluster)를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했다. 최근에는 바젤, 베른 지역을 중심으로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IT분야의 새로운 클러스트가 형성되고 있다.

스위스의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88%는 10명 이하의 미니 기업이다. 이들 스위스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기업은

생산의 90% 이상을 수출한다. 주된 수출품은 물, 초콜릿, 치즈 등이며, 화학 등 제조업 분야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나 생산시설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였다. 스위스 수출의 주영역은 micro, high, biotechnology, 은행과 보험의 노하우 등이며, 미래 성장산업으로는 biotechnology와 분자생물(molecular biology) 분야가 빠른 성장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농업과 전통산업의 비중은 축소된 대신 서비스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3년 서비스분야는 총고용의 72%를 차지하며, 제조업과 공예 분야가 약 24%, 농업과 삼림은 4%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로 농업 일자리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25% 감소하였다.

스위스는 경작지가 전국토의 1/4 미만이며, 농업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다. 농업부분의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가공식품 산업으로 초콜릿, 치즈 및 유아식품 등이 4/5를 점하고 있다. 즉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악지대에선 경제성 있는 광물자원이나 농업자원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여름이 짧고 서늘한 관계로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아 농촌에선 대게 비탈마다 넓은 초지를 조성하고 소를 키워 우유와 치즈를 생산하는 정도이다.

스위스의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스위스 농업의 특징중 하나는 산지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체 농가의 40%가 산지에 살고 있고 전체 농지의 38%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여건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사회의 유지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스위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위스에서 관광산업은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2003년 외국인 방문객이 126억 스위스 프랑을 지출하였고, 스위스 국내 관광객이 96억 프랑을 지출하였다. 관광산업은 도시지역 보다 산간지역 비율이 훨씬 높다. 주요 관광상품으로는 산아래 열차, 삶의 원천이고 스위스의 유일한 자연자원인 물, 그리고 알프스 산과 겨울 등 자연자원이다. 알프스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관광산업은 전통적으로 강하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다. WTO에 따르면 스위스는 2003년 세계에서 17번째 관광수입이 많은 나라이다.

경제가 성숙하여 GDP의 70%는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창출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스위스 경제와 산업을 떠받치는 대들보 노릇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수준이 높아 고부가가치의 기계 수출이 세계 3위의 수준으로서 정밀기계, 금속가공기계, 발전 및 선박용 터어빈, 인쇄기기, 사진재료, 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제조 부문이 우수하다. 그 외에는 광학기기, 발전설비, 환경보전설비 및 정밀측정기기의 제조도 뛰어나다. 또한, 노동력의 10%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산업은 개발비용의 꾸준한 투자로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계제조업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위스 실질 순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수출도 많은 양을 차지한다.

스위스의 시계산업은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해 전세계 고급시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스위스 시계는 연간 약 1억개 생산해 그중 95%를 수출하여 세계 시장의 13%, 아시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시계 제조업으로 출발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오랜 기간 장인정신을 담은 제품을 만들며 축적해온 정밀가공기술에 전자공학을 결합하여 이를 의료기기에서 우주비행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면서 각종 첨단 정밀산업기술의 선도자로 성장하였다. 한편 제조업 중 금속가공, 섬유, 의류산업 등은 고용 및 채산성에서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 보험업 분야에서는 스위스은행의 신중성과 철저한 고객비밀보장은 많은 예금을 유치하여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으며, 현재 스위스 국내 총생산액의 13.6%를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

제4장
경북 북부권 산업의 발전방안

경북 북부권의 산업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타 지역과의 차별화, 지역 현실을 고려,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북 북부권의 뛰어난 자연경관, 청정 수자원, 맑은 공기를 잘 보전하는 한편 환경정비시설을 스위스 식으로 완비하는 등 향후 10~100년의 장기간에 걸친 방전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농업과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바이오산업, 식품가공, 의료·실버산업, 문화산업, 생수산업, 청정공기산업, 스포츠산업, 정밀기계산업 등 환경친화적 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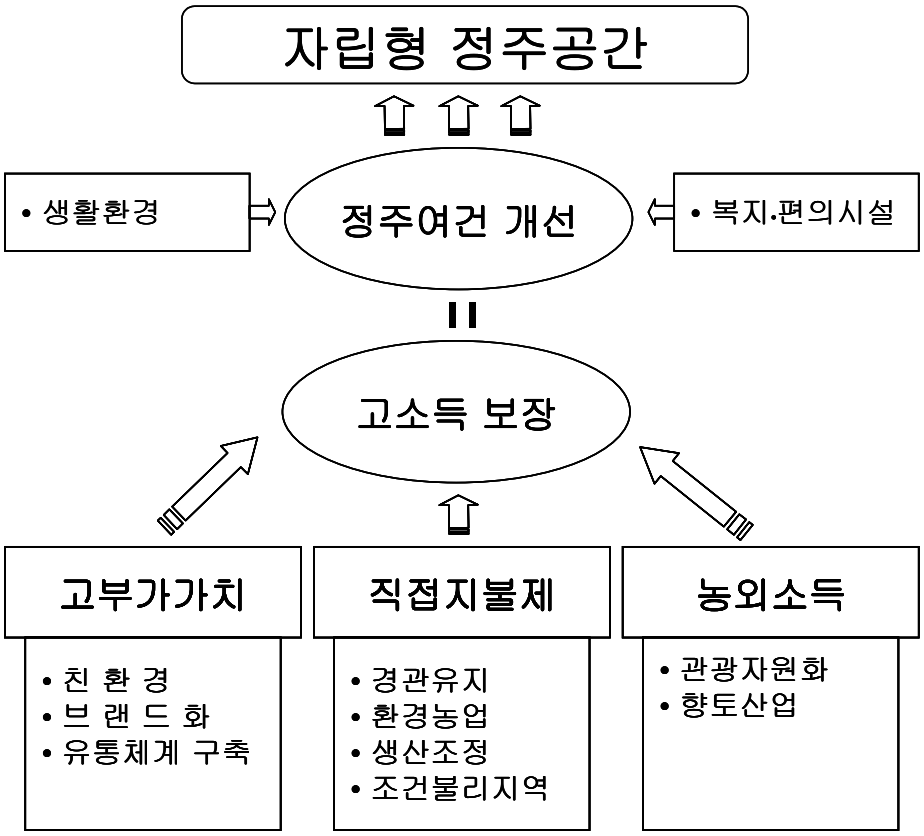
(1) 농업 발전방안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토·환경보전, 자연경관의 형성, 지역사회 유지 기능 등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 북부권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이며, 농업 발전에 있어서도 지형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한다. 조건불리지역이 개발에서 낙후된 대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풍부한 자연환경 자원을 잘 보전하며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가) 농작물의 고부가가치화

경북 북부권은 지형조건상 청정 고랭지 작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지역

의 주요 생산물인 쌀, 사과, 인삼, 버섯, 고추, 고랭지 약초, 고랭지 채소의 친환경고품질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농업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또한 지역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단순화하고 농촌 정보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등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 역시 중요하다.



〈그림 12〉 경북 북부권 농업발전의 기본 구상

(나)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WTO와 FTA 확대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환경보전, 자연경관 형성, 관광산업 등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 농업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다. 농림부는 2005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등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시작단계이며, 직접지불을 위한 예산규모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다.[4] 예컨대 2002년 한국의 농업예산 중 직접지불예산 비중은 7%에 불과하여 미국의 36%(2001년), EU의 70%(2001년), 일본의 13%(2001년)에 비해 소규모이다.

DDA 이후 쌀수매제, 최저가격보상제 등의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경북 북부권의 농업 발전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경관보전직접지불, 환경농업 직접지불 등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제의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며, 이러한 농촌경관을 관광자원화 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하도록 하여 농촌이 자립형 정주공간으로 탈바꿈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2) 스위스 사례

스위스는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산지농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전체 농가의 40%가 산지에 살고 있고, 전체 농지의 38%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스위스 농업의 기본목표는 평상시 및 비상시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유지하며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민의 소득이 높은 수입세, 임시비용, 수입금지에 의해 보장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수출보조금으로 사용되는 등 가격정책을 통해 지지되었고, 농민은 연구, 상담, 교육을 통하여 경영과 생산기술에 대해 도움을 받았다. 이런 농업정책의 결과 농업 분야의 과잉생산

4) 농림부는 농촌의 경관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마을단위로 집단화하여 경관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중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농가별로 지급하는 '200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 470ha를 대상으로 170천원/10a(국고 70%, 지방비 30%)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6 ~ 2013년까지 총 20,860ha에 37,16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 이에 따른 수출의 증대로 더 많은 보조금이 요구되었고, 농약과 비료, 목장의 증가 등으로 오염이 증가하였다.

이에 1992년 농정개혁 이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지지 수준을 낮추어 나가고, 그에 따른 농가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완하는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농가에 재정을 지원하는 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1998년 초 새로운 농업법이 통과되었고, 생산방법 및 생산지에 따른 상표달기, 판매촉진을 위한 질적 기준 설정, 농장당 가축의 상한선 설정, 친환경 야채 및 과일 생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인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스위스의 직접지불제는 소득보상 직접지불, 환경농업 직접지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생산조정 직접지불, 사회정책 직접지불 등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펜타곤 시스템(Pentagon System) 이라고도 한다. 소득보상 직접지불은 UR 이후 가격지지정책의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상하기위해 지불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농업 직접지불은 환경농업 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부족분 또는 비용초과분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써 환경친화적 농업, 동물애호적 축산, 환경농업적 조성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구릉 및 산악지역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1959년 처음 도입되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가축사육 비용지원, 경사지 지원, 여름철 방목축산 지원으로 구분된다. 생산조정 직접지불은 시장가격의 하락에 대응한 우유판매량의 제한과 경작지의 농업용 이용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업용 원료생산 지원금, 녹지 휴경 지원금, 사료곡물 및 콩과작물에 대한 지원금, 낙농지원금 등으로 세분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 직접지불은 사회정책의 목적으로 영세농과 농업노동자에 대해 자녀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관광산업

(1) 관광산업 발전방안

백두대간의 경북지역에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황악산, 태백산 등이 도간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생태학적 가치가 큰 청정지역으로서 많은 천연림과 습지가 분포되어 있다. 태백산, 소백산 일원은 고산 초원지대가 분포되어 있는 생태학적 보고이며,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문경새재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연생태가 우수한 경북 북부권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활동을 촉진하고, 자연관광지와 문화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백두대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인문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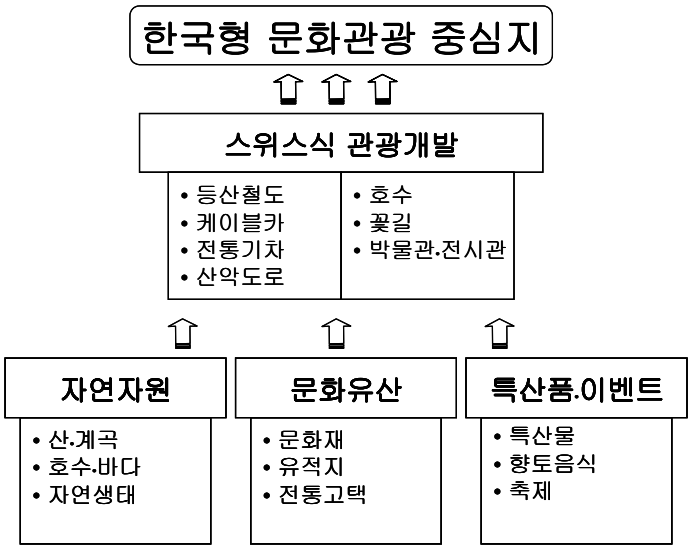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발전방안의 기본원칙은 지역특성에 맞는 산악관광과 자연·생태관광의 조화를 통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찾을만한 곳으로 만들고 체류기간을 늘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유교문화와 천연자연 자원이 어우러진 한국형 문화관광의 중심지, 숲·물·꽃·전통이 어우러진 전통문화관광지의 이미지 강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의 확립, 특산품·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등을 특성화 하여 스위스 식 관광개발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보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10~100년간 스위스 같이 기간을 두고 가꿀 필요가 있다. 먼저 경북 북부권의 각 시·군지역에 10경, 10명소, 아름다운 호수·강변(강여울)·해변 1~5개 정도씩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스위스 수준의 세계적 경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의 빼어난 경치 12곳(①가지산 사계, ②간전곳 일출, ③강동 주전 해안 자갈밭, ④대왕암 송림, ⑤대운산 내원암 계곡, ⑥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 야경, ⑦문수체육공원, ⑧반구대, ⑨신불산 억새평원, ⑩작괘천, ⑪태화강 선바위와 심리대밭, ⑫파레소 폭포)을 '울산 12경'으로 선정하고 사진을 곁드린 관광안내 팸플릿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박물관·전시관 등도 10개 이상 건립하여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관광객들이 자고가고 쉬어가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더불

어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도 중요하다. 예컨대 갤러리, 산상콘서트홀, 대학하계연수장, 대기업하계연수원 등의 건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특산품,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축제 등을 특성화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경북 북부권이 동양의 스위스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스위스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위스 축제는 각 시·군이 교대로 매년 개최하되 경상북도, 관광공사, 스위스대사관 등의 기관이 축제를 지원하도록 한다. 스위스 축제에서는 스위스주간(週間)행사도 병행하도록 한다. 즉 스위스 영화 상영(하이드, 페스탈로치, 윌리엄텔), 스위스 민속극·춤 공연, 스위스 페스티벌(와인페스티벌, 맥주페스티벌, 초콜릿페스티벌),[5] 스위스고원 아름다운 꽃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위스보다 더 나은 축제, 아시아의 명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3〉 경북 북부권 관광개발의 기본 구상

5) 칭다오(青島)는 언덕이 많은 항구도시로 중국인들은 '중국의 스위스'라고도 부른다. 1898년 독일의 조차지가 되면서 칭다오맥주가 설립되었고, 현재 전통 독일식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도시이다. 칭다오 맥주페스티벌은 1991년부터 매년 8월에 개최되는데, 세계의 주요 맥주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명물 축제가 되었다. 칭다오 맥주페스티벌에서는 맥주 이외에 문화예술, 오락, 경제교류 등의 행사도 같이 개최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발전방안의 하나로써 스위스식 관광개발을 추구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 북부권의 스위스식 관광개발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위스와 같은 등산철도, 케이블카, 전통기차, 아름다운 호수, 꽃길, 박물관·전시관, 산악도로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가) 등산철도

경북 북부권의 지형적 특성상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을 등산철도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역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등산이나 하이킹을 즐기면서 필요한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철도를 이용하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서 모두 정차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객들이 등산철도를 많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이용에 따른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주변지역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등산철도는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고, 높고 험한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 열차 안에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가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 열차들과 같이 관광객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3면을 유리로 만들고, 속도는 느리면서 운행구간은 길게 설계하여야 한다. 경북 북부권에서 등산철도를 설치·운행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① 안동역~정선 카지노 구간

안동역 ⇔ 안동민속촌, 안동민속박물관 ⇔ 안동호 ⇔ 도산서원 ⇔ 도산온천 ⇔ 청량산(도립공원, 낙동강시작, 은어서식지) ⇔ 이나리 래프팅 ⇔ 명호(도천) ⇔ 임기 ⇔ 현동 ⇔ 승부(낙동강, 눈꽃축제) ⇔ 청옥산, 백천계곡 ⇔ 열목어서식지 ⇔ 태백산 ⇔ 황지, 황지연못 ⇔ 카지노

② 문경~충주 구간

문경(점촌) ⇔ 문경 시멘트공장 ⇔ 문경온천 ⇔ 조령제3관문 ⇔ 왕건세트장 ⇔ 조령제2관문 ⇔ 조령 ⇔ 미역봉 ⇔ 지름재 ⇔ 닷돈재휴게소 ⇔ 송계계곡 ⇔ 송계휴게소 ⇔ 충주호 월악산 선착장 ⇔ 북한강 ⇔ 충주호 ⇔ 충주

③ 영주~오전약수터 구간

영주 ⇔ 안정 ⇔ 풍기, 인삼재배지, 동양대학교 ⇔ 풍기온천 ⇔ 희방사 ⇔ 죽령재 ⇔ 소백산천문관측소 ⇔ 제1연화봉 ⇔ 국망봉 ⇔ 부석사, 무량수정(최고목조건물) ⇔ 호수, 명물 머루주생산지 ⇔ 오전약수터

(나)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등산철도와는 달리 특정 지역의 경관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높고 험한 산을 등산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편도 케이블카와 차별화하여 정상을 넘어 왕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 북부권에서 케이블카를 설치·운행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① 문경

조령제3관문 ⇔ 왕건촬영세트장 ⇔ 조령제2관문 ⇔ 조령 ⇔ 미역봉 ⇔ 지름재 ⇔ 닷돈재휴게소 ⇔ 송계계곡 ⇔ 송계휴게소 ⇔ 충주호 월악산 선착장

② 청량산

안동민속촌, 안동민속박물관 ⇔ 안동호 ⇔ 도산서원 ⇔ 도산온천 ⇔ 청량산(도립공원) ⇔ 이나리 래프팅 ⇔ 명호(도천)

스위스의 글라시에르 3000(Glacier 3000) 케이블카는 125인승 골돌라로 해발 1,546m의 피용 고개에서 2,944m의 레디아블로레 역까지 2구간을 약 20분에 연결한다. 깍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단숨에 올라가는 박진간과 바닥까지 유리로 만들어져 웅대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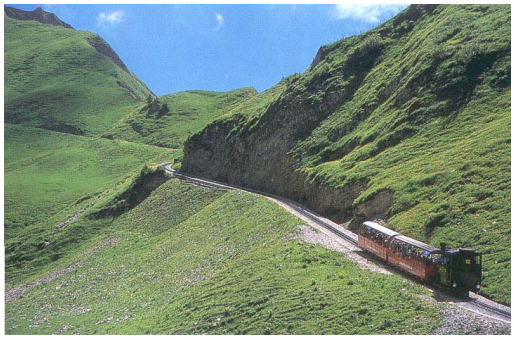


〈그림 14〉 글라시에르 3000 케이블카

(다) 전통기차(모노레일 운행도 고려될 수 있음) - 환상선으로 운행

경북 북부권의 각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전통기차를 설치·운행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이동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머무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철도를 이용하여 다른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고, 기차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전통기차를 이용한 관광과 이동의 편리성은 관광객들의 지역내 체류기간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경북 북부권에서 전통기차의 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평해 ⇔ 월송정(동해 시작) ⇔ 기성 ⇔ 망향휴게소 ⇔ 덕산 ⇔ 성류굴 ⇔ 왕피천어귀(연어회귀강) ⇔ 울진엑스포장, 민물고기전시관 ⇔ 망양정 ⇔ 울진 ⇔ 죽변(동해) ⇔ 덕구온천(군립공원) ⇔ 불영계곡 ⇔ 불영사 ⇔ 왕피천계곡(상류) ⇔ 수비(영양), 장수포천, 관광농원 ⇔ 백암온천 ⇔ 남대천 ⇔ 평해




〈그림 15〉 로트호른 철도(Rothornbath)

(라) 호수

경북 북부권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맑고 아름다운 호수를 가꾸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호수 주변을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호수 주변에서 쉴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캐나다 벤푸 국립공원의 루이스 호수, 스위스 루체른의 백조의 호수와 같은 호수를 조성한다.

아름다운 호수 조성방법은 먼저 안동호, 임하호를 아름다운 호수로 개발하고, 다음으로 각 시·군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시·군별로 아름다운 호수를 1 ~ 5개 정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동호, 임하호를 아름다운 호수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① 호수 주변에 아름다운 수종의 꽃, 풀 등으로 새로이 조림을 추진한다.
② 호수 둘레에 일본 닛꼬의 '쥬젠지(中禪寺)' 호수처럼 산책·드라이브 도로를 개설한다. 이 도로에는 보행자와 전기자동차 같은 무공해 자동차, 자전거 등 만이 통행토록 한다.
③ 이 도로 주위에 꽃길을 조성한다.
④ 이 도로 주위에 수목원, 식물원, 전통박물관, 미술관, 야외 연주시설 등을 유치한다.
⑤ 호수를 스위스 식으로 청정수원을 유지하여 식수에 지장이 없도록 호수 수질·환경 관리원을 둔다.

시·군별 아름다운 호수 개발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군별로 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아름다운 호수를 1 ~ 5개 정도 조성하거나 새로이 건설한다.
② 호수 주변에 식수 등도 경관에 맞게 수종을 새로이 선택 추진한다.
③ 필요할 경우 전망대, 꽃길, 산책로 등을 건설한다.
④ 필요할 경우 수목원, 식물원, 전통박물관, 미술관, 야외연주시설 등을 유치한다.
⑤ 호수 수자원을 청정수원으로 관리하고 수목 등을 경관에 맞게 보호·육성하도록 한다.
⑥ 호수 주변에 휴양병원 등 휴양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
⑦ 장기적(10년 이상)으로 추진하되 각 시·군에 세계적인 경관이 되는 아름다운 호수가 1개 이상 나오도록 추진한다.

(마) 꽃길

경북 북부권의 주요 관광지 주변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특색 있는 꽃길 및 가로를 조성하여 북부권 전역이 그림과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한다. 꽃

길의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경관작물과 어우러져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여야 한다.

꽃길의 통행은 보행자, 자전거, 비공해성 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의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매연가스를 발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을 제한하거나 통과요금(비거주자의 경우)을 징수할 수 있다. 경북 북부권에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① 영주~울진 구간

영주 ⇔ 문단, 내성천 백사장 ⇔ 해저, 의성김씨 종택 ⇔ 봉화(민속박물관) ⇔ 유곡(석천정, 청암정, 안동권씨 종택, 유물관) ⇔ 창평호수, 송이요리, 송이 체험장, 다덕약수터, 농산물판매장 ⇔ 법전 ⇔ 춘양, 춘양목자생지 ⇔ 녹동, 농산물판매장 ⇔ 노루재, 왜군격퇴전적비, 농산물판매장 ⇔ 현동, 은어서식처 ⇔ 분천 ⇔ 옥방광산(역사박물관) ⇔ 불영사 ⇔ 불영계곡(군립공원) ⇔ 망양정, 왕피천(연어회귀강) ⇔ 울진

② 봉화~안동 구간

봉화 ⇔ 물야 ⇔ 머루주 와인 생산지, 호수 ⇔ 오전약수터 ⇔ 서벽, 약수터 ⇔ 춘양, 춘양목자생지 ⇔ 소천(召川) ⇔ 수탉 생태지 ⇔ 삼동 ⇔ 낙동강 전망대 ⇔ 도천 ⇔ 이나리 래프팅 ⇔ 청량산 ⇔ 도산 ⇔ 도산온천, 도산서원 ⇔ 안동호 ⇔ 안동, 안동민속촌, 안동민속박물관

③ 예천~단양 구간

예천, 청포묵 ⇔ 우계 ⇔ 대처 ⇔ 우곡 ⇔ 저수지 ⇔ 소백산관광목장 ⇔ 올산 ⇔ 직치, 사인암 ⇔ 단양팔경 ⇔ 북한강 ⇔ 단양

(바) 박물관 · 전시관

지역의 문화유산, 유물, 명물 등을 대상으로 민속박물관, 유물박물관, 농업박물관 등 10개 이상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자고가고 쉬어가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

국의 경우 그랜드 캐넌 등 관광지역에 실제 큰 특색이 있는 갖가지 박물관(인디언 민속박물관 등)을 다수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그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여 지역주민의 관광소득을 높이고 있다.

(사) 산악도로

미국 북부 캐나다 벤푸 국립공원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몬타나 주의 글래셔(Glacier)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산악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호수와 산, 원시형의 울창한 삼림, 멀리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빙하, 빽빽한 숲, 그리고 호랑이, 곰, 산양 등 야생동물, 그리고 잘 닦여진 산악도로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명물을 이루고 있다. 경북 북부권에도 미국 글레셔의 산악도로나 스위스의 산악도로 같이 아름다운 산악도로를 개발하여 국내·외적으로 이를 즐기려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위스 사례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인 알프스산과 호숫가 휴양지의 개발 및 등산, 겨울 스포츠 시설 등으로 관광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관광이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2003년 관광수입액은 222억 프랑에 달하며, 세계에서 19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나라이다. 또한 관광산업의 발달로 스위스 노동력의 1/12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국가로서 산림을 잘 가꾸고 보전함으로써 국토 보전기능을 유지하고 아울러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하여 상당한 관광수입을 올리는 대표적인 나라 중의 하나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자, 또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인접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랍 부호들의 사치스런 별장지역도 있다. 강원도 용평과 같은 규모의 스키장이 100개를 훨씬 넘는 스키 천국이기도 하다.

스위스의 관광산업을 대표할만한 것으로는 알프스에서의 하이킹, 빙하특급과 등산철도,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곳에 피어나는 꽃들, 박물관·전시관, 호수와 온천, 치즈와 와인 같은 맛있는 음식, 시계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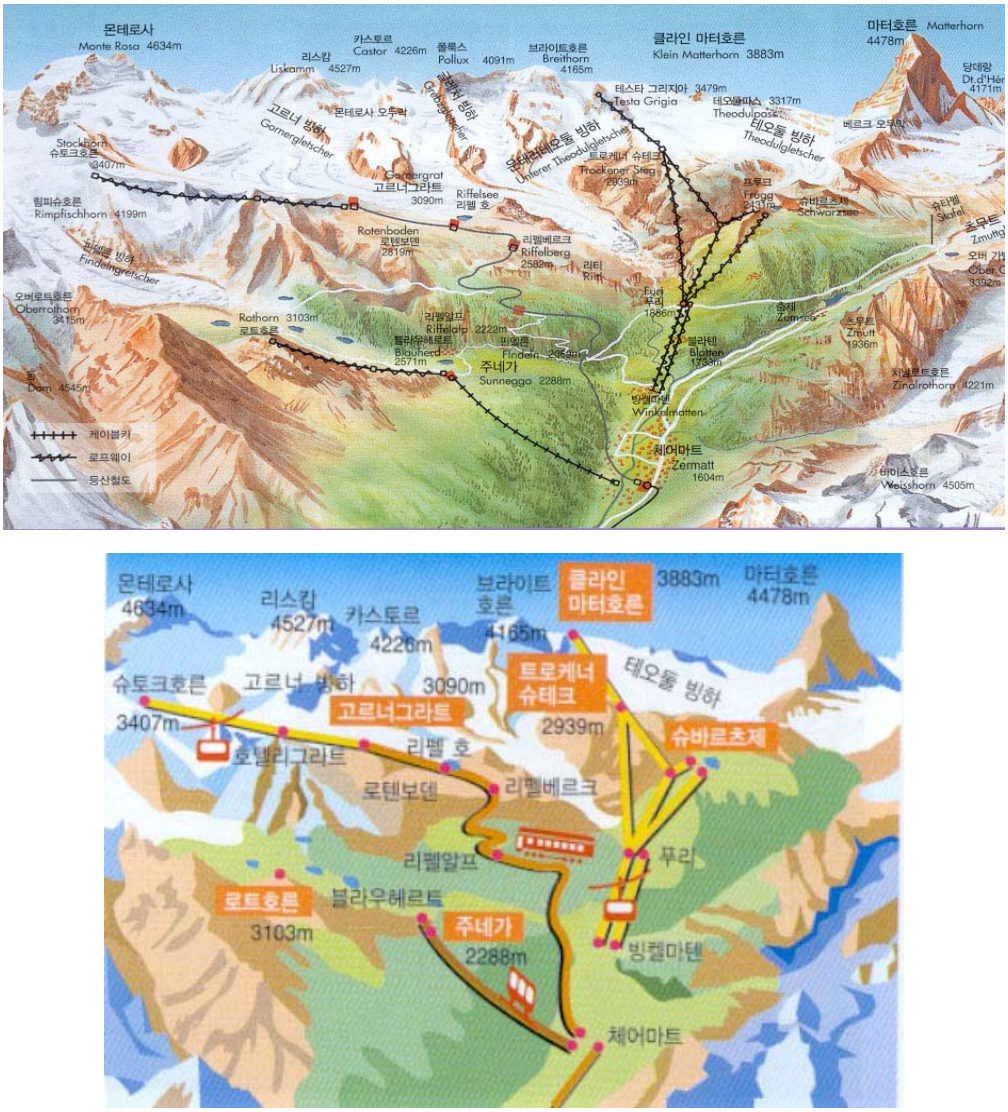
(가) 알프스의 6대 명산

스위스 관광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알프스의 산들이다. 알프스의 왕자라 불리는 마터호른(Matterhorn: 4,478m)을 비롯해 유럽 최고봉인 몽블랑(Mont Blanc: 4,807m), 아이거(Eiger: 3,970m), 뮌히(Monch: 4,099m), 융프라우(Jungfrau: 4,159m)의 3산에 스위스 최고봉인 몬테로사(Monte Rosa: 4,634m)를 더한 6대 명산은 지구의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들 중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 3산의 산등성이를 나란히 하고 있는 세 봉우리의 모습은 알프스를 대표하는 풍경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2001년 12월에는 이 3산을 포함한 융프라우 지방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었다.[6] 이들 명산에서는 빙하, 하이킹, 파노라마 전망대, 스키 등을 즐길 수 있다.

대표적인 전망대로는 베르너오버란트(Berner Oberland), 체어마트(Zermatt), 자스페(Saas-Fee), 장크트모리츠(St. Moritz), 필라투스(Pilatus), 리기 등이 있다. 베르너오버란트(Berner Oberland)는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 3산 등, 알프스를 대표하는 4,000m급의 산들이 다가오는 알핀 리조트, 웅대한 경치를 차창 밖으로 바라다보면서 달리는 등산철도와 골돌라, 로프웨이 등 다양한 탈것들, 역을 기점으로 한 하이킹 코스도 갖춰져 있다. 이들 전망대에는 수 많은 등산철도와 케이블카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알프스의 자연을 감상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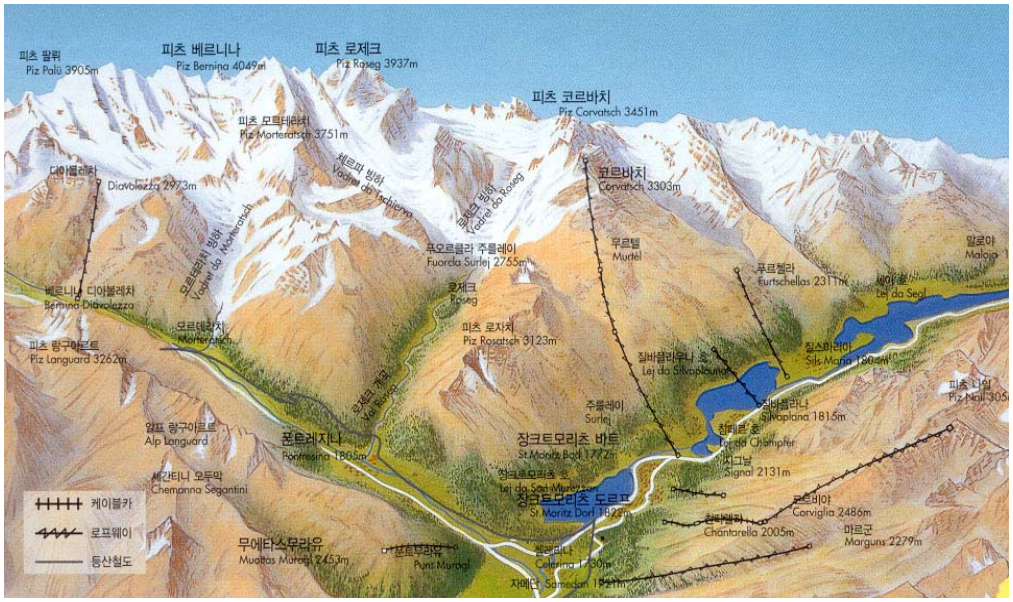
체어마트(Zermatt)는 가솔린 자동차의 출입을 일절 금지하는 등 환경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알펜 리조트이다. 등산철도나 로프웨이를 타고 빼어난 명산과 빙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전망대와 하이킹 루트에서 바라보는 4,000m를 자랑하는 발리스알프스와 수 많은 빙하의 모습이 장관이다.

6) 이들 외에도 스위스에는 해발 4,000m를 넘는 슈크레호른(4,078m), 브라이트호른(4,160m), 돔(4,545m), 알라린호른(4,027m), 피츠 베르니나(4,049m) 등의 알프스 명봉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그림 16〉 체어마트

장크트모리츠(St. Moritz)는 겨울철 스키 리조트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여름에는 베르니나 알프스를 뒤로 한 호반의 피서지로서 인기가 높고, 봄에는 녹음의 고원에 색색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자랑한다. 전망대에서는 물결이 휘돌아나가듯 이어지는 산맥과 다이내믹한 빙하는 물론 짙푸른 녹음과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호수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다.





〈그림 17〉 장크트모리츠

필라투스(Pilatus)는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는 로프웨이를 타고 2,129m의 정상으로 오를 수 있고, 반대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등산철도를 타고 정상에 오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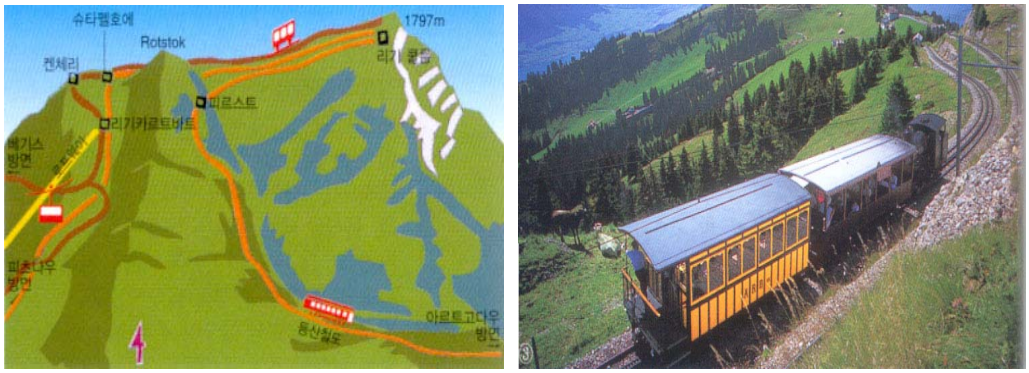
〈그림 18〉 필라투스

자스페(Saas-Fee)는 스위스 제2의 고봉 돔을 중심으로 한 미샤벨 연봉과 알라린호른 등의 4,000m급 고봉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위치한 리조트이다. 마을 바로 근처를 파르스럼한 페 빙하가 감싸고 있고, 여름에는 하이킹이나 등산의 기점으로, 겨울에는 스키와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림 19〉 자스페

리기는 해발 1,797m로 결코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상에는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 전망이 뛰어나며, 일출로도 유명하다. 리기는 1876년에 운행을 시작한 최초의 등산철도가 옛날모습 그대로 증기기관차를 운행하고 있다.



〈그림 20〉 리기의 등산철도

(나) 4대 특급열차

일찍부터 산악철도가 깔릴 만큼 스위스 전국토에는 철도망이 발달해 있다.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지역들을 특급으로 연결하고 있는 파노라마 루트는 스위스 관광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그 중에서도 빙하특급(Glacier Express),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 빌헬름 텔 특급(Willihelm Tell Express), 골든 패스(Golden Pass Line)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특급열차이다.

빙하특급은 알프스의 봉우리와 계곡 사이를 달리는데 체어마트, 장크트모리츠 2곳의 고급 리조트 사이를 평균시속 34km로 약 7시간 30분을 달리는 세계에서 가장 느린 특급열차이다. 약 270km의 고도차는 해발 1,400m 이상으로 3개의 봉우리를 넘고 7개의 계곡을 지나며 91개의 터널 속을 달리며 291개의 다리를 건넌다. 험준하게 솟아 있는 산과 빙하의 단면을 달리는 강, 산 사이의 우아한 호수, 녹음이 짙은 구릉과 숲, 뛰엄뛰엄 흩어진 오두막이 한가로워 보이는 마을 등 차창 밖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1등석은 천장까지 유리로 덮인 파노라마 차량이다.





〈그림 21〉 빙하특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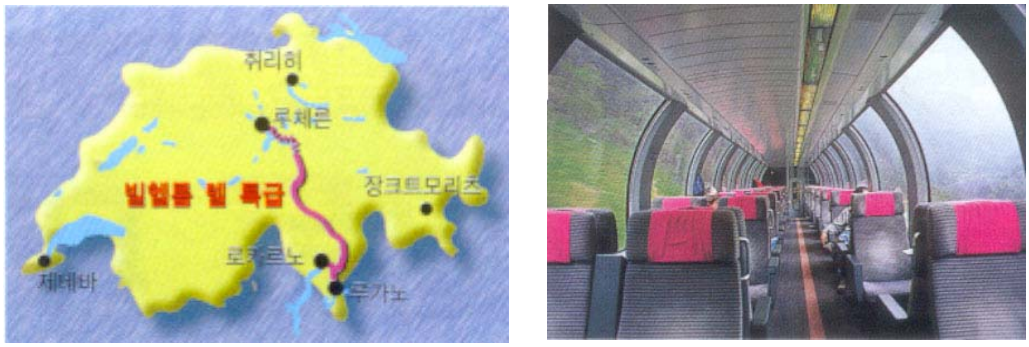
베르니나 특급은 빙하에 가장 근접하는 철도로 하이디의 고향인 마이엔펠트 근처 마을 쿠어나 장크트모리츠에서 이탈리아의 티라노를 연결하는 전체 길이 약 145km의 고산철도이다. 약 4시간 동안 목가적인 스위스 마을, 험준한 산과 눈앞에 펼쳐지는 웅대한 빙하와 호수 등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경치가 시시각각 변한다.





〈그림 22〉 베르니나 특급

빌헬름 텔 특급은 호수를 건너는 유람선과 열차를 연계하는 독특한 코스로 유람선 3시간, 철도 2시간 15분 등 약 5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유람선은 스위스 건국 관련 사적이 흩어져 있는 피어발트슈테트 호반 마을을 천천히 순례하며 달린다. 플뤼엘렌에서 열차로 바꿔타면 1등석은 역시 파노라마 창으로 전망이 아주 좋다.



〈그림 23〉 빌헬름 텔 특급

골든 패스는 중부 스위스의 관광지로 명성 높은 고도 루체른에서 레만 호반의 리조트인 몽트뢰(Montreux)까지를 연결하는 인기 높은 스위스 횡단코스이다. 이 열차는 알프스 관광은 물론이고 호수와 목초지, 구릉에 펼쳐져 있는 라벤다 꽃밭 등 스위스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다.



〈그림 24〉 골든패스

(다) 스위스의 꽃

봄부터 여름까지 스위스의 야산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들로 뒤덮인다. 알프스에서 꽃이 개화하는 시기는 봄부터 여름까지로 6월 중순 ~ 9월 중순이 일반적이다. 특히 꽃이 만발하는 계절은 7월이다. 알프스의 3대 꽃으로 알려진 에델바이스, 알펜로제, 엔치안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꽃들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고산식물들로 꽃구경이 하이킹의 새로운 즐거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위

스는 고산식물의 보고일 뿐 아니라 유서 깊은 고산식물원도 많다. 이들 고산식물원들은 해발 1,200 ~ 2,000m에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다양한 화초들이 재배되고 있다.

예컨대 쉬니게플라테 고산식물원(2,060m)은 자연경관을 살린 고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꽃이 만발하는 여름에만 문을 연다.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500종 이상의 고산식물을 모아놓았고, 15개 구획으로 나뉜 700m의 산책로로 이어져 있다. 라란베르시아 고산식물원(1,980m)은 1만㎢가 넘는 넓은 부지의 대부분이 고산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세계 고산식물 1,000여 종이 심어져 있다.



〈그림 25〉 스위스의 3대 꽃

(라) 온천과 호수

스위스에는 온천과 광천수가 아주 많다. 특히 엥가딘 계곡에 있는 슈쿠올(Scuol)에 자리한 근대적인 시설의 온천센터가 인기가 높다. 스위스에서는 온천이라고 하면 스파(Spa)라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온천 풀의 이미지가 강해 수영복을 입고 들어간다. 또한 야외 풀에서는 알프스의 산들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에는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다. 비앙코 호는 빙하의 얼음이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로 호수면이 흰빛으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호수이다. 장크트모리츠호(Lej da San Murezzan)는 호수주변에 4km의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이나 조깅을 즐길 수 있으며, 여름에는 수상스키, 겨울에는 스케이트나 폴로와 수상골프 등이 행해진다. 그 외 레만호(Lac Leman), 비앙코 호, 마조레 호, 브리엔츠 호(Brienzersee), 툰 호(Thunersee) 등 맑고 아름다운 호수들이 즐비하다.



〈그림 26〉 스위스의 온천과 호수

(마) 박물관 · 전시관

스위스에는 각 지방의 역사와 생활을 담은 향토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산악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시계박물관, 와인박물관, 국제적십자박물관 등 수많은 박물관들이 있다. 또한 오드리 헵번 기념관, 각종 미술관, 공원 등 지방마다의 특색 있는 전시관 및 공원들이 즐비하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전통·문화·생활을 재현한 발렌베르크(Ballenberg) 야외박물관은 알프스 산속 생활과 스위스 목공예품 등 귀중한 전통·문화를 전하고 그 기술을 계승하고자 1978년 개장하였다. 면적 약 50만㎢, 동서로 2.5km가 넘는 거대한 식물원으로 90채가 넘는 오래된 민가가 그대로 옮겨져 있으며, 내부는 쥐라 지방, 베르너오버란트 지방, 발리스 지방 등 지역별로 나뉘어져 특징적인 건물과 생활습관, 산업, 특산품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단순하게 전시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축도 기르고 있으며, 화로에서 빵을 굽기도 하고 치즈도 만들며, 목각품 공예 등 옛날 그대로의 생활과 다양한 작업을 직접 실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위스의 각 도시별로 특징적인 박물관들이 많이 있다. 베른 주의 인터라켄(Interlaken)에 있는 관광박물관(Touristic Museum)은 융프라우 지방의 약 200년간에 걸친 발전사가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그린델발트(Grindelwald) 양토박물관(Heimat Museum)은 오래된 사진과 옛날 생활용품 등을 전시하고 마을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이다.



〈그림 27〉 발렌베르크 야외박물관

발리스(Valais) 주 체아마트에 있는 알파인 박물관(Alpines Museum)은 발리계곡의 역사와 생활, 등산의 역사, 알프스에 서식하는 동물의 박제와 사람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자스페(Saas-Fee)의 자저박물관(Saaser Museum)은 오래된 가구, 농구, 등산, 스키·스케이트 용품 같은 전시물에서 산과 빙하와 함께 살아온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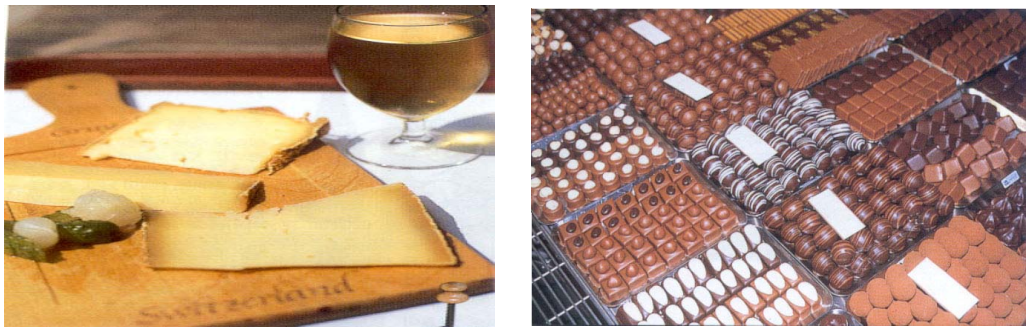
장크트모리츠의 엥가딘 박물관(Engadine Museum), 세간티니 미술관(Segantini Museum) 등이 유명하며, 루체른의 부르바키 파노라마관, 피카소 미술관, 시립미술관, 스위스 교통박물관(유럽 최대규모)이 유명하다. 그리고 제네바의 미술사박물관, 프티팔레 현대미술관, 시계박물관, 타벨관, 라트미술관, 보르컬렉션, 국제적십자박물관, 아리아나미술관 등이 있으며, 베른은 시립박물관, 역사박물관, 스위스 산악박물관이 유명하다.

로잔(Lausanne)의 올림픽박물관, 엘리제 사진박물관, 에르미타주 미술관, 아르브뤼트미술관이 유명하며, 루가노(Lugano)의 주립박물관, 파보리타미술관, 세관박물관 등 각 도시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박물관·전시관들이 다양하다.

(바) 치즈와 와인, 초콜릿 등 맛있는 음식

스위스에는 지역마다 독특한 치즈가 있으며, 알프스 산자락에서 만들어진 쌉쌀한 화이트 와인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셰브르는 레반 호반 언덕에서 와인을

빚는 마을로 가을 포도수확을 축하하는 와인 페스티벌 이 열린다. 또한 스위스는 프랑스에 이은 치즈 소비국이며,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옛날부터 수출도 하고 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요리가 된 치즈 퐁뒤 등 치즈 요리의 종류도 다양하다. 스위스에는 장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개성이 풍부한 초콜릿이 아주 많다. 유명 브랜드 제품도 많지만 스위스의 마을 곳곳에는 지금도 손으로 직접 만들기를 고집하는 유서 깊은 초콜릿 상점들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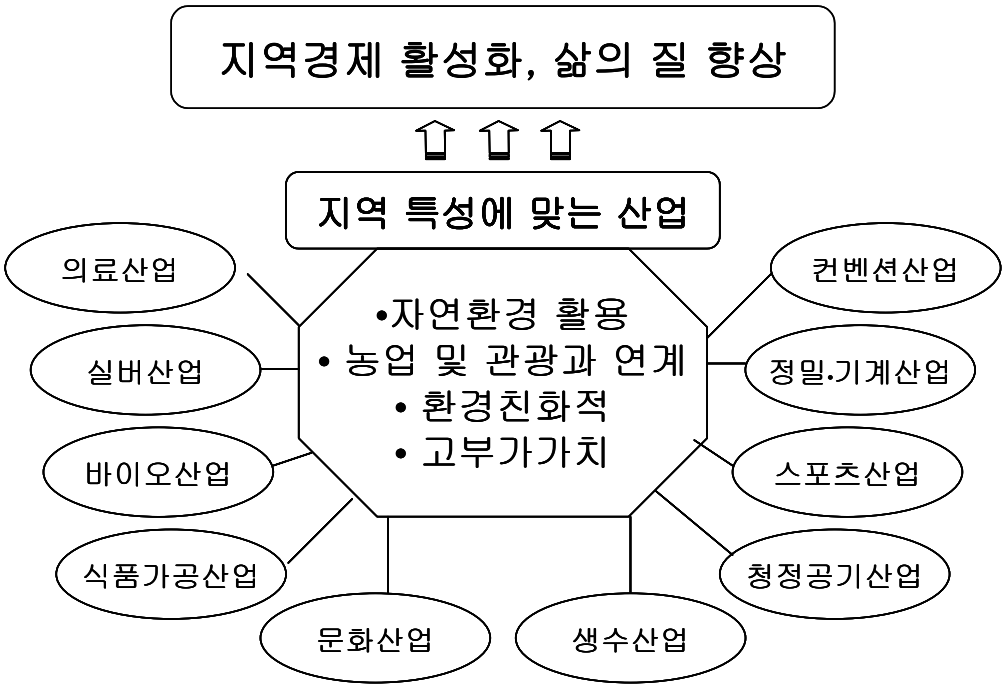
〈그림 28〉 치즈, 와인, 초콜릿

3. 기타 산업

(1) 기타 산업 발전방안

경북 북부권의 산업발전 방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관광산업 분야에서 스위스식 모델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북 북부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 및 관광산업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이어야 하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에서 적합한 산업은 의료·실버산업, 바이오산업, 식품가공 산업, 문화산업, 생수산업, 청정공기산업, 스포츠산업, 정밀·기계산업, 컨벤션산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9〉 기타 산업 발전의 기본 구상



(가) 의료 · 실버산업

경북 북부권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휴양용 의료병원(노인병원, 치매전문병원 등) 유치, 휴양용 아파트 조성, 고소득자의 휴양용 별장지 조성, 한방산업 유치 등을 통한 의료·실버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나)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은 차세대 성장산업이며 산업연관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생활수준의 향상, 복지 부문의 관심 증가,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 신규수요의 창출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생물자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북 북부권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특화작목을 활용하여 신물질, 신공정, 신소재 창출을 통하여 친환경적 산업기반을 주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중인 '경북 바이오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상주-안동-울진 바이오벨트 사업을 통하여 농생물·한방·해양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경북 북부권의 풍부한 특용 및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체계 선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공기와 청정수자원을 활용한 의약품제조회사 설립(스위스 Roche와 같은 수준의 제약회사 육성)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 식품가공 산업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산업을 통해 생산농가들에게 적정한 가격보장을 통한 계획적인 수매로 지역경제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인 사과, 고추, 버섯, 한약재 등의 가공산업을 비롯하여 영양, 예천을 중심으로 스위스식 목장을 조성하여 유가공산업(치즈, 낙농제품)의 발전을 적극 유도한다. 즉 향토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높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한다.

(라)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세계시장성장률의 3~4배에 달하는 고성장 산업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7] 경북 북부권은 전통문화의 보고이며 산, 계곡, 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 경북 북부권 대학 및 주변 도시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문화와 첨단산업을 조화시켜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문화산업 클러스트의 조성 등 문화컨텐츠를 기반으로 문화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경 일대의 KBS 왕건촬영장은 이미 이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으며, 최근 KBS 드라마 '황금사과'의 촬영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촬영장을 관광자원화 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영화·비디오, 방송산업과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 대학에서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

---

7) 교육인적자원부(2004)에 따르면 1999~2002년 문화산업은 연평균 21.1% 성장하여 세계시장성장률 5.2%에 비해 크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마) 생수산업

경북 북부권 산악지대의 맑은 물을 자원화하여 생수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강원도 홍천에는 (주)해태가 홍천생수를 상품화하여 전국적으로 큰 판매고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제주생수의 경우도 그 지명도가 높다.

(바) 청정공기산업

청정공기는 지금도 의료용이나 고소득자 가정의 생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삼성 메트로 플라자(66층)의 외벽유리는 개폐가 되지 않는 붙박이용 유리로 되어 있어서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시간마다 청정공기를 중앙집중식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앞으로 청정공기의 일상생활화는 도시 고소득가계 등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경북 북부권의 맑고 쾌적한 청정공기의 수집과 판매를 위한 사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 스포츠산업

경북 북부권의 산악자원을 활용하여 산악자전거대회, 산악마라톤, 등반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스포츠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며, 이러한 행사를 관



〈그림 30〉 산악자전거와 하이킹

광상품화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산악 스포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스포츠 용품 제조 및 판매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매년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스위스를 지나는 산악자전거 경기대회는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높다.

(아) 정밀 · 기계산업

경북 북부지역에는 스위스 형의 지형을 닮아 각종 산악스포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환경자동차(무공해 전기자동차 등)의 산악도로 운행이 현실화되게 된다. 따라서 이들 활동을 지원할 산업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산악자동차와 산악자전거 제조 및 이들을 지원할 부품산업 시설이 이 지역에 입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에 산악자동차, 산악자전거를 제조하거나 이들 부품공장이 들어설 공단, 산업클러스트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스키, 등산복, 등산장비 제조시설들도 유치하여 산악스포츠와 산악관련 산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잇다.

(자) 컨벤션산업

점차 국제회의가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을 피해 공기가 쾌적하고 청정자연이 있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Davos)에는 조그마한 산악마을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1월 개최되면서 최근에는 약 2,000명의 세계 정계, 정계, 언론계, 학계,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주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대표적인 토론장이 되었다.

또한 테러를 피하기 위해 산악지방의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예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뉴헴프셔주의 브레튼우즈는 인구 5,000명의 적은 산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종전기 테러를 피해 연합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IMF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을 이룬 국제회의를 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에 컨벤션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개발여하에 따라서는 수요가 클수도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울진환경과학엑스포 등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2) 스위스 사례

스위스의 부를 증가시켜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세계적인 회사가 중립국으로서 주요 국제어(영어, 독어, 불어)가 통용되고 생활환경이 좋은 스위스에 지역본부(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두면서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칸톤 정부별로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스위스 전체의 통계는 명확치 않지만 세계 굴지의 회사로서 스위스에 지역본부를 두는 회사가 약 70%나 된다고 추산한다.

스위스는 환경친화적인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달하여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스위스의 초콜릿은 1803년 수공업으로 시작된 후 1819년 제조공장으로 이행되어 스위스의 산악지형상 축산업이 발전하는데서 오는 잉여우유를 훌륭히 활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또한 편의식품(fast food)의 시장성에 일찍이 착안하여 매기(Maggi)와 크노르(Knorr)의 즉석 수프 등의 제품에 이어 Nestl 의 이유식으로 성공하여 Nestl 를 세계 굴지의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화학산업도 발달하였는데,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표하는 노바르티스(Novartis)와 세계에서 암 치료약 제조를 선도하고 있는 로쉬(Roche)가 대표적이다. 스위스 정밀기계산업은 고도의 수준으로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스위스 제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며, 방산제품에 있어서도 두각을 발휘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공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필라투스(Pilatus)사와 루왁(Ruag)사는 항공기도 제작한다.

스위스 시계산업은 16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785년에는 약 2만명이 제네바의 시계산업에 종사하여 연 85,000개의 시계를 생산하였으며 뇌샤텔에서는 5만개가 생산되었다. 이후 스위스 시계산업은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고급 시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스위스 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정통위에 첨단기술 조화를 통한 최고의 브랜드 유지, 다양한 마케팅 전략, 조직 감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시계의 패션화'라는 기본전략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끊임없이 시장을 분석하고 소비자 욕구를 파악한 결과이다.

제5장
결 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에서 가장 개발이 부진한 낙후지역 중의 하나인 경북 북부권을 자연환경 등 산업환경이 유사한 스위스의 산업발전모델을 적용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북 북부지역은 풍부한 전통문화, 청정한 자연자원, 다양한 생물자원, 우수한 인적자원 등 스위스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북 북부지역의 천연의 우수한 산업입지를 잘 활용하여 개발한다면 장차 한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권의 산업발전방안은 기본적으로 농업, 관광산업, 기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스위스와 같이 산지, 자연경관, 청정수자원, 공기를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먼저 농업의 경우 농산물 수입시장의 개방이 급진전됨에 따라 농업인구 및 노령화로 인해 농업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형조건을 잘 활용하여 친환경 고품질의 브랜드화를 통해 농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단순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환경보전, 자연환경 형성, 관광산업 등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의 천연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스위스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역특성에 맞게 유불문화와 천연자연 자원이 어우러진 한국형 문화관광의 중심지, 숲·물·꽃·전통이 어우러진 전통문화관광지의 이미지 강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의 확립, 특산품·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등을 특성화 하여 스위스 식 관광개발을 지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경북 북부권의 각 시·군지역에 10경, 10명소, 아름다운 호수·강변

(강여울)·해변 1~5개 정도씩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스위스 수준의 세계적 경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박물관·전시관 등도 10개 이상 건립하여 자연관광과 문화관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도 중요하다. 예컨대 갤러리, 산상콘서트홀, 대학하계연수장, 대기업하계연수원 등의 건립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특산품,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축제 등을 특성화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북 북부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 및 관광산업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농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이어야 하고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에서 적합한 산업은 의료·실버산업, 바이오산업, 식품가공 산업, 문화산업, 생수산업, 청정공기산업, 스포츠산업, 정밀기계산업, 컨벤션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북 북부권 산업발전 방안은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북 북부권의 각 시·군별로 특성화된 농산물, 관광상품을 통하여 차별화 하되 경북 북부권 전체는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경북 북부권이 스위스와 같이 주어진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경우 그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인형·권영창, “지역발전 성공사례(4): 경북 영주시 ; 유교문화와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휴양도시 건설”, 『지방행정』, Vol.53, No.61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112-117.

고성효, “세계의 창: 치밀한 아름다움의 나라” - 스위스, 『지방포럼』, Vol.5, No.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108-109.

권상장·진병용, 『지역산업연구』, 섬유·패션산업 국제전문인력 양성 국책사업단, 1999. 7.

권영창, “유교문화와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휴양도시 건설”, 『지방행정』 2004년 10월호, 112-117.

김남조, “눈꽃열차가 산촌 지역사회에 미친 관광영향 -경북 봉화군 승부마을에 대한 1차 보고서-”, 『관광연구논총』, Vol.15, 200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67-87.

김동정, 생태도시탐방 : 경북 영주시 ; 옛 향기 물씬한 유교문화의 본고장, 『도시문제』, Vol.38, No.41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87-92.

김점수, “스위스 지역정책”, 강원발전연구원, 1-12.

김종무, “스위스의 경제성장과 농업정책”, 『한국경제』, Vol.12 No.1,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1984, pp.169-192.

김학문,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경북 문경시: 폐광지역에서 관광, 휴양도시로 -폐광지역 활성화 사례-”, 『지방행정』, Vol.50, No.56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1, 47-54.

김호진, “자연은 살아있다: 산과 호수 ,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꾸어 가는 스위스 사람들의 마음”, 『지방행정』, Vol.47, No.54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8, 94-99.

남치호, 이희재, 김춘식, “경북 북부권내 중소도시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성장동인에 관한 연구”, 『안동개발연구』, 제4집,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1993, pp.119-184.

농림부, "'0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 2005.

박동균, "경북북부권의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향토특산물과 음식을 중심으로", 『한세정책』, 통권46호, 한세정책연구원, 1999, 141-163.

배상원, "스위스 임업연구원의 갱신·육림분야 연구동향", 『월간 임업정보』 제142호, 2003.2. 18-23.

봉화군, 『1996 - 2005 봉화군 장기종합개발계획』, 1995.

양종기, "스위스 금융산업의 최근 동향", 『금융』, 24-27.

엄봉훈, "조건불리 산촌지역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분석 -경북 봉화군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Vol.10, No.3, 한국농촌계획학회, 2004, 9-18.

윤여승, 최규식, "영주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12호, 관광경영학회, 2001, pp.115-133.

이대우,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도시/스위스", 『도시문제』, Vol.30 No.3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5, 119-129.

이석희, "경북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육성방향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03-04,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12.

이수욱, "해외리포트 ② : 스위스의 공간계획", 『국토』, Vol.188, 국토연구원, 1997, 109-114.

이순석, "농산물 명품 브랜드 개발의 성공요인과 활성화 방안 -안동시 A농협 E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유통연구』, Vol.21, No.2, 한국식품유통학회, 2004, 41-56.

이종호, "지역 농산업산지의 혁신환경과 클러스터 육성전략: 봉화군 고추농산업 사례",『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1, No.2, 한국지역지리학회, 2005, 233-246.

이희재, "경북북부 도시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분석; 안동시와 영주시를 중심으로", 『안동개발연구』, 제12집,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연구소, 2001, 173-200.

전진표, "스위스의 임업", 『산림』, 98-102.

주간조선, [스위스시계의 경쟁력] "스위스 시계는 진화한다", 주간조선 제1805호.

주간조선, [세계의 강소국] "스위스 ... 기업들이 나라 이끈다", 주간조선 제1674호.

한국산업은행, 『한국의 산업(상,하)』, 2002. 12.

황동규, “경북북부지역 문화자원의 특성과 개발전략; 영주·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9집 제1호, 동양대학교, 2003, 189-211.

홍국웅·엄봉훈,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한 봉화군의 자원평가”,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6, No.2, 한국지리정보학회, 2003, 10-21.

東洋経濟新報社, 『地域経濟總覽 2001』, 2000. 10.

Federick P.Stutz & Anthony R.de Souza, The world Economy : Resources, Location, Trade and Development, 3rd. Edition, Prentice Hall, 1998

Hammond, Cition World Atlas, Hammond

OECD, OECD Economic Surveys; Switzerland, Volume 2003, Supplement No.2-January 2004.

Time, Can the Luxury Crystalmaker keep itself together?, May 16, 2005. p.49

Time, Prescription for profits, Sept 22, 2003, 44-45

Time, Uncommon Brilliance, April 19, 2004, 34-36

Time, YeOlde Shanghai, Feb 14, 2005, 40-41

Walter Adams & James Brock, The Structure of American Industry, 9th Edition, Prentice Hall, 199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8.

<Abstract>

Sang-Jang Kwon(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Min-Hwan Lee(Instructor, Keimyung University)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plan to develop North Gyeongbuk region that apply the industry development model of Switzerland which the industry environment is similar. North Gyeongbuk region have similar condition with Switzerland from the abundant tradition culture, pure nature resource, various bio resources, the human resource and many others. Therefore, if we apply well and develop the superior industry location of North Gyeongbuk region, we can expect to make to the most developed area where a lot of people visit.

First in the case of agriculture we must make the value added of the corps, prepare the plan to enlarge the farmhouse income and improve the settlement condition of a farm villa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nature situation that we can feel the beauty of nature and to keep culture heritage of North Gyeongbuk region like Switzerland. The tourism development must be drawn in order to achieve a distinction against different area through development of the tourism product. For the economy vitalization of North Gyeongbuk reg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gh value added industry which is correspond to characteristic of this region besides agriculture and tourism.

Finally, the plan to develop North Gyeongbuk region must become suitable to the area characteristic development by considering the local characteristic. Consequently, we need to draw a distinction through the agricultural and tourism products which are specialized by an each area of the North Gyeongbuk reg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all North Gyeongbuk must be considered to make one of great harmony.

연구자 소개

권 상 장(權相璋)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교수(현재).
▷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객원 교수.
▷ 대구상공회의소 연구위원(현재).
▷ 대구시 자문위원(현재).

주요 연구실적

•Kalman Filter를 이용한 한국 환율결정의 실증분석(논문) 외 다수.

이 민 환(李敏煥)

▷ 계명대학교 강사
▷ 계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주요 연구실적

•대구 북구 도시 발전계획(연구보고서).
•1996~2005 봉화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연구보고서).
•대구선물거래소 개설 타당성 연구(단행본).
•대구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미래도시 창조방안(단행본).
•대구지역 자동차산업의 육성방안(단행본).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대구산업발전방향(단행본).
•지역산업연구(단행본).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방안(논문).
•대구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논문).
•산업구조 고도화와 핵심전략산업의 육성(논문).
•지역금융의 구조적 취약성과 개선방안(논문).
•대구은행의 성장과 발전(논문).
•외국자본 국내금융시장 진출과 그효과(논문).
•선물시장의 발전과 자율규제(논문)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안동·영주지역을 중심으로-

박 성 용

목 차

■ 요약 / 111

제1장 서론 ····· 113

제2장 브랜드의 개념 및 개발의 필요성 ····· 115
1. 브랜드의 개념 및 기능 / 115 2.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 / 118
3. 브랜드의 종류 / 122

제3장 브랜드화 전략의 성공요인 분석 ····· 124
1. 안동포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 124
2. 안동소주의 브랜드와 성공전략 / 126
3. 안동 간고등어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 127
4. 풍기인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 129
5. 인견직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 131
6. 성공사례의 시사점 / 132
7. 안동·영주지역의 향후 브랜드화 가능품목 / 135

제4장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 138
1. 브랜드화 추진주체의 체계화 / 138 2.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 / 138
3. 지속가능한 브랜드 관리 / 139 4.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 / 139
5. 브랜드 자산의 측정 / 140 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141
7. 전통 및 지역문화의 연계 / 142

제5장 결론 ····· 143

■ 참고문헌 / 144

요 약

지역특산물에 대한 명성이 세계로 향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출발했던 지역특산물이 자립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최근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대안시장(blue ocean)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역특산물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을 규명하여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발전은 물론 타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 연구는 사례중심으로 전개된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이 제시되고 그 다음으로는 브랜드의 개념,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 브랜드의 종류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안동시와 영주시 지역의 브랜드화 전략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향후 브랜드화 가능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브랜드화 성공전략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브랜드의 개념은 고대시대의 소유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지적재산을 내포하는 광범위한 영역이 되었다. 브랜드 가치 하나가 거대 기업을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또한 브랜드의 기능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변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브랜드는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 선호를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고품질 차별화 전략과 지역의 홍보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

브랜드의 종류에는 기업의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업브랜드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브랜드, 한 가지 상품에만 사용되는 개별브랜드, 브랜드 뒤에 붙는 수식어로서 브랜드 수식어가 있다.

제3장에서는 안동·영주지역의 브랜드화 성공사례로 안동포, 안동소주, 안동간고등어, 풍기인삼, 인견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랜드의 일관성 유지, 초기 시장수요의 파악 및 기회 선점, 브랜드 위기에 적극 대처, CEO 주도의 브랜드 전략 전개가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향후 브랜드화 가능성을 제시한 품목으로 안동에서는 안동생명의 콩, 산약(마), 안동식혜, 국화차, 기능성 청국장, 천연염색, 안동버버리찰떡, 안동문어, 한과, 하회탈이 제시되었고 영주에서는 약초(하수오), 문수도라지, 쑥돼지, 청정한우, 풍기인삼축제, 소백산온천, 죽령옛길관광, 단산포도가 조사되었다.

제4장은 앞에서 제시된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주산지내 생산자 조직의 연합체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브랜드화 추진주체의 체계화, 경쟁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 지속적인 마케팅에 투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브랜드 관리, 지역과 상품의 인지도 및 생산의 지역적 이점을 고려하는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브랜드 자산의 측정, 지역특산물 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끝으로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지역문화의 연계성이 중심 전략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의 성공전략은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성공전략을 지역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활용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과거를 돌이켜 보면 대체로 성장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전통산업[1]은 침체된 상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2] 그 동안 정부주도의 주요 산업은 전자산업, 기계산업 등 재정상의 비중이 큰 기술, 반도체산업에 국한되어 있었다. 열악한 국가경제의 성장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타당한 접근이기는 하지만 국가전체의 발전을 통한 국민모두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점에서 보면 불균형적인 접근은 결국 지방발전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계기는 먼저 성장 중심의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 간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 짐과 동시에 국제시장의 개방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선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맞추어 발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뒤를 따라가는 형태의 발전만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관점을 달리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출발했던 지역특산물이 자립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최근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대안시장(blue ocean)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은 지역특산물을 살펴보고 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을 구명하여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발전은 물론 타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영주시와 안동시를 그 범위로 설정하였다. 두 도시는 경북북부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

1) 전통산업은 고전부터 내려오는 산업으로 노동·자본을 주된 생산요소로 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2) 1997-2000년 기간 중 전국적으로 늘어난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의 75.3%, 종사자의 74.0%가 수도권에서 집중되어 있었다(박용규, 2003: 3).

면서도 특색 있는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2005년 12월 현재 지역경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적 범위는 영주시의 풍기인삼, 인견직과 안동시의 간고등어, 안동포, 안동소주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들 품목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서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사례 상품으로 그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영주시·안동시 지역의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구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요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산업에 대한 성공요인을 구명하여 낙후된 북부지역발전은 물론 타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서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2005년 7월 현재 지역특산물에 대하여 이를 육성·장려하기위한 정책적 연구보고서(광주전남발전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재)향토지적재산본부, 2004)가 일부 발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지역특산물의 현황을 재정립하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제2장
브랜드의 개념 및 개발의 필요성

1. 브랜드의 개념 및 기능

“브랜드(brand)” 라는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인 “brandr”라는 동사에서 시작되어 고대 영국으로 건너가 “biernan”로 또한 고대 프랑스로 건너가 “birnir”로 변형되었다. 이후 브랜드는 중세 영국에서 화염, 불꽃, 횃불이라는 명사와 불타는 이라는 형용사인 “brandr”로 유래되었다. 그 후 브랜드는 은유적인 문자로 변해가면서 광채를 불꽃처럼 내뿜는 품질의 칼로서 기술되어 사용되어지면서 “brandish”가 칼을 휘두르다 라는 동사가 되었으며, 쇠를 달구어 불로서 동물에게 낙인을 찍어 소유를 표시함에 따라 소유권을 의미하게 되었다(David Haigh, 1998: 43-47). 즉 이러한 표시를 함으로서 타인의 물건과 자신의 물건을 구별함으로서 초기의 브랜드는 소유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소유관점에서 출발한 브랜드는 중세를 거치면서 봉건사회가 안정되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던 10세기 무렵부터 상인들이 간단한 도형을 사용하여 신용표시를 겸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형을 사용함으로써 브랜드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제품은 그 제조자를 처벌하여 길드의 대외적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브랜드가 신용의 표시를 거쳐 재산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비롯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품이 대량생산되어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판매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보다 더 세분화된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제품의 브랜드가 이러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브랜드는 점차 제품의 질, 속성, 이미지를 형성하는 하나의 재산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표 1>.

〈표 1〉 상표기능의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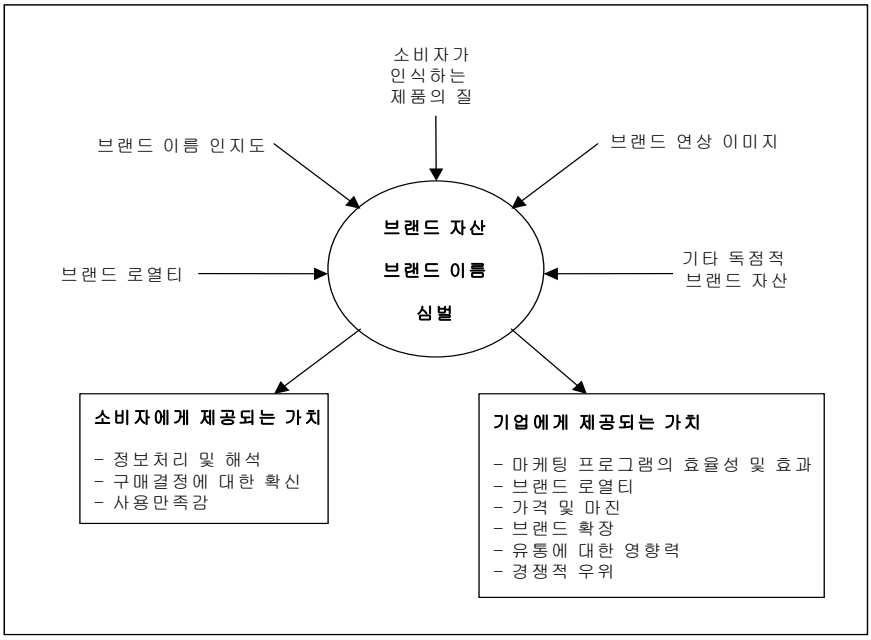
구분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역할 및 기능	소유표시	품질표시	신용표시	자산표시 (지적재산)

자료: 노장오(1998: 404)에서 재구성

일반적으로 브랜드 자산이란 브랜드의 이름 및 상징과 관련하여 형성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브랜드 자산이 높다는 것은 그 브랜드를 부착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브랜드 자산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로 정의할 수 있다(안광호·한상만·전성률, 2003: 13).

브랜드가 재산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은 먼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화 되면서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둘째,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M&A가 진행되면서 브랜드자산의 평가가 요구되었다. 셋째, On-line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제품과 소비자의 최초의 접점은 도메인과 제품의 브랜드가 되었다.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질, 브랜드 이미지,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 등을 통해 형성된다. 먼저,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소비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브랜드 자산가치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고객을 흡수하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둘째, 브랜드의 이름·로고·심벌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림 1〉 브랜드 자산체계

자료: 마케팅커뮤니케이션연구회 역(1992: 37).

인지도가 높을수록 브랜드 자산이 높아진다. 소비자들이 흔히 친숙한 브랜드가 편하고, 비교적 믿을 수 있으며, 품질도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의 품질은 구매결정과 브랜드로열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품의 품질이 좋을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을 반복해서 구입하게 되고,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고가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수한 품질의 브랜드는 브랜드 확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넷째,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이름·로고·심벌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나 느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독점적 브랜드 자산은 특허, 등록상표, 유통관계 등을 통해 경쟁사들이 소비자와 브랜드 로열티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마케팅커뮤니케이션연구회 역, 1992: 37-43).

<그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랜드의 개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브랜드는 브랜드명칭 뿐만 아니라 표현체계, 상징물, 디자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로 브랜드는 특정 기업체가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다른 경쟁자로부터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최고의 기술성, 상징성, 독창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브랜드는 기업 또는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이며, 마케팅 활동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기업 또는 판매자에게 수입을 가져다주는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나타내 주는 실체이다. 셋째, 브랜드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김중표, 2003: 34). 결과적으로 브랜드의 기능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변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한편, 브랜드 강도(Brand Strength)[4]를 구성하는 요소는 총 7가지로 압축된다(박문기, 2001: 115-116). 모든 상품군 중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는 주도성(Leadership), 상품의 신뢰와 만족감을 주는 안정성(Stability), 다양한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시장성(Market), 국내시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성(Internationality), 현재의 유행 흐름과 함께 향후에도 좋은 반응을 누릴 수 있는 방향성

4) 브랜드 강도(Brand Strength)란 브랜드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브랜드평가기관인 인터브랜드의 접근방법이다(Financial World, 1996: 21-22).

(Trend),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고 도움을 받는 지원성(Support),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로 타 제품의 모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보호성(Protection)이 있다. 즉 브랜드 강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만족시킬 경우 해당 상품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브랜드의 강도는 향후 브랜드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2.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

1)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의 취약

국산 농산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은 열위에 있더라도 품질경쟁력은 우위를 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지역특산품은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품질경쟁력에서도 부분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고추산업의 경우 국내 수입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해보면, 2001년 국내산 건고추의 kg당 도매가격이 8,406인데, 중국산의 종량세 기준 수입가격은 국내 가격의 76.3%에 불과한 6,417원이었다. 또한 품질경쟁력은 고춧가루 수율과 당분함량에서 국내산이 경쟁력이 있지만 고추의 매운 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캡사이신(Capsaicin) 함량과 색상은 중국산이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2〉 고추상품의 국내산과 중국산의 비교

구 분	가격경쟁(원/kg)		품질경쟁			
	판매가격	생산비	고춧가루수율	캡사이신 (mg/100g)	당분 (%)	색상 (mg/100g)
국 산	8,406	4,855	64.6	84.7	25.6	30.3
중국산	6,417	-	58.0	189.2	12.0	32.4

자료: 이순석 · 최칠구(2004: 44).

따라서 가격·품질경쟁력의 부분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은 주요산지인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의 대량화 물결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추산업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드 개발은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 농가소득의 증대

안동시의 경우 고추 재배면적과 유통물량이 많아 고추생산[5]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안동고추의 2004년 기준 연간 매출 량도 17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안동시의 안동포, 안동소주, 김치, 안동간고등어와 영주시의 풍기인삼, 인견직 특산물은 2004년 현재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품목들이다. 이 중 안동포와 김치, 그리고 영주시의 풍기인삼과 인견직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심한 차이가 발생함으로서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3〉 안동시·영주시의 주요특산물 현황

구분	품목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연간매출액(억원)
안동시	**안 동 포**	**2**	**103**	**30.7**
	헛 제 사 밥	4	18	3.5
	찜 닭	2	4	0.8
	한 지	1	20	6.0
	공 예 품	1	5	3.6
	목 공 예	4	49	5.2
	전 통 천 연 염 색	2	19	3.0
	안 동 소 주	**2**	**33**	**35.0**
	김 치*	1	95	90.0
	안 동 고 추*	3	57	171.0
	전 통 장 류	1	5	2.0
	안 동 간 고 등 어	**7**	**169**	**196.5**
영주시	**풍 기 인 삼**	**1**	**73**	**111.0**
	인 견 직	**1**	**194**	**43.0**

자료: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재)향토지적재산본부(2004:387)재구성.
주: 안동시의 김치·고추는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브랜드화의 성공전략과 다소 성격이 다르므로 생략함[6].

<표 3>에서 제시된 주요 특산물은 대부분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연간매출액이 높은 품목들은 그 차이를 제시해주는 근거가 더욱더

5) 안동시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251ha의 재배면적에서 557톤의 고추를 생산하였다. 이는 안동시에서 고추생산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작목이다(안동시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2005).

6) 이 제품들은 전국단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연간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 주요 품목에 대한 성공·실패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브랜드화 전략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3) 소비자의 선호형태 다양화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과 가격 결정에 혁명적인 변화가 왔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비교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판매업자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다. 이는 상품의 공급자가 늘어나고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힘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현암·강원·김은환, 2003: 44).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방법은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다. 차별화의 가장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는 브랜드화 전략이다.

제품이 브랜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그 브랜드 안에 신뢰, 제품우수, 사후관리 등의 모든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부터 소규모의 영세업체까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산 붉은 고추 소비의 대부분은 김치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고추의 매운 맛의 구분을 통해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참살이(Well-Being[7]), 로하스(LOHAS)상품의 소비열풍을 반영한 신제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추를 이용한 음료 및 차 개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의 수요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2003년 국내 소비지 시장에서 나타난 건강과 환경을 강조하는 웰빙 상품의 소비형태의 다양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건강과 보다 여유로운 삶을 바라는 욕구와 친환경적인 다양한 건강식품들의 인기에 착안하여 쇳가루의 오염 방지 및 고추영양소 파괴 최소화를 통해 태양초보다 우수한 고품질 고춧가루 생

7) 웰빙이란 심신을 유지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우리말로는 '참살이'라고 한다.

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제품의 우수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4) 고품질 차별화 전략

안동포 생산업체는 안동포 구매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쟁사보다 탁월한 상품가치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제품생산으로 경쟁우위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안동포는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특산품이므로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지역의 안동포보다 탁월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차별적인 가치원천 파악과 창출이 요구되었다.

안동포 생산업체는 브랜드의 가치혁신을 통해 소비자만족과 품질차별화를 달성한 브랜드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안동포 제조방법을 통해 진품임을 인정받고 고품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추진되었다. 안동포는 현재 세계화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제작 및 판매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가격측면에서 값싼 중국산과 비싼 국산을 비교 할 경우에 엄격한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국산제품을 구매할 가능성들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브랜드화 전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비교에 대한 기준 마련과 외국산 제품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별법을 개발·홍보해야 한다.

〈표 4〉 안동포와 중국삼베의 차이 비교

구 분	제작방법	주원료	특징
안동포	수작업	안동산 삼베	-실이 투명하고 맑으며 표면에 윤기가 흐름 -불에 태울 경우 원형 그대로 흰재가 남음 -원형 유지 장기적
중국삼베	기계식	원산지 불확실	-표면이 딱딱하고 접으면 꺾어짐 -나일론 등 화학섬유 혼합으로 태울 경우 그을음 발생 심함 -변질 심화

자료: http://andongpo.invil.org에서 재구성.

<표 4>에서와 같이 안동포와 중국삼베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처음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가격측면에서 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수한 안동포의 제품 값은 그대로 인데 비해서 저품질의 중국산 제품은 가격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향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지역 홍보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 1월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지역축제는 무려 697개로 조사되었고 기타 소규모의 지역축제를 포함하면 전국에는 1,000여개의 축제가 실시되고 있다(윤칠석·박성용, 2005: 3). 이들 대부분의 축제는 단체장의 성과지향적 행사, 지역축제의 계속성, 선심행정, 지역 홍보 등을 이유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많은 부수효과를 올리는 지역도 있으나, 이는 일부지역에 한정된 것이며 대부분 지역은 매년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홍보를 위한 방법은 브랜드 상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성 있는 브랜드 네임 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모든 제품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 축제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력 제품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좋은 사례는 문경시 오미자 축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문경시는 2001년부터 시의 주력제품을 오미자로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재배를 적극 권장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축제에서는 오미자제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상품화 전략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안동포, 인견직과 같은 특정제품에 대한 브랜드명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역발전은 더욱더 앞당겨 질 것이다.

2. 브랜드의 종류

1) 기업브랜드(Corporate brand)

브랜드는 계층구조(brand hierarchy)에 따라 기업브랜드,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 브

랜드 수식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제품에 기업브랜드에서 브랜드 수식어에 이르는 계층구조상의 모든 브랜드 이름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내구재의 경우에는 구매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기업 브랜드가 강조되지만, 비내구재의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보다 공동 브랜드나 개별 브랜드가 더 강조된다(박찬수, 2006: 201-205).

기업브랜드란 기업명이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삼성, LG, 현대, 풀무원, 안동간고등어, 오뚜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이트 맥주는 처음에 개별 브랜드였으나 조선맥주가 하이트맥주를 개명하면서 기업브랜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브랜드는 개별브랜드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2) 공동브랜드(Family brand)

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한 가지 브랜드만을 부착하는 경우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하여 한 가지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브랜드의 예로써 매일유업의 '뼈로 가는 칼슘'(우유, 치즈, 두유, 분유, 요구르트), 제일제당의 백설표, 대상의 청정원 등을 들 수 있다. 두 개 이상 기업이 연합하는 경우는 주로 브랜드 바워가 약한 중소기업이나 농산물 생산자(단체)들이 협동조합을 통하거나 기업간 연합형태로 개발하는 경우이며 그 예로는 안성지역의 '안성맞춤', 오렌지 '선키스트' 등이 있다(이정희, 2003: 31-32).

3) 개별브랜드(Individual brand)

개별브랜드란 한 가지 상품에만 사용되는 브랜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물로 선정된 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순창고추장, 안동소주, 풍기인삼 등이 해당된다.

4) 브랜드 수식어(Brand modifier)

브랜드 뒤에 붙는 수식어로, 순창 고추장의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찰고추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듯이 숫자나, 프리미엄, 플러스, 골드 등과 같이 품질이 개선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것을 말한다.

제3장
브랜드화 전략의 성공요인 분석

1. 안동포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삼베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된 섬유이자 우리민속에게 가장 친숙한 옷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경북 안동지역은 기후와 토질이 대마 재배 조건에 가장 적합하며, 상고시대 낙동강 유역 일부 농가에서 야생 대마를 재배하여 안동포에 가까운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현재 안동지역의 대마는 강원도 지역에서 종자를 가져와 재배하고 있으나, 안동지역에서도 금소지역의 토양이 양질의 대마 생산에 적합하여 금소지역에서 가장 양질의 안동포가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동포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은 먼저 생산형태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기후조건과 함께 계약재배를 통하여 주민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생산해 왔다. 따라서 원 재료의 재배기술 또한 체계적으로 전승 및 발전되어 왔으며 이는 철저한 재배관리와 원료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안동포의 브랜드 개발전략의 경우 지역자원이용과 품질차별화형 전략으로 안동지역의 자연적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소비자 지향적인 상품개발과 고품질의 도정기술로 브랜드화를 꾀하고 있다.

셋째, 철저한 상품관리의 체계적 운영이다. 실질적인 품질차별화를 위해 고품질 및 품질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품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넷째, 유통 및 판매전략의 효율적 운영이다. 고품질 관리와 연계한 고가전략으로 가격차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는 유통계약과 인터넷 주문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특히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중심의 시장개척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거래처 개발로 판로개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안동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상품의 횡포를 들 수 있다. 안동시의 연도별 대마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초기에는 작은 면적으

로 시작하였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최고의 양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2001년의 생산량과 판매액을 검토해 보면 다시 침체 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렸기 때문이다. 안동포의 생산은 보통 한사람이 한 필을 생산하는데 2개월(숙련공 4~5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값싼 중국산에 밀려 인건비도 안 되는 40만원선 까지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8)]

〈표 5〉 안동시 대마재배 현황

년도	면적(ha)	생산량(톤)	농가수(호)	판매액(천원)
1993	15	16	107	-
1994	15	16	75	-
1995	20	120	92	-
1996	18	88	87	-
1997	16	87	87	-
1998	19.1	93	102	-
1999	23.2	115.6	125	6,264,000
2000	22.0	110	107	5,940,000
2001	17.6	84	101	4,725,000

자료: 안동시 지역경제과 내부자료(2006).

둘째, 안동포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안동포 생산기반시설인 대마재배단지가 임하면 금소리에서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안동포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포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유지, 계승전략이 미흡한 실정으로 생산단지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박동균, 2001: 52).

셋째, 소득확보의 어려움이다. 안동포는 생산비에 반해 판매가는 더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동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대마 재배 생산원가는 다음과 같다. 200평당 30단 소요, 1단은 삼베 1필 생산, 1단의 가격은 50,000원선, 수의 한 벌은 5필 소요로 필당 500,000원선이다.

2. 안동소주의 브랜드와 성공전략

안동소주는 고려 시대에 몽고로부터 전승되어 왔다고 하여 이 지방 명문가의 가양주(家釀酒)로 제주(祭酒)나 접빈객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1920년대부터는 제비원소주를 비롯한 금곡소주, 조홍주조, 선어대소주, 영가소주 등 기업적 생산업체가 등장하여 지역산업으로 대량 생산되었다. 그러나 순곡 증류주인 안동소주는 1960년대초부터 약 30여년에 걸친 술로 빚을 수 없도록 한 양곡정책과 1970년대 초의 소주업체 통폐합정책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이동필, 1994: 9).

현재 안동소주 제조 기능 보유자인 조옥화씨는 안동지방 지주의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안동소주 제조법을 배우고, 그 후 시아버지 봉양을 위하여 수시로 양조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83년 문화공보부가 민속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안동소주를 안동 지방의 민속주로 보고함으로써 우연하게 전통민속주인 안동소주를 재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경상북도(편), 2003: 622).

1985년에는 문화공보부의 조사단이 조씨를 방문하여 안동소주의 제조방법을 자세히 조사한 후 시험제조를 계속하였다. 그 후 조씨는 1987년 5월 경북 무형문화제로 지정받고 1990년 35병을 생산함으로써 '안동소주'란 상표로 상업적 제조, 판매를 하게 되었다. 이 때에는 옹기로 된 소주고리 대신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2~3말 규모의 스텐레스 소주고리를 만들고, 도자기병을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안동소주가 출하되자 물건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이에 점차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당초 제조면허를 받을 때는 하루 35병씩 생산하였으나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1993년 5월까지는 800ml 크기의 도자기 병으로 200병씩 생산하였고, 그 후 2004년 현재는 사업체수 2개사에서 총30명의 종사자들이 연간 2,526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안동시 지역경제과, 2006).

안동소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은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누룩을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소주 내리는 증류 방법까지 안동소주는 전통적인 증류방식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측면에서는 가양법의 장점만을 취하여 철저한 품질인증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안동소주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생산자로부터 판매자까지 공동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사 제품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대한 제도적 강화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품질인증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확대되었다.

셋째, 유통 및 판매 전략으로서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계약을 맺어 고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통망 확보와 인터넷을 통한 판매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안동소주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조기 연구 및 개발[9]이다. 안동소주 회사는 1999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안동소주의 정통성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안동소주 기능보유자 및 전승관을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다. 그 결과 안동소주의 역사, 전통적인 제조비법, 기능보유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시킴으로서 안동소주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판매촉진은 물론 매출증대를 극대화 하였다.

한편, 안동소주의 다양한 브랜드화 성공 전략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한약재, 복분자 등을 이용한 다양한 주류의 등장으로 안동소주의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안동소주의 값이 타 주류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애용하는 소비자층은 일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안동 간고등어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안동 간고등어의 브랜드 이미지 성공전략은 지리적 조건과 함께 조상의 지혜와 문화가 발전한 것이다. 소금 간을 하게 되면 가장 맛있는 간고등어가 생성되는 이동거리 지역이 안동으로서 이러한 지리적 조건이 안동주민들에게 선물을 안겨준 것으로 일부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안동간고등어는 육질이 단단한 제주도 연근해에서 잡힌 것들로 부산 어시장을 통해 안동에 도착하여 안동간고등어 제품이 완성된다.

성공전략은 첫째 다양한 상품개발이다. 안동 간고등어는 보통 고등어에 간을 하는

9) 안동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민속주 안동소주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를 1998년에 추진하여 안동소주 관련 내용의 주제별 메뉴화면을 작성하였다(중소기업청, 산·학·연 컨소시엄전국협의회, 1999: 37-38).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간고등어가 있으며 녹차 간고등어, 마늘 간고등어, 독자반 간고등어, 뼈 없는 간고등어, 통조림 간고등어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안동간고등어의 유통 및 판매는 다양한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 대도시에 지역총판을 두어 직거래 형태로 판매를 하고 일부 업체는 대형 홈쇼핑과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상대로 주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통신주문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와 제휴를 맺어 전국단위의 기차여행객을 상대로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농협이나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통해 판매경로를 다양화 하고 있다. 안동간고등어의 표적계층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기존 고등어보다 위생적이고 맛이 좋고 보관하기 편리한 안동간고등어를 선호하는 중류층 이상이다. <표 6>에서 제시된 매출액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총 10배가 성장한 것으로서 안동간고등어 산업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 안동간고등어 매출액의 연도별 추이

구분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4억	24억	78억	116억	170억	228억	400억 (예상)

자료: 양영훈(2005: 624-625), 류영동(2001: 40-46)에서 재구성.
주: 안동간고등어의 사업화는 1999년부터 추진되었음.

셋째, 역사성을 부각시켜 성공을 꾀하고 있다. 경북북부지역 최대 장터였던 챗거리는 그 이름만큼 다양한 사연이 담긴 곳이다. 소설가 김주영의 '객주'가 이곳의 사연을 많이 담고 있다. 해물이 전혀 나지 않는, 아니 바다 구경도 못하는 안동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물(海物)이 있다. 소위 '자반고등어'로 표기되는 "간고디이(안동 간고등어의 사투리)"이다. 싱싱한 고등어를 소금에 절인 것을 말하는 "간고등어"는 안동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맛이 좋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다.

넷째, 단계별 광고 홍보전략이다. 총 3단계의 홍보전략으로 제 1단계에서는 상품에 대한 소개에 한정시켰다. 안동간고등어의 역사성과 유래, 안동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홍보하였다. 제 2단계에서는 유사업체의 등장을 예상하여 40년 간잽이의 기술적 노하우를 상품과 연계하여 홍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3단계에서는 기술적 우위와 신토불

이 벤처기업을 연결하여 기업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한편 브랜드화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간 경쟁의 심화이다. 특정기업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안동지역의 고등어 제조업체는 2004년 현재 10여 곳이나 된다. 제품의 질, 서비스 강화 등의 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나 업체가 분리되는 것보다 몇 개로 통합하여 판매 전략을 마련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둘째, 일관된 품질관리와 고등어의 지속적인 물량공급의 어려움이다. 브랜드에 참여하는 참여자간 품질차이로 표준화가 어렵고 균일한 품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브랜드는 시장에서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등어의 공급량 여부에 따라 간고등어의 가격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4. 풍기인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풍기인삼은 삼국사기에 서기 734년(신라 성덕왕 33년) 당 현제에게 하정사를 보내어 산삼 200근을 선물하였다는 기록을 보아 신라시대 때 벌써 소백산에서 산삼이 많이 자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풍기인삼은 타지방보다 캐는 시기가 1개월가량 늦은 백로를 중심으로 채굴하므로 약 성분이 충분히 축적되고 내용조직이 충실하여 인삼의 효능을 대표할 사포닌 함량이 뛰어난 것으로 구명되었다.

풍기인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은 먼저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사용을 위한 기준 제시 및 이의 엄격한 준수에 있다. 제품의 선별, 유통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침을 설정하여 생산 후 품질유통관리의 체계적 활용이 주요 성공요인이었다.

둘째, 1987년부터 개최된 소백문화제를 시작으로 풍기인삼에 대한 홍보 전략은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동양대학교와의 연구개발을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인하여 풍기인삼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성장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1,053억원을 책정하여 추진 중인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계획은 “머물면서 즐기고 인삼효능을 체험” 할 수 있는 레저타운형 조성사업이다. 현재 인삼판로 개척,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소백산맥과 함께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중소기업청(2004: 94)에

의하면 조선조 중종 때 주세붕 선생은 중앙에서 산삼에만 의존하였던 것을 인위적으로 재배·생산 그 수요를 충족하고자 전국에 산삼이 자생하는 토양과 기후가 비슷한 곳을 찾던 중 풍기가 인삼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풍기에서 제일 처음 산삼종자를 채취하여 인삼재배를 시작하였으며 조선왕조 조정에서는 풍기인삼만 애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풍기인삼이 금산지역 등 타 지방과 구별되는 재배환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백산맥의 풍부한 유기물과 배수가 잘되는 사질토양, 그리고 내륙성 한랭기후와 죽령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통풍이 잘되는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삼재배의 최적 기후인 25℃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고 인삼을 논에서만 재배함으로 토양의 양분이 풍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기인삼의 우수성은 <표 7>과 같이 연도별 생산현황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표 7〉 풍기지역의 인삼재배 현황

년도	면적(ha)	생산량(톤)	농가수(호)	판매액(백만원)(추정)
1997	208	546	1,156	-
1998	290	435	990	-
1999	328	435	1,025	-
2000	372	417	1,083	8,200
2001	407.9	684	1,124	14,592
2002	398.8	641.3	1,071	18,800

자료: 중소기업청(2004: 98)에서 재구성.

위의 표에서 인삼 재배 농가수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풍기지역의 인삼이 다른 지역의 인삼에 비해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삼은 지력(地力)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5~10년을 주기로 지역을 옮겨서 재배를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재배면적이나 농가수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브랜드화 전략의 어려움은 인삼의 적정가격 책정과 공급의 원활화, 그리고 다양한 상품개발의 어려움이다. 풍기지역의 수삼은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높아 수삼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중국산 상품의 대량화로 인하여 그 어려움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배농가와 업체간의 적정한 가격과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삼은 그 고유 특성상 인삼엑기스, 홍삼원액 등의 건강식품 위주의 상품개발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식이음료, 다이어트 식품, 인삼과자 등의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인견직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인견직물 산업은 명주산업의 주원료인 견사의 공급 부족으로 쇠퇴하게 되고 펄프(나무)가 주원료인 인견사가 대체원료로 등장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원료조달의 용이성과 광범위한 수요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의료산업의 하나로 발전하였고 1970년대에는 많은 양을 해외로 수출하게 되었다(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편, 1971: 325). 그러나 해외지역 특히 미국지역의 인견직물 소비감소와 일본의 해외시장 확대로 수출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여 풍기지역의 인견직 제조업체는 인견직 생산으로 인한 수출은 물론 여름옷, 침구류 등의 새로운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천연펄프를 소재로 한 인견직은 전국의 원단 생산량의 80%를 풍기지역 20여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558만야드를 생산해 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풍기직물공업협동조합, 2005). 또한 18개의 인견직 가공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남방, 아동복, 원피스, 잠옷, 침구류 등의 신제품을 매년 제조 및 출시하여 연간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견직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으로는 먼저, 생산 및 유통체계의 원활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국내는 물론 외국 업체들과의 지속적인 거래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매경로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다. 또한 1934년부터 상표등록은 물론 품질인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견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성공의지와 기술개발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 인견업체들은 인견과 천연(황토)염색을 결합하여 고품질, 고가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세탁 시 변형되는 인견직의 단점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섬유관련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한편 인견직물의 브랜드화 전략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생산품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 한편으로는 풍기지역의 견직물제조업체의 영세성과 원료 및 기술의 해외 의존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업체의 합병, 협력네트워크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8〉 품목별 브랜드화 특성 및 성공요인

구 분	안동포	안동소주	안동 간고등어	풍기인삼	인견직
생산형태	-적합품종선택 계약재배 -금소지역은 최적 지역	-누룩, 고두밥, 전술을 이용한 증류식 방법	-소금 간을 이용한 전통적 생산 방법 적용	-소백산자락의 기운을 이용한 고품질의 인삼 재배(신라성덕왕)	-명주산업의 원료인 견사의 공급부족, 인견사가 대체원료로 등장하면서 직물산업 전환
브랜드 형태	-안동포 독자 브랜드	-안동소주 독자브랜드	-역사성, 지역성을 가미한 전승형 개발 브랜드	-역사성, 지역성, 고품질 명품 브랜드화	-지역성, 역사성, 입지성
마케팅전략	-지역의역사성부각 -생산단지의 관광 자원화	-역사성, 문화성 부각	-역사성, 지역성 부각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홍보 및 판매	-전국인견 생산량 80%
등록 및 품질인증	-1923년 경북지역의 대표특산품인증	-1987년무형문화재 지정 -전통식품명인 제20호 지정	-2002년 ISO9001 인증 획득 -2002년 FDA 승인	-풍기인삼공사 영농조합법인 -풍기특산물 영농조합법인 -소백인삼가공 영농조합법인	-1934년부터 상표 등록으로 품질인증 확보
상품화 전략	-소비자 지향적 상품 -고품질의 도정 기술 (수작업)	-철저한 품질관리 -품질유통관리철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건강식품에서 식이 음료, 기능성식품으로 다양한 제품 연구개발 구상 중	-지자체 주도로 업체·연구소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판매 및 홍보
주요특징	-생산에서 직조까지 모든 과정 공정처리 -100%대마 -100%수공예	-고려시대 이후 안동지방명가에서 전수되어 온 안동소주 재현	-간고등어의 가격 경쟁력으로 최근 종사자수 매출액 대폭 증가 추세	-동양대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풍기 인삼랜드 조성사업,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추진 중	-전통적 생산체제를 벗어나 핸드백의 안감, 수출, 디자인 개발, 최신기계도입으로 판로개척 활성화

주: 업체명은 연구의 특성상 생략함.

6. 성공사례의 시사점

1) 브랜드의 일관성 유지

지역특산물 브랜드의 성공전략은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해 온 것이다. <표 3>에서도 제시된 것과 같이 안동포, 안동소주, 안동 간고등어, 풍기 인삼, 인견직 모두 초기

상품의 컨셉을 지금까지 계승시켜 왔다. 다양한 형태로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한 변형이 있었겠지만 이들 제품은 고유특성을 유지해 오면서 발전한 것이다. 이들 제품 중 안동 간고등어는 한동안 침체되었다가 부흥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안동포, 풍기 인삼의 경우는 전국 최고의 역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P&G의 의류세제인 타이드(Tide)는 1956년 출시된 이래 70번의 제품 개량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세제보다 깨끗이”라는 초기 브랜드 개념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P&G에는 흔히 3C로 불리는 브랜드 전략이 있는데, 일관성!(Consistency!), 일관성!(Consistency!), 일관성!(Consistency!)이 바로 그 사례이다. 일관성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파워 브랜드 구축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신현암, 1999: 17). 즉 브랜드의 일관성이란 소비자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사로잡으면서도 새로운 제품개발에 적극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초기 시장수요 파악 및 기회 선점

A회사 R사장은 몇몇 지인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간고디이가 안동의 명품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듣고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당시 한 지역신문에 안동 간고등어를 주제로 한 캠페인성 광고가 몇 차례 나간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 지방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제작된 광고였는데 이 광고에 바로 안동 간고등어를 한 손에 든 할머니 사진이 실려 있었다. 광고가 나가자마자 신문사에 ‘안동 간고등어를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문의 전화가 폭주하였던 것이다. R사장은 안동사람들이 선호하는 간고등어를 위생적으로 가공하고 포장해서 마케팅만 잘하면 성공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다(양영훈, 2005: 623).

또한, 지난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안동 하회마을 방문을 계기로 안동지역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있었다. R사장은 안동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마케팅으로 연결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안동’이라는 지명을 함께 팔아야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상표를 ‘안동간고등어’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상품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선점하여 4억 매출로 시작했던 1999년에 비해 100배로 성장하여 2005년 현재 예상 매출액은 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3) 브랜드 위기에 적극 대처

브랜드의 자산 가치는 견고하게 구축하기도 힘들지만 한 순간에 무너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기는 대부분 브랜드 위기로 연결되어 부도, 감원, 공장의 화재나 폭발사고,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나타난다. 두산 기업의 페놀사건은 맥주시장 1위 자리를 H맥주에게 내 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위기는 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많다. 상표등록을 통하여 서로가 '원조'라고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말 원조제품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독창적인 상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산권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따라서 브랜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사원들이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야 하고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는 등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4) CEO 주도의 브랜드 전략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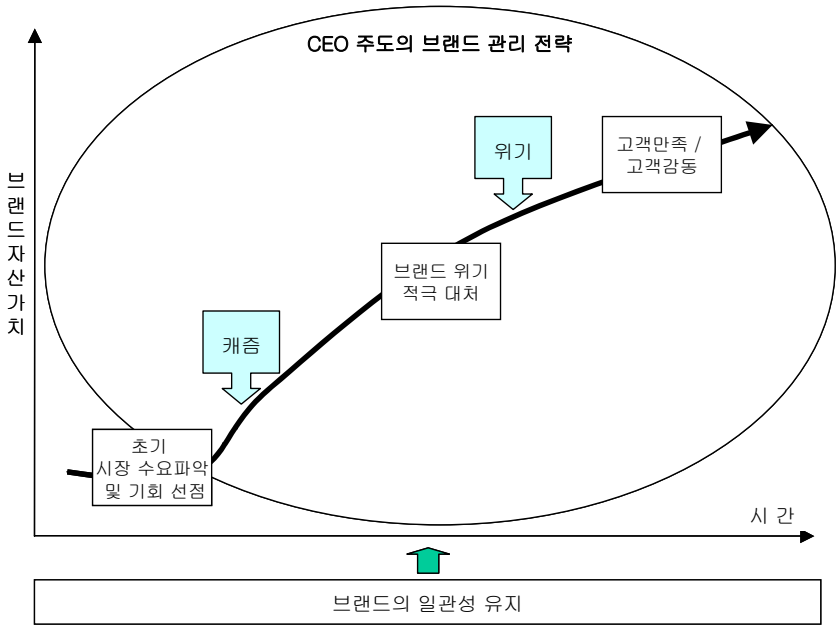
국내 굴지 기업인 삼성의 브랜드 파워는 국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브랜드 육성의 마케팅 부서나 판매부서의 하위부서가 아닌 CEO가 브랜드 비전과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파워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전략도 CEO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캐즘(chasm)[10],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성공여부 대부분은 총괄책임자의 몫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CEO는 유형자산을 중시하는 생산, 관리 등 부서들을 적절히 견제하여 브랜드 자산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창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

10) 무어(Geoffrey A. Moore)의 캐즘(chasm)이론은 초기 수요자와 주류(主流) 시장의 대량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의미한다. 캐즘은 지질학 용어로서 지각변동으로 지층 사이에 형성된 큰 틈이나 협곡을 말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762079).

다. 이 중 특히 가장 강조되는 점은 브랜드 가치로부터 소비자들의 고객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연결시키고 책임을 지는 CEO의 역할이 가장 강조된다.



〈그림 2〉 브랜드의 자산 가치향상을 위한 CEO의 역할

7. 안동 · 영주지역의 향후 브랜드화 가능품목

안동·영주지역의 향후 브랜드의 가치향상이 기대되는 품목은 <표 9>와 같다. 이 내용은 경상북도에서 경북 향토산업 육성계획 수립으로 2005년 12월에 조사·연구한 것으로서 대부분 그 지역의 문화적·지역적·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품목들이다. 선정 품목 모두 지역의 특산물을 주요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브랜드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9〉 향후 브랜드화 가능품목

구분	브랜드화 가능성이 높은 특산물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제4순위	제5순위	제6순위	제7순위	제8순위	제9순위	제10순위
안동	안동 생명의 콩	산약(마)	안동식혜	국화차	기능성 청국장	천연 염색	안동 버버리 찰떡	안동 문어	한과 (유과,과상)	하회탈
영주	약초 (하수오)	문수 도라지	쑥돼지	청정한우	풍기 인삼 축제	소백산 온천	죽령 옛길 관광	단산 포도	-	-

자료: 경상북도(2005: 97)에서 재구성.

이들 품목들을 선정한 기준은 첫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당해 지역의 산업으로 기초를 다지고 있는 산업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전통성이다. 현재는 비록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도 지역의 전통성에 근거하여 제품을 개발한다면 그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안동간고등어의 사례는 전통성에 근거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제품에 필요한 해당 자원이 집중된 분포도의 상대적 정도를 제시하는 지역성이다. 안동 생명의 콩, 안동식혜, 안동 버버리 찰떡, 하회탈, 문수 도라지, 풍기인삼축제, 단산포도 등의 모든 재료는 그 지역 내에서 구비하여 제품화가 가능한 품목이다. 따라서 지역성에 대한 기준은 향후 브랜드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요소로 판단된다.

셋째, 투입대비 최대의 산출(비용편익)을 도출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능률성으로 경제적 타당성(사업성, 시장성)등 시장가치의 최적화 정도를 의미하는 경제성이다. 즉 향후에 산업화의 가능성이 기대되는 품목들인 것이다. <표 9>에 제시된 특산물 중 브랜드화가 하나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발전을 매우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산업의 직접적인 효과와 전·후방연계 산업효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경제파급성이다. 매출액, 고용인원, 관련 사업체수 등의 척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 특산물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서 제품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참신성이다.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크면서도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성공에 대한 기대는 더 가까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지역특산물 개발요구에 대한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대응성이다. 이는 가장 육성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산업화의 가능성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향토산업의 선정기준 및 척도

선정방법	선정기준	척 도
정량적 방법	전통성	발생년도, 기타사항
	지역성	전국대비 생산량 점유율, 사업체수, 기타사항
	지역경제파급성	매출액, 고용인원, 관련 사업체수, 기타사항
정성적 방법	경제성	설문조사
	참신성	설문조사
	대응성	설문조사

자료: 경상북도(2005: 96).

제4장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

1. 브랜드화 추진주체의 체계화

브랜드의 추진주체는 개발주체와 사용주체로 구분된다. 시·군 단위의 브랜드화 경우 추진주체는 시·군 행정조직과 생산자조직의 시·군 단위 연합조직 또는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이 대상 품목의 전국적 주산지가 아닐 경우에는 행정조직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이 특정 품목의 전국적인 주산지일 경우 브랜드화 추진주체는 주산지내 생산자 조직의 연합체로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추진 형태는 통합 및 연합마케팅의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

브랜드 개념의 개발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다는 상품력과 구매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퍼포먼스(performance)를 만드는 개념이다. 따라서 컨셉의 단계적인 개발전략이 요구된다. 컨셉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 구매형태, 시장구조 및 경쟁 브랜드 등 정확한 시장구조 파악, 시장정보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아이디어 도출,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컨셉 선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전창곤, 2004: 20). 즉 제품 차별화에 의한 특산물의 브랜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제품의 차별화가 없는 브랜드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제품 특성에 맞는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의 브랜드화가 아닌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브랜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편 브랜드 디자인 측면에서도 디자인의 단순성, 목표시장 소비자들의 감각적 수요충족, 기억적·시각적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즉 일반적 브랜드 보다는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 특산물의 속성을 총 망라하는 브랜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속가능한 브랜드 관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고조됨에 따라 브랜드 등록은 필수 사항이 되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기존 브랜드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브랜드 도용, 브랜드 재산권 침해 등의 발생사례가 많이 있었다. 상표등록은 상표도용이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형사상 구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법적 등록과 함께 의장등록이나 품질인증제도, 지리적 표시제, 원산지표시제도 등 유사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브랜드화 효과의 극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브랜드화 전략에서 품질관리시스템이 미흡하면 사후관리 부실로 브랜드의 효과 감소는 물론 브랜드의 제품주기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품질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점검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하며 시·군 단위별로 브랜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조례를 정하여 품질보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관된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마케팅에 투자하여 브랜드 강도를 형성해야 한다. 즉 일정수준 이상으로 홍보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홍보비 낭비를 초래한다. 적절한 예로 부산에 갈 때 대구까지 가는 기차표를 구입하면, 결국 돈을 쓰고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4.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

브랜드마케팅 전략 수립은 지역과 상품의 인지도·명성도, 생산의 지역적 유리성, 생산자의 조직화, 특정기술 도입 정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역사적 인지도와 명성도 조건에서 품질이 타 지역과 동등한 경우, 자연환경이 매우 좋아 품질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경우, 낮은 역사적 인지도와 불리한 자연조건 하의 경우 등에 따라 적합한 마케팅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브랜드화 초기 인지도제고와 시장포지셔닝 확보를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점증적으로 목표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장의 세분화는 기존수요와 새로운 수요로 구분하며, 소득계층, 연령층, 지역, 성별 등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업종형태의 거래처 개발과 판매위험

분산, 주문생산 등 다양한 거래방법과 기법을 개발하고 소비자 리콜제 등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의 개발 초기에는 브랜드화 전략의 경우 브랜드화를 포장화와 동일시하여 브랜드화 추진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브랜드 상품이 소비자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포장전략이 필요하며 가정용 포장, 업체용 포장, 수송용 포장은 모두 구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브랜드 자산의 측정

모든 제품들은 가치 측정을 통해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 즉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기업은 과거에 행했던 투자의 잘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투자가 더 필요한지도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자산의 측정에 대한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신현암·강원·김은환(2003: 118-119)은 브랜드 가치의 흐름은 경영의 조기 경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브랜드 가치를 측정한 결과 과거에 비해 현격한 감소세가 나타난다면, 소비자의 취향이 바뀌거나 마케팅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다.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곧 미래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전 예보인 것이다.

브랜드와 같은 지적재산의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 변화나 소비자 태도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변화추이를 빨리 알아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비를 하기위하여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 자산의 평가는 광고 캠페인이나 신제품 출시, 디자인, 이미지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거래자로 하여금 재정거래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예상된 미래수익을 창출한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저평가 될 것이다. 이때 제품과 관련된 정보가 성공적이라고 믿는 거래자는 당장 주식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것이다. 주식의 수요가 증가하면 주식의 가격은 새로운 정보로부터 예상된 미래수익을 모두 반영할 때까지 가격은 증가할 것이다(박문기, 2001: 115-116). 따라서 미래의 기대수익이 주가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적재산과 관련된 브랜드 자산가치가 증

가하는 것이다.

브랜드 자산의 측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소비자 행동 조사에 기초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들과의 면담이나 설문을 통해 그들의 구매 행동을 관찰 예측한다. 이를 기초로 브랜드가 기여하는 미래의 매출과 이익을 예상해서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계산한다. 두 번째 방법은 재무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먼저 재무제표와 주가를 통해 회사의 시장 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브랜드가 회사 전체의 시장 가치에 기여한 정도를 계산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법적장치를 통해서 측정한다. 여기에는 상품에 대한 특허권수가 해당된다. 이들 방법에 기초하여 측정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브랜드 자산가치의 측정모형

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해당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기업 및 조합들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에 의해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를 설정해 놓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 지원이 직접적으로 브랜드화 전략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원을 통해 그 브랜드를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고, 이를 토대로 지역 기업 및 조합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브랜드화 전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브랜드 제작을 조장하여,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난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브랜드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현재의 위치에서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면 그 브랜드는 성공할 가능성이 커 질 것이다.

7. 전통 및 지역문화의 연계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통 및 지역문화가 유기적으로 상호연계 되어야 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알리기, 주민들에게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고유 특성을 지니고 있는 브랜드 제품은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해당지역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도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지역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상실한 축제나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1차 산업(소제산업), 2차 산업(기술산업), 3차 산업(서비스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물론 전국적, 국제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브랜드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안동·영주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주요 성공요인은 첫째, 오랜 기간동안의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해 온 결과였으며, 둘째, 특산물이 개발되기 전에 시장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매 시장의 확보 및 기회를 선점한 결과였다. 셋째, 유사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최고관리자 주도의 브랜드화 전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성공전략은 이러한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브랜드화 추진주체의 체계화, 독창적인 브랜드 개발, 지속가능한 브랜드의 관리,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 브랜드 자산의 측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전통 및 지역문화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지방의 발전 또한 한 단계 앞당겨 질 것이다.

한편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가 선호되는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소득수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체면문화에 의한 과시적 소비현상, 소비에 있어서 목표의식 및 사회의 동질성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은 브랜드의 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품목이나 계열확장의 흐름에 의존하지 말고 전략적인 브랜드의 이미지 개발이 중요하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의 성공전략은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의 일련의 과정을 모두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경상북도(편). (2003). 경상북도문화재대관 1-5.

경상북도. (2005). 경북향토산업육성계획수립. 연구보고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재)향토지적재산본부. (2004). 향토산업육성 방안.

김중표. (2003). 향토유실수종의 지역브랜드화 실태와 사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26 연구보고서.

노장오. (1998). 브랜드 워크아웃.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농림부·농어촌연구원. (2004). 농촌지역 향토산업 육성방안.

류영동.(2001). 지역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토론회. 사단법인 안동지방자치연구소. pp. 40-46.

마케팅커뮤니케이션연구회 역. (1992). 브랜드 자산의 전략적 관리. 서울: 나남출판사.

박동균. (2001). 지역특산물 산업의 육성전략: 안동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현대사회연구소. 149 pp.50-56.

박문기. (2001). 브랜드 자산 측정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7호 pp.109-131.

박용규. (2003). 지역산업 육성의 성공사례와 향후과제.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401호).

박찬수. (2006). 마케팅 원리. 서울: 법문사.

신현암. (1999). 브랜드 자산의 가치와 구축방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213호).

신현암·강 원·김은환. (2003). 브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안광호·한상만·전성률. (2003). 전략적 브랜드 관리: 이론과 응용. 서울: 학현사.

안동시. (2005). 안동시 지역경제과 내부자료.

양영훈. (2005). '염장 지르기'로 옛맛 되살린 안동 간고등어. 신동아 8월호. pp. 620-627.

윤칠석·박성용. (2005). 지역축제의 향토산업화 전략-국내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상주비

전포럼 발표자료집.
이동필. (1994). 전통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민속주 안동소주 사례 연구. 농촌경제 제17권 제2호 여름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16.
이순석·최칠구. (2004). 농산물 명품 브랜드 개발의 성공요인과 활성화방안. 식품유통연구. 제21권 제2호 pp.42-56.
이정희. (2003). 농산물 브랜드화의 정책방향과 과제.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화 발전방안 심포지엄 발표자료.
전창곤. (2004).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유형과 성공요인 및 발전방안. 한국식품연구. 제21권 제1호. pp.1-24.
중소기업청, 산·학·연 컨소시엄전국협의회. (1999).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 초록집(Ⅱ).
중소기업청. (2004). 향토산업육성전략연구.
풍기직물공업협동조합 내부자료. (2005).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편. (1971). 한국의 산업(상·중·하). pp. 323-336.

Financial World. (1996). “Brands: Blind Faith”, July 8.
Haigh, David. (1998). “Brand Valuation: Understanding Exploiting and Communicating Brand Values”, Financial Times Retail & Consumer.

http://100.naver.com/100.php?id=762079
http://andongpo.invil.org

연구자 소개

박 성 용(朴成用)

▷ 성균관대학교 도시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주요 연구실적
•시·군 통합의 성과평가: 안동시를 사례로(학회 게재논문) •계층분석법(AHP)에 의한 시·군 통합정책 성과평가지표의 우선순위 분석 (학회 게재논문)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학회 게재논문) •시·군 통합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학회 게재논문) •신도시 주민의 공원 이용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학회 게재논문) •국가보훈 기능 강화 및 보훈행정조직 발전방안 연구(연구보고서) •부천시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보고서) •부천 테크노파크 1단지 주차대책방안 연구(연구보고서) •경북 향토산업 육성계획 수립(연구보고서) •최상의 팀 만들기(역서)

‘경북북부지역’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권역성과 SWOT 요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도선 · 황종규

목 차

■ 요약 / 149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56
1. 연구의 목적 / 156 2. 연구의 방법 / 158

제2장 이론적 논의 ····· 160
1. 지역, 권역의 개념과 설정기준 / 160
2. 기존 계획의 ‘경북북부지역’ 권역 설정 / 161
3. 선행연구에 제시된 SWOT 요인 / 167

제3장 분석의 틀과 연구설례 ····· 173
1. 분석의 틀 / 173 2. 조사 설계 / 173

제4장 권역성과 SWOT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 175
1. 조사개요 / 175 2. 경북북부지역의 권역성에 대한 인식 분석 / 178
3. SWOT 요인에 대한 인식분석 / 188

제5장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199
1. 분석결과요약 / 199 2. 정책적 시사점 / 202

■ 참고문헌 / 206 ■ 부록 / 207

요 약

1. 연구목적과 방법

○ 본 연구는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서 권역화' 가능성과 권역의 SWOT에 대한 분석을 기본 목적으로 함.

- 특히 권역설정과 SWOT에 대한 객관적·이론적 접근이 가지는 행정적 편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 지역의 정치·행정 엘리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되거나 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강제되는 권역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 설정하고 헌신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서 '경북북부지역'은 가장 광역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북부지역혁신협의회의 권역설정을 기준으로 하여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청송, 의성 등 11개 시·군으로 함.

○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SWOT 분석을 기본으로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병행함.

2. 분석결과요약

1) 권역성에 대한 분석결과

○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정체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10.5%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 66.4%가 긍정적인 응답을 8.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함.

○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 단일 권역화가 필요한가는 질문에 83.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권역화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폭 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북북부지역'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체의 61.4%는 긍정적인 응답을 12.6%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음.

○ 전체응답자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단일권역의 필요성이 평균 4.04로 네 가지 차원 중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역 소속감' 3.74, '발전 가능성' 3.63, '권역 정체성' 3.5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응답자들은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은 높게 인정하고 있으나 단일한 권역으로서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고 있음.
- 지역별로도 권역성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편차를 긍정적 인식과 소극적 인식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주민과 공무원 집단간에 권역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나타나지 않았음.

〈표 5-1〉 권역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차이

	긍정적 지역	소극적 지역
권역 정체성	의성, 청송, 봉화, 영양	울진, 영주, 안동
권역 소속감	의성, 안동, 봉화	울진, 영주, 청송
권역 필요성	의성, 안동, 상주	울진, 영주
발전 가능성	의성, 안동, 상주, 봉화	울진, 청송, 영주

○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경북북부지역'의 범위는 봉화 73.1%, 영주 68.8%, 안동 65.4%, 예천 51.4%, 영양 54.7%, 청송 44.3%, 문경 39.1%, 의성 37.6%, 울진 37.0%, 상주 34.3%, 영덕 23.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울진과 영덕은 스스로의 인식과 권역내 타 지역의 인식이 공통적으로 권역범위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와 의성은 스스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타 지역에서는 권역범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영주의 경우 가장 소극적으로 권역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권역범위로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봉화와 안동은 스스로의 인식과 지역주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는 높게 인식하지 않으나 권역적 발전전략은 상당히 유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권역범위로는 봉화, 영주, 안동, 청송은 확고한 범위로 인정하는 반면 울진, 영덕, 의성, 상주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평가를 하고 있음.

2) SWOT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경북북부지역'의 강점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농업생산물(3.95), 자연자원(3.83), 역사문화자원(3.83), 관광자원(3.72), 교통기반(3.50), 토지자원(3.44), 정부의지와 역량(3.38), 지역대학(2.99)의 순서로 나타났음.

- '경북북부지역'의 강점요인으로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 관광자원을 지역별로도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간 평가에 차이가 있어 공통적 요인으로 설정하기에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약점요인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은 인구감소(4.27), 인구노령화(4.24), 전략산업부재(4.14), 경제기반취약(4.02), 지역내 불균형(4.00), 도시기능취약(3.94), 협력부족(3.78), 대도시연계부족(3.56)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약점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강점요인과 같이 지역별 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경제기반취약과 전략산업부재로 나타났음.

○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회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광역교통망구축(3.83), 자체 혁신발전노력(3.56), 국가균형발전정책(3.51), 5도2촌(3.51), 생물한방자원(3.50), 환동해경제권개발(3.37), 지역내 협력교류활성화(3.33)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최근의 동서 5, 6축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응답자들은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지역내 협력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데 상주, 안동, 울진, 의성, 청송지역의 광역교통망에 대한 높은 기대와 5도2촌에 대한 봉화, 청송, 영주, 안동의 높은 평가가 그러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생물한방산업에 대한 안동과 상주의 높은 기대가 지역적 여건과 노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 '경북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협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발여건열악(4.13), 수도권집중강화(4.05), 지역재정여건취약(3.96), 산업구조취약성(3.94), 개방경제(3.93), 낙후지역이미지(3.87), 지나친 중앙의존(3.69), 수도권접근성취약(3.68)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전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지역의 개발여건과 재정여건의 취약성을 외적으로는 수도권집중과 개방경제를 위협요인으로 평가함.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SWOT요인에 대한 인식을 요인별로 종합하여 분석하면 조사지역 주민들은 '경북북부지역'의 약점(4.00)과 위협(3.90)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강점(3.59)과 기회(3.51)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기회요인보다 강점요인을 높게 평가하여, 기회적 요소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안동과 울진지역 만이 미세하지만 기회요인을 다소 높게 평가하여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책적 시사점

○ '경북북부지역'은 단일 권역인가?

- 본 연구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북북부지역'이라는 용어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정부 계획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권역설정사례를 분석하고 가장 넓게 권역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의 권역범위인 11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음.
- 기존 계획에서 '경북북부지역'은 좁게는 봉화, 영주, 예천, 안동, 청송, 영양의 범위를 의미하고, 넓게는 상주, 의성을 포함하고 있었음.
- 상주의 경우는 1999년「제4차 국토종합계획」이후 경북의 구미, 김천과 함께 '중서부권'으로 설정되고 있었으며, 울진과 영덕은 '동부연안권'으로 설정되었음.

- 그러나 2000년의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부터 상주, 울진, 영덕을 포함하여 '경북북부지역'이라는 권역범위를 설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최근의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결성까지 자연스럽게 11개 시·군으로 설정되고 있음.
- 이러한 권역설정은 연계와 연대를 통해 정치적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되지만, 정치·행정 주도에 의해 인위적 설정이 가지는 약점이 향후 진정한 단일 권역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사실은 11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일부 표현되고 있는데 '권역 정체성'의 존재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울진, 영덕, 상주를 권역범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됨.
-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북북부지역'이 향후 단일한 권역으로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한 것은 그만큼 낙후지역으로서 동질감이 크며, 개별적 발전전략 추진의 효과가 미미함을 충분히 학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권역 정체성 확립과 단일 지역성 증진

-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함.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의식(regional consciousness)에 근거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의식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양방향의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앞서 SWOT요인에 대한 인식분석 중 강점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받은 강점요인이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에 기반한 관광자원'이었다는 것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사·문화·정치·경제 및 행정적 차원의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본격적인 지역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과 민간차원의 노력이 모두 요구됨.
- 특히 기존의 권역설정과 권역발전계획이 주로 정치·행정 주도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민간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함.

○ 상생과 호혜의 관계성 확립

- '경북북부지역'이 단일 권역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이 없으나, 실질적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호혜'의 원칙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실제 대부분의 해당 권역내의 지역주민들은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 보다 권역적 발전 전략의 추진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듯이, 실질적 상생과 호혜적 권역성 또는 단일 지역으로서 정체성 확립보다는 자신이 속한 '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같이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됨.
- 그동안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중요한 과제(도청, 전략산업, 혁신도시 등)의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지 못하고 경쟁함으로써 실패를 계속한 경험이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바탕이 될 수도 있으나 진정성이 부족한 '자기중심의 전술적 접근'은 오히려 장기적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왕에 존재하는 소지역중심주의를 진정한 협력과 상생 그리고 호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호혜적 관계정립을 위한 원칙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함.

○ 다층적 교류 네트워크

- 단일한 권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층위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 다층적 교류 네트워크는 기존의 협력이나 연대가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정치, 문화, 학술, 산업 및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차원의 교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킴으로서 실질적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도의원들 간의 협의회, 권역내 대학 연구소들의 협의회, 시민단체 및 문화단체 네트워크 및 산업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 권역연구 중심의 구축

- 권역내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 구축이 실질적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

적 토대라면, '경북북부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지역내외의 다양한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네트워킹하는 연구 중심을 구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 토대임.

○ 정치·행정적 책임성의 확보

- 그동안 대부분의 개획권역이 행정구역을 중요한 단위로 설정되어 온 것은 집행의 효과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인데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권역단위의 활동에 대한 집행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협약과 정치·행정적 책임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경북북부지역'을 단일한 하나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일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이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소지역적 패권이나 정치엘리트들의 정략적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함.

○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는 연구범위에서 계획적 차원만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취약하여 좀 더 세밀한 표본추출과· 이론적 검토가 보완되어야 함. 또한 앞으로 정치, 문화, 산업, 역사, 시민사회 등을 배경으로 하는 심화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함.
- 특히 권역범위와 정체성, 발전을 위한 비전, 행정적 단위 및 체계 등에 대한 우선적 연구가 필요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 21세기는 기존의 총량적 발전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발전의 개념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80년대 후반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소위 '탈 대량생산체제(Post-Fordism)'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면서 경쟁의 단위를 '국가'차원에서 '지역'차원으로 전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몇몇 지역에 집중된 국가의 산업 및 문화경쟁력만으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제 수많은 역량 있는 '지역'의 육성이야 말로 진정한 경쟁력을 위한 본질적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투입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가정책이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개발연대 동안의 거점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90년대 이후 심화되기 시작한 수도권으로의 과잉집중은 이제 전국을 과대성장한 수도권과 공동화된 지방으로 양분하고 있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참여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채택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음. 이를 위한 지역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전략과제로 설정함.

-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2003년 4월 설립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장기적 비전으로 세 가지 차원을 들고 있음(김갑성, 2004: 22-4).
- 우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함. 176개 기관을 22개 특화기능 군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되, 이전도시에는 연관기업과 연구소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주거환경을 갖춘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임. 2004년 12월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별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이 완료되고 있은 상황임.

- 둘째, 지역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함.
- 셋째, 지방분권화로 재정과 인력,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공공재정과 중앙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함.

○ 그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개발에서 대표적 소외지역인 '경북북부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분권과 혁신'정책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지역주민에게 확산시키고, 개별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전체 '경북북부지역'차원에서도 다양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경북북부지역은 2004년 하반기 지역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별적 혁신협의회를 토대로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혁신과제 개발과 추진에 나서고 있음.
- 2004년 12월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영주시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하는 '경북북부지역 혁신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여 혁신역량과 기본전략을 논의하였음.
- 2005년 하반기 경상북도의 혁신도시 선정사업에 공동대응을 위해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가 주도하여 공동유치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음[1].
- 또한 북부지역의 혁신전략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논의의 심화를 위한 '(가칭)경북북부지역혁신연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된 바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의 혁신전략구축과 추진에 대한 추상적·당위론적 공감은 존재하나,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발전구상과 혁신전략 및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노력은 미미한 상태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의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이 '경북북부지역' 차원에서 공동으로 설계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경북북부지역'의 권역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음.

- 경북북부지역의 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역량이 열악할 뿐 아니라

1) 공동유치운동은 실제 단일한 입지후보지와 도시건설계획의 입안으로 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상호협력과 북부지역으로 유치되는 것에 대한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는데 그쳤다.

발전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역화'를 통한 공동전략 모색과 추진이 유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적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몇 번의 계기에서 실질적 협력과 공동노력이 무산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당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노력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권역설정은 공간적·경제적 연계성, 역사·문화적 정체성, 정치·행정적 요인 및 지역주민의 공동체 인식정도(region consciousness)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권역화에 의한 발전효과나 효율성에 대한 전략적 판단 역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서 '권역화'가능성과 권역의 SWOT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 목적으로 함.

- 특히 권역설정과 SWOT에 대한 객관적·이론적 접근이 가지는 정치성이나 행정적 편의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 볼 것임.
- 그것은 지역발전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발적 노력과 창의성이 본질적 요소임을 실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과 전략모색과정에 주민의 의지와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중심의 계획을 위해서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임.
- 지역의 정치·행정 엘리트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되거나 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강제되는 권역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스스로 설정하고 헌신과 협력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열어 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연구의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서 '경북북부지역'은 가장 광역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북부지역혁신협의회의 권역설정을 기준으로 하여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울진, 영양, 영덕, 청송, 의성 등 11개 시·군으로 함.

○ 연구방법으로는 효과적인 실증연구를 위해 어느 하나의 연구방법만으로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른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SWOT 분석을 기본으로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병행함.

- SWOT 분석은 계획가(planner)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reat)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 내외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을 잡고 대처하기 위한 분석방법임.

○ 그러나 SWOT 분석은 계획가의 지식과 주관적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므로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WOT 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강점, 약점과 기회 및 위협요인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SWOT요인을 확인하고자 함.

제2장
이론적 논의

1. 지역, 권역의 개념과 설정기준

1) 지역, 권역의 개념

- 지역(region)이란 내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독특성을 가진 공간단위를 지칭함(주성재, 2004: 542).
- 계획권역(planning region)지역발전을 위해 동일한 정책수단이 강구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연속된 공간(이용우, 2000, 40)으로서 지역문제를 다루는 개발계획의 구상과 집행에 적합한 지리적 지역으로서 등질지역이나 기능지역에 준거하여 설정된 지역이며, 삶과 경제기반의 구축 또는 유지를 위해 공공에 의해 설정되는 공간단위를 의미함.
- 또한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수단으로서 국토개발 목표와 정책에 맞게 적정규모로 구획된 단위지역, 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한 행정구역과는 다름(이기석외, 1995: 25).
- 지역과 권역의 관계에 대해 심인보(2002)는 권역을 한정된 지역범위 즉 지역의 한 부분을 뜻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갖는 용어로 도시권이나 경제권이라고 하는 권 구조를 갖는 지역이나 결절지역의 성격을 갖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정의함. 그러나 몇 개의 지역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계획권역으로 설정될 수도 있음.

2) 설정기준

- 일반적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사용되는 권역설정 기준은 지역의 역사성, 자연지리적 조건,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민의식, 지역기능 수행상의 효율성 및 경제 등의 요소들이 감안되나, 정책목표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도 있음(이기석외, 1994: 25).

- 권역설정의 일반적 기준은 도시권, 생활권, 경제권, 정치·경제·사회·문화 유대권, 자연환경권 등이 제시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의 발달과 지방화를 위해서는 행정권을 강조하는 경향(이용우, 2000: 41)이 있음.
- Glasson(1982:49)은 계획권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전문행정가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충분한 통근자와 소비자를 가진 배후지역을 가져야 하며, 서비스공급에 필요한 투입요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지형적 요소와 지역의식(region consciousness)도 설정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 즉 지역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이기석 외(1995: 25)는 기존의 국토계획에서 권역설정의 기초가 '도'를 단위로 하고 있으나, 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될 수 있는 '생활의 장', '생산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공간은 아님을 지적하고 실제 경제활동공간과 개발전략공간의 불일치로 개발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2. 기존 계획의 '경북북부지역' 권역 설정

○ 국토계획, 경북종합계획 및 부문별 각종 계획 상 '경북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설정 사례를 분석하여 경북북부지역의 권역화 가능성을 검토함.

○ 제1차 국토종합건설계획(1971년)

- 제1차 국토계획에서는 4대강을 중심으로 4대권과 현행 道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8개중권, 이를 다시 8-10개의 郡단위가 모여 경제권형성이 가능한 배후지와 중심도시를 감안한 17개 소권으로 설정함.
- 이중 경북북부지역은 낙동강대권-대구중권에 소속되었으며, 대구중권은 다시 대구소권과 포항소권 그리고 안동소권으로 설정되었음.
- 대구권에 대한 기본 개발구상은 금호평야 및 안동분지 등 낙동강 연안평야를 식량기지로 개발하고 대구, 안동, 포항을 권역내 거점도시로 육성하며, 영동선 철도와 대구-원주간 고속도로망의 확충, 안동댐, 임하댐의 건설을 언급함.
- 따라서 1차 국토계획에서는 경북북부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기능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보다는 단순한 대구의 위쪽이라는 의미부여가 강했음.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3)

- 제2차 국토계획에서는 '지역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5개 대도시생활권과 17개 지방도시권, 6개 농촌도시생활권의 총 28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였음. 여기서 지역생활권은 지형, 하천유역 등의 공간적 등질성, 교통, 통신 등의 기능적 연계성, 경제 및 사회적 관련성 등을 기초로 당해지역의 성격과 개발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통합한 일정 단위지역을 범위로 하되 종합적인 계획과 개발에 적정한 규모로 구획하였음.
- 경북북부지역은 ① 안동생활권(안동시, 의성군,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② 영주생활권(영주시, 영풍군, 봉화군), ③ 점촌생활권(문경군, 상주군)의 3개 생활권으로 설정되었음. 이중 안동과 영주생활권은 지방도시생활권으로 점촌생활권은 농촌도시생활권으로 설정됨.
- 제2차 국토계획에서는 생활권별 거점도시를 육성하여 생활권별 정주권 개발을 통한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다핵적 국토공간건설을 목표로 하였기에 '경북북부지역'을 단일 권역으로 하는 계획이나 구상은 없었음.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

- 제3차 국토계획에서는 시·도를 기준으로 9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으로 권역을 설정하였음.
- 대구경북권은 다시 3개 권역으로 설정하였는데 대구광역도시권(경산, 달성, 칠곡, 왜관, 영천, 청도, 성주, 구미, 김천), 동해안권(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북부지역(안동, 영주, 상주, 점촌, 청송, 봉화, 청송, 영양)의 3개 하위권역으로 구분됨.
- 이중 북부지역은 관광·문화 자원개발, 농업가공기능, 유교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주요 전략구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제3차 국토계획에서 처음으로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되고 초보적이지만 공통의 비전과 전략이 구상되었음.

5)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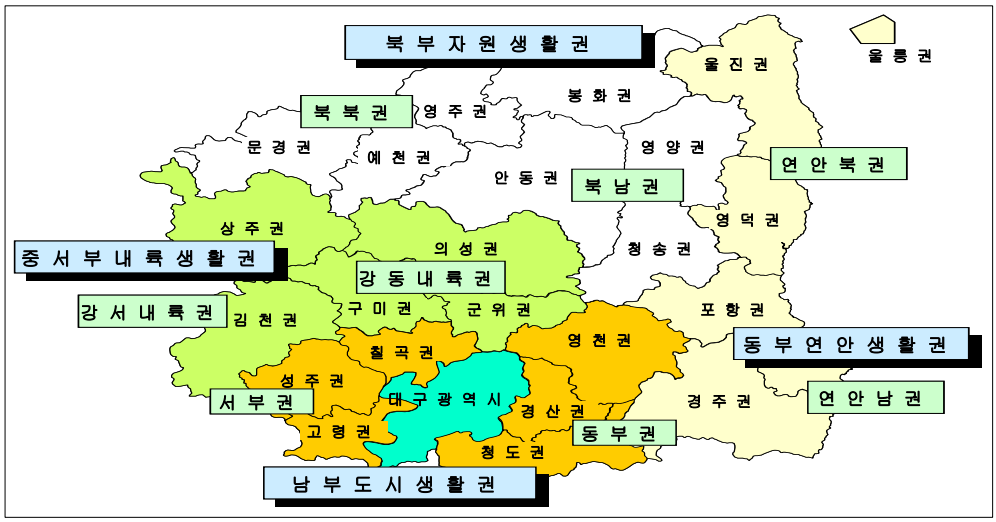
-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3개의 연안국토축(환동해축, 환남해축, 환황해축), 3개의 내륙축(남부, 중부, 북부내륙축)을 기본 축으로 하고 10대 광역권(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제주도)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 이중 중부내륙권은 제천, 충주, 영주, 영월을 거점으로 연결하는 3개道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권역구상임.
- 실질적 계획권역으로 16개 시도를 개별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다시 북부자원권, 동부연안권(포항·경주시, 영덕·울진·울릉군), 중서부내륙권(김천·구미·상주시, 군위·의성군), 남부도시권(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칠곡군)의 4개의 하위권역으로 구분됨.
- 북부자원권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으로 설정되어 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지식 및 벤처농업의 거점지대로 육성하며, 북부권개발촉진지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됨.
-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경북북부지역이 기존의 북부지역과 상주시와 의성군이 포함된 중서부내륙권으로 이원화된 것이 특징임. 또한 충주, 제천, 영월, 영주 등 3개 도(道)에 걸친 지역을 '중부내륙권'으로 설정하여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임.

6)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04)

-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수립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권역설정을 4차 국토계획과 같이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구체적 하위권역보다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배치하고 있음.
- 즉, 안동(생물, 한방), 구미(전자정보), 경산(학원단지), 경주·포항(문화,소재)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를 계획하고 있음.

8) 제3차 경북종합계획(2001)

- 제3차 경북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권역구분을 수용하여 북부자원권(안동·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동부연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중서부내륙권(김천·구미·상주·군위·의성군), 남부도시권(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 등 4개의 중심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중생활권은 대생활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생활권으로 구분.
- 북부자원생활권은 북북권(영주권, 문경권, 예천권, 봉화권), 북남권(안동권, 청송권, 영양권)으로 설정됨.



〈그림 2-1〉제3차 경북종합계획의 권역설정

9) 경북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2001)

- 경상북도가 수립한 경북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영주시, 안동시, 문경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2-1〉 경북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권역 구상

지역 / 과제	영주, 안동, 문경 지역(C1)	상주, 김천, 구미지역(C2)	대구, 경산 지역(C3)	포항, 경주 지역(C4)
연구개발 거점 육성	•영주정보연구단지(영주) •농업생명공학 •RRC(안동) •전통기술RRC(안동)	•생명공학연구소분원유치(상주) •경북농업 테크노파크(상주) •구미전자부품 RRC유치 •전자부품연구원 분원유치(구미)	•ETRI 분원(경산유치) •섬유기계연구개발센터 설립(경산) •섬유-금형 RRC(경산)	•신소재관련국책연구기관 유치(포항) •환경기술 RRC(경주)
산·학·연 연계 강화	경북기술이전재단, 경북기술이전센터, 핵심기술확산사업, 혁신경쟁사업			
중소·벤처 기업 지원	경북중소벤처연구개발진흥기금, 중소기업 기술인력 고용보조금			
기술혁신 인 프 라	KORDIC분원(영주유치), 경북기술정보센터, 대외과기협력 프로그램, 경북과학축전, 경북과학기술진흥재단			

10)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은 유교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보존·개발하여 경북북부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김대중 정부시절 확정된 국가계획임. 동 사업은 2000년-2010년까지 11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8개 분야 189개 단위사업에 국비 4,207억, 지방비 4,595억, 민자 9,879억 총1조 8,681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 임.
-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은 이 계획의 사전 연구에 해당하는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의 「경북북부지역 조선조 유교문화권 개발계획(1997)」에는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예천군, 영양군의 7개 시·군을 계획의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본 계획에서는 상주시, 문경시, 울진군, 영덕군의 4개 시·군이 추가되어 전체 11개 시군으로 권역이 설정됨.
- 이 계획에는 북부지역을 다시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해안권의 5개 하위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표 2-2〉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의 세부권역

중 부 권	북 부 권	남 부 권	서 부 권	해 안 권
안동·영양·예천	영주·봉화	의성·청송	상주·문경	영덕·울진

11)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2004)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역내 추진주체로서 지역혁신협의회는 광역단위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단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중 임.
- 경북북부지역은 권역내 공동 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경북북부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시·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을 영주시에 초청하여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토론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도 북부지역을 11개 시·군으로 설정하여 권역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12) 대구경북연구원(2005)

- 대구경북연구원은 2005년 '경북북부권연구센터'를 개소하고 북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발전정책연구를 시작하였음.
- 동 센터에서 발표한 '경북북부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는 경북북부지역을 상기의 11개 시·군으로 설정하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13) 종합적 논의

- 이상의 논의결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각종 계획에서 설정된 '경북북부지역'을 표로 요약하면 <표 2-3>과 같음.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단일한 권역으로 설정된 것은 제3차 국토계획이 처음이었음. 그러나 4차 국토계획에서 권역을 4개 세분하면서 중서부 즉 상주와 의성이 분리되었으며,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에서부터는 울진과 영덕, 상주와 의성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 권역이 설정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또한 경북북부지역은 기존의 계획에서 영주, 안동권을 중심으로 하고, 상주, 의성권의 서부와 울진, 영덕권의 동부(해안)로 논의되어 왔음.

〈표 2-3〉 기존계획의 권역설정

계획명	권역설정	포함지역
제1차 국토계획(1971)	낙동대권-대구중권-안동소권 (포항,대구,안동 3개 권역)	특정범위를 지칭하기 보다는 대구권의 북쪽이라는 의미
제2차 국토계획(1983)	안동생활권, 영주생활권, 점촌생활권 (대구생활권, 포항생활권의 5개)	·안동생활권(안동,의성,청송,영양,예천) ·영주생활권(영주,영풍,봉화) ·점촌생활권(문경,상주)
제3차 국토계획(1992)	대구경북권-북부지역 (대구광역도시권, 동해안권의 3개)	안동,영주,상주,점촌,청송,봉화,영양,예천
제4차 국토계획(1999)	경상북도-북부자원권 (동부연안권, 중서부내륙권, 남부도시권의 4개 권역)	안동,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제3차 경북계획(2001)	북부자원권 (동부연안권, 중서부내륙권, 남부도시권의 4개 권역)	안동,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	경북북부 단일 권역계획	안동,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상주,의성,울진,영덕
경북북지역혁신협의회 (2004)	경북북부 단일 권역	안동,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상주,의성,울진,영덕
대구경북연구원(2005)	경북북부 단일 권역	안동,영주,문경,청송,영양,예천,봉화 상주,의성,울진,영덕

- 따라서 경북북부지역은 '영주, 안동, 문경, 청송, 영양, 예천, 봉화'를 기본권역으로 하고 상주와 의성이 가변적인 상태이며, 울진, 영덕을 포함할 때 가장 광역적 권역이 됨을 알 수 있음.
- 한편 경북북부에서 울진과 영덕이 포함된 것은 가장 최근의 일로 기존의 국토계획이나 경북계획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가능하면 권역을 넓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해당지역의 수혜욕구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됨.

3. 선행연구에 제시된 SWOT 요인

1) '경북북부지역'의 현황

- 국토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경, 상주, 예천, 영주, 안동, 의성,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영덕 등 1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면적은 총 10,781㎢으로 경북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으로 충북의 1.5배, 전북의 1.3배에 이름.

- 경북 북부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과소지역으로 1966년 160만명이던 인구가, 1980년 140만명, 1990년 105만명으로 감소함. 2003년 현재 인구는 약 82만명으로 전국의 인구증가율 0.8%에 미치지 못하는 -1.96%로 지역의 인적자원이 역외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
- 또한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농림어업의 비율이 53.9%로 산업의 편향현상이 심각한 편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주민 1인당 연간 소득액이 832만원에 불과함.

〈표 2-4〉 경북 북부지역의 산업구조

산 업	비 율
농 림 어 업	53.9%
광 공 업	10.0%
서 비 스 업	36.1%

○ 경북 및 경북북부지역의 SWOT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간담회 자료(2004), 영주시 2020년 영주도시기본계획(2005), 영주시 장기발전계획(2002), 경상북도 의회의 경북발전 연구논문집(2004), 경상북도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2004), 동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2004) 등이 있음.

- 여기서 SWOT는 일정 시점에서 주요 환경요인을 기회와 위협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전략적 관점에서 조직의 강점과 약점과 결합시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임.
- 즉 이 방법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은 주관적 평가에 의존함. 전략을 발견하고자 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됨.
- 장점과 약점은 조직 내부에 관련된 것이고,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실제 구분은 어려움.
- 이러한 SWOT 분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SER-M SWOT 분석기법이 있는데,

이는 특정산업이나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경재력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임.

- SER-M SWOT 분석은 기존의 SWOT 분석방법이 구조화되지 않은 변인들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에서 발전하여 주체(subjective),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에 따라 이들 요인을 재해석하고 전략을 강구함.

2) 강점(Strength) 요인

- 우선 국가발전균형위원회(2004)는 '경북북부지역'의 강점으로 다양한 자연생태, 청정환경, 잘 보존된 전통문화유산을 들고 있으며, 영주시(2005)는 그 외에 교통기반조성, 풍부한 가용토지, 청정농산물 이미지 보유 등을, 영주시(2002)는 다양한 자연환경, 청정환경, 잘 보존된 전통문화유산, 청정농산물 이미지 보유, 자자체의 개발의지 고조 등을, 경상북도의회(2004)는 잘 보존된 전통문화유산, 관광자원보유, 연구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대학의 존재 등을, 경상북도(2004)는 잘 보존된 전통문화유산과 연구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대학의 존재를 각각 강점으로 들고 있음.

〈표 2-5〉 경북 북부지역의 강점(Strength)

	요 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2004)	영주시 (2005)	영주시 (2002)	경상북도 의회 (2004)	경상북도 (2004)
1	다양한 자연생태, 청정환경	●	●	●		
2	잘 보존된 전통문화유산	●	●	●	●	●
3	교통기반조성		●			
4	풍부한 가용토지		●			
5	청정농산물 이미지 보유			●		
6	지자체의 개발의지 고조			●		
7	관광자원보유				●	
8	연구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대학존재				●	●

3) 약점(Weakness) 요인

- '경북북부지역'의 약점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는 경제기반취약 및 인구

등 지역자원 역외유출을, 영주시(2005)는 경제기반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지역간 기능적·공간적 연계부족 등을, 영주시(2002)는 경제기반취약, 인구노령화, 대도시 시장과 연계취약, 중심도시기능 미약, 지역전략산업 부재 등을, 경상북도의회(2004)는 경제기반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국가전략산업 소외 등을, 경상북도(2004)는 경제기반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지역간 공간적·기능적 연계부족, 국가전략소외 등을 들고 있음.

〈표 2-6〉 경북 북부지역의 약점(Weakness)

	요 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영주시 (2005)	영주시 (2002)	경상북도 의회 (2004)	경상북도 (2004)
1	경제기반취약(농림어업 중심의 산업구조)	●	●	●	●	●
2	인구 등 지역자원 역외유출	●				
3	지역간 불균형 심화		●		●	●
4	지역간 기능적·공간적 연계부족		●			●
5	인구의 노령화와 과소화			●		
6	대도시 시장과 연계성 취약			●		
7	중심도시기능의 미약			●		
8	지역전략산업 부재			●		
9	국가전략산업에서 소외				●	●

3) 기회(Opportunity) 요인

- 그리고 '경북북부지역'의 기회요인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는 참여정부 지방화정책,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개발수요의 증가 등을, 동양대(2004)는 참여정부 지방화정책, 지역혁신발전계획, 민선자치로 인한 지역혁신역량 구축 등을, 영주시(2002)는 참여정부 지방화정책, 접근성 개선, 민선자치로 인한 혁신역량의 구축, 여가활동의 증대 등을, 경상북도의회(2004)는 참여정부 지역혁신정책, 공공기관이전 등 지역혁신계획, 지역혁신역량의 구축, 산학협동분위기 고조, 환동해경제권의 형성, 지역간 교류증대 등을, 경상북도(2004)는 참여정부의 지방화정책, 지역혁신발전계획수립, 산학협동분위기 고조, 환동해경제권의 형성, 지역간 교류 증대 등을 들고 있음.

〈표 2-7〉 경북 북부지역의 기회요인(Opportunity)

	요 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2004)	동양대 지개연 (2004)	영주시 (2002)	경상북도 의회 (2004)	경상북도 (2004)
1	참여정부의 지방화 정책	●	●	●	●	●
2	접근성개선, 개발수요 증가	●		●		
3	지역혁신발전계획(공공기관이전 등)		●		●	●
4	민선자치로 인한 지역혁신역량 구축		●	●	●	
5	여가활동증대(주5일제)			●		
6	산학협동분위기 고조				●	●
7	환동해경제권의 형성				●	●
8	지역간 교류증대				●	●

4) 위협(Threat) 요인

- '경북북부지역'의 위협요인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는 개방과 산업경제의 급변, 수도권 집중화의 가속 등을, 동양대(2004)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열악한 개발여건, 지역의제형성 경험의 부재 등을, 영주시(2002)는 지리적 제약성과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을, 경상북도의회(2004)는 수도권의 집중, 경쟁력과 이미지 저하, 지역산업 공동화 등을 들고 있음. 경북의회의 위협요인에 더해 경상북도(2004)는 고속철도 개통의 파급효과를 들고 있음.

〈표 2-8〉 경북북부지역의 위협요인(Threat)

	요 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2004)	동양대 지개연 (2004)	영주시 (2002)	경상북도 의회 (2004)	경상북도 (2004)
1	개방과 산업경제의 급변	●				
2	수도권 집중화의 지속(지역격차)	●	●		●	●
3	열악한 개발여건(산업기반, SOC, 노동력 등)		●			
4	지역의제형성 경험의 부재		●			
5	지리적 제약성			●		
6	재정확보의 어려움			●		
7	고속철도 개통의 파급효과					●
8	경쟁력과 이미지 저하				●	●
9	지역산업의 공동화				●	●

○ 선행연구의 SWOT 분석결과를 SER-M SWOT 분석에서 사용하는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표 2-9〉 SER-M SWOT 요인

변수	장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주체 (subjective)	-발전의지와 역량	-도시중심기능미약 -국가전략산업소외	-지방화정책 -지역혁신발전계획	-중앙정부의존 -낮은 재정자립도
환경 (environment)	-청정한 자연환경 -전통문화유산	-인구유출 -인구노령화	-교통체계개선 -여가활용시간증가	-개방형 시장체제 -수도권 집중현상
자원 (resource)	-교통기반형성 -풍부한 토지자원 -청정농산물 -관광자원	-경제기반취약	-생물, 한방자원풍부 -환동해 경제권	-열악한 개발여건 -경쟁력 약화
메커니즘 (mechanism)	-연구클러스터	-지역간 불균형 -지역간 연계부족 -대도시 연계부족	-지역간 협력과 교류	-수도권과의 낮은 접근성 -고속철도 중심의 지역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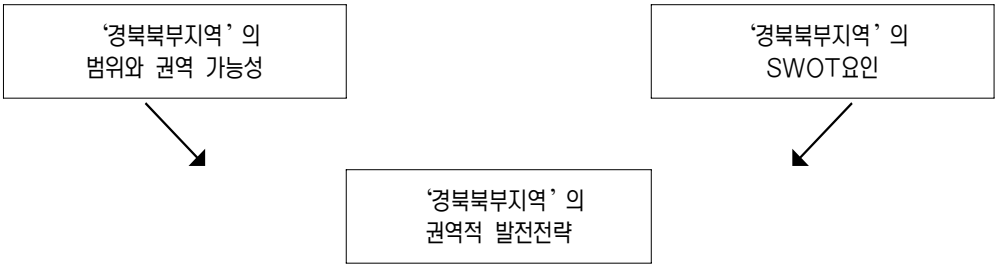
제3장
분석의 틀과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 연구는 ‘경북북부지역’의 권역적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먼저 ‘경북북부지역’의 단일 권역화 가능성과 권역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의 SWOT요인을 분석하여 기본적 발전전략을 도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권역설정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과 도출된 SWOT요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차원임.

- 이러한 차원의 분석을 위해 2장의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된 권역설정과 SWOT요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기존의 계획과 이론적으로 논의된 부분을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권역화 가능성과 추진전략 및 발전전략을 모색함.



〈그림 3-1〉 분석의 틀

2. 조사 설계

○ 본 연구는 ‘경북북부지역’의 권역가능성과 SWOT요인을 주민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 설문지는 2가지 차원의 질문문항과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음.

- 경북북부지역의 범위와 권역가능성을 확인하는 질문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경북북부지역의 SWOT요인에 대한 문항은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요인을 사용하였는데, 강점(Strength)을 묻는 8개 문항, 약점(Weakness)을 묻는 8개 문항, 기회요인(Opportunity)을 묻는 7개 문항, 위협요인(Threat)을 묻는 8개 문항 등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연구대상의 표본추출은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지역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확률적 표본추출방식 중 단순무작위표본추출방법(SRS: Simple Random Sampling)을 채택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함.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versio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장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각각에 대해 빈도와 평균값을 살펴보고, 관련 있는 측정지표의 차원을 구성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을 병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제4장
권역성과 SWOT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기간

-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와 행정협의회의 구성 자차단체인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울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함.
-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28일-11월 11월 16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자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

2) 응답자 특성

- 전체 400부의 설문지를 시·군별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배포하여, 총 34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13부를 제외하고 327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음.
- 성별로는 남자가 195명, 여자가 132명으로 남자 응답자가 전체의 59.6%로 더 많음.

〈표 4-1〉 응답자의 성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남자	195	59.6	59.6	59.6
여자	132	40.4	40.4	100.0
합계	327	100.0	100.0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2.4%로 가장 많았으며 50대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의 고령화 추세를 다소 반영하지 못하는 연령별 분포임.

〈표 4-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30대미만	38	11.6	11.6	11.6
30대	110	33.6	33.6	45.3
40대	127	38.8	38.8	84.1
50대이상	47	14.4	14.4	98.5
60대이상	5	1.5	1.5	100.0
합계	327	100.0	100.0	

- 학력은 고졸이하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문대졸, 대학졸업의 순임.

〈표 4-3〉 응답자의 학력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고졸 이하	110	33.6	34.3	34.3
전문대졸	101	30.9	31.5	65.7
대학	95	29.1	29.6	95.3
대학원이상	15	4.6	4.7	100.0
합계	321	98.2	100.0	
결측	6	1.8		

- 응답자의 거주지는 영주, 안동, 상주와 같은 시 지역이 전체의 50.2%를 차지하였으며, 문경, 영덕은 응답자가 1명, 예천은 0명으로 나타나 실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4-4〉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봉화	40	12.2	12.2	12.2
상주	45	13.8	13.8	26.0
안동	56	17.1	17.1	43.1
영주	63	19.3	19.3	62.4
영양	28	8.6	8.6	70.9
울진	25	7.6	7.6	78.6
의성	44	13.5	13.5	92.0
청송	26	8.0	8.0	100.0
합계	327	100.0	100.0	

- 응답자의 북부지역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5년 미만도 10.7%로 나타나 상당수의 응답자가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 응답자의 지역 거주기간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5년미만	35	10.7	10.7	10.7
5~10년미만	20	6.1	6.1	16.8
10~15년미만	25	7.6	7.6	24.5
15~20년미만	24	7.3	7.3	31.8
20년이상	223	68.2	68.2	100.0
합계	327	100.0	100.0	

- 직업분포는 공무원이 48.0%로 단일 직업으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주부, 자영업의 순으로 나타났음. 지역내 농업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농업이 1.8%로 나타난 것이 직업에 대한 대표성에 약점이 있음.

〈표 4-6〉 응답자의 직업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농업	6	1.8	1.8	1.8
자영업	45	13.8	13.8	15.6
공무원	157	48.0	48.0	63.6
전문직	27	8.3	8.3	71.9
주부	48	14.7	14.7	86.5
기타	44	13.5	13.5	100.0
합계	327	100.0	100.0	

- 응답자의 활동 분야는 주민이었으며 시민단체회원이 10.4%, 지방의원은 1명, 혁신협의회 위원은 2명으로 나타나 실제 분석에서는 활동분야별 비교는 수행할 수 없었음.

〈표 4-7〉 응답자의 활동분야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혁신협의회 위원	2	.6	.7	.7
지방의원	1	.3	.4	1.1
주민	248	75.8	87.0	88.1
시민단체회원	34	10.4	11.9	100.0
합계	285	87.2	100.0	
결측	42	12.8		

- 전체적으로 문경, 영덕, 예천지역의 응답자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된 점과 노인 응답자와 농업 종사자의 분포가 적은 것이 대표성을 위협하나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경북북부지역의 권역성에 대한 인식 분석

1) 권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분석

○ 권역 정체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분석

-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정체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10.5%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지역별로는 긍정적 반응은 청송 76.9%, 의성 68.2%, 봉화 62.5%, 상주 62.3%, 영양 60.7%, 안동 57.1%, 울진 54.2%, 영주 42.8%로 나타났는데 안동, 울진, 영주가 단일한 권역으로서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고 있음.
- 부정적 반응은 울진 20.8%, 상주 13.3%, 안동 12.5%, 영양 10.7%, 의성 9.1%, 영주 8.0%, 청송 7.7% 봉화 5.0%로 나타났는데 울진, 상주, 안동, 영양이 정체성의 존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입장임.

〈표 4-8〉 권역정체성에 대한 지역별 교차분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봉화	빈도	0	2	13	22	3	40
	%	.0%	5.0%	32.5%	55.0%	7.5%	100.0%
상주	빈도	0	6	11	25	3	45
	%	.0%	13.3%	24.4%	55.6%	6.7%	100.0%
안동	빈도	2	5	17	27	5	56
	%	3.6%	8.9%	30.4%	48.2%	8.9%	100.0%
영주	빈도	2	3	31	23	4	63
	%	3.2%	4.8%	49.2%	36.5%	6.3%	100.0%
영양	빈도	0	3	8	15	2	28
	%	.0%	10.7%	28.6%	53.6%	7.1%	100.0%
울진	빈도	2	3	6	13	0	24
	%	8.3%	12.5%	25.0%	54.2%	.0%	100.0%
의성	빈도	0	4	10	18	12	44
	%	.0%	9.1%	22.7%	40.9%	27.3%	100.0%
청송	빈도	2	0	4	19	1	26
	%	7.7%	.0%	15.4%	73.1%	3.8%	100.0%
계	빈도	8	26	100	162	30	326
	%	2.5%	8.0%	30.7%	49.7%	9.2%	100.0%

*. $X2$ = 53.62, df=28, p=.002

- 전체적으로는 정체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60% 정도가 인정하는 편이었으나 지역별로는 울진, 안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고, 청송, 의성, 봉화 지역이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는 99%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정체성에 대한 주민-공무원의 인식 분석

- 권역 정체성의 존재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교차분석 결과 주민들은 54.4%, 공무원은 6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공무원들이 좀 더 강하게 인정하고 있음.

〈표 4-9〉 권역정체성에 대한 주민-공무원 교차분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주민	빈도	5	18	54	80	12	169
	%	3.0%	10.7%	32.0%	47.3%	7.1%	100.0%
공무원	빈도	3	8	46	82	18	157
	%	1.9%	5.1%	29.3%	52.2%	11.5%	100.0%
계	빈도	8	26	100	162	30	326
	%	2.5%	8.0%	30.7%	49.7%	9.2%	100.0%

*. $X2$ = 5.77, df=4, p=.216

- 주민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권역 정체성을 더 높게 인정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2) 권역소속감에 대한 인식 분석

○ 권역 소속감에 대한 지역별 인식 분석

-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 66.4%가 긍정적인 응답을 8.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함.
- 지역별로 긍정적 응답은 의성 74.4%, 상주 73.3%, 안동 73.2%, 봉화 70.0%, 영양 67.9%, 영주 60.3%, 청송 53.6%, 울진 45.8%로 나타나서 의성, 상주, 안동, 봉화, 영양이 상대적으로 영주, 청송, 울진 보다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음.
- 부정적 응답은 울진 25.0%,청송 11.5%, 영주 11.1%, 영양 7.1%, 상주 6.7%, 의성 4.7%,안동 3.6%, 봉화 2.5%로 울진, 청송, 영주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많았음.
- 전체적으로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의성, 안동, 상주, 봉화가 높으며 울진, 청송, 영주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지역별 인식차이는 99%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짐.

〈표 4-10〉 권역소속감에 대한 지역별 교차분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봉화	빈도	0	1	11	23	5	40
	%	.0%	2.5%	27.5%	57.5%	12.5%	100.0%
상주	빈도	0	3	9	28	5	45
	%	.0%	6.7%	20.0%	62.2%	11.1%	100.0%
안동	빈도	1	1	13	29	12	56
	%	1.8%	1.8%	23.2%	51.8%	21.4%	100.0%
영주	빈도	0	7	18	31	7	63
	%	.0%	11.1%	28.6%	49.2%	11.1%	100.0%
영양	빈도	2	0	7	14	5	28
	%	7.1%	.0%	25.0%	50.0%	17.9%	100.0%
울진	빈도	0	6	7	9	2	24
	%	.0%	25.0%	29.2%	37.5%	8.3%	100.0%
의성	빈도	0	2	9	19	13	43
	%	.0%	4.7%	20.9%	44.2%	30.2%	100.0%
청송	빈도	0	3	9	9	5	26
	%	.0%	11.5%	34.6%	34.6%	19.2%	100.0%
계	빈도	3	23	83	162	54	325
	%	.9%	7.1%	25.5%	49.8%	16.6%	100.0%

*. $\chi 2$ = 48.71, df=28, p=.009

○ 권역 소속감에 대한 주민-공무원 인식 분석

-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주민과 공무원의 차이를 교차분석 한 결과 주민은 64.3% 공무원은 68.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음.

〈표 4-11〉 권역소속감에 대한 주민-공무원 교차분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주민	빈도	2	16	42	79	29	168
	%	1.2%	9.5%	25.0%	47.0%	17.3%	100.0%
공무원	빈도	1	7	41	83	25	157
	%	.6%	4.5%	26.1%	52.9%	15.9%	100.0%
계	빈도	3	23	83	162	54	325
	%	.9%	7.1%	25.5%	49.8%	16.6%	100.0%

*. $\chi 2$ = 3.89, df=4, p=.420

3) 단일권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 단일권역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분석

-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 단일 권역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83.2%가 긍정적인 응답을 해 권역화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폭 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2〉 단일권역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교차분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봉화	빈도	0	1	5	26	8	40
	%	.0%	2.5%	12.5%	65.0%	20.0%	100.0%
상주	빈도	0	1	7	23	14	45
	%	.0%	2.2%	15.6%	51.1%	31.1%	100.0%
안동	빈도	1	0	3	34	18	56
	%	1.8%	.0%	5.4%	60.7%	32.1%	100.0%
영주	빈도	0	5	14	33	11	63
	%	.0%	7.9%	22.2%	52.4%	17.5%	100.0%
영양	빈도	0	1	2	18	7	28
	%	.0%	3.6%	7.1%	64.3%	25.0%	100.0%
울진	빈도	0	4	4	13	3	24
	%	.0%	16.7%	16.7%	54.2%	12.5%	100.0%
의성	빈도	0	2	2	22	18	44
	%	.0%	4.5%	4.5%	50.0%	40.9%	100.0%
청송	빈도	0	0	3	19	4	26
	%	.0%	.0%	11.5%	73.1%	15.4%	100.0%
계	빈도	1	14	40	188	83	326
	%	.3%	4.3%	12.3%	57.7%	25.5%	100.0%

*. $\chi 2$ = 43.659, df=28, p=.030

-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긍정적 응답은 안동 92.8%, 의성 90.9%, 영양 89.3%, 청송 88.5%, 봉화 85.0%, 상주 82.2%, 영주 69.9%, 울진 6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동, 의성, 영양, 봉화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부정적 응답자 비율은 울진 16.7%, 영주 7.9%, 의성 4.5%, 영양 3.6%, 봉화 2.5%, 상주 2.2%, 안동 1.8%, 청송 0.0%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울진과 영주가 부정적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단일권역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무원 인식 분석

- 단일권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주민과 공무원간에 비교해 보면 주민이 84.0%, 공무원은 82.1%로 주민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음.

〈표 4-13〉 단일권역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무원 교차분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주민	빈도	1	7	19	98	44	169
	%	.6%	4.1%	11.2%	58.0%	26.0%	100.0%
공무원	빈도	0	7	21	90	39	157
	%	.0%	4.5%	13.4%	57.3%	24.8%	100.0%
계	빈도	1	14	40	188	83	326
	%	.3%	4.3%	12.3%	57.7%	25.5%	100.0%

*. $\chi 2$ = 1.302, df=4, p=.861

4)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 분석

○ 발전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분석

- '경북북부지역'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의 61.4%는 긍정적인 응답을 12.6%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음.
-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긍정적 응답 비율은 의성 70.5%, 상주 64.4%, 안동 60.8%, 영양 60.8%, 영주 60.3%, 봉화 60.0%, 울진 54.2%, 청송 53.8%로 의성과 상주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줌.
- 부정적 응답 비율은 울진 25.0%, 청송 19.2%, 영주 15.9%, 안동 14.3%, 의성 11.4%, 영양 10.7%, 봉화 5.0%, 상주 4.4%의 순으로 울진, 청송, 영주, 안동이 부정적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14〉 발전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교차분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봉화	빈도	0	2	14	17	7	40
	%	.0%	5.0%	35.0%	42.5%	17.5%	100.0%
상주	빈도	0	2	14	20	9	45
	%	.0%	4.4%	31.1%	44.4%	20.0%	100.0%
안동	빈도	2	6	14	24	10	56
	%	3.6%	10.7%	25.0%	42.9%	17.9%	100.0%
영주	빈도	3	7	15	31	7	63
	%	4.8%	11.1%	23.8%	49.2%	11.1%	100.0%
영양	빈도	1	2	8	15	2	28
	%	3.6%	7.1%	28.6%	53.6%	7.1%	100.0%
울진	빈도	1	5	5	9	4	24
	%	4.2%	20.8%	20.8%	37.5%	16.7%	100.0%
의성	빈도	0	5	8	15	16	44
	%	.0%	11.4%	18.2%	34.1%	36.4%	100.0%
청송	빈도	4	1	7	13	1	26
	%	15.4%	3.8%	26.9%	50.0%	3.8%	100.0%
계	빈도	11	30	85	144	56	326
	%	3.4%	9.2%	26.1%	44.2%	17.2%	100.0%

*. $\chi 2$ = 43.786, df=28, p=.029

○ 발전가능성에 대한 주민-공무원 인식 분석

- 발전 가능성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교차분석 한 결과 긍정적 응답이 주민은 59.2%, 공무원은 63.7%로 공무원이 다소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음.

〈표 4-15〉 발전가능성에 대한 주민-공무원 교차분석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주민	빈도	7	18	44	73	27	169
	%	4.1%	10.7%	26.0%	43.2%	16.0%	100.0%
공무원	빈도	4	12	41	71	29	157
	%	2.5%	7.6%	26.1%	45.2%	18.5%	100.0%
계	빈도	11	30	85	144	56	326
	%	3.4%	9.2%	26.1%	44.2%	17.2%	100.0%

*. $\chi 2$ = 1.784, df=4, p=.775

5) 권역성에 대한 인식 비교

○ 권역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비교

- 전체적으로 단일권역의 필요성이 평균 4.04로 네 가지 차원 중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역 소속감' 3.74, '발전 가능성' 3.63, '권역 정체성' 3.5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응답자들은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은 높게 인정하고 있으나 단일한 권역으로서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고 있음.
- 권역성에 대한 4가지 차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지역별로 교차분석 한 결과 4가지 차원 모두 지역별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권역성에 대한 4가지 차원의 응답에 대한 평균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수행한 결과 '권역 소속감'은 95% 유의수준에서 '권역 필요성'은 99% 유의수준에서 지역별 편차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6〉 권역성에 대한 지역별 평균비교

		권역 정체성	권역 소속감*	권역 필요성**	발전 가능성
봉화	평균	3.65	3.80	4.02	3.73
	N	40	40	40	40
상주	평균	3.56	3.78	4.11	3.80
	N	45	45	45	45
안동	평균	3.50	3.89	4.21	3.61
	N	56	56	56	56
영주	평균	3.38	3.60	3.79	3.51
	N	63	63	63	63
영양	평균	3.57	3.71	4.11	3.54
	N	28	28	28	28
울진	평균	3.25	3.29	3.62	3.42
	N	24	24	24	24
의성	평균	3.86	4.00	4.27	3.95
	N	44	43	44	44
청송	평균	3.65	3.62	4.04	3.23
	N	26	26	26	26
합계	평균	3.55	3.74	4.04	3.63
	N	326	325	326	326

*P < .05, **P < .01

- 이러한 결과를 지역별로 비교하기 위해 Duncan과 Tukey 계수에 의해 사후검정을 하여 동일집단군을 분석하였음. 즉, 동일집단으로 묶이는 지역을 분석하여 각각의 차원에 대한 지역별 적극적 긍정과 소극적 인식의 분포를 분석하였음.
- 먼저 '권역 정체성'은 울진, 영주, 안동이 소극적 집단으로 그리고 의성, 청송, 봉화, 영양이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음.
- '권역 소속감'은 울진, 영주, 청송이 소극적 집단으로 그리고 의성, 안동, 봉화가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음.
- '권역 필요성'은 울진, 영주는 소극적 집단으로 의성, 안동, 상주는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은 청송, 울진, 영주가 소극적 집단으로 의성, 상주, 봉화, 안동이 긍정적 집단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하나의 도표로 요약하면 <표 4-17> 과 같음.

〈표 4-17〉 권역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 비교

	긍정적 지역	소극적 지역
권역 정체성	의성, 청송, 봉화, 영양	울진, 영주, 안동
권역 소속감	의성, 안동, 봉화	울진, 영주, 청송
권역 필요성	의성, 안동, 상주	울진, 영주
발전 가능성	의성, 안동, 상주, 봉화	울진, 청송, 영주

- 권역성에 대한 지역적 인식을 종합하면 의성, 안동, 봉화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울진, 영주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안동의 경우 소속감, 필요성 및 발전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정체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울진의 경우 실제 태백산맥이 가로 막혀 있어 공간적으로 단일한 권역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인식 역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남[2].
- 상주의 경우 권역의 필요성과 발전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정체성과 소속감은 유보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권역성은 약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좀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3].

2) 영덕의 분석에 포함된 응답이 없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울진과 유사할 것으로 보임.

- 청송은 정체성은 인정하나 소속감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소극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영주의 경우 일관되게 소극적적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 울진과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유추되며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권역성에 대한 주민-공무원 인식 비교

- 권역성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간의 평균비교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체성과 소속감, 발전 가능성은 공무원 집단이 더 긍정적으로 인시하고 있으며, 권역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음.

〈표 4-18〉 권역성에 대한 주민-공무원 평균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권역 정체성	주민	169	3.45	.886	.068
	공무원	157	3.66	.821	.066
권역 소속감	주민	168	3.70	.907	.070
	공무원	157	3.79	.785	.063
권역 필요성	주민	169	4.05	.770	.059
	공무원	157	4.03	.751	.060
발전 가능성	주민	169	3.56	1.017	.078
	공무원	157	3.69	.945	.075

*P < .05, **P < .01

○ 권역성에 대한 거주기간에 따른 인식 비교

- 마찬가지로 권역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역내 거주기간에 따른 평균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정체성, 소속감, 필요성, 발전 가능성 모두 2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들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 거주자 들이 정체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이었음.
- 통계적으로는 소속감은 9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로 검증되었고, 나머지는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닌 것으로 검증됨.

3) 문경의 경우는 향후 추가적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4-19〉 권역성에 대한 거주기간에 따른 평균 비교

	거주기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권역 정체성	20년 미만	104	3.47	.788	.077
	20년 이상	222	3.59	.892	.060
권역 소속감*	20년 미만	104	3.58	.867	.085
	20년 이상	221	3.82	.833	.056
권역 필요성	20년 미만	104	3.99	.717	.070
	20년 이상	222	4.06	.779	.052
발전 가능성	20년 미만	104	3.58	.878	.086
	20년 이상	222	3.65	1.030	.069

*P < .05, **P < .01

6) 권역범위에 대한 인식 분석

- 위와 같은 '경북북부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4가지 차원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응답자들은 실제 '경북북부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음.

〈표 4-20〉 권역범위에 대한 지역별 인식

		봉화	상주	안동	영주	영양	울진	의성	청송	문경	영덕	예천	전체
봉화	빈도	40	10	25	32	26	24	7	15	12	7	22	40
	%	100.0	25.0	62.5	80.0	65.0	60.0	17.5	37.5	30.0	17.5	55.0	100.0
상주	빈도	24	40	27	24	18	18	16	14	25	16	26	45
	%	53.3	88.9	60.0	53.3	40.0	40.0	35.6	31.1	55.6	35.6	57.8	100.0
안동	빈도	42	16	50	37	30	11	27	29	19	12	32	56
	%	75.0	28.6	89.3	66.1	53.6	19.6	48.2	51.8	33.9	21.4	57.1	100.0
영주	빈도	52	11	40	59	30	21	7	11	24	8	44	63
	%	82.5	17.5	63.5	93.7	47.6	33.3	11.1	17.5	38.1	12.7	69.8	100.0
영양	빈도	24	2	18	19	27	16	6	22	6	11	9	28
	%	85.7	7.1	64.3	67.9	96.4	57.1	21.4	78.6	21.4	39.3	32.1	100.0
울진	빈도	18	13	12	17	12	10	9	9	13	8	8	25
	%	72.0	52.0	48.0	68.0	48.0	40.0	36.0	36.0	52.0	32.0	32.0	100.0
의성	빈도	26	11	31	26	26	14	42	24	18	10	22	44
	%	59.1	25.0	70.5	59.1	59.1	31.8	95.5	54.5	40.9	22.7	50.0	100.0
청송	빈도	13	9	11	11	10	7	9	21	11	6	5	26
	%	50.0	34.6	42.3	42.3	38.5	26.9	34.6	80.8	42.3	23.1	19.2	100.0
전체	빈도	239	112	214	225	179	121	123	145	128	78	168	327
	%	73.1	34.3	65.4	68.8	54.7	37.0	37.6	44.3	39.1	23.9	51.4	100.0

- 전체 응답자가 인식하는 권역의 범위는 봉화 73.1%, 영주 68.8%, 안동 65.4%, 예천 51.4%, 영양 54.7%, 청송 44.3%, 문경 39.1%, 의성 37.6%, 울진 37.0%, 상주 34.3%, 영덕 23.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자기 자신의 지역에 대한 권역범위 인식은 봉화 100.0%, 영양 96.4%, 의성 95.5%, 영주93.7%, 안동 89.3%, 상주 88.9%, 청송 80.8%, 울진 40.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울진과 영덕은 위의 지역별 인식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스스로의 인식과 권역내 타 지역의 인식이 공통적으로 권역범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됨.
- 상주의 경우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전체적 인식은 '경북북부지역'의 범위로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의성 역시 가장 정체성을 높게 인정하는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권역범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 영주의 경우 스스로는 가장 부정적인 권역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권역범위로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봉화, 안동은 스스로의 인식과 지역주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

3. SWOT 요인에 대한 인식분석

1) 강점(Strength)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 지역별 인식 분석

- '경북북부지역'의 강점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농업생산물(3.95), 자연자원(3.83), 역사문화자원(3.83), 관광자원(3.72), 교통기반(3.50), 토지자원(3.44), 정부의지와 역량(3.38), 지역대학(2.99)의 순서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은 청정한 농산물자원과 자연자원 그리고 전통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것은 기존의 지역에 대한 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로 해석됨.
- 반면 지역소재 대학과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해 소극적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대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임.

〈표 4-21〉 강점요인에 대한 지역별 평균비교

		자연자원	역사문화**	교통기반**	토지자원**	농업생산물	정부의지역량**	관광자원	지역대학
봉화	평균	4.05	3.95	3.55	3.18	4.10	3.62	3.57	2.93
	N	40	40	40	40	40	39	40	40
상주	평균	3.67	3.64	3.87	3.71	3.98	3.44	3.87	3.00
	N	45	45	45	45	45	45	45	45
안동	평균	3.75	4.05	3.47	3.47	3.89	3.43	3.79	3.11
	N	56	56	55	55	56	56	56	56
영주	평균	3.90	3.90	3.68	3.27	3.86	3.27	3.63	2.97
	N	63	63	63	63	63	62	63	63
영양	평균	3.82	3.43	3.11	3.30	3.86	3.33	3.50	3.00
	N	28	28	28	27	28	27	28	28
울진	평균	3.92	3.40	2.64	3.00	3.88	2.80	3.56	2.68
	N	25	25	25	25	24	25	25	25
의성	평균	3.55	4.02	3.67	3.98	4.09	3.74	4.02	3.02
	N	44	44	43	43	44	43	44	44
청송	평균	4.12	3.88	3.31	3.42	3.96	3.00	3.58	3.12
	N	26	26	26	26	26	25	26	26
합계	평균	3.83	3.83	3.50	3.44	3.95	3.38	3.72	2.99
	N	327	327	325	324	326	322	327	327

*P < .05, **P < .01

- 지역별로는 봉화는 청정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상주는 농산물자원과 교통기반, 안동은 전통문화유산과 농산물자원, 영주는 자연자원과 전통문화유산, 영양은 농산물자원과 자연자원, 울진은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 의성은 농산물자원과 전통문화유산, 청송은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을 높게 평가하여 해당 지역의 여건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
- 지역간 평균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전통문화유산자원, 교통기반, 토지자원, 정부역량에 대해 99%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음.
- 전통문화유산은 안동, 의성, 봉화가 높은 평가를 울진, 영양, 상주가 소극적 평가를 하였음.
- 교통기반은 상주, 영주가 높은 평가를 울진, 영양, 청송이 소극적 평가를 하였음.
- 토지자원은 의성, 상주가 높은 평가를 울진, 봉화, 영주가 소극적 평가를 하였음.
- 정부의지와 역량에 대해 의성, 봉화가 높은 평가를 울진, 청송, 영주가 소극적 평가를 하였음.

- 결과적으로 '경북북부지역'의 강점요인에 대해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은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간 평가에 차이가 있어 공통적 요인으로 설정하기에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공무원 인식 비교

〈표 4-22〉 강점요인에 대한 주민-공무원 평균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자연자원*	주민	170	3.724	0.863	0.066
	공무원	157	3.936	0.925	0.074
역사문화	주민	170	3.747	0.85	0.065
	공무원	157	3.93	0.848	0.068
교통기반	주민	169	3.473	0.92	0.071
	공무원	156	3.519	0.926	0.074
토지자원	주민	167	3.413	0.989	0.077
	공무원	157	3.471	0.997	0.08
농업생산물*	주민	169	3.864	0.801	0.062
	공무원	157	4.045	0.737	0.059
정부의지역량**	주민	167	3.18	0.99	0.077
	공무원	155	3.587	0.91	0.073
관광자원	주민	170	3.659	0.808	0.062
	공무원	157	3.777	0.837	0.067
지역대학	주민	170	2.9	0.94	0.072
	공무원	157	3.089	0.894	0.071

*P < .05, **P < .0

- 강점요인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t-test로 비교한 결과 자연자원, 농산물자원, 정부역량에 대해 의미 있는 인식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높은 평가를 하였음.
- 그러나 정부역량에 대해 공무원들이 주민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자기중심적 평가의 경과일 수도 있음.

2) 약점(Weakness)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 지역별 인식 분석

- 약점요인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은 인구감소(4.27), 인구노령화(4.24), 전략산업부재(4.14), 경제기반취약(4.02), 지역내 불균형(4.00), 도시기능취약(3.94), 협력부족(3.78), 대도시연계부족(3.56)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표 4-23〉 약점요인에 대한 지역별 평균비교

		경제기반취약**	인구감소**	지역내불균형**	협력부족	인구노령화**	대도시연계 부족**	도시기능취약**	전략산업부재
봉화	평균	4.20	4.58	4.07	3.72	4.51	3.65	4.18	4.20
	N	40	40	40	40	39	40	40	40
상주	평균	4.07	4.29	4.16	3.96	4.22	3.44	3.62	4.18
	N	45	45	45	45	45	45	45	45
안동	평균	3.91	4.14	3.82	3.58	4.04	3.34	3.60	3.93
	N	56	56	56	55	56	56	55	56
영주	평균	3.84	4.24	3.79	3.71	3.98	3.17	3.97	4.05
	N	63	63	63	62	63	63	63	63
영양	평균	4.29	4.25	3.93	3.93	4.43	3.93	4.07	4.11
	N	28	28	27	28	28	28	28	28
울진	평균	3.56	3.76	3.72	3.80	4.16	3.68	4.20	4.04
	N	25	25	25	25	25	25	25	25
의성	평균	4.26	4.43	4.33	3.91	4.55	4.00	3.93	4.43
	N	43	44	43	44	44	44	44	44
청송	평균	4.08	4.38	4.27	3.81	4.32	3.81	4.46	4.35
	N	26	26	26	26	25	26	26	26
합계	평균	4.02	4.27	4.00	3.78	4.24	3.56	3.94	4.14
	N	326	327	325	325	325	327	326	327

*P < .05, **P < .01

- 조사지역 주민들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전략산업 부재와 같은 경제기반의 취약을 가장 큰 약점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북부지역내의 불균형도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보고 있음.
- 상대적으로 대도시와의 연계성과 같은 요인은 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는 강점요인보다 약점요인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만큼 해당지역이 낙후지역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지역별로는 봉화, 상주, 안동, 영양, 의성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영주는 인구감소와 전략산업부재를, 울진은 노령화와 도시

기능취약을, 청송은 인구감소와 도시기반 취약을 약점으로 평가함.

- 지역별 평균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협력부족과 전략산업부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인이 지역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기반취약'은 의성, 봉화, 영양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울진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인구감소'는 울진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높게 평가함.
- '지역내 불균형'은 울진, 영주, 안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의성, 청송, 상주, 봉화는 높게 평가함.
- '인구노령화'는 영주, 안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높게 평가함.
- '대도시연계부족'은 영주, 상주, 안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높게 평가함.
- '도시기능취약'은 안동, 상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청송, 울진, 봉화, 영양은 높게 평가함.
- '전략산업부재'는 대부분 지역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협력부재'는 가장 낮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지역별로 일치하고 있어 실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가와 별개로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임.
- 약점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강점요인과 같이 지역별 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경제기반취약과 전략산업부재로 나타났음.

○ 주민-공무원 인식 분석

- 약점요인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는 공무원들이 주민들 보다 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표 4-24〉 약점요인에 대한 주민-공무원 평균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경제기반취약	주 민	169	4.02	.779	.060
	공 무 원	157	4.01	.801	.064
인구감소	주 민	170	4.23	.807	.062
	공 무 원	157	4.32	.725	.058
지역내불균형	주 민	168	4.00	.750	.058
	공 무 원	157	3.99	.780	.062
협력부족	주 민	168	3.82	.739	.057
	공 무 원	157	3.75	.814	.065
인구노령화	주 민	168	4.27	.698	.054
	공 무 원	157	4.21	.777	.062
대도시연계부족	주 민	170	3.59	.971	.074
	공 무 원	157	3.54	.910	.073
도시기능취약	주 민	169	3.98	.869	.067
	공 무 원	157	3.90	.853	.068
전략산업부재	주 민	170	4.18	.772	.059
	공 무 원	157	4.11	.789	.063

*P < .05, **P < .01

3) 기회(Opportunity) 요인에 대한 분석

○ 지역별 인식 분석

-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회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광역교통망구축(3.83), 자체 혁신발전노력(3.56), 국가균형발전정책(3.51), 5도2촌(3.51), 생물한방자원(3.50), 환동해경제권개발(3.37), 지역 내 협력교류활성화(3.33)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실질적 기회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최근의 동서 5, 6축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응답자들은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지역내 협력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봉화는 5도2촌과 광역교통망구축, 상주, 의성은 광역교통망구축과

균형발전정책, 안동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생물한방산업, 광역교통망구축, 영주, 영양, 울진, 청송은 5도2촌과 광역교통망으로 나타나 지역별 유사성이 존재함.

- 지역별 인식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환동해경제권개발과 협력교류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간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는 의성, 상주, 안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울진, 봉화, 영양은 낮게 평가함.

〈표 4-25〉 기회요인에 대한 지역별 평균비교

		균형발전 정책**	광역교통망 구축**	혁신발전 노력**	5도2촌*	생물한방 자원*	환동해권	협력교류활성화
봉화	평균	3.18	3.55	3.50	3.63	3.32	3.28	3.33
	N	40	40	40	40	40	40	40
상주	평균	3.82	4.00	3.73	3.44	3.67	3.49	3.11
	N	45	45	45	45	45	45	45
안동	평균	3.67	3.75	3.65	3.67	3.76	3.38	3.48
	N	55	56	55	55	55	56	56
영주	평균	3.32	3.68	3.63	3.68	3.38	3.37	3.32
	N	63	63	63	63	63	63	63
영양	평균	3.19	3.67	3.26	3.37	3.30	3.26	3.15
	N	27	27	27	27	27	27	27
울진	평균	3.16	4.00	2.88	3.40	3.20	3.12	3.20
	N	25	25	25	25	25	25	25
의성	평균	3.98	4.11	3.80	3.09	3.66	3.52	3.50
	N	43	44	44	43	44	44	44
청송	평균	3.46	4.00	3.54	3.62	3.42	3.35	3.42
	N	26	26	26	26	26	26	26
합계	평균	3.51	3.83	3.56	3.51	3.50	3.37	3.33
	N	324	326	325	324	325	326	326

*P < .05, **P < .01

- '광역교통망구축'에 대해서는 의성, 청송, 상주, 울진은 높게 평가하고, 봉화, 영양, 영주는 낮게 평가함.
- '자체혁신발전노력'에 대해 의성, 상주는 높게 평가하고, 울진, 영양은 낮게 평가하고 있음.
- '5도2촌'에 대해 영주, 안동, 봉화, 청송은 높게 평가하고, 의성은 낮게 평가함.

- '생물한방자원'에 대해 안동, 상주는 높게 평가하고, 울진은 낮게 평가함.
-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주, 안동, 울진, 의성, 청송지역의 광역교통망에 대한 높은 평가와 봉화, 청송, 영주, 안동의 높은 평가가 그러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생물한방산업에 대한 안동과 상주의 높은 평가가지역적 여건과 노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 울진의 경우 친환경 농업과 생명산업에 대한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평가를 한 것은 특이한 점으로 나타남.

○ 주민-공무원 인식 분석

- 기회요인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모든 요인에 대해 주민들 보다 공무원들이 높게 평가하였으며, 혁신발전노력, 5도2촌, 환동해경제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표 4-26〉 기회요인에 대한 주민-공무원 평균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균형발전정책	주민	168	3.45	.959	.074
	공무원	156	3.56	1.055	.084
광역교통망구축	주민	170	3.75	.800	.061
	공무원	156	3.92	.811	.065
혁신발전노력**	주민	169	3.40	.773	.059
	공무원	156	3.74	.828	.066
5도2촌**	주민	168	3.24	.943	.073
	공무원	156	3.80	.774	.062
생물한방자원	주민	169	3.43	.885	.068
	공무원	156	3.57	.910	.073
환동해권*	주민	170	3.28	.807	.062
	공무원	156	3.46	.830	.066
협력교류활성화	주민	170	3.27	.855	.066
	공무원	156	3.39	.800	.064

*P < .05, **P < .01

- 이러한 요인은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요인들로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전략적으로 지방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4) 위협(Threat) 요인에 대한 분석

○ 지역별 인식 분석

- '경북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협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발여건열악(4.13), 수도권집중강화(4.05), 지역재정여건취약(3.96), 산업구조취약성(3.94), 개방경제(3.93), 낙후지역이미지(3.87), 지나친 중앙의존(3.69), 수도권접근성취약(3.68)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전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지역의 개발여건과 재정여건의 취약성을 외적으로는 수도권집중과 개방경제를 위협요인으로 평가함.
- 지역별로는 봉화는 개발여건열악과 지역재정여건취약을, 상주는 수도권집중강화와 개발여건열악을, 안동은 개방경제와 수도권집중강화, 영주는 개발여건열악과 수도권집중강화, 영양과 울진은 개발여건열악과 산업구조취약성, 의성, 청송은 수도권집중강화와 개발여건열악을 상대적으로 높은 위협요인으로 평가하였음.

〈표 4-27〉 위협요인에 대한 지역별 평균비교

		개방경제*	수도권 집중강화	개발여건열악*	지나친 중앙의존	수도권접근성 취약	지역재정여건 취약	낙후지역 이미지	산업구조 취약성
봉화	평균	3.97	4.08	4.35	3.43	3.70	4.10	3.90	4.03
	N	40	39	40	40	40	40	40	40
상주	평균	3.89	4.16	4.09	3.71	3.53	4.09	3.98	3.96
	N	45	44	45	45	45	45	45	45
안동	평균	4.02	3.85	3.87	3.54	3.67	3.80	3.73	3.87
	N	56	55	55	56	54	55	56	55
영주	평균	3.65	3.98	4.06	3.65	3.48	3.94	3.73	3.78
	N	63	63	63	63	63	63	63	63
영양	평균	4.00	4.04	4.39	3.64	3.89	3.93	3.82	4.07
	N	28	28	28	28	28	28	28	28
울진	평균	3.88	3.88	4.08	3.84	3.63	3.56	3.80	3.92
	N	25	25	25	25	24	25	25	25
의성	평균	4.20	4.32	4.25	3.95	3.86	4.20	4.14	4.11
	N	44	44	44	42	44	44	44	44
청송	평균	3.96	4.12	4.19	3.96	3.96	3.88	3.96	3.88
	N	26	26	26	26	26	26	26	26
합계	평균	3.93	4.05	4.13	3.69	3.68	3.96	3.87	3.94
	N	327	324	326	325	324	326	327	P 326

*P < .05, **P < .01

- 지역별 인식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개방경제와 개발여건열악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머지 요인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개방경제'는 의성, 안동, 영양이 높게 평가하고, 영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개발여건열악'은 봉화, 영양, 의성이 높게 평가하고, 안동이 낮게 평가함.
- 그 외 '수도권집중강화', '지역재정여건취약', '산업구조취약성'은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요인이며, '지나친 중앙의존', '수도권접근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요인임.
- 수도권접근취약성을 상대적으로 낮은 위협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주민-공무원 인식 분석

- 위협요인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방경제, 수도권집중강화, 지나친 중앙의존, 수도권접근성취약, 낙후지역이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큰 위협요인으로 평가한 반면 공무원들은 개발여건열악, 지역재정여건취약, 산업구조취약성을 더 큰 위협요인으로 평가하였음.

〈표 4-28〉 위협요인에 대한 주민-공무원 평균비교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개방경제*	주민	170	4.03	.780	.060
	공무원	157	3.83	.769	.061
수도권집중강화	주민	169	4.06	.792	.061
	공무원	155	4.04	.763	.061
개발여건열악	주민	169	4.13	.745	.057
	공무원	157	4.14	.755	.060
지나친중앙의존	주민	170	3.72	.738	.057
	공무원	155	3.65	.834	.067
수도권접근성취약	주민	167	3.77	.891	.069
	공무원	157	3.59	.967	.077
지역재정여건취약	주민	169	3.92	.827	.064
	공무원	157	4.00	.855	.068
낙후지역이미지	주민	170	3.93	.718	.055
	공무원	157	3.81	.794	.063
산업구조취약성	주민	169	3.92	.787	.061
	공무원	157	3.96	.827	.066

*P < .05, **P < .01

- 개방경제에 대한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로 나타나 농업개방 등과 같은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위협을 주민들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 위협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무원간의 인식의 편차는 크지 않음.

5) SWOT요인에 대한 지역별 종합비교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SWOT요인에 대한 인식을 요인별로 종합하여 분석하면 조사지역 주민들은 '경북북부지역'의 약점과 위협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강점과 기회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기회요인보다 강점요인을 높게 평가하여, 기회적 요소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안동과 울진지역 만이 미세하지만 기회요인을 더소 높게 평가하여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약점요인에 대해 의성, 청송, 봉화, 영양 등 권역내의 상대적 낙후지역이 높게 평가하였음.
- 위협요인에 대해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등 권역내 낙후지역이 역시 높게 평가하였음.
- 강점요인에 대해 의성, 상주, 봉화, 안동이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기회요인에 대해 의성, 안동, 상주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북북부지역'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역내의 상대적 낙후지역이 약점과 위협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표 4-29〉 지역별 SWOT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봉화	3.62	4.14	3.40	3.94
상주	3.65	3.99	3.61	3.93
안동	3.61	3.81	3.64	3.79
영주	3.56	3.84	3.48	3.78
영양	3.46	4.13	3.31	3.97
울진	3.24	3.87	3.28	3.78
의성	3.80	4.25	3.67	4.12
청송	3.55	4.20	3.54	3.99
합계	3.59	4.00	3.51	3.90

제5장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요약

1) 권역성에 대한 분석결과

○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정체성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10.5%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지역별로는 청송 76.9%, 의성 68.2%, 봉화 62.5%, 상주 62.3%, 영양 60.7%, 안동 57.1%, 울진 54.2%, 영주 42.8%로 나타났는데 안동, 울진, 영주가 단일한 권역으로서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고 있음.

○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 66.4%가 긍정적인 응답을 8.0%가 부정적인 응답을 함.

- 지역별로 긍정적 응답은 의성 74.4%, 상주 73.3%, 안동 73.2%, 봉화 70.0%, 영양 67.9%, 영주 60.3%, 청송 53.6%, 울진 45.8%로 의성, 상주, 안동, 봉화, 영양이 영주, 청송, 울진 보다 소속감이 높게 나타났음.

○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전략으로 단일 권역화가 필요한가는 질문에 83.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권역화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폭 넓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는 긍정적 반응이 안동 92.8%, 의성 90.9%, 영양 89.3%, 청송 88.5%, 봉화 85.0%, 상주 82.2%, 영주 69.9%, 울진 6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동, 의성, 영양, 봉화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경북북부지역'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체의 61.4%는 긍정적인 응답을 12.6%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음.

-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긍정적 응답이 의성 70.5%, 상주 64.4%, 안동 60.8%, 영양 60.8%, 영주 60.3%, 봉화 60.0%, 울진 54.2%, 청송 53.8%로 의성과 상주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여줌.

○ 전체응답자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단일권역의 필요성이 평균 4.04로 네 가지 차원 중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역 소속감' 3.74, '발전 가능성' 3.63, '권역 정체성' 3.55의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응답자들은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은 높게 인정하고 있으나 단일한 권역으로서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하고 있음.
- 지역별로도 권역성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편차를 긍정적 인식과 소극적 인식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 주민과 공무원 집단간에 권역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 유의미성도 나타나지 않았음.

〈표 5-1〉 권역성에 대한 지역별 인식차이

	긍정적 지역	소극적 지역
권역 정체성	의성, 청송, 봉화, 영양	울진, 영주, 안동
권역 소속감	의성, 안동, 봉화	울진, 영주, 청송
권역 필요성	의성, 안동, 상주	울진, 영주
발전 가능성	의성, 안동, 상주, 봉화	울진, 청송, 영주

○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경북북부지역'의 범위는 봉화 73.1%, 영주 68.8%, 안동 65.4%, 예천 51.4%, 영양 54.7%, 청송 44.3%, 문경 39.1%, 의성 37.6%, 울진 37.0%, 상주 34.3%, 영덕 23.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울진과 영덕은 스스로의 인식과 권역내 타 지역의 인식이 공통적으로 권역범위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와 의성은 스스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타 지역에서는 권역범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영주의 경우 가장 소극적으로 권역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권역범위로 높게 인정하고 있으며, 봉화와 안동은 스스로의 인식과 지역주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는 높게 인식하지 않으나 권역적 발전전략은 상당히 유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권역범위로는 봉화, 영주, 안동, 청송은 확고한 범위로 인정하는 반면 울진, 영덕, 의성, 상주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평가를 하고 있음.

2) SWOT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 '경북북부지역'의 강점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농업생산물(3.95), 자연자원(3.83), 역사문화자원(3.83), 관광자원(3.72), 교통기반(3.50), 토지자원(3.44), 정부의지와 역량(3.38), 지역대학(2.99)의 순서로 나타났음.

- '경북북부지역'의 강점요인으로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 관광자원을 지역별로도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지역간 평가에 차이가 있어 공통적 요인으로 설정하기에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약점요인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조사대상 지역주민들은 인구감소(4.27), 인구노령화(4.24), 전략산업부재(4.14), 경제기반취약(4.02), 지역내 불균형(4.00), 도시기능취약(3.94), 협력부족(3.78), 대도시연계부족(3.56)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약점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강점요인과 같이 지역별 여건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공통적인 것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경제기반취약과 전략산업부재로 나타났음.

○ '경북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회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광역교통망구축(3.83), 자체 혁신발전노력(3.56), 국가균형발전정책(3.51), 5도2촌(3.51), 생물한방자원(3.50), 환동해경제권개발(3.37), 지역내 협력교류활성화(3.33)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최근의 동서 5, 6축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응답자들은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균형발전정책이나 지역내 협력교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기회요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주, 안동, 울진, 의성, 청송지역의 광역교통망에 대한 높은 기대와 5도2촌에 대한 봉화, 청송, 영주, 안동의 높은 평가가 그러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생물한방산업에 대한 안동과 상주의 높은 기대가 지역적 여건과 노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 '경북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협요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개발여건열악(4.13), 수도권집중강화(4.05), 지역재정여건취약(3.96), 산업구조취약성(3.94), 개방경제(3.93), 낙후지역이미지(3.87), 지나친 중앙의존(3.69), 수도권접근성취약(3.68)의 순으로 평가하였음.

- 전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지역의 개발여건과 재정여건의 취약성을 외적으로는 수도권집중과 개방경제를 위협요인으로 평가함.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SWOT요인에 대한 인식을 요인별로 종합하여 분석하면 조사지역 주민들은 '경북북부지역'의 약점(4.00)과 위협(3.90)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강점(3.59)과 기회(3.51)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기회요인보다 강점요인을 높게 평가하여, 기회적 요소를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안동과 울진지역 만이 미세하지만 기회요인을 다소 높게 평가하여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정책적 시사점

○ '경북북부지역'은 단일 권역인가?

- 본 연구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경북북부지역'이라는 용어가 실체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정부 계획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권역설정사례를 분석하고 가장 넓게 권역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의 권역범위인 11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음.
- 기존 계획에서 '경북북부지역'은 좁게는 봉화, 영주, 예천, 안동, 청송, 영양의 범위를 의미하고, 넓게는 상주, 의성을 포함하고 있었음.
- 상주의 경우는 1999년「제4차 국토종합계획」이후 경북의 구미, 김천과 함께 '중서부권'으로 설정되고 있었으며, 울진과 영덕은 '동부연안권'으로 설정되었음.
- 그러나 2000년의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부터 상주, 울진, 영덕을 포함하여 '경북북부지역'이라는 권역범위를 설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최근의 「경북

북부지역혁신협의회」 결성까지 자연스럽게 11개 시·군으로 설정되고 있음.

- 이러한 권역설정은 연계와 연대를 통해 정치적 자원 동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되지만, 정치·행정 주도에 의해 인위적 설정이 가지는 약점이 향우 진정한 단일 권역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사실은 11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일부 표현되고 있는데 '권역 정체성'의 존재에 대해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울진, 영덕, 상주를 권역범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됨.
-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북북부지역'이 향후 단일한 권역으로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한 것은 그만큼 낙후지역으로서 동질감이 크며, 개별적 발전전략 추진의 효과가 미미함을 충분히 학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권역 정체성 확립과 단일 지역성 증진

-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함.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의식(regional consciousness)에 근거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의식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양방향의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앞서 SWOT요인에 대한 인식분석 중 강점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받은 강점요인이 '자연자원과 농산물자원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에 기반한 관광자원'이었다는 것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사·문화·정치·경제 및 행정적 차원의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본격적인 지역 정체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과 민간차원의 노력이 모두 요구됨.
- 특히 기존의 권역설정과 권역발전계획이 주로 정치·행정 주도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민간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상당히 중요함.

○ 상생과 호혜의 관계성 확립

- '경북북부지역'이 단일 권역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이 없으나, 실질적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호혜'의 원칙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실제 대부분의 해당 권역내의 지역주민들은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 보다 권역적 발전 전략의 추진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듯이, 실질적 상생과 호혜적 권역성 또는 단일 지역으로서 정체성 확립보다는 자신이 속한 '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같이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됨.
- 그동안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중요한 과제(도청이전, 전략산업추진, 혁신도시건설 등)의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지 못하고 경쟁함으로써 실패를 계속한 경험이 협력과 상생을 위한 바탕이 될 수도 있으나 진정성이 부족한 '자기중심의 전술적 접근'은 오히려 장기적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왕에 존재하는 소지역중심주의를 진정한 협력과 상생 그리고 호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호혜적 관계정립을 위한 원칙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함.

○ 다층적 교류 네트워크

- 단일한 권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층위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 다층적 교류 네트워크는 기존의 협력이나 연대가 주로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정치, 문화, 학술, 산업 및 시민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차원의 교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킴으로서 실질적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도의원들 간의 협의회, 권역내 대학 연구소들의 협의회, 시민단체 및 문화단체 네트워크 및 산업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됨.

○ 권역연구 중심의 구축

- 권역내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 구축이 실질적 교류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적 토대라면, '경북북부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지역내외의 다양한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집적하고 네트워킹하는 연구 중심을 구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적 토대임.

○ 정치·행정적 책임성의 확보

- 그동안 대부분의 개획권역이 행정구역을 중요한 단위로 설정되어 온 것은 집행의 효과성과 책임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인데 '경북북부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권역단위의 활동에 대한 집행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협약과 정치·행정적 책임단위를 구성하는 것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경북북부지역'을 단일한 하나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구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일 수 있음. 그러나 이것이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소지역적 패권이나 정치엘리트들의 정략적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함.

○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는 연구범위에서 계획적 차원만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취약하여 좀 더 세밀한 표본추출과· 이론적 검토가 보완되어야 함. 또한 앞으로 정치, 문화, 산업, 역사, 시민사회 등을 배경으로 하는 심화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함.
- 특히 권역범위와 정체성, 발전을 위한 비전, 행정적 단위 및 체계 등에 대한 우선적 연구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경상북도. (2001). 「제3차 경북종합계획」.

경상북도. (2004).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경상북도 경북전략산업기획단.

경상북도의회. (2004). 「경북발전 연구 논문집Ⅲ: 의정활동지원 자문교수 연구 논문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경북북부지역의 혁신역량과 발전전략」.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간담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5).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

김인중 외. (200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서울: 산업연구원.

대한민국정부. (1971). 「제1차 국토종합건설계획」.

대한민국정부. (198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대한민국정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대한민국정부. (1999).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산업자원부. (2003). 「2002 산업자원백서」. 산업자원부.

심인보. (2002). 관광권역설정 및 권역별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전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4(2): 199-223.

영주시. (2002). 「영주시 장기발전계획(2002-2020)」.

영주시. (2005). 「2020년 영주도시기본계획」.

유병규. (2005). 「경북북부지역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이기석·이옥희·유연택. (1995). 국토개발을 위한 권역설정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34: 19-36.

이성근. (2002). 지역기술거점의 형성과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

이용우. (2000). 국토종합계획에서 계획권역설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4(1): 39-54.

주성재. (2004). 국가환경보전계획의 권역설정문제. 「지리학연구」, 38(4): 541-556.

황종규. (2004). 「국가균형발전시대의 영주지역 혁신방안」. 동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Braczyk, H., Cooke, P. & Heidenreich, M.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Role of Governaces in a Globalized World. Bristol, Pennsylvania: UCL Press Limited.

Glasson, J. (1982). An Introduction to Regional Planning, Concepts, Theory and Practice. 2nd ed. London: Hitchinson & Co. Ltd.

※ 부록: 경북북부지역 발전전략에 관한 설문지

경북북부지역 발전전략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인식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인식조사는 공무원, 지역주민, 혁신위원회 위원 등 지역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경북북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지역발전전략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뿐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동양대학교 행정경찰복지학부
이도선·황종규 드림

주 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동양대학교 행정경찰복지학부
연락처 : ☎ 054-630-1182 E-mail : jkhwang@dyu.ac.kr

※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Strength)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국립공원, 동해안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청정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북부지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고장이며 이와 관련된 전통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북부지역은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북부지역은 대도시 등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북부지역의 다양한 농업생산물은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북부지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소백산 국립공원, 주왕산 국립공원, 안동하회마을, 동해안 등 북부지역은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북부지역은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대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단점(Weakness)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북부지역은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북부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자원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북부지역 내 시군 간에 산업, 재정, 사회기반여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역발전을 위한 시군간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능적·공간적 연계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타 지역에 비해 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인력의 감소 등)	①	②	③	④	⑤
6. 북부지역은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시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농산물의 등이 유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대부분의 시군이 농촌형 도시로 의료, 교육, 문화, 유통 등 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이 없으며, 국가전략산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회요인(Opportunity)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참여정부는 지방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좋은 기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앙고속도로, 동서 6축 고속도로(서천-상주-안동-영덕) 등 국가 광역교통망 체계가 완성되면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북부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유치 등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자체의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 5일제 등 여가활용시간의 증가로 인해 북부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주민들이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및 한방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물 및 한방자원이 풍부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지역의 발전가능성과 기대되는 역할을 매우 크다(관광산업의 활성화 포함)	①	②	③	④	⑤
7. 최근 북부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내 시군 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위협요인(Threat)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농수산물의 개방 등 개방형 시장체제로의 변화로 인해 북부지역의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은 북부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북부지역은 산업기반, 사회간접시설, 노동력 등 개발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북부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주도의 개발계획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체의 발전계획이나 의제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국토의 위치상 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낮아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북부지역 내 시군들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의 낙후성이 부각되어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인력의 유입 등의 경쟁력이 감소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산업구조가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경부고속철도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정체성과 발전가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를 응답해 주십시오.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경북북부지역은 하나의 지역으로서 정체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경북북부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단일한 권역으로 공동계획 및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경북북부지역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귀하께서 경북북부지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시군을 다음에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문경 ② 봉화 ③ 상주 ④ 안동 ⑤ 영덕
⑥ 영주 ⑦ 영양 ⑧ 예천 ⑨ 울진 ⑩ 의성 ⑪ 청송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묻는 항목입니다. 해당항목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학 ④ 대학원 이상

3. 귀하의 연령은?
① 30대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⑤ 60대 이상

4.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은?
① 문경 ② 봉화 ③ 상주 ④ 안동 ⑤ 영덕
⑥ 영주 ⑦ 영양 ⑧ 예천 ⑨ 울진 ⑩ 의성 ⑪ 청송

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서의 거주기간은?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① 농업 ② 자영업 ③ 공무원 ④ 전문직 ⑤ 주부 ⑥ 기타

7. 귀하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① 혁신협의회 위원 ② 지방의원 ③ 주민 ④ 시민단체 회원

※ 끝까지 각 문항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자 소개

이 도 선(李道善)

▷ 동양대학교 부총장/ 행정경찰복지학부 교수

▷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주요 연구실적

- 인삼복합단지 조성기본계획(연구보고서)
- 여가수요에 대응한 공급체계에 관한 연구(연구논문)
- 낙후지역의 인구정착을 위한 효율적 정주체계에 관한 연구(연구논문)

황 종 규(黃宗圭)

▷ 동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행정경찰복지학부 교수

▷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박사)

주요 연구실적

- 지역축제 방문자 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풍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 사회단체보조금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북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 복지효율성 격차에 관한 비교연구: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 비영리조직 재정지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중심으로
- 기초의회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비교연구-부천시와 영주시사례(1991년-2005년)을 중심으로
- 지방의회 예산심의 영향요인으로서 학습효과 분석: 중소도시 기초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 복지수요와 공급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 민선단체장이후의 자치행정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 국가균형발전시대의 영주혁신전략과 과제
- 경북북부지역의 문화자원의 특성과 개발전략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모델개발 연구

-봉화군 닭실 마을을 중심으로-

황 용 운

목 차

■ 요약 / 215

제1장 서론 ····· 221

제2장 영주, 봉화 인근지역의 씨족마을 현황 ····· 224

제3장 국내·외의 사례분석 및 국내여행 동향 ····· 228

제4장 전통마을 운영실태와 대상지 선정 ····· 238

제5장 봉화지역 관광자원 및 관련법규 검토 ····· 243

제6장 닭실마을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 방안 ····· 272

제7장 결론 및 제언 ····· 284

■ 참고문헌 / 286

요 약

1. 서론

가. 과업의 배경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전통마을이 갖고 있었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전통문화가 단절되고 그 결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담긴 정신적이 것이 전승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에 본 과업에서는 전통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민속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이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보존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나. 과업의 목적

전통마을 속에서 형성된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력씨족의 발자취, 마을조직과 위계, 주민들의 자치 모임, 생활모습(변이), 전통문화의 계승, 관광자원화 실태 등을 조사하고, 거주성을 근간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진행 방법

① 전통마을의 이론적 고찰 ② 경상북도 북부의 닭실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 관광자원 실현화 가능성을 분석 ③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여 관광자원화 모델을 개발 ④ 주민들과 대화와 인터뷰를 통해 관광자원화에 따른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 ⑤ 전통마을의 보존적 관광자원화 방안의 제시하고 개발방향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함과 씨족마을의 캐릭터화 및 관광상품 개발화 전략을 검토.

마. 기대 효과

1) 도시민을 위한 최고의 적지로서 청정자연의 보고인 경북북부지역을 강조

2) well-being과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만의 체험 관광을 정착화.
3) 침체되어가는 지역의 전통씨족마을 지속적인 보존과 체계적 관리
4) 주 5일제 근무 -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도모

2. 국내·외의 전통마을분석 및 국내여행 동향

가.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사례

하회마을 / 장재마을 / 청라리 마을 / 괴시리 마을 / 옥산마을 / 사일마을 / 한개마을 / 양동민속마을 / 도천 마을 / 죽산안씨(竹山安氏) 마을

2) 외국사례

하와이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 캘리포니어 쏠뱅(LA) /미국 워터포트 / 태국 농눅빌리지 / 말레시아 사라왁 / 일본 에도무라(江戶村)/ 일본 토가무라(利賀村) /일본 시라카와무라(白川村)

나. 국내여행 동향

1) 주 5일제 근무 실시
2) 관광패턴의 변화 - 숙박형태, 여행목적, 가족여행, 웰빙여행

3. 전통마을 운영실태와 대상지 선정

가. 우리나라 전통마을 운영실태

1) 전통 민속마을로 알려짐에 따라 주변의 자연과 문화환경 파괴, 오염이 심함.
2) 지명도가 높을수록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해감.

나. 대상지 : 봉화 닭실 마을

1) 위치 : 경상북도 봉화읍내에서 울진방면으로 36번 국도를 따라 1㎞ 정도 달리다 보면 왼쪽으로 아담하게 자리 잡은 마을로 배산임수란 표현에 걸맞게 마을 뒤편으로 산이 둘러져 있고, 앞쪽은 유유히 내가 흘러가는 '금계포란형'이다.



그림 4-1. 닭실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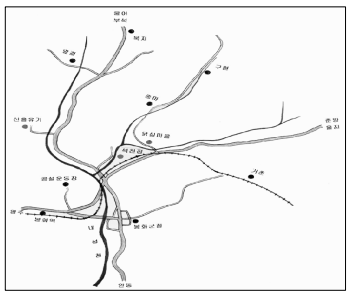


그림 4-2. 닭실마을 위치도

4. 봉화지역 관광자원 및 관련법규 검토

가. 봉화지역의 각종 문화재 및 관광자원 : 봉화군의 문화유적은 국보 1점, 보물 7점, 명승·사적 등 62종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나. 관광관련 사업 및 관광객 추이

1) 봉화의 관광객 및 관광 추이 : 200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

2, 3월-관광객이 가장 적고/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7월-10월까지 10만 명이상의 가장 많으며/ 12월-1월은 눈꽃열차운행 등으로 어느 정도 관광객이 봉화지역을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남.

다. 관련 법규 검토

1) 관련법규 및 제도의 현황 / 2) 문화재 보호법 규정 / 3) 전통건조물 보존법 규정 : 전통 건축물, 전통건축물 보존 지구 / 4) 농어촌 민박지원제도 : 무상지원 조건 등

5. 닭실마을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 방안

가. 닭실 마을 현황 및 분석

1) 마을 현황 : 현재 닭실마을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진행중에 있다.
2) 마을 문제점 :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과 변화는 하드웨어적인 변화(전통건축 개·보수에 집중)에만 집중되어 이루지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3) 지방자체(봉화군)의 문제 : 지자체의 민박 프로그램 및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

나. 관광 자원화의 기본방침

1) 경북북부지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기반 / 전통적 유교적 문화 공간에 현대적 문화 개념을 수용 / 차별화된 지역적 문화 / on-line을 통하여 적극적인 마을 홍보 전략을 수립 /지역 경제 활성화, 미시적으로는 농민소득 증대를 꾀함 / 지역의 특유한 문화, 음식, 특산물 등을 브랜드화, 고급화 한다.

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1)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민박 유치로 지역민의 경제를 활성화/ 지역의 저명한 인사를 적극 활용함/ 주말(1, 2 박)을 기준을 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도시민을 위한 well-being, LOHAS 프로그램 개발/ 닭실마을이 주체가 된 인근지역과 연계된 관광투어 프로그램/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고장 전통문화교실 개최

마. 추진 전략

주제 - "한국의 전통 그린투어"
- 유곡(닭실)에서 전통문화와 청정자연을 체험하자 -

1) 전략 1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마을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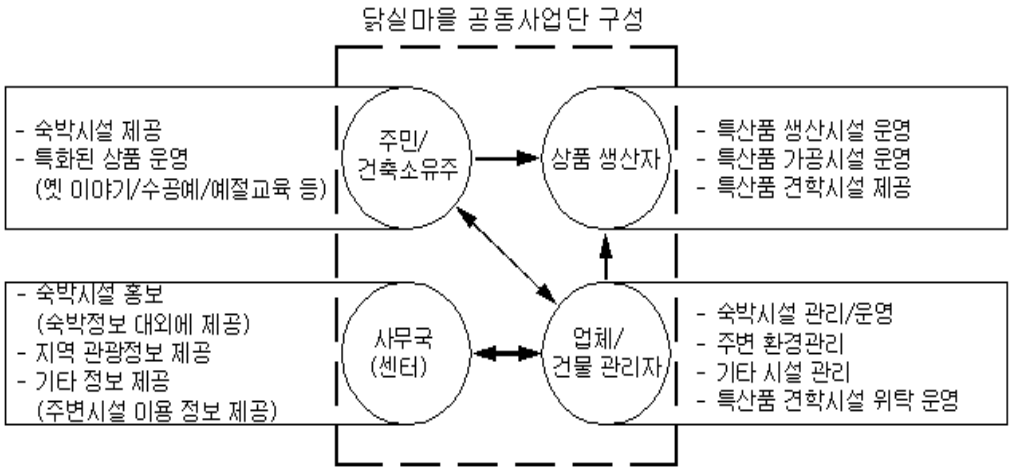
필수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 + 주민들의 합의와 사업추진 의지

2) 전략 2 : 사업주체 - 민간에게 위탁

필수조건 – 민간 사업체와 주민들 간의 조화(경제적 이득만 창출함을 지양)

바. 전략 예시 - 사업단구성 및 운영네트워크 예시

필수조건 – 각 구성원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과 조화



- 사업단구성 및 운영네트워크 구성도 -

6. 결론 및 제언

-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관광자원화는 - 지역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많은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 •정부와 지자체의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2요소는 주민들의 강한 실천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상설화 - 전통생활체험을 위한 민박으로 연결시켜 고향집과 같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 공간으로서 재인식시킴.
- •기존에 정비된 가옥들을 개·보수하여 단순한 민박의 이미지를 벗어나 전통마을 체험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운영한다.

- 4계절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를 연계 - 다양한 프로그램제시와 씨족마을 내 산재된 문화재와 행사를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 차별화함.
- on-line을 통한 지역 홍보,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물의 브랜드화, 정기적인 지역의 소식지 발간 등으로 한번 방문한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리.
- 마지막으로 전통마을의 관광화는 마을자체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만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작은 의미로는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민박농가(가칭:Farm Stay 경북)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자치단체 또는 정부차원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민박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장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전통마을이 갖고 있었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전통문화가 단절되었다. 그 결과 인간성이 결여된 도시 집합체가 현재 우리의 생활문화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전통문화의 단절은 물질적인 것이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 보다 정신적이 것이 전승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연구는 전통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민속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이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보존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화 시대와 주 5일근무제의 시행에 맞춰 도심인구의 주말 관광과 우리만의 것을 체험하기 위한 체험관광이 증가추세에 있다. 체험관광에서 각광받는 것 중의 하나가 전통문화체험이다. 전통건축과 관련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체험관광의 테마로 개발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자원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것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에 대한 재발견을 하는데 보탬이 되게 한다.

현재 우리 주변의 전통마을은 물리적인 자원을 보여주는데 국한된 시설로 인해 거주성이 없는 전시품으로 전락하고 상업화되어 가고 있으며, 문화의 내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의 생활양식과 삶의 지혜가 없는 무기체의 공간만을 보여주는데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입장료 수입에 의존한다던가, 전통가옥을 이용한 요식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볼거리와 먹거리를 팔고 있을 뿐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이나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구절과 같이 마을의 공동체는 우리 고장, 더나가 우리 민족을 지탱하는 뿌리임을 인식하여, 전통마을의 보유자원을 지속

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전통을 계승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소재한 전통마을의 생성과 정착과정 및 그 속에서 형성된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력씨족의 발자취, 마을조직과 위계, 주민들의 자치 모임, 생활모습(변이), 전통문화의 계승, 관광자원화 실태 등을 조사하고, 거주성을 근간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마을의 자연환경, 연혁, 마을유래에서부터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전통으로서 간직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변의 자원(볼거리, 먹거리, 살거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요소를 정리하고,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여 관광상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씨족마을의 정체성과 전통마을에 대한 애향심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화 시애의 생존전략으로서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 연구의 진행 방법

연구대상의 전통마을은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전통마을과 관련된 이론적 고증과 특징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한다. 이는 전통마을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분석하고, 모델개발을 하는데 체계적이고 정확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경상북도 북부지방에 소재한 전통마을 중에서 시범마을을 선정한다. 시범마을은 개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상태가 취약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례로 활용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모델개발에 따른 실현화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현황조사를 통해 각종 인문적·사회적 특성 파악하고 인구/가구수/마을 내 각종 행사/주변의 관광자원 등의 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전통마을 주민들과 대화와 인터뷰를 통해 관광자원화에 따른 현실적인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전통마을의 보존적 관광자원화 방안의 제시를 통해,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방향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씨족마을의 캐릭터화 및 관광상품 개발화 전략을 검토한다.

라. 연구의 범위

1) 연구 기간 : 2005 8. 1 ~ 2005. 11. 30
2) 연구의 범위
   가) 경북북부지역에 산재된 전통 씨족마을의 개략적인 분석
   나) 닭실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방안 도출

마. 기대 효과

1) 본 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청정자연에 목말라 있는 도시민을 위한 최고의 적지로서 경북북부지역을 부각시킨다. - 청정자연의 보고
2) Well-being과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만의 체험 관광을 정착화 시킨다.
3) 침체되어가는 지역내 전통씨족마을 지속적인 보존과 체계적 관리 그리고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
   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지 - 정체성 확립
   나) 침체되어가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경제 활성화
   다) 40, 50대의 추억관광 및 가족단위 관광 정착 - 건전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
   라) 인적 교류를 통한 도·농간의 활발한 교류 - 도·농간의 문화교류의 활성화
4)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에 따른 건전한 관광문화의 정착을 도모한다.

제2장
영주, 봉화 인근지역의 씨족마을 현황

가. 씨족 마을이란 ?

1) 씨족마을의 어원

씨족마을(동족마을, 혈연중심마을, clan-community)이란 하나의 성씨 또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모여 사는 전통마을을 지칭한다. 씨족이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며 현재 생존해 있는 세대에서 산정 가능한 시조(始祖)에서 기원한 단계친족조직(單系親族組織)이라는 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2) 씨족의 구성 요건

씨족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씨족의 구성원들 중 핵심 멤버들을 결합시키는 혈통의 단선적 규칙, 곧 부계혈통과 모계혈통의 규칙이 있다. 지역화된 외혼적 양계혈통 친족집단들(demes), 그리고 부(父)측 거주 대가족과 모(母)측 거주 대가족들도 구성이 씨족과 유사하지만 혈통의 통합적 원리, 곧 혈통의 단선적 규칙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 씨족은 거주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즉 씨족으로 불리워 질수 있으려면 거주규칙과 혈통규칙이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혈통은 모계인데 거주는 부측거주 혹은 독립거주이면 씨족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씨족은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즉 씨족은 긍정적인 집단정서(group sentiment)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혼입해 들어온 배우자들이 구성원으로 통합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동일한 거주규칙과 혈통규칙이 반드시 씨족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거주가 부측 거주이고, 혈통이 부계 혈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씨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단순히 맺어진 이웃(neighbors)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직, 집단적 행위, 집단의 기능을 확인한 후에야 씨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나. 영주, 봉화 인근지역의 씨족마을

영주, 봉화는 태백산의 줄기에 자리 잡은 경북북부 지역으로 영주는 경북내륙의 교통요지로서, 봉화는 산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양반마을 이다. 영주에는 신라시대부터 절이 많이 들어섰고, 우리나라 건축사의 고전 중의 고전인 고려시대의 건물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있다. 또한 작은 하회마을이라고 하는 수도리의 무섬마을이 있다. 특히 봉화지역은 역사 이래 많은 전란으로부터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이라 아직까지 많은 고건축과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 씨족마을로는 물야(오록)의 풍산김씨 마을, 북지리의 봉화 금씨 마을, 유곡의 닭실마을, 법전의 진주강씨 마을, 황전의 안동김씨 마을과 창마 전통마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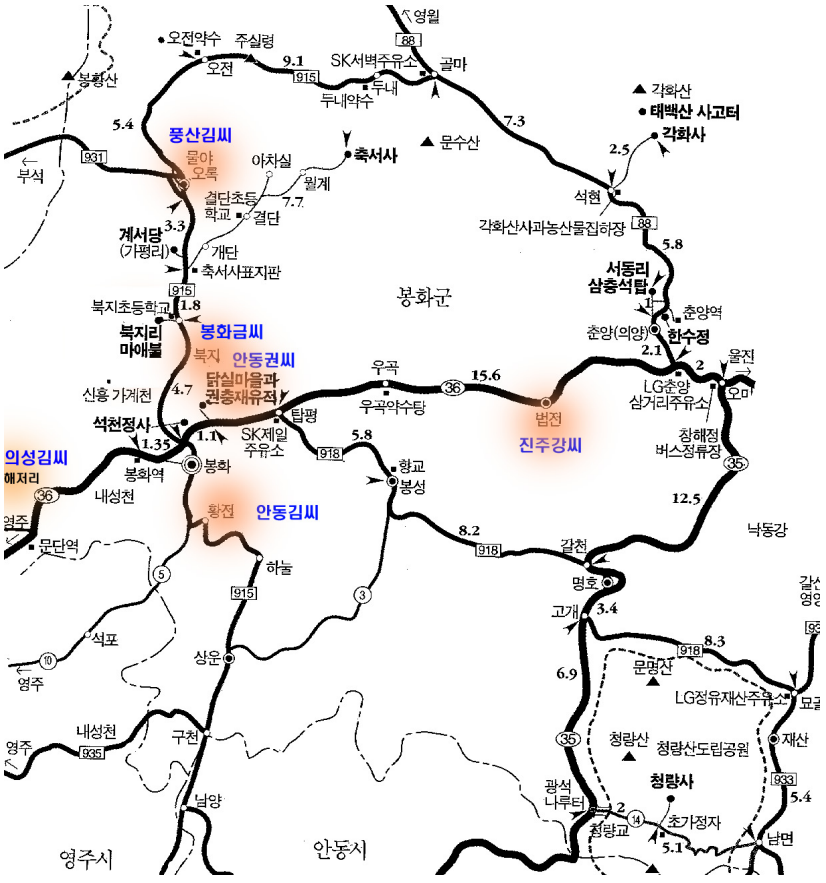


그림2-1. 봉화군 씨족마을 위치도

다. 대표적 씨족 마을의 유래

1) 무섬마을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리(文殊面) 수도리(水島里)

예안(禮安, 宜城)金氏와 반남(潘南)朴氏의 동족마을이다. 동쪽으로 500m정도 떨어진 곳에 낙동강(洛東江)의 지류인 내성천(乃城川)과 남원천(南院川)이 합류한 서천(西川)이 마을을 한바퀴 휘감고, 마을은 동남쪽 한 부분만이 좁다랗게 육지로 이어져 있을 뿐 강으로 둘러싸인 섬과 같다. 따라서 마을 이름도 무섬(물섬에서 변화된 音)이 되었고 水島로 표기된다. 이 마을의 개척은 18세기초경 반남박씨 入鄕祖인 朴檖(박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는 마을 서편의 강건너인 머럼(遠岩)에서 이곳에 들어와 나무숲을 쳐내고 집을 지어 새 터전을 개척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손서(孫壻)인 김대(金臺)를 불러들여 같은 동네에서 살도록 한 결과 김대(金臺)는 의성김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김대가 자리잡은 곳은 현재의 宗家宅인 김수영(金壽榮)씨家이었고 그가 소요자적(逍遙自適)하던 정자가 치류정(峙流亭)인데 현재의 정자는 약 20여년 전에 새로 지은 것이다. 현재는 김씨의 戶數가 많고 주택들의 규모도 박씨에 비해 우세한 편이다.



그림2-2. 무섬 마을 전경

2) 酉谷마을 (일명:닭실마을)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1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1리 이다. 문수산(文殊山)에서 발원한 창평천(昌坪川)이 이 마을 앞을 감돌아 西流하여 신탄(新灘)이 되고 또 한줄기 시내가 西北에서 흘러와서 마을 西南쪽에서 합류하여 석천계곡(石泉溪谷)을 지나 합강(合江)에서 내성천(乃城川)을 이룬다. 1380년 충제(冲濟) 권 벌(權橃:1478~1548)선생의 선조가 처음 개척한 곳으로 풍수지리에 의하면 금닭이 계란(鷄卵)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

형(金鷄抱卵形)의 마을이라고 하여 닭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경주 양동(良洞), 안동 천전(川前), 풍산 하회(河回)와 함께 "三南 四吉地"라고 칭해진다.



그림 2-3. 닭실마을 전경

충제는 安東人으로 中宗2년(1507)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있던중 중종15년(1520)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류, 파직되어 母夫人 파평 윤씨(坡平 尹氏)의 묘소가 있는 이곳에 와서 농토를 마련하고 14년간 후진을 양성하며 후학에 몰두하였다. 이곳은 청암정(靑岩亭)과 석청정(石泉亭), 충제의 종가가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빼어난 지형을 자랑하며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중환(李中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이 지역을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경승지(景勝地)로 지적하였다.

3) 해저마을(일명:바래미(海底)마을)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1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1리이다. 신라시대에는 파라미(波羅尾)라 칭하였다고 하며, 마을이 하상(河上)보다 낮아 바다였다는 뜻으로 바래미 혹은 바다 밑이라고 해서 해저(海底)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원래 의령여씨(宜寧余氏)들이 일부 살았으나 조선말기 숙종때 관찰사를 지낸 팔오헌(八吾軒) 김성구(金聲九) 선생이 건너마을 용담(龍潭)에서 전거해 마을의 우물과 농토를 개척하고 정착한데서 마을이 번창하고 의성 김씨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그림 2-4. 해저마을 전경

제3장
국내·외의 사례분석 및 국내여행 동향

가. 국내·외 사례 분석

씨족마을과 관련된 사례조사를 통해 관광자원화 방안을 파악하는데 체계적이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의 유사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1) 국내사례

국내의 씨족마을은 많이 있는데, 상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개략적인 유래와 운영실태, 전략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하회마을(안동군 풍천면 하회동)

풍산 류씨의 씨족 마을이며, 마을 전체가 연꽃에 비유된다. 민속 마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소이다.

나) 장재마을(경기도 안성시)

이 마을은 임허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양성의 소사로부터 피난을 와서 정착하여 현재까지 13대를 이어오며 살고 있는 씨족 마을이다. 마을 입구를 둥그스러한 산이 막아 마을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 이 마을에 집을 지을 때 머루와 다래넝쿨이 많이 얽혀 있는 산골 이었는데 마을 이름인 장재울은 대대손손이 잘 살고 마을이 잘되어 달라는 염원에서 나왔다고 한다.

다) 청라리 마을(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마을의 95%가 강릉 김씨로 이루어진 씨족마을이다.

라) 괴시리 마을(영양남씨(英陽南氏)(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괴시 1리(槐市一里))

어전마을로, 계북면 어전마을이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 년전에 조선조 현종때, 한씨가 맨 처음 정착한 후 고령신씨와 남원양씨가 들어와 살게 됐다고 한다. 현재 금계한씨는 약 40여 호로 우리나라 전통적 씨족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 옥산마을(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옥산마을은 회재 선생의 후손들(양동 이씨는 회재 선생의 양자의 후손이고 옥산이씨는 서자의 후손임)들이 살고 있다.

바) 사일마을(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달성 서씨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을 형성한 씨족마을이다.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풍수의 마을입지를 하고 있으며, 주산인 무학산이 좌우로 감싸 안정감이 드는 등 울산에서 보기드믄 길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사) 한개마을(경북 성주)

조선시대 고가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성산이씨들의 집성촌이다.

아) 양동민속마을(경북 경주)

한국의 대표적인 양반 마을로 15~16세기를 전후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가옥 150여 채, 정자 15개소, 학당, 서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자) 도천 마을(전남 나주)

풍산 홍씨의 동족 마을로 고려 시대 때부터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차) 죽산안씨(竹山安氏) 마을(보성읍 우산리)

보성읍 우산리 택촌마을을 중심으로 조선초 세조(1415년)때 인물인 죽산안씨 6세

민(民)이 터를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향조인 안민 이후 후손들이 동족마을을 이루며 500여년을 살아오고 있다.

죽산안씨는 광주안씨 안방걸(安邦桀)의 17세손이며 순흥안씨의 시조인 안자미(安子美)의 7세손인 안원형(安元衡)을 시조로 하고 있다. 고려조 순흥안씨 안향(安珦)의 증손이기도 한 원형은 공민왕때 대제학을 지내고 순흥군에 봉해진 안목(安牧)의 둘째 아들이다. 목의 큰아들 원숭(元崇)은 순흥안씨의 계보를 잇고 셋째 원린(元璘)은 탐진안씨의 파조를 이룬다.

2) 외국사례

해외에서 민속마을을 운영하여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방법과 특성과 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하와이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하와이 오아후 섬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1963년 몰몬교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후 2,300만명 이상의 많은 방문객을 불러들인 하와이 최고의 명소가 되었는데, 약 17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태평양 연안에 산재해 있는 여러 섬들의 모습을 재현, 민속을 주제로 한 관광명소 중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속 인공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 하와이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출처:http://www.clubmain.co.kr/usa_hawaii_polynesian_cultural_center.htm)

주요 시설로는 대공연장·대식당·쇼핑센터·토산품상가·카누·음식점·교회와 학교가 있으며, 스페셜 이벤트와 쇼가 부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몰몬교단에서 경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나) 캘리포니어 쏠뱅

미국 LA 북부에서 204㎞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쏠뱅은 전반적으로 기후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1911년에 정착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강이 흐르는 곳을 찾아 덴마크 식의 학교를 세운 것에서 마을이 유래되는데, 관광객들을 위해 개장된 것은 1936년의 일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점으로 관광객이 대거 몰려들게 되면서, 편의시설이 확충되었다. 미국 안에 있는 덴마크 마을로, 덴마크 전통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덴마크식 가옥·호텔·풍차·인어공주 동상·덴마크 국가 심벌 등이 있고, 덴마크인/덴마크계 미국인 동우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



그림3-2 캘리포니아 쏠뱅마을의 모습

(출처:http://www.solvangusa.com/html/history.html)

다) 미국 워터포트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이다. 19세기 곡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모여들어 형성된 마을로 한때 번성하였으나, 철도노선에서 소외되면서 침체를 겪었다.

마을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보다는 보존을 택하여, 마을을 상품화 하였다. 즉 전통과 집집마다의 옛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으며, 일년에 한 차례씩 수공예품 큰장을 열고 있다.

1943년 개장하여 수공업이 발달한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수공예품의 판매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옛 주택과 건물·방앗간·마을 창고 등이 있고, 워터포드제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라) 태국 농눅빌리지

태국 파티야 사타힙 중간 좀티엔 해변근처에 개장한 사유농장으로, 난 재배지와 식물원이 있는 곳으로 매일 민속공연과 코끼리 쇼가 열리고, 이벤트 행사로 닭싸움, 투검 등이 열린다.

1980년에 개장하여 특히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어 동양최대의 자연테마파크로, 아시아의 성공적인 민속마을이라 할 수 있다. 거주인은 없다. 주요 시설로는 코코넛·망고농장, 난 재배지 식물원, 오락·휴양시설, 닭싸움·투검·코끼리 공연장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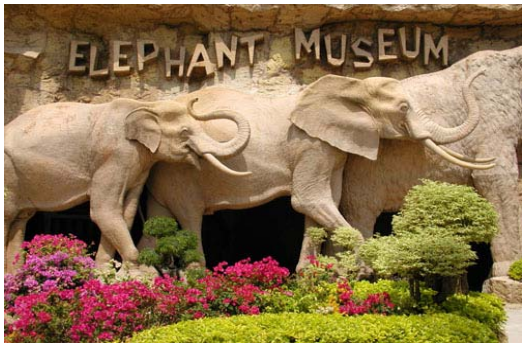


그림 3-3 태국 농눅빌리지의 코끼리 공원
(출처:http://thai.co.kr/pattaya/frameele.htm)

마) 말레시아 사라왁

말레시아 산기슭에 조성된 것으로 원주민들의 옛 가옥, 풍습, 생활상이 재현되고 있다. 각 민속가옥 마다 원주민들의 고유생활양식 및 수공예품 제작 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개별 구경 후에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주요 시설로는 이반·비다유·오랑울루·멜라니우·말레이·중국 민속가옥이 있고,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



그림 3-4 말레이시아 사라왁 마을 주민 모습

(출처:http://www.sabahtour.co.kr/sub01.asp?mainUrl=SW01&leftUrl=SRL)

바) 일본 에도무라(江戸村)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에도시대를 재현해 놓은 마을로, 사무라이 새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8개의 극장에서는 시대극을 공연하고 있다.

당시의 생활습관을 알 수 있도록 옛 거리의 모습, 무사의 저택, 옛 의상을 입은 출연진들이 관광객과 같이 어우러고, 스케줄에 따라 전통극, 희극, 닌자쇼가 여린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다.





그림 3-5 일본 에도무라 시대극 공연모습

(출처:http://www.ctcn.com.tw/new_book/nikko_book/1.htm)

사) 일본 토가무라(利賀村)

전형적인 산골마을로, 접근성이 떨어져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으나, 60년대 중반에 동경 와세다 소극장의 스즈키다다시단장이 이 지역을 정학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3년 세계 연극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 및 지역산

업의 진흥, 산촌문화의 발상지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테마로 음식물-소바-를 선택하여 매년 소바 축제를 열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특산품 전시 판매시설·회의시설·메밀국수 제조공장 등이 있으며, 주요 이벤트로는 3일간 열리는 소바 축제이다.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마을로, 부수적으로 눈축제와 소바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림 3-6 일본 토가무라 전경 (출처:http://wakadora.cool.ne.jp/toga.htm)

아) 일본 시라카와무라(白川村)

기후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주변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사람의 왕복이 드믄 곳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고, 독특한 산의 문화와 습관·생활도구가 발달했다.




그림 3-7 일본 시라카와무라 전경

(출처:http://shirakawa-go.org/lifeinfo/info/kankou/main.html)

나. 국내 여행 동향

1) 주 5일제 근무 실시

가) 최근 들어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관광·휴양(보양)을 위한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나) 주말 관광으로 인하여 여행시기가 일정 계절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계절에 걸쳐 고루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 장기 여행보다 주말을 이용한 1, 2박의 단기여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 개인적인 여행보다 직장, 가족 여행 등 단체여행이 증가할 전망이다.

2) 관광패턴의 변화

가)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여행시 숙박 관광시 이용하는 숙박시설은 콘도미니엄(22%), 민박(19.5%), 친구나 친척집(17.1%), 여관 등(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과거 년도와 비교해 볼 경우 친구·친척집과 여관, 캠핑 이용율이 감소하고 민박과 콘도미니엄, 일반호텔의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 계절별로 숙박시설 이용형태에서 여름의 경우에는 민박→콘도미니엄→친구·친척집→여관→일반호텔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라) 관광 여행시기로는 '2001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 관광여행 시기는 주말 35.5%, 휴가·방학 33%, 주중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주말 여행객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된다.

3) 여행목적 및 동반자 형태

가)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목적 중 휴양이 3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특히 학생, 직장, 동호회 등의 경우에는 테마별 체험·학습의 목적으로 여행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단체 동반형태는 학생단체가 27%, 가족동반이 26%로서 과반수를 넘고 있다.

4)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의 영향

가) 숙박이용객이 민박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변경관이 39%, 시골스러움이 25%로서

민박주변의 경관 및 시골스러움이 64%를 차지하고, 저렴한 가격은 19%를 나타내고 있다. → 민박의 향토적, 지역적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 최근의 웰빙과 로하스의 영향으로 도시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과 생활방식을 경험하고자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 전통적 생활방식 체험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화 한다.

다) 탈 도시와 경향, 낭만, 과거로의 회귀로 추억관광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 옛 모습을 재현한다.(전통적인 모습을 보존한다.)

5) 현재 씨족마을 민박의 공통된 문제점

가) 도시의 생활방식을 수용할 없는 낙후된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나) 계절별로 여름에 민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지만 여름을 위한 편리한 시설(샤워실, 취사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적정규모가 부족하기에 골목길에 주차를 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라) 단체여행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즉 단체 동반 여행객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객을 위한 시설(공동 체험장, 야외 공연장, 바비큐장, 주차장, 공동식당, 야외취사, 세미나실 등)이 부족하다.

마) 농번기의 경우 민박객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6) 전망

가) 민박은 대부분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관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가 민박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숙박관광 형태의 체험관광 수요는 민박수요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통 민박 체험이 증가가 예상

나) 교통과 도로의 편리성과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에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한 축제에 대한 도시민의 호기심이 증대하고 있다. → 지방으로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

다) well-being와 LOHAS의 개념 확산으로 도시민이 우리 농촌 특산물에 관심이 증

대하고 있다. → 도시민이 갈망하는 색다른 건강을 체험

라) 2002년 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체험관광 실태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된 체험관광 수요와 숙박관광 형태의 체험관광 수요예측자료는 미래의 민박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 판단된다.

제4장
전통마을 운영실태와 대상지 선정

가. 우리나라 전통마을 운영실태

1) 현재 국가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씨족마을보다 전통 민속마을차원에서 1983년 낙안읍성 마을을 시작으로 안동하회마을(1984. 1), 제주읍성 마을(1984. 6), 경주 양동마을(1984. 8), 고성왕곡마을(1988. 8), 아산 외암리마을(1988. 8) 등이 있다.
2) 이러한 마을이 전통 민속마을로 알려짐에 따라 주변의 자연과 문화환경 파괴, 오염 등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특히 지명도가 높을수록 문화재의 보존과 환경보전이 우선되지 않고 상업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 대상지 선정

1) 봉화 닭실마을 선정 이유

(가) 같은 성씨(문중)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전통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다. - 다른 씨족마을과 달리 닭실마을에 관련된(속속된) 문화재가 인근에 산재되어 있고 기존의 이미지가 알려져 있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이 있다.
(나)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로 정비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재되어 있는 여러 씨족마을 중 유교문화권 관광개발로 어느 마을 보다 정비 및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
(다) 씨족 마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동체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이다. - 닭실마을의 구성원의 성씨의 구성은 안동 권씨가 58가구로써 6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성씨로 이루어졌다.
(라) 씨족마을인 만큼 다른 마을과 달리 공동개발이 용이하다. - 닭실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성씨별 가구수 중 안동 권씨는 58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닭실마을 성씨별 필지소유

닭실마을 (성씨별 필지 보유비율)	
성 씨	필지수(비율)
권씨	26(87%)
권씨문중	2(7%)
타성	2(7%)
	30(100%)

표 4-2. 닭실마을 성씨별 가구수

닭실마을 (성씨별 가구수 비율)	
성 씨	가구수 (비율)
권씨	58(69%)
기타성씨	26(31%)
	84(100%)

대지소유 현황은 전통 동족마을을 입증하듯 약 80% 이상 같은 성씨와 문중의 대지로 이루어졌고 또한 가구수의 약 60% 이상이 동성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아직까지 나름대로 동족마을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동개발과 마을의 공동 조직체 운영과 관리에 어느 마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닭실마을이 위치한 봉화군 현황

가) 봉화는 태백산과 선달산이 강원도와 경상죽도의 경계를 이루는 능선 아래쪽에 위치(1,201㎢ 경상북도의 6%)하고 있으며, 1읍 9면 156리 755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자취가 남아 있다. → 도촌리, 개단리, 춘양면 등에 선사시대 고인돌이 많다.

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북쪽에 있으니 산지의 비율도 가장 많다. → 교통발전의 장애 및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 태백산(1,567m), 선달산(1,236m), 각화산(1,177m), 문수산(1,206m), 청량산(840m)과 같은 산들이 늘어서 있어서 넓은 평야가 없으며, 대체로 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이 얕아지는 비스듬한 지세를 이루고 있다.

마) 조선중기 이래 안동의 사족이 이주해와 곳곳에 동족마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3) 봉화군 주요시책 - 천정자연, 문화관광, 지역경제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가) 농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 자연과 전통문화를 관광산업자원으로 육성

다) 특화된 지역개발과 활력넘치는 고장 만들기

라) 복지 공동체 조성과 풍요로운 삶의 터전 마련

마) 환경오염원 차단과 산림자원의 소득화

사)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 자치역량 강화

4) 위치

경상북도 봉화읍내에서 울진방면으로 36번 국도를 따라 1㎞ 정도 달리다 보면 왼쪽으로 아담하게 자리 잡은 고가촌이 나타난다.



그림 4-1. 닭실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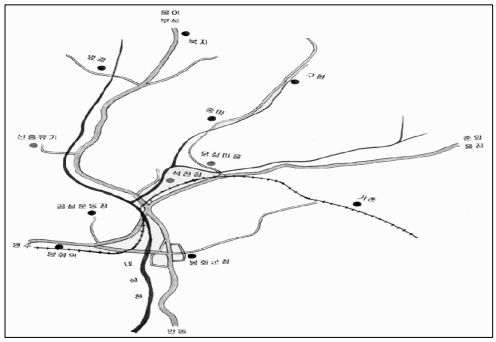


그림 4-2. 닭실마을 위치도

마을에 들어서면 배산임수란 표현에 걸맞게 마을 뒤편으로 산이 둘러져 있고, 앞쪽은 유유히 내가 흘러간다.

동북쪽으로는 문수산 자락이 병풍처럼 돌아있고 서남으로는 백운령이 뻗어 내린 모습이, 금닭이 알을 품은 형상이라는 '금계포란형'이다.

5) 마을 지명

영남의 대표적 집성촌의 하나인 경상북도 봉화군의 닭실마을은 예로부터 경주의 양동, 안동의 내앞, 풍산의 하회와 더불어 삼남의 4대 길지로 꼽힌 명당 중의 명당으로 꼽힌다. 안동 하회마을이 물위에 뜬 연꽃 모양을 한 '연화부수(蓮花浮水)'형의 길지라

면, 이곳은 마치 금빛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듯한 형국이라는 '금계포란(金鷄抱卵)'형 명당이다.

마을 이름조차 이를 빗대어 닭실마을, 한자로 '유곡(酉谷)'이라 부른다. 또 다른 것으로는 12간지 중 유(酉)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해가 지기 때문에 '유곡(酉谷)'이라 불린다는 설이 있으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이란 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금계포란(金鷄抱卵)'형이란 어미닭이 많은 병아리를 부화해 거느리는 모습 같은 지형적인 여건에서 다산과 풍요를 유추해낸 것이다. 닭은 다른 동물과는 특이한 점이 많다. 즉, 닭은 새벽의 기운을 제일 먼저 받고 꼬끼요 하며 울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와 같이 닭은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상서로운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닭이 우는소리 즉 꼬끼요는 다른 한편으로는 고귀위(高貴位)즉, 높고(高), 귀한(貴), 계급(位)을 뜻하며, 이것은 사람이 근면하며, 학문을 숭상하여 태양과 같이 높은 품격을 이루고 동시에 높은 지위로 출세하여 많은 사람들을 계도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6) 입향 유래

이 마을은 안동 권씨 성을 가진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닭실마을의 안동 권씨를 가리켜 닭실 권씨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은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권씨 집성촌으로, 안동 권씨의 시조는 본래 신라 왕실의 후예인 경주 김씨 김행(金幸)으로, 고려 건국 때 왕건을 도와 공을 세운 인물임, 왕건으로부터 '능히 지혜가 밝고 권도에 통달했다'고 해서 권씨 성을 하사 받은 것이 성씨의 유래이다.

닭실마을의 입향조는 무오사화 때 낙향한 충재 권벌(沖齋 權;1478～1548년) 선생으로, 안동 권씨의 중시조이다. 연산군 때 급제하여 사간원과 사헌부를 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으나, 중종 때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낙향하였다. 그 후 다시 복권이 되어 우찬성에까지 이르렀으나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다시 파직당하고, 1547년에는 양재역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삭주로 유배 가서 생을 마쳤다. 그가 닭실마을로 들어왔을 당시 이곳은 무인지경이었다고 한다. 그가 이곳을 택하게 된 동기는 삼척부사로 있을 때 산수가 수려한 이 마을 앞을 여러 차례 지나다니면서 눈 여겨 보아두었기 때문이다.

닭실마을의 유풍 가운데 하나가 '문필부절(文筆不絶)'인데, 그래서인지 이 집안에는

학문과 정치하는 이들이 많이 났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안동 권씨 28두(斗)집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중세가 당당했다.

경북 사적 및 명승 제3호로 지정된 닭실마을의 고가들은 대개 ㅁ자형 구조가 많다. 충재의 종택에는 ㅁ자형 안채·사랑채·사당·유물관·청암정 등이 같은 담장 안에 자리하고 있다. 사당 안에는 불천위(不遷位) 충재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불천위란 어떤 경우에도 위패를 옮기지 않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락한 것을 말한다. 벌써 5백년 가깝도록 제사를 지내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넓은 들을 끼고 오른편에 위치한 솟을대문이 독특한 고택과 마주하게 된다. 되는데, 이곳이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자 명재상이었던 충재 권벌의 종갓집이다. 종갓집 입구에는 월궁에 들어선다는 의미에서 대문 위아래에 반원형의 나무 장식이 덧대어 있다.

현재, 2000여 평의 대지에 18대 종손인 권종목(57세) 씨 부부가 윗대 종손 내외를 모시고 아들 삼형제와 더불어 종가를 지키고 있었다. 당당한 풍채에 호탕한 성품의 종손 권종목 씨는 사재를 털어 충재유물전시관을 짓고 조상의 유품을 후손에 제대로 전해 주고자 힘쓰고 있다.

닭실마을 내의 충재 유적과 더불어 사적 및 명승지 제3호로 지정된 이 집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사랑채와 안채, 서재인 충재(沖齋)와 연못 위에 지어 놓은 아름다운 정자인 청암정(靑巖亭), 파란 단청칠이 눈에 띄는 우뚝 선 사당 등 전형적인 양반댁의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협문 너머에 조성되어 있는 서재와 정자 공간은 단풍나무, 철쭉, 나리꽃 등 갖가지 야생화와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에 둘러싸여 있다.

제5장
봉화지역 관광자원 및 관련법규 검토

가. 봉화지역의 각종 문화재 및 관광자원

봉화군의 문화유적은 국보 1점, 보물 7점, 명승·사적 등 62종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닭실마을 주변을 대상으로 기존의 역사자원과 발굴·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근거리와 중·원거리 자원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적으로는 경관자원, 역사자원, 특산품자원으로 분류하여 추출함으로써 거리와 자원특성에 따른 활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축제 등과 같이 일시적인 자원을 기타자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5-1〉 봉화군내 문화유적 총괄표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국보201호)
	보물	유곡리 : 충재일기(제261호) / 근사록(제262호) / 충재 권벌 종손가 소장 전적(제896호) / 충재 권벌 종손가 소장 고문서(제901호) / 충재 권벌 종손가 소장 유목(제902호) 서동리 : 삼층석탑(제 52호) 개단리 : 축서사의 석불좌상 부광배(제995호) / 축서사의 괘불탱(제1379호)/
	사적 및 명승	태백산 사고지(사적348호)/내성유곡 권벌충재관계유적(사적 및 명승 3호)
	천연 기념물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74호)
	중요민속자료	해저만회고택(중요민속자료 169호)/거촌리 쌍벽당(중요민속자료 170호)/가평리 계성당(중요민속자료 171호)
도지정 문화재	유형 문화재	청량사유리보전(제47호)/의양리 석조여래입상(제311호) 봉성리 석조여래입상(제132호)/천성사 석조여래입상(제133호)/천성사 3층석탑(제134호)/한수정(제147호)/ 오전리 아미타여래좌상(제154호)/각화사 귀부(제189호)/감고당문적(제190호)/봉화향교(제253호)/종선정(제264호)/동면리 마애비로자나불 입상(제273호)/구가암(제283호)/봉화주원재(제343호)
	무형 문화재	봉화유기장(제22호- 가, 나)
	민속 자료	봉산리사(제149호) 외 33항목
	기념물	김건영 가옥(제17호) / 개암종택(제138호)
봉화의 정자		갱장각, 격양당, 계서당 등 다수
전통 사찰	각화사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559 (창건 : 신라 문무왕 16년(676))
	청량사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47 (창건 : 신라 문무왕 3년(663))
	축서사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천성사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261
	홍제사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27-6
	지림사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657-3



그림5-1. 북지리
마애여래좌상(국보201호)



그림5-2. 전통사찰 - 춘양면 각화사

1) 근거리 자원조사

가) 경관자원

(1) 석천정사

닭실마을에서 석천계곡을 따라 1킬로미터 내려간 곳에 있다. 충재 권벌 선생님의 큰 아드님이 아버지 뜻을 잇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이 정자는 단순히 쉬려고 지어놓은 곳이 아니라, 공부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무척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석천정사라고도 부르고 있다. 주위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 이여서, 옛날부터 시인들과 화가들이 자주 왔던 곳이다. 진입로는 예전의 강변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 5-3. 석천정사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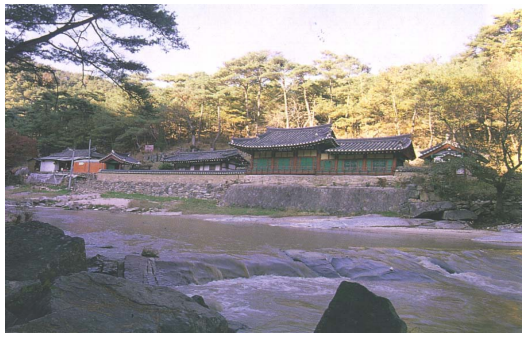


그림 5-4. 석청정사 계곡 전경

(2) 청하동천

청하동천은 “신선이 사는 마을” 이란 뜻. 옛날에 밤마다 도깨비가 울어대어 공부하는 선비들이 괴로워했는데, 이글을 써서 새기니 도깨비가 모두 달아났다고 한다.

(3) 수사미

수사리 강변이라고도 한다. 남산 옆을 흐르는 냇가에 모래와 돌밭이 있고 크고 편편한 바위 밑을 강물이 흐르고 있다. 땅버들, 찔래, 쑥, 미나리들이 자라고 있고, 민물고기들도 많다.

나) 역사자원

(1) 유물각 : 충재 권벌 선생님의 종택에 있는 것으로, 유물관 안에는 몇 점의 보물급 문화재와 당시의 유품들이 전시되어있는데, 이것들은 한국전쟁 때 집안에서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몰래 묻어서 보관해온 것이라 한다. 보물 제261호로 지정된 <충재일기>, <근사록>, <왕세자책례도감병풍>, <우향계축>, <퇴계선생서> 등이 있다.



그림 5-6. 근사록



그림 5-5. 충재 권벌 종손가 소장전적



그림 5-7. 충재 권벌 유물전시관



그림 5-8. 충재 권벌 일기

(2) 청암정

누각으로 충재 권벌 선생님의 종택에 있다. 권벌 선생이 큰아들과 함께 지은 정자이다. 정자로는 큰 편인데, 거북 모양의 돌 위에 정자가 있다. 청암정은 커다란 바위 위에 있고 바위 위에 놓인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물 건너 좁은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바위는 나무들과 어우러져 있는데 바위가 하나의 거대한 천연 바위라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5-9. 청암정 전경



그림 5-10. 충재 권벌 종택의 사당 전경

- **沖齋 權橃(1478 - 1548)**

조선 中宗때의 문신이며 학자이며 권의 字는 仲虛, 沖齋는 그의 號이다. 중종 2년 문과에 합격하여 관료생활을 하다가 중종 14년(1519) 소위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되어 파직당하여 10여년간 야인으로 있다가 동 28년에 召還되어 벼슬이 우찬성(右贊成)에 까지 올랐는데 明宗이 임금이 되던 해에 다시 을사사화(乙巳士禍)를 만나서 朔州에 귀양갔다가 明宗 3년 그 곳에서 逝去하였다. 뒤에 시호를 忠定으로 내렸다.

(3) 삼계서원

삼계서원은 이지방의 선비들과 권씨 집안에서 충재 권벌 선생님의 학문과 덕행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서원이다. 서원에는 충정사, 청일당, 동재와 서재, 환성문, 관몰루, 주소 등이 있다. 또한 이곳은 조선시대 말에 일본에 반대해서 싸웠던, 을미의병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그림 5-11. 삼계서원 외부 전경



그림 5-12. 삼계서원 내부 전경

다) 특산물자원

(1) 전통유과

닭실마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500년 전통의 닭실 종가 전통유과이다. 예로부터 한과는 제사 음식 중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갖은 정성과 솜씨를 부리는 것으로, 그 밖의 집안 대소사에서 가문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로도 여겨졌다.

한과는 모두 세 종류. 치자, 흑임자(검은깨), 자하초, 껍질 벗긴 깨 등으로 곱게 물들인 오색 강정, 넓적하게 튀겨 만든 산과 및 약과가 그것이다. 현재, 권씨 종가댁 제례에 올라가는 한과는 특히 여러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정성의 결정체로, 현재 아랫대 종부 손숙 씨(55세)가 마을 부녀회 회원들(평균 연령이 60대 중반)과 함께 내림음식의 비법을 전승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는 종가댁과 마을 부녀회(조합원 22명)에서 협의, 닭실마을 유과를 소량이나마 주문생산해 농가 소득에도 적게나마



그림 5-13. 닭실마을의 한과 1



그림 5-14. 닭실마을의 한과 2

보탬을 하고 있었다. 물론 유과 판매로 인한 소득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닭실마을 부녀자들의 단합을 일궈 내는 '두레'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

2) 중·원거리 자원조사

가) 경관자원



그림 5-15. 청량산 전경

(1) 청량산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남쪽에 있는 산. 해발고도 870m. 산세가 수려하여 소금강(小金剛)이라고도 한다. 최고봉은 장인봉이며 그 외에 고봉들이 즐비하다. 산의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른다. 산에는 27개의 절과 암자 유지(遺址)가 있고 신라시대 이후 선현들이 수도하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원효(元曉)가 건립하였다는 내청량사·외청량사, 의상(義湘)이 창건하였다는 유리보전(琉璃寶殿), 신라시대 명필 김생(金生)이 글씨공부를 하던 김생굴(金生窟), 최치원(崔致遠)이 수도하던 고운대(孤雲臺)·독서대(讀書臺),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은신하였던 오마대(五馬臺)와 공민왕당(恭愍王堂) 등이 있다. 조선시대 이황(李滉)도 청량산을 즐겨 찾아 수도하였으며 산에 관한 시 51편과 <청량산록발(淸凉山錄跋)>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대궐이나 사찰의 건축용 목재로 쓰이던 춘양목(春陽木)이 많이 나며 송이버섯 집산지이기도 하다. 1982년 8월 봉화군·안동군(安東郡 ; 지금의 안동시) 일대 48.76㎢가 청량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 소백산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와 충청북도 단양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고도 1,439m에 봄엔 천상 화원, 겨울엔 눈꽃 화원이 유명하다. 길고 완만한 경사로 늘씬하게 뻗어나간 산능선 풍경이 매혹적인 산으로, 백두대간의 허리 근처에 자리잡고 있어서 겨울 북서풍이나 여름 남동풍과 정면으로 맞대결하듯 솟아오른 장벽이다. 바람이 드센 것이 특징이다. 1987년 제18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바람이 센 때문에 산 능선에는 별로 굵은 나무가 없다. 하지만 산중턱에는 특히 주목이 많이 자라 주목의 산이라고

할 정도다. 비로봉 북사면에 수령 200~800년 되는 주목 2,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천연기념물 제244호). 소백산 능선엔 철쭉나무가 특히 많으며 식물상도 다양하다. 때문에 연화봉~비로봉~국망봉 능선은 봄부터 광대한 초원지대가 되며, 6월엔 철쭉 군락이 만발하여 천상화원을 이룬다. 이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소백산을 찾아간다. 소백산은 풍수지리적으로도 명산으로, 고려때부터 소백산 여기저기에 왕태(王胎)를 안치했다고 하며, 소백산 남쪽의 인삼으로 유명한 풍기는 정감록에서 난을 피하기에 좋은 열 군데의 승지(십승지지十勝之地) 중에 한 군데로 꼽았다. 그래서 정감록을 신봉하는 많은 이북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와 살기도 했다.



그림 5-16. 소백산 정상 전경 1



그림 5-17. 소백산 정상 전경 2

(3) 명호천

봉화 및 청량산 입구의 명호면 명호리를 거쳐 안동호로 흘러드는 강이다. 주변 산수도 절경이려니와 강물이 오염되지 않아서 예전에는 열목어까지 오르내렸던 곳으로 지금은 은어낚시터로도 유명하고, 여름에는 래프팅을 하기도 한다. 경치가 수려하고 야영할 장소가 많아 여름철에는 피서지로서 각광을 받는다. 여울과 소가 잘 어울려 있고 수량도 적당해서 많은 홀림이 및 날벌레낚시 명당자리가 넓게 펼쳐져 있다.



그림 5-18. 명호천 전경

나) 역사자원

(1) 청량사

청량산 도립공원 내에 자리한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법당은 지방유형문화재 47호인 청량사 유리보전이 보존되어 있다. 청량사는 풍수지리학상 길지 중의 길지로 꼽히는데 육육봉(12 봉우리)이 연꽃잎처럼 청량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청량사는 연꽃의 수술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5-19. 청량사 전경

이 청량사에는 진귀한 보물 2개가 남아 있다. 공민왕의 친필 로 쓴 현판 유리보전(琉璃寶殿)과 지불이다. 유리보전은 약사여래 불을 모신 곳이라는 뜻이다. 지불은 종이로 만든 부처이나 지금은 금칠을 했다. 청량사 바로 뒤에는 청량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보살봉이 있다. 원래 이름은 탁필봉이지만 주세붕선생이 지형을 보고 봉우리 이름을 다시 지었다고 한다. 청량사가 내청량이라면 응진전은 외청량이다. 응진전은 원효대사가 머물렀던 청량사의 암자로 663년에 세워진 곳으로 청량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에 든다. 입석에서 등산로를 따라 30분정도 오르면 만난다. 뒤로는 거대한 금탑봉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아래로는 아득한 낭떠러지이다. 바위가 마치 9층으로 이뤄진 금탑모양을 하고 있고 층마다 소나무들이 테를 두른듯 암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가을이면 절벽 아래로 붉게 타는 단풍이 장관이다.

주요문화재 - 응진전, 5층사리탑, 김생굴, 청량정사

(2) 부석사

신라 문무왕 16년(서기 676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화엄종찰 부석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5점, 보물4점, 도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0대 사찰중 하나.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당고종의 신라 침략 소식을 듣고 이를 왕에게 알리고 그가 닦은 화엄교학(華嚴敎學)을 펴기위해 귀국하여 이 절을 창건 우리나라 화엄사상의 발원지가 되었다.



그림 5-20 부석사의 안양루, 부석사에서 바라본 전경, 무량수전의 모습

부석사라 이름하게 됨은 무량수전(無量壽殿)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아래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뜬돌'이라 부른데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1916년 해체 보수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하면 고려 초기에 무량수전 등을 중창하였으나, 공민왕 7년(1358) 적의 병화를 당하여 우왕 2년(1376) 무량수전이 재건되고, 우왕3년(1377) 조사당(祖師堂)이 재건되었다. 경내에는 신라유물인 무량수전 앞 석등(石燈)(국보 제17호),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보물 제220호), 삼층석탑(三層石塔)(보물 제249호), 당간지주(幢竿支柱)(보물 제255호)등이 있고, 고려시대 유물인 무량수전(無量壽殿)(국보 제18호), 조사당(祖師堂)(국보 제19호), 소조여래좌상(塑造如來坐像)(국보 제45호), 조사당벽화(祖師堂壁畵)(국보 제46호), 고려각판(高麗刻板)(보물 제735호), 원융국사비(圓融國師碑)(도유형문화재 제127호), 삼층석탑(三層石塔)(도유형문화재 제130호) 등이 있다. 특히, 무량수전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 중 하나이며, 조사당벽화는 목조건물에 그려진 벽화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 유물전시관(遺物館展示館)에 보관되어 있다.

(3) 소수서원과 선비촌

소수서원은 풍기군수였던 신재(愼齋)주세붕(周世鵬)선생이 고려말 유현(儒賢)인 회헌 안향(安珦)선생의 연고지에다가 조선 중종 37년(1542) 사묘(祀廟)를 세우고 안향 선

생을 주향(主享) 하였으며, 다음해에는 안향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고 학사(學舍)를 세워 주자(朱子)의 백록동서원을 본받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데서 비롯되었다. 중종 39년(1544)에는 안축(安軸)선생과 안보(安輔)선생을 배향하였으며, 명종원년(1545) 안향 선생의 후손 안현이 경상감사가 되어 서원의 사당을 참배하고 각종 경비를 지원하였다. 명종 3년(1549) 퇴계 이황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경상감사 심통원(沈通源)에게 서원의 편액과 토지·노비를 하사해 주도록 계청(啓請)하자, 감사 심통원이 조정에 계청함으로써 이듬해 명종5년(1550) 5월 왕명으로 대제학 신광한(申光漢)이 서원의 이름을 『소수紹修』라 지었으니, “이미 무너진 교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하였음”(기폐지학 소이수지旣廢之學 紹而修之)이란 뜻이다. 명종임금이 손수 『紹修書院』편액 글씨를 써서 하사 하였으니, 곧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공인된 사립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조 11년(1633)에는 서원을 창건한 주세붕 선생을 추향(追享)하였다. 유교문화 발상의 중심지로서 옛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선현들의 학문 탐구와 전통생활 모습의 재현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개관한 전통마을이다. 우리 전통적 고유사상과 생활상의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5-21. 소수서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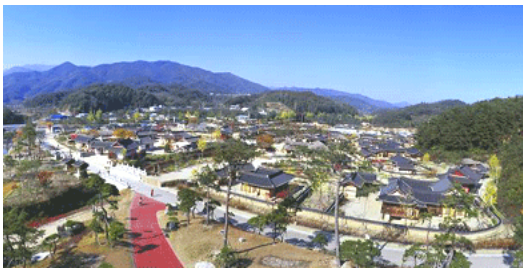


그림 5-22. 소수서원 + 선비촌 전경

다) 특산물자원

(1) 춘향목

소나무의 목재는 오랜 옛날부터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넓게 이용되어 왔는데, 경상북도 북부지방과 강원도 태백산맥에서 나는 소나무는 춘양목이라 하여 진중(珍重)

히 여겨 왔다. 소나무가 굵게 자라 심재가 황적색을 띤 것은 황장목이라 하여 관재를 만드는 데 쓰였다. 소나무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소나무 숲은 좋은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임수 중에서 소나무 숲이 단연 많다.

(2) 사과

봉화지역은 백두대간의 주맥인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분기하는 곳이다. 지역의 소백산 남동쪽에 위치한 산지과원에서 생산되어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덕택에 맛과 향이 뛰어나며 성숙기 일교차가 커서 사과의 당도가 매우 높다.

(3) 인삼

봉화 인근의 풍기인삼은 삼국사기에 서기 734년[신라 성덕왕 33년] 당 현제에게 하정사를 보내어 산삼 200근을 선물하였다는 기록을 보아 신라시대 때 벌써 소백산에서 산삼이 많이 자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츰 산삼이 선물에서 공물로 바뀌면서 중국에서 산삼을 요구하는 회수와 수량이 갈수록 증가 되었다. 농가에선 산삼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답을 팔아 산삼을 사서 바쳐야 하는 폐농현상 등 폐단이 막심하였다.

이를 막기 위하여 조선조 중종 때 신제 주세붕 선생께서 산삼에만 의존하였던 것을 인위적으로 재배 생산, 그 수요를 충족하고자 전국에 산삼이 자생하는 토양과 기후가 비슷한 곳을 찾기 시작하였다.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이 지방의 토양과 기후를 조사한 결과 산삼이 많이 자생할 뿐 아니라 인삼 재배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임을 발견하였다. 풍기에서 제일 처음 산삼종자를 채취하여 인삼재배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조선왕조 조정에서는 풍기인삼만 애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림 5-23. 6년근 인삼과 인삼밭의 모습

(4) 봉화 송이

봉화송이는 태백산 자락의 마사토 토양에서 자라 수분함양이 적고 향이 뛰어나다. 매년 80여톤 정도가 생산되며, 전국 생산량의 약 10%를 생산하고 있다. 봉화군의 대표적인 임산물이다.




그림 5-24. 송이 직판장의 모습과 A급 봉화송이

다) 기타 자원 (축제 및 문화행사)

(1) 봉화 춘양목 송이 축제

(가) 주　　제 : "자연의 향기! 봉화송이와 함께!

(나) 시　　기 : 매년 9월 말경에 10월 초 (4, 5일간)

(다) 후　　원 :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안동MBC

(라) 행사 내용 : 지역의 청정성을 알리고 특산품의 판매전략으로 시작한 봉화송이 축제는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캐보고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체험행사도 갖고 있다.

① 사전 행사 : 봉화 춘양목 송이배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경상북도 게이트볼 대회, 직장단체 테니스 대회

② 행사 장소 : 봉화읍 체육공원, 송이산 일원

③ 체험 행사 : 송이요리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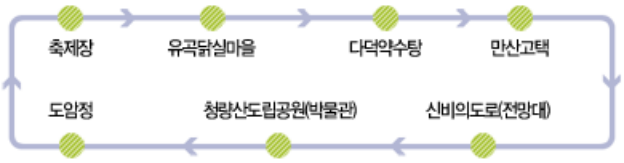
④ 공연 행사 : 개막 축하공연, 송이와 함께하는 콘서트, 웰빙댄스 페스티발, 청소년 송이가요제, 외국인 공연(잉카 음악 등), 국악예술단 공연

⑤ 학술 행사 : 춘양목 송이학술 심포지움

⑥ 체육 행사 : 군민체육대회, 전국클럽초청 족구대회, 군민건강 걷기 대회, 어린

이집 연합 운동회,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

⑦ 참여 행사 : 송이채취 체험행사, 솔봉이(송이축제 캐릭터)만들기 체험, 송이요리 경진대회 및 송이요리 만들기, 반딧불이 자연생태 체험, 대중가요 도전 500곡, 송이 볼링대회, 생활도자기 체험, 래프팅 체험, 문화유적 탐방버스 투어



⑧ 문화 행사 : 청량 문화재, 삼계줄다리기 사연

⑨ 전시 및 부대행사 : 송이 주제 전시관, 송이 왕중왕 선발전, 봉화송이판매 장터, 송이 먹거리 골목 설치 운영,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향토작가 사진전, 본화문인협회 시화전, 버섯사진 및 향토 목재류 전시, 읍·면 홍보관 운영



그림 5-25. 송이 축제의 모습

(2) 은어 축제

(가) 주　　제 : 오세요 ! 자연이 살아 숨쉬는 봉화로…

(나) 시　　기 : 매년 8월 초순 4, 5일간

(다) 후　　원 :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박물관

(라) 장　　소 : 봉화체육공원 / 내성천

(마) 행사 내용

지역의 청정1급수 내성천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한 행사로, 은어잡이 체험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주로 여름방학기간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민물고기,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도예, 지방특산품 등을 전시하며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견학할 수 있으며, TV특집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열목어, 산천어, 쉬리 등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① 체험 행사 : 은어잡이 체험, 은어구이체험, 야간고기잡이체험, 수중달리기, 민물고기릴레이, 뗏목 · 수상자, 전거타기 체험, 말타기 체험,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가족건강걷기대회, 문화유적탐방 버스투어 등

② 공연행사 : 개막축하공연, 도립국악단공연, 청소년어울마당, 경북윈드앙상블축하공연, 군민노래자랑 등

③ 전시 · 부대행사 :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민물고기전시장, 이동 건강증진관, 제2회 봉화관광사진전 입선작전시, 농 · 특산물 전시 판매, 식충식물 및 봉화의 산약초 전시회, 은어먹거리 장터운영, 생활도자기 만들기, 염색 · 비즈 · 리본 · 풍선공예, 페이스페인팅, 가면그리기 등



그림 5-26. 은어잡이 축제의 모습

(3) 청량 문화제

청량문화제는 향토 고유의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주민화합의 한마당을 만드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가) 주　　제 : “향토고유의 전통민속놀이 재현과 주민 단합.”

(나) 시　　기 : 매년 하반기(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9, 10월경 4 일간

(다) 후　　원 :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단체

(라) 행사 내용

① 식전 행사 : 학생·주부 백일장 및 사생대회, 군민 등반 대회

② 체육 행사 :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군민체육대회, 군민걷기대회, 군수기 타기 볼링대회

③ 문화 행사 : 목도시연, 어린이 민속무용, 삼동지신밝기, 놋다리 밝기, 전통혼례 재현, 고전·관악·농악 발표회

④ 참여 행사 : 장기·바둑대회, 삼베짜기시연 및 길쌈삼기 대회, 투호던지기 대회, 찰떡 떡메치기 대회, 전통 막걸리 마시기 대회, 기마전, 노인새끼꼬기 및 널뛰기 대회, 사과 수박 홍보 및 시식 등



그림 5-27. 청량문화제의 가면무도회, 서예전시회, 청량산 관광하는 모습

(4) 봉성 전통 돼지요리 숯불축제

(가) 시　　기 : 매년 7월말 또는 8월 초중순 2,3 일간

(나) 후　　원 : 경상북도 봉화군

(다) 행사 내용 : 돼지요리 경진대회 및 시식회, 아기돼지 경주대회, 먹거리 장터, 옥마 가요제



그림 5-28. 봉성의 돼지고기 축제의 모습

(5) 청량사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는 매년 원효·의상이 창건한 청량사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스님, 가수들은 물론 가톨릭의 신부, 수녀 등이 함께 초청돼 열린다.

(가) 주　　제 : “생명 -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 시　　기 : 매년 10월 초순경 1 일간

(다) 후　　원 :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 총신도회

(라) 행사 내용 : 청량산 산사음악회



그림 5-29. 산사음악회의 모습

(6) 재산 수박축제

청정 지역 재산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재산수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다체로운 행사를 통한 지역 화합을 도모.

(가) 주　　제 : “재산수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림”

(나) 시　　기 : 매년 8월 초중순경 1 일간

(다) 후　　원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수박작목반, 출향 향우회

(라) 행사 내용 : 수박품평회, 시식회, 수박 먹기대회, 수박 오래들기, 수박들고 공굴리기, 즉석노래자랑, 면민어울 마당, 농악놀이 특산물 전시장운영, 축하 공연 등



그림 5-30. 수박축제의 개막식 및 품평회의 모습

(7) 명호 이나리 강변축제

(가) 주　　제 : "산과 함께 물과 함께"

(나) 시　　기 : 매년 7월 말경 2 일간

(다) 후　　원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각기관단체

(라) 행사 내용 : 은어, 꺽지, 노라치 쏘가리, 뱀장어 잡기 및 요리 등

(8) 봉화지역 토속음식

(가) 1997. 7. 2 봉화군 토속음식점조례를 제정하고 봉화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토속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과 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속음식단지 2개소와 토속음식점 23개 업소를 지정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나) 대표적인 토속음식으로는 송어회, 오리한방백숙, 약수탕 닭백숙, 송이요리, 손칼국수, 청둥오리 한방백숙, 봉성돼지숯불구이, 산채비빔밥, 봉화 한약우 숯불구이 등이 있음.

(9) 단풍 / 눈꽃열차 운행

(가) 주　　제 : "세평 하늘아래 산골 간이역, 그곳에서 추억 만들기"

(나) 시　　기 : 단풍 열차 - 10월경 비정기적으로 운행

눈꽃열차 - 당해 12월 말경에서 다음해 2월 중순경

(다) 후　　원 : 경상북도 봉화군, 철도청

(라) 행사 내용

① 봉화군 승부역을 중심으로 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② 볼거리 : 용관바위, 투구봉 약수, 출렁다리, 영암선 개통 기념비, 단풍·눈꽃 호나상 오솔길 걷기

- 먹거리 : 농·특산물, 봉화 통종 순두부, 봉화 메밀묵, 송이 감자전, 손칼국수



그림 5-31. 눈꽃열차를 타고 온 관광객의 모습

나. 닭실마을의 역사문화자원

1) 닭실마을의 역사·문화 경관자원

가) 생활공간 영역자원

(1) 종택

(가) 청암정 : 사적 및 명승 제3호, 1526년에 충재가 석청정사와 동시에 위치를 선정함. 종택의 별당

(나) 충재 : 청암정 동쪽 뜰에 있는 집으로 원래 충재가 기거하였던 곳임

(2) 창설재(倉雪齋, 일명 관행당) : 피서원 아래 여섯간 집(=낭간헌), 뜰의 대나무 숲과 오동나무로 이루어진 정원이 특색임

(3) 송암정(松巖亭) : 충재의 차자 석정 권동미(權東美)가 지은 정자이며 마당에 못과 들문이 있었다고 함.



그림 5-32. 충재건물



그림 5-33. 송암정 전경

(4) 피서원(避暑園)과 중구대(重九臺) : 청암정 동쪽 약 사백보, 죽간사 동쪽 대(臺), 유곡마을의 중앙 높은 언덕에 위치한 곳으로 전망이 좋아 명소로 유명

(5) 죽간사(竹間舍) : 창설재 오픈편 조금 북쪽에 위치한 대숲 속의 집

(6) 사립암(蓑笠巖) : 시냇물 앞의 가운데 보이는 바위이며, 청암정에서도 보였음.

(7) 빙청(氷廳) : 유곡산 오른편 높은 곳에 위치, 즉 수사미의 위에 위치

(8) 황토강(黃土岡) : 석천정과 청암정으로 동시에 조망이 가능

(9) 수대(水碓)와 성황당

(가) 수대 : 유곡 앞길이 남쪽으로 나가는 초입에 위치(水碓街)로 부름

(나) 성황당 : 석천정사에서 마을로 돌아드는 길목에 있음.

나) 여가 영역자원

(1) 석천정사(石泉情舍) : 정사의 일대는 별서정원이자 계정

(2) 석천계곡의 경관물 : 청하동천과 사자석, 청하굴, 백석량, 선폐암, 비룡폭

(3) 남대(枏臺) : 느티나무 언덕으로서 정사 동남쪽 수십보 거리에 있으며 정사와 필적할 만큼 전망이 수려

(4) 등고단(等高壇) : 정사의 북쪽 옆걸음 밖 정사를 굽어보는 곳

다) 강학영역과 역사문화자원

(1) 삼계서원 : 충재를 배향한 서원

(2) 주변경승

(가) 광풍대(光風臺) : 삼계서원 동쪽 언덕, 좌청룡의 머리

(나) 제월대(霽月臺) : 합강 서쪽의 지척되는 곳에 있음. 건너편 앞산 암벽(창평청과 내성천이 합류되는 지점), 위 이름들은 주렴계(周濂溪)의 서당(書堂) 이었던'광풍재월'을 따라 붙인 이름

(다) 풍영대(風詠臺) : 서원 남쪽 별당인 문회당(文會堂)의 남쪽에 위치하며, 버드 나무 그늘이 있음

(라) 삼계서원 신도비(三溪書院神道碑) : 1906년 사림이 세움



그림 5-34. 충정공 충재 권벌선생 신도비



그림5-35. 충재의 삼계서원 묘허비

라) 추모영역의 역사문화자원

(1) 재궁골과 추원재(追遠齋) : 재궁골은 안닭실에 있는 안동 권씨의 묘역이며, 추원재는 재실임

(2) 신도비와 묘소

마) 기타 유교문화자원

(1) 한수정(寒水亭) : 춘양면 의양리(宜陽里)에 소재하며, 1534년 충재가 창건하였고, 경북도지정 문화재 147호임.

2) 주요 건축물 현황 및 문제점

가) 충재 종택 : 솟을 대문채, 살림채, 사당, 경장각, 충재 청암정이 있으며, 솟을 대문체, 사당은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청암정은 현재 보수를 위하여 지표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 현재 종택내에는 충재 유물관이 있으며, 건물의 규모나 위치상 종택 전면부에 위치하고 그 규모와 높이가 다른 건물에 비해 크므로 종택의 내부를 가리고 있어 이전될 계획에 있다.

다) 마을 내 고가옥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물은 권원식가, 관행당, 권정극사당, 승지영감댁 등이 있으며, 현재 지붕개수, 담장복원 등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라) 석천계곡 옛 길 변에 석천정사가 있으며 전면부 축대가 견치석으로 쌓여져 있어 전통경관의 이미지와 맞지 않으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조금씩 파손되어 가고 있다. 적극적인 관광지로 유도하고 이에 맞추어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

마) 그 외의 각 건축물·담장·도로 등에 대한 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며,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닭실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요구된다.

바) 동네 입구에 봉화전체에 대한 배치도는 있지만 마을에 관한 배치도가 없어, 관람객으로 하여금 외관만을 보여주는 실정임. 마을을 알릴 수 있는 마을 배치도· 안내책자 등 관광에 관한 홍보물이 필요하다.



그림5-36. 경남 거창-황산고가마을 민박안내 사례

사) 전통유과체험관이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유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과를 전시하고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관광관련 사업 및 관광객 추이

1) 관광사업체

가) 2004년 기준 봉화군내에는 많은 유·무형의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여행업체로 등록된 곳은 일반 1곳, 국외 2곳, 국내 2곳이며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 곳도 없다.(봉화군 문화경제과 제공-통계연보)

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경우 전문 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 전용음식점업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이 한곳도 없다.

다) 기타시설로 국제회의용역업, 관광편의 시설업도 한 곳도 없다.

2) 관광객 추이

가) 관광객은 년도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2003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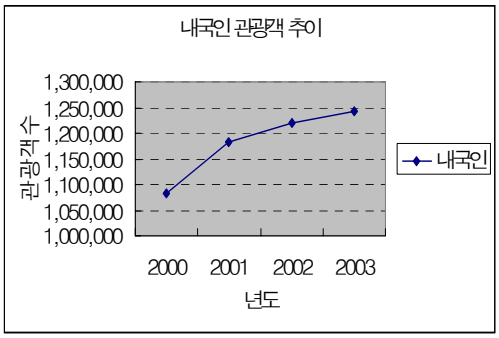
표 5-1. 4년간의 내·외국인 관광객 추이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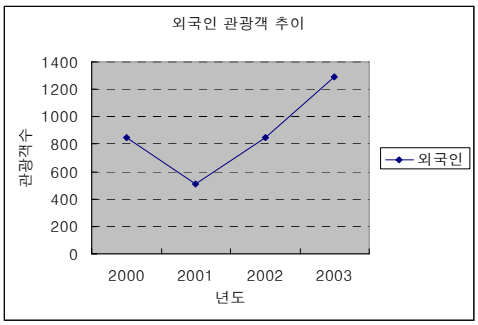
년도	내국인	외국인	계
2000	1,082,812	844	1,083,656
2001	1,181,697	509	1,182,206
2002	1,220,578	845	1,221,423
2003	1,243,252	1,287	1,244,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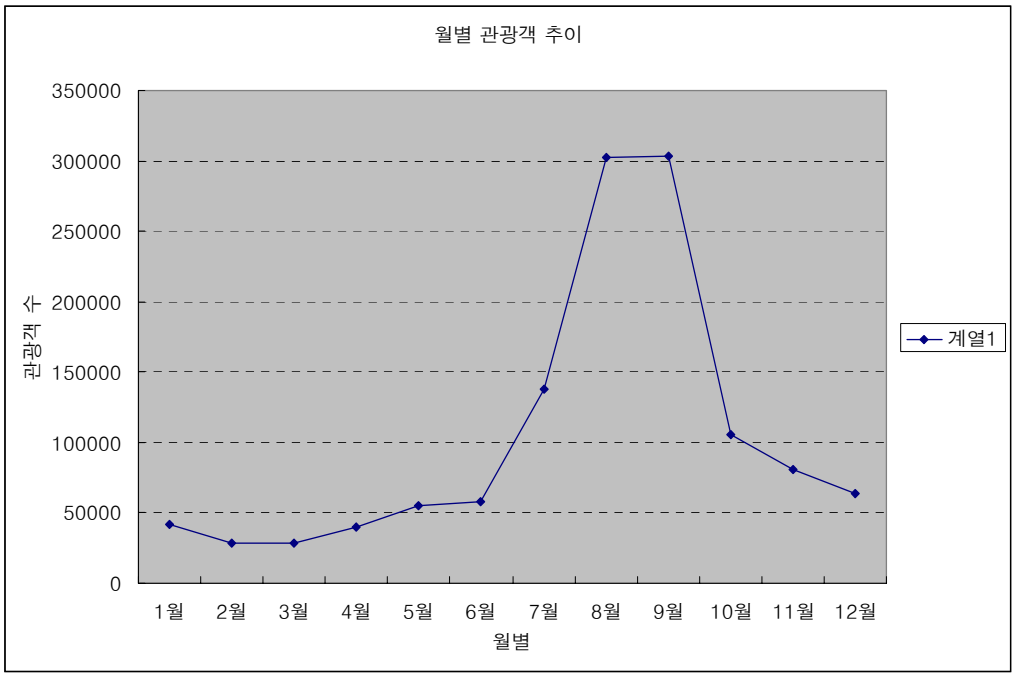
나) 봉화지역의 월별 관광객 추이는 2, 3월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7월 여름을 기점으로 10월까지 10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12월과 1월은 눈꽃열차운행 등으로 어느 정도 관광객이 봉화지역을 찾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역축제 및 관광지별 관광객 추이에는 8월의 은어축제와 9월 송이축제기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년도별, 월별 관광객 추이







라. 관련 법규 검토

1) 관련법규 및 제도의 현황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1990년대 들어 전통마을과 같은 역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었다. 그 후 1972년 '집단 민속자료 보호구역' 지정, 1977년 문화공보부의 '민속마을 보존 지침' 수립으로 하였고, 시·도는 민속마을을 지

방 문화재로 지정하고 민속마을 안에 있는 민속자료 중 가치가 있는 것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2) 문화재 보호법 규정

전통가옥 및 마을의 관련법은 문화재보호법과 전통건축물 보존법이며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중요민속자료와 사적으로 분류되고 전통건축물 보존법에서는 전통건조물 보조지구로 전통민속·마을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요 민속자료 및 사적으로 지정되거나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전통가옥(마을)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적용받는 것은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등이다.

3) 전통건조물 보존법 규정

전통건축물 보존법은 전통적인 건조물의 손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유지 계승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건축물 보존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건립·축조된 지 50년 이상 되는 민가, 사찰, 향교, 서원, 사우, 정자 등의 건축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을 전통구조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되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를 제외한다. 전통적 건조물이 집단적으로 위치한 곳은 전통구조물 보존지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가) 전통 건축물

건립·축조된지 50년 이상 되는 민가, 사찰 향교, 서원, 사우, 정자 등의 건축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을 말하며, 문화재 보호법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를 제외한다.

나) 전통건축물 보존지구

전통 건조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주위 환경과 일체화되어 역사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전체로서 전통건물 보존지구는 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민족자료

구역 지정은 생활양식, 풍경, 민간설화 등 한민족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보존되고 있다.

다)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보로관리를 위해서 수리, 기록의 보존과 작성, 현상변경과 반출금지, 보조금의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건축물보로법에서는 현상변경과 보존계획의 수립,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관련 법규 검토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전통마을(가옥)은 민속적이고 불교적이면서 유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통 신선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이 다양한 특징을 주면서 우리의 문화속에서 전통적 맥(脈)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핵이면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바탕들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가) 전통 마을의 건축물들은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전통건축물 지정과 유지관리 그리고 보존에 있는 일시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후 계속적인 관리계획이 없다.
다) 전통적인 공간 보존 고수로 인하여 현대의 생활방식과 양식들 그리고 가재도구들의 현대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공간구성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라) 문화(전통 건축물)보존과 경제성(상업성)의 충돌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건축물 외형에만 치우쳐지고 내부 공간에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수리해야하는 모순이 있다.
바) 일률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사) 건축물중 일부 특정 건축물에만 정부지원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면서 개인권의 침해와 불공정한 건축

법을 적용한다. 그 결과 위법으로 인한 문제가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왜곡되게 복원하고 전통의 핵심은 사라지고 엉뚱한 흉물로 둔갑한다. 따라서 개인권(재산과 인권)이 침해당하고 비 지정된 가옥보다 법적 규제를 유난히 받게 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그림 5-37. 불결한 옥외 화장실, 전통과 현대 살림살이의 부조화, 보조받지 못한 가옥의 모습 등

5) 농어촌 민박지원제도

가) 민박에 관련법으로는 농어촌 정비법이며 등록기준은 농어촌내에서 객실 7실이하의 대실로서 영업이 가능한 경우로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객실면적의 기준은 공중 위생법의 여인숙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나) 농어촌 민박지원 법령

(1) 농업·농촌 기본법 : 제 17조 (농업인의 경영 혁신 및 자금 지원)

(2) 농어촌 정비법 : 제66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지원·육성)

: 제76조 (한계농지 등의 정비 기본 방침)

: 제77조 (한계농지 등 정비의 종류)

다) 재정지원 조건 및 규모

(1) 지원 대상 :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 규모 : 재원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자금 또는 개보수 자금

융자지원 한도 - 시설자금 신청할 경우 20백만원 이상

- 개보수자금을 신청할 경우 20백만원 이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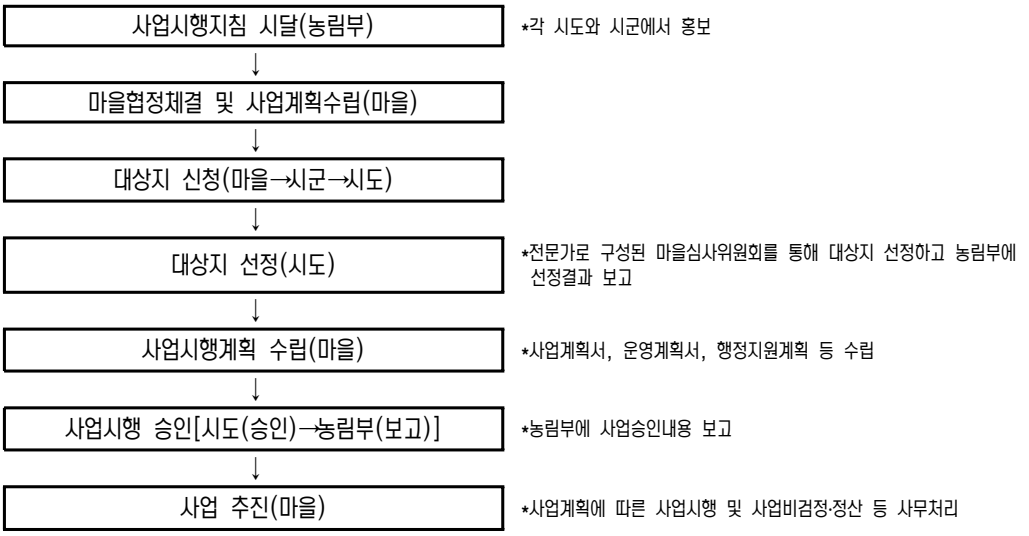
(3) 융자 조건 : 금리 - 약 연 4.0% 정도
상환조건 - 시설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개보수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라) 무상지원 조건 및 규모

(1) 농업진흥청에서 지원 - 전통테마마을 조성
(가) 사업내용 - 전통테마마을 조성 및 관광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나) 마을 단위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내용 진단
- 농업관련 체험, 농촌생활체험, 각종 체험장 시설, 편의시설 등
(다) 지원범위 : 1억/1년 - 2회 지원 가능
(라) 이외 민박개·보수 비용, 전통생활 문화 재현 시범운영 사업비
(마) 1년 신청전 사업신청서 제출
(바) 사업주관 기관 - 농업진흥청(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2) 농림부에서 지원 -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
(가) 사업내용 -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
(나) 사업추진 절차 개요(표5-3)
(다)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농촌진흥과)
(라) 신청자격 :
① 농촌관광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20호이상의 마을로서
(연합일 경우 30호 이상) 아래의 여건을 갖춘 마을
②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③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된 마을
④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⑤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⑥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표 5-3. 사업추진 절차 개요



(마)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① 사업기간 :1~2년(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②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이 2년일 경우 1억원씩 연차별 지원(06년 지원대상 마을부터 적용)

마) 전통마을 민박을 위한 현실적 문제점

(1)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고 대부분 60세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박 운영이 어렵다.

(2) 농번기의 경우 대부분 농사일로 인하여 민박객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

(3) 대부분 전통가옥과 공간 형식으로 인하여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샤워실 및 위생설비 등이 현대화되어 있지 못하고 위치적으로도(동선) 민박객이 사용하기 어렵다.

(5) 좁은 골목길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6) 가족동반 및 단체손님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바) 현재 전통가옥을 민박으로 사용하는 사례

(1) 전주 한식 생활체험관 (http://www.jjhanok.com)의 경우 비록 전문적인 민박업체이지만 고가(高價)의 대실로와 다양한 행사(상설, 기획, 문화기획상품)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고전 놀이체험, 지역 사투리 및 전통음식을 경험하는 여러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2) 동락원(http://www.jkhanok.co.kr)의 경우 전통문화찾기 및 교육과 공연 등 다양한 계층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특정계절에 집중되지 않고 사계절 모두 운영중이다.

(3) 승광재(http://www.royalcity.or.kr)의 경우 황손 후원회 겸용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 마음,(心) 입(口), 귀(耳), 눈(目)이라는 주제아래 4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은 체험활동과 행사 및 주제를 가지고 한옥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5-38. 동락원 홈페이지



그림 5-39. 한옥 생활체험관 홈페이지



그림 5-40. 승광재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소개 화면

(4) 3 곳의 공통적인 특징

- 지역의 유명인사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지역의 찬란한 문화 뿐 아니라 숨겨진 또는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사투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가족 단위 및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음식, 문화를 테마로 정하고 있다.

제6장
닭실마을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 방안

가. 닭실마을 현황 및 분석

1) 마을 현황

가) 현재 닭실마을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으로 길과 담장 등이 정비되는 등 경북 북부지방의 관광지 명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이 변해가고 있다.

(1) 현재 닭실마을은 2002년 이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마을길과 담장 등이 정비되어 있다.

(2) 관광객을 위한 공동주차장이 마을 입구에 정비되어 있다.

(3) 단체 관광객을 위한 공동화장실이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마을에서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과 제조장이 운영 중에 있다.

(5) 충재 권벌 종택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위생설비(화장실, 쓰레기 분리)이 설치되어 있다

(6) 가옥과 가옥사이에 잡초가 자라는 등 활용되지 않고 있는 빈 공터가 많이 있다.

(7) 개·보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공가들이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해 있을 뿐 아니라 전통마을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8) 전통씨족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주거건축물로 인하여 마을 전체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그림6-1.마을입구 정비된 주차장


그림6-2. 정비된 길과 담장 - 1


그림6-3. 정비된 길과 담장 - 2


그림6-3. 마을입구 공동 화장실


그림6-4. 한과 제조장 전경


그림6-5. 한과제조장 표기

2) 마을 문제점

가) 문제점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과 변화는 하드웨어적인 변화(전통건축 개·보수에 집중)에만 집중되어 이루지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로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는 정도의 관광지로서의 역할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 마을 자체적 문제점

(가) 전통씨족마을에 현대식 가옥들이 건설되고 있어 전통 씨족마을로서의 경관적 자원이 파괴 등 주민들이 마을을 관광자원 하겠다는 의지와 마인드가 부족하다.

(나) 마을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층으로 이루어져 관광자원화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젊은 층이 부족하다.

(다) 기존 한옥내부 시설들이 숙박관광객을 위한 현대적인 시설(위생 설비, 단체객을 위한 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라) 마을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관리조직, 관광객 운영과 안내를 위한 운영조직, 시설,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단순히 한번 보고 가는 정도의 관광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수익을 위한 관광자원개발 프로그램이 없다.

(바) 한과제조장의 운영·판매·관리 등이 마을 노인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산 관리 제품 전시 등 온라인과 같은 조직적 판매 수익체제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 농번기에는 농사일로 인하여 숙박객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2) 지방자치 단체(봉화군)의 문제

현재 영국에서는 Farm Stay UK가 전국 민박농가를 공동 네트워크로 조직하고, 공동 상표를 사용하며 민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지차제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부족 -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간단한 소개로 그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 역할 담당 부족 - 지역주민의 위한 계속적인 교육과 같은 지원 부족하다.

(다) 일시적인 물질적 지원의 한계 - 차후 관리 및 프로그램 미비하다.

(라)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수와 정비가 필요한 곳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연중 여러 행사들과 닭실마을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

(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보다 지나친 보존위주의 행정의식에만 집중되어 하드웨어적인 면에만 치중되어 있다.



그림6-6. 경관을 해치는 건물-1



그림6-7. 경관을 해치는 건물-2



그림6-8. 경관을 해치는 공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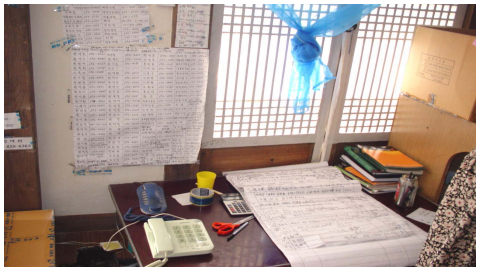


그림6-9. 수기로 이루어지는 주문과 배달



그림6-10. 배달용품 포장 보관



◀ 그림 6-11.
봉화군 홈페이지의 추천 관광코스 안내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관광코스를 하루 만에 스쳐지나가는 개념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좀 더 머물 수 있는 관광개념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가옥 민박은 춘양면의 만산고택이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식당과 겸업으로 민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송이축제때 일시적으로 닭실마을 관광코스로 연계 홍보하고 있다.

(3) 사유재산 관광자원화의 문제점

(가) 지역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갈등이 야기된다.

- 연중 휴일 없이 잠시 왔다가는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어 특히 주말의 경우 지역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

(나) 지역주민들의 관광과 민박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또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편의시설 및 휴식시설이 부족하다.

- 사유재산인 땅에 공공시설을 건설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전체를 직접관리하기에는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마을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 마을내 현대식 건축물로 신축하는 경우 마을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나. 관광 자원화의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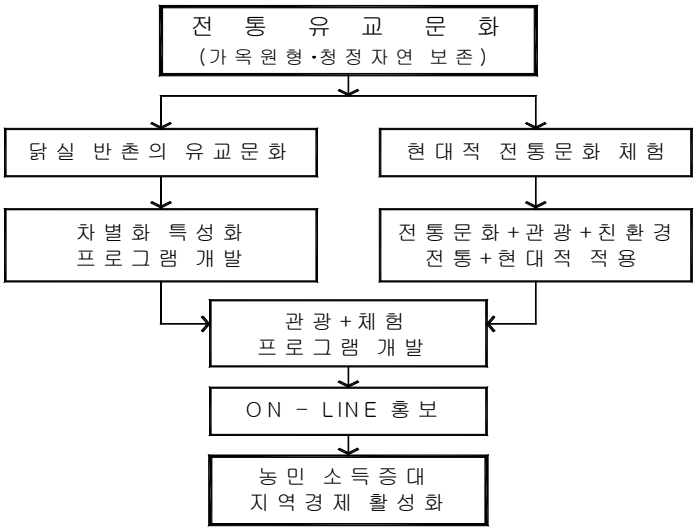


표 6-1. 닭실마을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기본 개념

1) 경북북부지역의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가옥의 원형보존과 전통문화와 생활방식의 체험과 풍부하고 청정한 자연경관의 적용 및 응용이 관광자원의 핵심이다
2) 닭실마을의 전통적 유교적 문화 공간에 현대적 문화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여 거부감을 최소화 한다.
3) 위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적 도시문화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역의 전통문화+관광+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지역적 문화로 특성화 한다.
4) 볼거리(관광) + 놀거리(체험) + 편안한 휴식 공간(편안함) 제공을 위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현대도시인이 갈망하는 건강(Well-being, LOHAS)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5)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on-line을 통하여 적극적인 마을 홍보전략을 수립한다.
6) 관광+체험을 통한 도시민을 유치는 거시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미시적으로는 농민소득 증대를 꾀함.
7) 지역의 특유한 문화, 음식, 특산물 등을 브랜드화, 고급화 한다.

다. 각종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방안

1) 마을의 조건

농림부 및 농업진흥청 등 무상지원 및 관광화를 위한 가장 우선시되는 것으로는 마을의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을 주민조직과 사업추진 의지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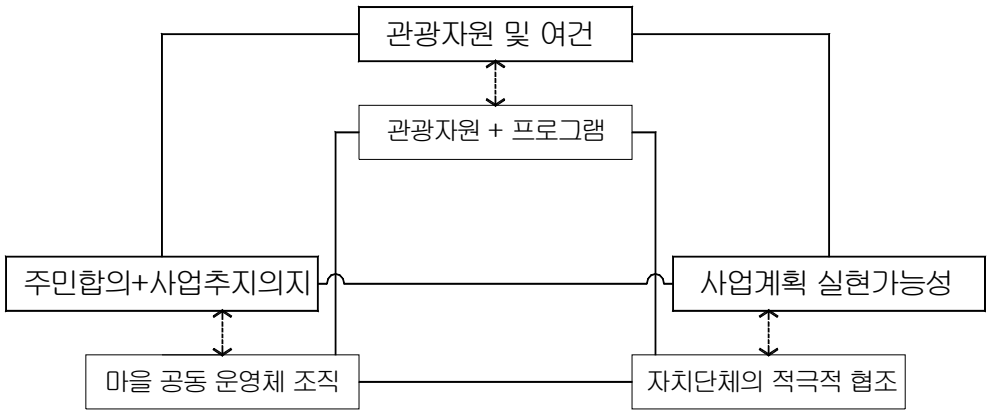


표 6-2. 정부의 지원조건과 마을의 조건 대비 개념

가) 마을의 운영을 위한 조직화 → 유교적 공간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씨족 마을인 만큼 운영조직은 결성으로 쉬울 것으로 예상(부녀회 조직 등)된다.

나) 주민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교육 → 주민들의 마인드 변화로 사업에 대한 개념과 추진과정을 명확히 인식한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부녀모임 등)을 통하여 전문가로부터 강연과 교육(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활용)을 받는다.

다) 특산물의 최대한 이용 → 한과와 같은 특성화된 음식 만들기 체험을 위한 공간을 재구성한다.

라) on-line 네트워크 구축 → 한과 및 특산품의 유통망을 조직적 네트워크로 구축한다.

마) 타지역과 구분되는 차별화 전략 → 한과의 다양한 상품개발 및 포장기술 개발과 고유상품 브랜드로 차별화한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 기존의 관광프로그램과 닭실마을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6-12. 닭의 모양을
형상화시킨 닭실마을의 가로등



그림6-13. 브랜드화가 가능한 닭실의 상징
- 마을 입구 울타리의 모습

2) 전통 유교교육 체험공간 재현

가) 현재 닭실마을과 주변내 유교 교육장을 재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 제시한다. (삼계서원, 청암정, 석천서원 등을 이용한 청소년 유교 예절 교실 실시)

나) 유교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단체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을 제시한다.

3)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안

가) 봉화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간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은어축제 송이 축제 등)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나) 봉화 및 인근지역의 풍부한 유·무형을 활용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체험과 관광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4) 관광 자원의 법적 또는 조직적 보호

가) 지역이 주체적으로 전통마을의 유·무형적 자원을 적극 보존,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을자치 기준과 조직 등의 제도마련

나) 관광객의 수용 경험이 없는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관광서비스(음식, 접대 등)의 학습과 훈련이 필요 → 주민과 행정은 관광객 접대하는 법, 인사하는 법, 음식 만들고 대접하는 법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하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히도록 교육을 통하여 관광의 질을 높인다.

5) 빈 공간 및 공가(空家)의 적극적인 활용 또는 마을회관 건립

가) 기존의 마을 가옥들을 모두 민박으로 활용하기보다 마을내 빈 공간 및 공가(空家)민박시설(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동 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단체 손님 및 가족동반 손님 등 사용하기 편한 가옥으로 재건축·신축한다.

다) 마을 회관 건립 - 마을의 공지를 이용하여 공동 운영체 관리가 가능한 마을 회관을 건립하여 저층에는 마을회관(유사시 단체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상층에는 현대식 콘도형 숙박시설로 활용한다.

6) 이벤트 및 홍보 - on line 구축

가) 각종 지역행사 및 마을 자체 행사(예로 한과 축제 등)와 민박을 연계할 수 있는 on-line(homepage)을 구축한다.

나) 특히 여름 8, 9월에 대비한 현대적인 위생시설(샤워실, 화장실)등을 갖춘다.

다) 단체객 및 가족동반을 위한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문화관광부 산하의 비영리 청소년 단체인 라보와 연계하여 외국인 민박객을 적극적 유치하여 지역문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 홍보한다.

7)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 직거래 장터 적극 활용

가) 추석, 설날을 맞이하여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 도시민에게 특산물 직접 판매·홍보한다. (종교단체와 소비자단체인 각종 여성단체, 그리고 직장단체 등과 자매결연으로 청정 농산물의 직거래 및 농촌 일손 돕기 등 도·농간의 교류를 추진)



그림6-14. 군청에 설치된 특산품 홍보관

나) 타 지방자치단체 건물내 지방 특산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계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한다.

다) 지방자체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책자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각종 행사 등을 홍보한다.

8)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에 대응할 수 있는 민박유형 개발 - 사례로 프랑스의 경우 195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 조직이 합심하여 농촌의 관광 사업을 추진해 왔고 관광객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민박으로 구분하였다.

표 6-2. "지트 드 프랑스"의 민박 유형 구분

민박 유형	서비스 내용
독채 대여형(Gite rural)	가족이나 소규모 단체가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농가를 독채로 대여
객실 대여형(Chambre d'Hotes)	주로 아침 식사와 객실을 제공 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높음
아동용 민박(Gite d'Enfants)	농가에서 4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중에 운영(연령별로 유형이 세분)
농가 캠핑장(Camping la Ferme)	농가의 부지 또는 삼림 등에 캠핑장을 마련(매우 저렴한 가격임)
간이·단체민박(Gite d'Etappe·de Gruppe)	윗층은 객실, 아래층에는 공동 편의시설을 둔 저가형 민박

* 자료 : 야마자키 미쓰히로 외 著, 강신겸 외 譯, 『녹색관광』, 1997 (서울:(주)일신사). 95쪽
* 민박의 운영 형태는 농가 일손을 줄이기 위해 침대(Bed)와 아침 식사(Breakfast)만을 제공하는 B&B형 민박이 주류를 이룸

라. 각종 프로그램

1)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광객이 특정계절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사계절 전천후 관광마을로 발전한다.
2) 잠시 머물고 가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박 유치로 지역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3) 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각 문화방면으로 저명한 인사를 적극 활용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마련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준다.
4) 5일제 근무에 맞추어 주말(1, 2 박)을 기준을 행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다.
5) 도시민이 갈망하는 well-being, LOHAS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6) 닭실마을이 주체가 된 인근지역과 연계된 관광투어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7) 외국인 주부를 위한 우리고장 전통문화교실 개최

표 6-3. 계절별 프로그램 예시

구분	청소년(초·중·고 포함)	공통	성인
봄	·풍수교실 / 백일장 /	·축제화 한다.-충재선생 기일 (음:3월26일)	·한과제조과정 교실 / 풍수 교실 / 외국인주부 전통문화교실(한국요리 및 풍습 강좌)
여름 (봉화연중행사 연계)	·청소년 한문교실 / 유교예절 교실-뿌리 찾기	·우리 고장 문화 지키기1-봉화지역의 정자 탐방	·한과제조과정 교실 /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전통주, 두부 등)
가을 (봉화연중행사 연계)	·문학의 밤 / 그림 백일장 / 사과 및 각종 과일따기 / 단풍 손수건 물들이기	·주말영화제/ 우리 고장 문화지키기 2-지역전통 건축물탐방 ·축제화 한다.-충재선행 모제일 (음:10월10일) ·산사음악회 연계	·한과제조과정 교실 /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전통주, 두부 등) /청량산 단풍등반-단풍 손수건 물들이기
겨울	·풍수교실 / 우리고장바로알기 /밤, 고구마 굽기등	·아궁이 난방을 통한 기(氣) 체험	·한과제조과정 교실 / 외국인주부 전통문화교실(한국요리 및 풍습 강좌)/눈꽃톡제-추억말들기 /김장

표 6-3.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사례

활용자원	프 로 그 램
특산물	버섯, 산채, 과일 등 음식물 칠기, 도자기 등 공예품 버섯따기, 요리 시식, 도자기 박물관 등 이벤트 상품
전통문화	절, 신사, 지역축제, 민속공예, 전설, 떡치기, 전통 요리, 증기기관차, 에도(江戶)시대 상점가 재현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생활 민속 볼거리 제공
자연자원	온천, 산, 강, 산림, 동물, 새, 반딧불, 맑은 공기, 녹음, 자연의 소리, 깨끗한 물, 해녀, 취미농장, 주말농장 등

* 자료 : 문옥표, "일본농촌의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 "농촌사회" 제8집, 1998. 80~81쪽

마. 추진 전략

주제 - "한국의 전통 그린투어"
- 유곡(닭실)에서 전통문화와 청정자연을 체험하자 -

1) 전략 1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마을주민

필수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 + 주민들의 합의와 사업추진 의지

가) 서로간의 역할 분담 -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민박제공 등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나) 마을공동체 조직(부녀회 조직 등)을 결성하여 관리 운영(숙박 장소 제공, 안내, 관리)한다.

2) 전략 2 : 사업주체 - 민간에게 위탁

필수조건 - 민간 사업체와 주민들 간의 조화(경제적 이득만 창출함을 지양)

가) 마을 주민들 대부분 노인층으로 인한 비전문성과 비적극성을 탈피하여 외부 전문 관리업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안 제시

나) 전문관리 업체에게 각 주호의 민박 가능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중앙관리에 의해 운영하는 방안 제시.

표 6-4. 사업주체에 따른 장·단점 비교

사업주체	지방자체단체 + 마을주민	민간에게 위탁
장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일로 인식된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 •각종 년중 행사와 연계가 가능하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 •전문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가능 •주민들의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농번기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
단점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힘들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힘들 수 있다. •주민들의 서비스 교육 등이 부족하다. •농번기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타인의 일로 인식된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수익창출에만 집중 될 수 있다.

바. 전략 예시 - 사업단구성 및 운영네트워크 예시

필수조건 - 각 구성원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과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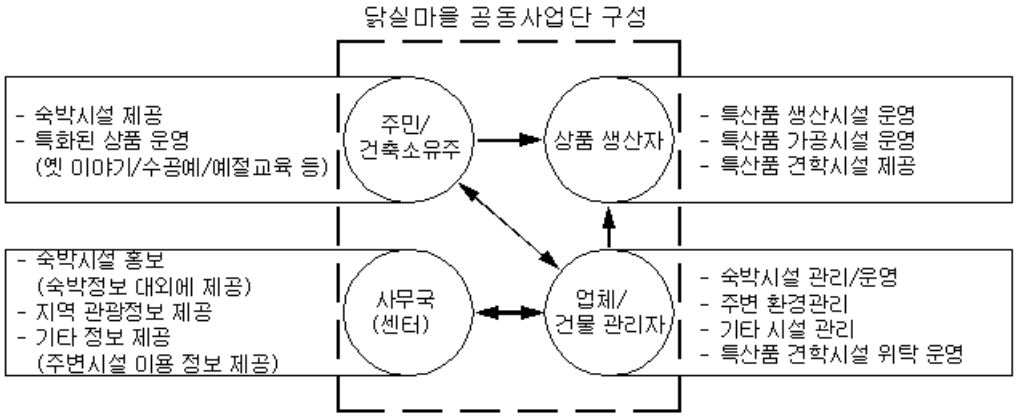


표6-5. 사업단구성 및 운영네트워크

1) 사업주체가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동운영하되, 4개의 섹터로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이 분담됨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체제를 구축한다.
2) 주민은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과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3) 전문업체는 사무국을 두어 운영하면서 on line망을 통해 각종 정보의 가공 및 제공을 통해 주민과 외부인과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역할분담하고,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 및 안내한다.
4) 사무국은 건물관리를 맡아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전문관리자를 두어 유지관리하고, 자체 매장을 운영하며, 견학시설을 운영하며, 생필품 등을 마을에 제공한다.

제7장
결론 및 제언

최근 주 5일제 근무 확산과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월 2회 5일제 수업 실시로 다양하고 유익한 여가·휴식 시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도시에 불고 있는 웰빙(Well-being)과 노하스(LOHAS)개념의 확산으로 우리 전통문화, 먹거리, 전통생활체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 조상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고유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보존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많은 부가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자원에 대해 정부에서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2요소는 주민들의 강한 실천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자체에는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이고 하드웨어적 지원보다 지속가능한 관리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과 같은 장기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및 각종행사를 연계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설화시키고 이를 전통생활체험을 위한 민박으로 연결시켜 고향집과 같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 공간으로서 재인식 시킨다.

운영방식은 마을 공동체의 여건과 조건에 적절한 운영방식 그리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식을 택하되 너무 상업적인 이득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현대인의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터 및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의 전통민가와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숙박객(관광객)에 대응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에 정비된 가옥들을 개·보수하여 단순한 민박의 이미지를 벗어나 전통마을 체험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운영한다.

특정한 계절에 편중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4계절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의 축제

를 연계하여 4계절 관광객이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씨족마을인 만큼 씨족마을내 산재된 문화재와 행사를 프로그램으로 개발·운영하여 다른 마을들과 차별화한다.

on-line을 통한 지역 홍보, 수도권 지자체와 자매결연, 지역의 특산물의 브랜드화, 정기적인 지역의 소식지 발간 등으로 한번 방문한 관광객의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시킨다.

마지막으로 전통마을의 관광화는 마을자체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만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작은 의미로는 경상북도에서만이라도 민박농가(가칭:Farm Stay 경북)를 위한 공동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자치단체 또는 정부차원의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민박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봉화소식(반상회보)- http://bonghwa.go.kr

봉화군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농림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농업진흥청 홈페이지 - http://www.rda.go.kr/

농림부 - 2005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지침

라보 홈페이지 - http://www.labo.or.kr/

전통 건축물 보존지구 조사 보고서 (영풍 수도리 무섬마을), 문화재 관리국, 영풍군문화공보실, 1998

문화유적총람, 봉화군, 2000

답사여행의 길잡이10, 경북북부, 돌베게, 1998

酉谷(五百年 文華), 안동권씨 유곡 종친회, 1995

건축과 환경, 전통마을과 도시, 공동체로서의 재조명, 1986, 5월

시범 관광민박 모델개발 및 사업화 방안 수립, 한국관광공사, 2002

조선중기 동족마을 종가확산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36호 1991년 8월 朴明德, 朴彦坤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전봉희, 1992

전통취락의 구성요소를 통해서 본 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석사논문, 민병기, 1993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해저마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황용운, 2002. 10

연구자 소개

황 용 운(黃龍雲)

▷ 동양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박사수료)

주요 연구실적

- 전통한옥 짓기(저서, 출판사 : 발언)
- 주택순례(역서, 출판사 : SPACE TIME)
- 인삼복합단지 조성계획 (연구보고서)
-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기존 경기장 개·보수 조사 (연구보고서)
- 사이버 소수서원 컨텐츠 개발 (연구보고서)
- 전통마을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학회 발표 논문)
- 성당건축물 외관의 형태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학회 발표논문)
- 진주8경 사진에 나타난 경관자원에 관한 연구(학회 발표논문) 외 연구실적 다수

안동지역 문화산업 특성과 발전 전망

-안동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권 두 현

목 차

■ 요약 / 291

제1장 들어가면서 ····· 294

제2장 문환산업의 개념과 산엄적 특성 ····· 298

제3장 문화산업 발전 조건 ····· 303

제4장 안동지역의 문화산업 기반과 모색 ····· 307

제5장 안동지역 문하산업 현황과 장르별 발전 과제 ····· 320

제6장 결론 ····· 342

■ 참고문헌 / 345

요 약

안동지역 문화산업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많은 역사, 민속, 예술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문화향유의 차원에서만 고민한다면 산업 유통구조에 편입되지 못하여 산업의 자원으로 효용성을 가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문화산업 중 안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문화산업진흥법 영역 중 디지털콘텐츠, 방송 영상, 공예산업, 전통의류, 천연염색, 이벤트, 레져 스포츠, 문화관광 등은 안동이 상대적으로 발전 가능성 혹은 동시에 타 지역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서있는 영역이라 할만하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 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동지역의 왕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마추어들의 문화활동의 건강함을 그 자체로 살려 포장하는 추진기구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아마추어들의 문화예술 정보가 규격화 되고 체계화 된다면 안동문화는 보다 큰 차원에서 창의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문화산업과 동시에 안동 문화민주주의 형성, 문화도시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 인력들을 문화산업으로 투여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산업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인 층들에 맞는 활동 강화 프로그램이나 마켓팅 인식을 제공하는 정밀한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켓팅, 문화예술경영이 곧 안동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시민사회에 확대되어야 하며 하회탈박물관에서 보이는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창출하고 이를 거점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아마추어와 소위 전문적 영역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다양한 직능별, 직업별로 나눈 후 이것에 대한 경제적 수요과 산업화를 모색한 영국적 문화산업 육성을 참고 될만한 사항이다. 덧붙혀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문화예술의 육성이 아니라 이를 산업 자원으로 본다는 지극히 평범한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관

련 예술산업,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교감하고 발전전략을 공유하는 작업 이른바 학습효과를 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듯 문화예술을 기반 한 산업화는 소위 장인형 산업 영역이 안동문화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을 말한다. 문화예술은 문화창조자인 작가의 역량과 이미지를 담아내는 작업이지만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산업적 유통과정을 거치게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가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장인형 문화산업의 결과물은 소위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대량유통이 가져다주는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품질경쟁력과는 다른 문화예술인들에 의하면 만들어지는 수공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유통시장에 내놓을때 대중들의 구매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안동의 문화산업은 결국 안동이라는 이미지를 상품 경쟁력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안동이 가진 역사, 문화적 자산에서 경쟁력이 출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동 이미지를 높이는 소위 장소 판촉이라는 거시적 접근에서 안동문화를 자산화하여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동을 국제적 문화도시로 인식시켜야 하며 안동문화를 국제 문화로 공인을 받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국제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매우 큰 경제적 효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안동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의 주체로는 행정과 함께 기업이 있어야 하며, 클러스터의 기본개념에 충실한 학계,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에 있는 행정과 기업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 길을 모색하고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보다 깊이 인식되어야 한다. 행정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창업촉진과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하며, 기업은 행정의 이러한 지원노력을 전문성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력 질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 위에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안동지역 산업발전 정책은 범 안동적차원에서 진행될 때 그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문화라는 개념은 속성상 교육(체험, 학습, 교육), 관광(답사, 이벤트), 체육(레져, 스포츠) 등의 기능과 결합되기 쉬우며 이에 대한 산업마인드를 높이는 길에 안동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동지역 문화산업은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아닌 문화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산업 마인드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때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문화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북부지역의 80여만의 노령화된 인구를 대상으로 산업전략을 짜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노정된다. 따라서 안동지역 문화산업은 이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내수시장의 확대차원에서 관광, 제품의 질적 수준에서 한국 문화이미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공재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하여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의 업체들이 이러한 용역을 통하여 기술력과 일관성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만들어진 공공재 문화콘텐츠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판촉되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적 네트워크(network effect)를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상호 호환이 가능한 재화를 효용성을 높이는 이른바 FAX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소규모의 산업시스템의 가동성을 높여야 한다. 전통적인 안동문화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 자물쇠 효과(lock-in)로 살려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북부지역의 인적 넷트웤 을 형성 창의성과 연대 소비효과를 증대시키고 열악한 콘텐츠 창작 조건 속에서 기업체간의 최대한 컨소시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지, 가능성만으로 경제적 효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체, 기업체가 움직여서 생산한 결과물이 실체 유통과정을 거칠때 경제는 활성화된다. 안동문화가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것이 실제 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행위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앞서 말한 안동문화에 대한 가치적 접근에 비례하여 산업이라는 접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제1장
들어가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인문학의 정립과 더불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삶의 총체라는 범칭적 범주에서부터 부분적이고 특수하게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까지 그 접근방식은 다양하다. 그리고 최근에 문화를 주목하는 한 방식이 바로 산업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물질을 생산하는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다면 21세기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가치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선정하고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관련 법안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한 문화산업에 대한 고심의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문화산업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제조업과는 비슷한 맥락을 가지면서, 또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제조업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를 중시한다면 문화산업은 의식적 정신세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제조업이 공장과 일반 노동자가 중심이 된다면 문화산업은 소위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보다 정교한 예술적 창의력이 요구된다.

사실 전통적 인식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층은 한정되었고 고정적이었다. 그래서 문화는 산업에서 생산되지 않고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점에서 초기 문화산업을 통한 문화생산에 비판적이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생활수준의 향상, 미디어 대량생산체제의 사회적 완비, 대중적 문화소비를 통해 소비자와 문화생산자 간의 소통은 문화산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문화가 일부 창의적인 예술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시스템 속에서 대중들에 의하여 소통될 때, 보다 건강한 예술이 생산될 수 있다는 의식적 자각도 일어나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에 조응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산업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러한 논의들이 지역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관심과 전망치가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제 이후 자치단체별로 문화자원의 개발, 자치단체 내 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개별 정책 개발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변별되는 산업자원은 결국 토착적인 전통문화 혹은 지역문화라는 문화인식 속에서 관광을 포함한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안동지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관광,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탈춤페스티벌, 문화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었다. 안동이 처한 환경, 지리적인 조건 속에서 제조업 계통의 산업화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불리한 여건임을 시민들은 인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문화자원이라는 점도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시 역시 안동의 발전전략을 농업에 기반한 바이오산업과 역사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양날개로 잡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 문화산업은 규모의 경제, 팩스효과[1] 등 대도시가 유리한 조건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동의 역사와 문화자원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반면 인구와 산업 규모는 문화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지역이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화산업 발전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안동만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을 짜야한다. 일반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전략으로 안동문화산업을 육성시킬 수 없다면 안동이 처한 조건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은 안동의 조건속에서 구체적인 틀과 발전 방향의 정밀하고 세심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말한다.[2]

그간 안동에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활동성과를 구축하여 왔다. 물론

1) 문화산업은 일정한 경제규모를 가질 때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팩스처럼 한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 효용성이 높아진다는 특성을 가진다.

2) 이 차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SWOT 분석을 시도한다. 간략하게 안동문화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시도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원론적 차원에서 문제제기 수준이거나, 단순 아이템을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이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사회 역시 문화산업에 대한 분분한 논의속에 있다는 상황에서 제기된 활동이기에 안동지역의 산업발전을 고심하는 선구적인 활동이라 할 만한 것이다.[3] 그리고 이제 이들의 연구성과와 활동의 경험을 딛고 더 나아가 안동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보다 현실성 있는 구도와 정책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원론적이고, 감각적 수준에 의존하거나 다른 지역 사례를 밴치마킹하는 것에서 나아가 안동

강점(S)	약점(W)
○ 풍부한 유교, 불교, 민속 문화유산 ○ 지역내 풍부한 콘텐츠 관련 인력과 학술기관, 박물관 등이 포진 ○ 수려한 환경과 청정한 자연 ○ 안동지역민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의지 ○ 정부의 지원책(유교문화권 개발)	○ 지역의 산업 구조 취약 ○ 인구가 많지 않고, 감소 추세 계속 ○ 재정 자립도, 투자 재원 부족 ○ 주변 지역 취약(인근 대도시가 없음) ○ 문화소비가 낮은 노인 인구가 많음
○ 한국의 대표적 문화도시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 ○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 의지 ○ 문화와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 ○ 관광, 탈춤축제 등의 성공으로 주민들이 문화산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	○ 수도권, 광역권 중심의 산업, 인구 집중 ○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 대두 ○ 지역 내 소비시장 축소 추세 ○ 지역 인력의 대외 유출
기회(O)	위협(T)

그런데 이러한 SWOT 분석은 안동뿐만 아니라 영주, 봉화, 기타 안동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도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점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SWOT 분석은 감각적 화살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제규모, 산업수치, 기업체의 현황 등 산업연관 분석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시민들의 문화적 의식까지 검토된 후에라야 SWOT 분석은 단위 공동체 산업발전 정책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SWOT 분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틀을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이제까지 안동지역에서 진행된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결성과 논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1997년. 문화경제연구소 설립
- 1997년. 경북문화산업연구소 설립과 활동
- 1999년. 경북지역사연구소 설립과 활동
- 1999년. 북부지역 관광개발 협의회 결성과 관련 사업
- 2001년. 안동권발전연구소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심포지움
- 2002년. 경북전문대학교 한국전통문화콘텐츠센터 설립
- 2002년. 안동 IT 협의회 결성
- 2003년. 국학진흥원내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
- 2004년. 안동문화산업협의회 심포지움
- 2005년. 문화콘텐츠박물관 설립

만의 문화산업 수준을 가늠하고 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먼저 광범위한 문화산업 영역 중 안동지역에서 가능하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산업 영역을 잡고, 그것이 현재 안동지역에서 어떤 경제적 성과와 문화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는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산업 클러스터 문제 등 제반의 논의점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진행할 것이다.[4]

4) 이글은 안동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손에 잡히는 문제제기 수준에서 일단 정리될 것이다.

제2장
문화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

가. 문화산업의 개념

21세기 산업의 키워드 중 하나가 '문화'와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과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한 경북 북부지역, 특히 안동지역의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욱 경북 북부지역이 다른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적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경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모색은 어쩌면 북부지역으로서는 절절하고 당연한 선택이다.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M. Horkheimer와 T. Adorno의 1947년 출간된 "계몽의 변증법"에서 문화산업(Kultur industrie)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한데서 시작한다. 획일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된 이 용어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면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근래까지 경제학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주로 지역개발이나 기타 도시정책적 논의에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화산업이 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문화산업을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도입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세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 연구와 논의들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더욱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문화의 대량소비가 일어나고 문화콘텐츠가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측면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는 봇물을 타고 있다. 실제 1990년대 이전에는 문화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를 고급문화, 저급문화로 나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신자유주의, 경쟁관계,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무너지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특히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창의적인 생산이 산업으로 이어지고 문화와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문화산업은 이제 21세기 주력산업이자, 국가성장 동력에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는 주요산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서 여전히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산업의 개

념정의이다. 이것은 문화라는 단어가 너무나 다의적이어서 그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가장 광의적인 개념은 '문화예술과 교육, 스포츠, 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가계 지출 중 문화생활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산업은 문화예술, 교육, 여가, 관광, 국제회의, 리조트, 생활문화인 스포츠, 문화센터 활동, 종교활동 등으로 광대하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문화를 이해하는 개념에 경제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협의의 개념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문화산업은 문화자원을 산업화하여 재화, 서비스, 정보 등의 형태로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시나리오, 희곡, 문화재 등 유무형의 창작물을 영화, 비디오, 공연상품,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문화적 상품으로 생산하는 활동에 한정한다. 즉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 이윤을 발생시키는 산업' 혹은 '문화를 핵심역량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것이다.[6] 보편적으로 보면 문화산업은 '문화적인 생산물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사업 전체'를 말한다.[7] 즉 문화산업은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화,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유통하는 산업분야를 일컬으며 전통문화, 지식, 교육, 언론, 출판, 순수예술 등을 망라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영역 내에서 놀이와 감상의 성격이 강한 것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분류하며, 공연, 축제, 테마파크가 이에 속한다.[8]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시장형성이 가장 발달한 영역인 영상, 방송, 음반, 게임, 에니메이션, 캐릭터, 출판만화, 모바일 부분 등은 문화산업의 핵심분야라 할만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 Santagata는 문화산업의 발생학적 분류법을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제품(culture products)은 고정재화(immobile products)와 유동재화 (mobile products)로 구분된다. 고정재화에는 리조트단지(테마파크, 자연공원, 문화유산), 도시내 문화지구(박물관, 쇼핑센터, 극장, 클럽 등 유흥지구), 일시적 혹은 주기적 문화집적지(축제, 컨벤션, 스포츠 이벤트) 등 세가지가 있다. 그리고 유동재화에는 소비자 지향의 장인생산산업(의류, 가구, 보석, 가죽제품, 장난감, 도

5) 日本 都市問題會議 關西會議編, 1989, 156쪽.
6) 조동성, '국가경쟁력과 문화예술의 역할' "21세기 문화•관광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2000.
7) 임상오 외, '문화콘텐츠산업 산업분류 연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3.
8) 이정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전략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4.

자기, 향수, 화장품, 술 등), 전문화된 디자인 서비스(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웹디자인), 미디어 산업(영상, 방송, 음반, 출판, 광고 및 홍보) 등이 있다.[9)]

이러한 학술적 논의를 보다 현장에서 구체화 한 것이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다. 이 법 전문에는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은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 디자인은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문화산업은 문화적 이미지를 제품화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 소비시키는 일련의 작업임에 분명하다. 다만 문제는 어떤 문화를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인가 하는 부문에서 분명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고, 문화가 그렇듯 삶의 생활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정보, 지식, 오락만으로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각국에서는 문화산업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산업(information industry)라고 하고, 영국은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과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예술산업(art industry), 일본은 오락산업(entertainment industry)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은 결국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산업화의 전망치를 내세운 것과 다름아니어서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폭넓게 하고 있다.

9) 이정훈, '앞의 글' 재인용.

나. 문화산업의 특성

문화산업은 문화와 산업의 결합이다. 이때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산업이라는 점이다. 산업화되지 않은 문화를 문화산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분명 문화산업은 생산자가 일정한 자본을 생산요소에 투입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지불받는 생산-소비-재생산의 순환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논리가 앞서있으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조직 원리로서의 위계(hierarchy) 또는 조직(organization)과 시장(market)과 연결망(network)이 서로 혼재되면서 사회구조와 문화적 코드에 의한 교환, 경쟁, 협력의 메카니즘이 형성된다. 즉 경제사회학의 시장구조, 조직적 특성, 네크워크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0]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산업유통에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전통제조업과는 분명 다른 방식의 사회구조 속에서 다른 방식의 유통과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화산업의 특성은 미학적이며 관념적인 산업, 기호와 유행에 민감하며 가치지향적인 산업, 지역적 고유성과 전통성을 가진 산업, 매입하기 전 정보를 알지 못하며 정보를 파악하였을 때 구매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정보의 비 대칭성을 가진 산업, 나아가 이점에서 가치 지향적, 가치 판단적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에서는 문화의 집적 효과가 큰 지역이 유리하다는 것, 말하자면 시골보다는 도시의 특정 공간적 영역에 관련 문화활동이 집적될 때 산업화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11]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전통 제조업이 물질중심의 재화생산에 주력한다면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라는 무형의 자산을 생산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제조업이 원료에 대한 가공기술이 경쟁력의 최우선 조건이었다면 문화산업은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통하여 기획력을 발휘하여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가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전통산업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에 의존하였다면 문화산업의 성공조건은 문화, 예술, 감성, 이미지 등으로 무장된 상품기획 능력에 의존하고 있고, 전통제조

10) 권숙인·이지원, “일본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5.
11) 권오혁, 김홍석,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업보다 더욱 브랜드 상징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성은 전통 산업이 제품의 편리성, 합리성, 실용성 등 일상생활에 유효한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면 문화산업의 제품은 소위 취향적 선택에 의존하는 것이다. 부르디 외가 정의한 아비투스[12]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문화시장은 이미지화 된 콘텐츠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화적 요구에 기초하여 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문화산업은 문화생산 조직이나 기업의 생산물을 소비자들이 만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소위 취향적 선택의 폭이 크고 가변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비교될 수 있다.[13]

〈표 1〉 문화산업의 특성

구분	제조업	문화산업
주요 생산 원료	유형의 자원(물질자원)	무형의 자원(역사, 전통, 감성과 창의력 등 문화적 자산)
재화의 특징	실용성, 경제성 추구	상징성, 감성, 만족추구
조건	지역적 보편성	지역적 특수성
소비형태	가공기술 의존	취향적 가치 의존

전술하였듯이 문화산업의 대두는 전문가 집단의 생산 분배라는 문화적 틀을 깨고, 문화적, 이중적 구조인 순수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면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역이 더욱 확산되면서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의 경계도 약화시켜나가고 있다. 문화산업이 이와 같이 전통 제조업과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면서 산업영역이 확대된다면 이제 그 양상을 분명하게 각인하고 그 활성화 전략이나 기타 관련된 육성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12) 물론 부르디 외는 지배구조와 계급구조가 재생산되는 방법을 고찰하여 경제, 문화, 상징, 사회적 투쟁과 상징적 폭력인 교육, 아비투스를 논하였다. 여기서는 다만 삶의 방향, 일상의 행위는 취향에 따른 선택에 있다는 아비투스의 단순개념을 말하는 것임. 피에르 브르디 외,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동문선, 2002. 피에르 브르디 외, 홍성민 역, “문화와 아비투스” 나남출판, 2000. 등 참조.

13) 이정훈, ‘앞은 글’, 12쪽을 참고하여 추가함.

제3장
문화산업 발전 조건

가. 문화산업의 성장 조건

문화산업은 전통 제조업과 다른 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성장조건도 다른 기반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산업의 일반적 소비요소, 즉 소비자의 취향적 선택의 폭에 맞추고 그러한 소비형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품화된 콘텐츠 즉 이미지 상품이 만들어져야 함을 말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조건을 열거하면, 문화산업의 토양인 문화지향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지향성, 문화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 인적 자원, 문화상품을 선택하는 문화소비자, 그리고 문화창의력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산업의 집적화, 필요 재원의 확보, 추진주체의 적극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산업의 집적화는 문화산업을 지원할 도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아비투스를 도시에 강제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구성', '이동 패턴과 거주자들의 기획력', '한 장소의 현재적 이미지와 잠재적 이미지', '기존활용 가능한 환경', '상이한 사회집단들의 심미적 관심', '지역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도 면밀한 기획' 등이다.[14]

Scott에 따르면 문화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문화산업 생산에서는 인간의 직접적 개입, 즉 수공업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컴퓨터 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작화의 경우 업계에서 '노가다'라고 불리운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두 번째가 생산은 중소규모 기업의 조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전문화된 투입과 서비스의 강한 상호의존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령 애니메이션을 만들때 그림, 음악, 성우, 편집, 시나리오 등은 철저하게 전문화된 분업속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세 번째로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industrial complex)를 형성하며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구인과 구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생산단지의

14) 안동권 발전연구소, "안동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 안동시, 2003.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주와 노동자의 위험부담도 준다. 즉 필요한 때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일이 끝나거나 다른 생산이 필요할 때 또 새롭게 이러한 관계를 단기간에 형성하고 계약한 후 바로 생산작업에 돌입한다. 넷째, 문화상품의 생산단지는 지역적 집적을 통해 외부경제인 생산유통 과정을 충족시킨다. 집적인 산업단지 내부 인력의 문화적 학습효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다시 집적 기능을 강화한다. 문화적 창조는 혼자만의 심사숙고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다른 에이전트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것이다. 이 점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혁신은 연관그룹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가설이 적용가능하다. 다섯째, 집적은 중요한 간접 서비스 제공, 유통, 신뢰촉진, 생산자 간의 협력 촉진등에 의하여 다양한 하부구조의 출현을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의 기능을 강화한다.[15)]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결국 생산과정에서 기업간, 전문가들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문화산업의 생산기반을 이룬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그 네트워크는 결국 자신의 이해들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행위자들이나 방법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는 구도를 말한다. 호혜성(reciprocit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유연한 결합(loose coupling), 영향력(power)을 가지고 상보협력, 제휴, 규범, 처벌, 수평적 의사소동, 비공식적 분위기 등을 함축하여 생산구도에 임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중점 시책 중 하나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화산업 기반조성은 여기에 소위 학습체제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한다. 상보적 조건 속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지적 기반과 상품 프로젝트 등이 제도적 보완 속에서 함께 모색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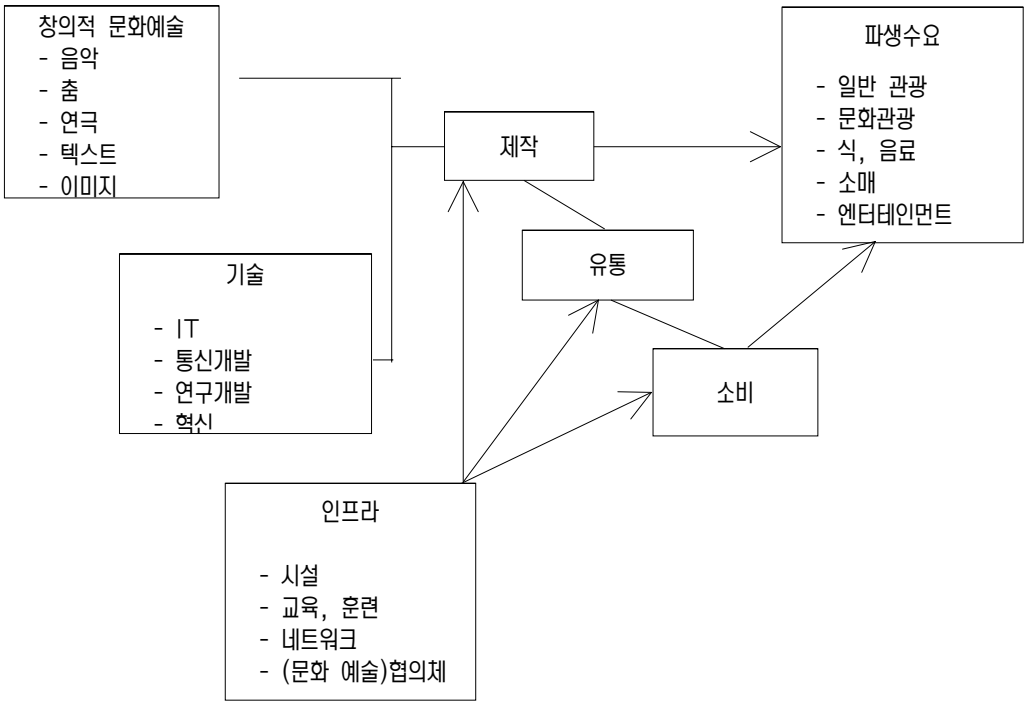
나. 문화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논의

문화산업 기반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것이 바로 클러스터의 문제이다. 클러스터란 기업(경쟁기업, 중소기업, 벤처)과 기관(대학, 연구소), 지원서비스 기업들(금융, 법률, 회계 등)이 모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정지

15) Scott, A,J, "The Cultureal Economy of cites", IJURB, 권오혁 "앞의 책", 이정훈 '앞의 글' 참조 재인용.

역을 말한다.[16] 이러한 클러스터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초 하버드 대학의 포터 교수가 경쟁우위에서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이다. 그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도 클러스터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의 발전은 입지(Location)가 가지는 중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혁신에 필요한 지식은 서류화할 수 있는 형식지가 아니라 암묵지라는 것이다. 암묵지는 서로만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으므로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소위 다이아몬드라는 국가경쟁력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원리가 실현된 문화산업클러스터로 뉴욕의 실리콘벨리, LA의 헐리우드, 동경의 이케부크로 애니메이션 집적지구와 시부야 비트밸리, 파리의 문화산업지구, 영국 셰필드 등을 들었다.

여기에 적용된 문화산업클러스터 논의는 보다 발전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 각 요소의 일반적 모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분석틀은 이후 한국 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논거로 등장한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문화클러스터의 일반적 모형

16) 복득규, “한국산업과 지역의 생존전략, 클러스터”,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국 문화산업의 활성화 논의는 전술한 개념이 적용되어 문화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정책 이론으로 활용된다. 특히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 클러스터의 개념이 적용되어 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중앙정부로부터 마련되었다. 초기 문화관광부는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총 6,000억을 투자하여 문화산업 특화장르를 육성시키겠다는 취지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정된 곳이 소위 부산의 영상문화콘텐츠 중심 클러스터, 청주의 학습 게임 콘텐츠 산업 클러스트 등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경주시에서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03년 10월 경상북도가 이를 수용하여 '경주 문화산업 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철회하였고 기타 관련된 전문가들의 비판적 여론이 일어나면서 사업안을 수정하게 된다.[17]

이제까지 지방의 문화산업 육성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의 클러스터 정책을 기반으로 진행한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이러한 정책 수정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가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되어 우려하는 점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기업, 지원사업, 연구기관 등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집적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하고 촉발할 수 있는 대학이나 대기업 등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가 부재하며 문화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개발, 생산 네트워크와 정보지식 교류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18]

이는 Scott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적기구는 규모와 경쟁력이 비례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지역의 작은 도시보다, 파리나 동경과 같은 대도시가 문화산업 클러스터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아직 서울조차 문화산업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겨우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의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그 효과를 보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17) 이후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 문경시가 이 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18) 문화관광부, "2004 문화산업백서", 2005.

제4장
안동지역의 문화산업 기반과 모색

가. 안동지역 문화산업 방향 모색

이제까지 살펴본 문화산업의 발전조건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창의적, 인적 역량과 창의적 문화를 생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집적단지의 문제이다. 집적단지는 인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바람직하며, 따라서 문화산업클러스터와 같이 대도시에 집적단지 형성과 그 효용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대도시, 즉 대량생산지역은 산업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다른 한편 문화산업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동등한 입장 속에서 경쟁체제와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안동에서 소위 주목해야 할 문제가 학습경제론이다.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학습에 의한 창의력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이 논리는 혁신적 환경론과 비슷하지만 산업 기술개발에서 상호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학습경제란 개인, 기업, 지역 및 국가경제의 성공이 그들의 학습능력에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학습경제는 산업활동에서 지식습득 및 학습과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로서 산업적, 경쟁력의 토대로서 지식역량의 확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19] 학습경제에서는 비시장적으로 거래(untread)되는 암묵적(tactic) 성격의 지식인 Know-how(方法知)와 Know-who(人脈知)가 핵심적 지식이다.[20] 문화산업에는 새로운 기술창조와 관련되어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변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능력(Know-how)와 이러한 지식을 누가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가(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당한 인간적 신뢰가 형성될 때 산업화의 과정이 진척될

19) Lundvall. B-Å(1992), National Si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tive Learning, Pinter. 권오혁 김흥석,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재인용.

20) 이외에 Know-what(對象知), Know-Why(原理知) 등이 거론된다.

수 있기 때문이며, 역으로 인간적 신뢰를 통하여 상호협력 되지 않는다면 산업적 학습과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학습경제가 발생하는 학습지역은 이른바 문화산업이 진화되고 발전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 사회제도, 연구자, 예술창조자 등 문화산업 각 방면의 행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개별행위자, 혹은 행위주체들은 경험적인 상황을 통하여 새로운 도제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것은 문화산업의 조건이 갖추어지고 기타 문화산업에 대한 성과가 검증된 대량생산지역과 비교를 통하여 보면 더욱 선명해 진다.

〈표 2〉 대량생산지역과 학습지역 비교

	대량생산지역	학습지역
경쟁의 기초	비교우위 -자연 자원 -물리적 노동	지속 가능의 우위 -지식 창출 -지속적인 개선
생산체계	대량 생산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물리적노동	지식 기반의 생산 -지속적 창출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지식 -혁신과 생산의 통합
제조 인프라	지리적으로 근접한 공급자 관계	혁신의 원천으로서의 기업 네 트워크와 공급자 체계
인적 인프라	-저기술·저비용의 노동 -테일러주의적 노동력 -테일러주의적 교육과 훈련	-지식 노동자들 -인적 자원의 지속적 개선 -지속적 교육과 훈련
물리적 및 통신 인프라	국내 지향의 물리적 인프라	-지구적 지향의 물리적 및 통신 인프라 -전자 데이터 교환
산업 통치 체계	-적대적 관계 -구상 및 통제 조절 구조	-상호 의존적 관계 -네트워크 조직 -유연적 조절 구조

위의 표에서 보듯 문화산업 육성의 전략, 특히 대도시가 아닐 경우 문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조건은 역사적 사회적 기반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거래비용의 감소와 외부경제의 획득이라는 경제공간의 정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지방적 창조성의 근원이 되는 집합적 학습과정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 요소의 감소라는 동적이며 혁신적인 행동에까지 시각을 확대하여야 한다.[21]

21) 권오혁, 김홍석,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63쪽.

이러한 관점에서 안동의 경우 문화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조건인 대도시는 아니지만 창의적 문화 예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와 기타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IT관련 기술력이 있는 지역이다.[22] 따라서 지속가능하며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안동의 문화산업 영역을 검토한 후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대도시 중심의 입지조건에 반하여 안동만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문화산업의 업종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 한국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기술된 항목을 중심으로 장르별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Santagata가 분류한 문화산업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안동지역의 전략 업종을 검토하여 보는 것도 안동지역 문화산업의 전략을 세우는데 또 다른 이해를 높여준다. Santagata는 그가 분류한 발생학적 구도중 고정 문화산업과 장인형 문화산업은 미디어 콘텐츠산업보다 도시내부 입지 구속력이 약하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테마파크, 축제 등의 산업은 문화산업의 창작 기반 강화와 수요기반 조성 그리고 문화적 풍토 형성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으며, 더욱 장인생산형 산업과 같은 것은 입지조건에 따라 오히려 중소도시에 적합한 업종이며 산업이라는 것이다.[23]

안동의 경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지역의 문화산업의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고, 현재 탈춤축제의 경우 안동지역민들에게 문화산업의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매우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더욱 장인생산형 문화산업인 천연염색, 공예, 무형문화재 등 인적 기술이 접합된 상품의 경우 안동지역이 가진 문화자원을 근간으로 발전시킬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소위 장소 마케팅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발전전략 영역이다. 이것은 안동 지역 자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하는 것으로 소위 안동브랜드를 통하여 안동에서 생산된 다양한 문화상품을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동을 파는 것, 소위 장소마케팅에 대한 논의는 크게 통합, 판촉, 문화콘텐츠 모델로 대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통합모델(integration model)은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

22) 안동지역에서는 애니메이션 3편, 플래쉬 애니메이션 광고 10여편, 3D 도산서원, 양진당 건축재현, 등 타지역에 비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력과 제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후술하는 안동지역 문화산업 현황과 과제 검토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3) 이정훈, '앞의 글'

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전략으로 공공적 삶의 질을 높여주고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도시생활의 기대수준을 높여주는 전략이다. 판촉모델은 예술을 도시 선전의 수단을 사용한 도시 선전주의(city boosterism)에서 출발하지만, 이후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를 수용하여 진행된 바 있다. 이것은 특히 예술의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객을 유입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재개발의 이윤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 모델이다. 문화콘텐츠 모델은 문화적 산물의 생산과 배포를 부의 창출의 중요한 형식으로 간주하고 미래의 도시성장과 도시의 독특한 친근감을 유발시키는 것을 말한다.[24]

조금 다른 차원의 논의이지만 문화산업이 형성되는 문화시장은 감수성에 기인하여 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경제조건을 가진 소비자 간에도 소비성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점은 결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내수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점이 되는가를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내수시장이 80만에 국한되어 있고, 이것만으로는 안동지역의 문화산업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보다 큰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다. 안동에서 2시간 이내에 있는 대구, 울산, 포항, 구미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들 시장은 이미 한국사회의 전체 시장에 노출되어 있고, 문화산업의 특성상 지역적인 근접성이 실제 작용하지 않은 지역이다. 결국 안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의 이미지를 획득하여 한국 대표 브랜드를 만들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것이 동시에 외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문화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도 담당하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다른 측면에서 내수시장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안동지역의 끌어들여 이들에게 안동지역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이다. 바로 이점에서 문화산업과 문화관광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안동의 역사와 문화는 이미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검증을 받은 바 있고, 2005년의 경우 3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안동을 다녀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25] 현재 안동시뿐만 아니라 영주, 봉화, 문경 등의 경북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개발을 시도하고 있어 연계관광이 이루어질 경우 안동지역 문화산

2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와 정책과제', 2003.
25) 안동신문 1월 2일 발행.

업은 80만의 지역민 이외에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일반인들보다 관광객의 소비성향이 크다는 점과 안동문화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고, 또한 상품의 취향적 선택에서도 안동의 이미지를 이미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는 점도 관광을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가 주는 의미가 각별하다. 이렇게 문화관광과 문화산업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Scott이 언급한 제 1세대 문화전략이 장소마케팅을 통한 관광산업에 육성과 일정하게 맥이 닿아 있지만 보다 문화산업체의 소비제 품목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의 확대를 기한다는 점에서 2세대 문화전략과도 맥이 통한다.

이 점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더 소개하자면 문화예술 유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산업과 깊게 연관된다. 이렇게 관광과 문화산업을 결합하는 시도는 문화예술 자원을 경제적 활성화에 긴밀하게 연계하기 위한 자율적 지역시스템(autonomous local system)이 필요하며, 그것이 영역화(territorialization)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이다. 덧붙혀 이러한 문화예술도시 가치창출의 메카니즘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도 필요하다. 가치창출은 상징자본을 창출하는 사회적인 것이며 그 영역 내에 개인적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한 문화예술자원이 동시에 존재하며 긴밀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문화관광은 안동지역내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상징적으로 브랜드화하며 동시에 소비시장을 넓히는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 이정훈은 이를 제 3의 문화전략이라 칭하고 있다.[26]

한편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문화적 개념들은 마케팅이나 산업의 개념과 접목시켜야 한다. 즉 이제까지는 문화산업의 영역 속에서 장을 구분하거나 기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지만, 안동의 경우 보유한 문화적 역량은 마케팅으로 연결시켜 문화산업의 커다란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문화도시 등과 같이 일반론적 문화발전의 논리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산업적 관점속에서 전개되는 문화콘텐츠, 문화터미널, 문화클러스터, 문화전달플랫폼 등이 창출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개발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7]

---

26) 이정훈, “앞의 책 33쪽”.
27)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제는 현재 보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당위론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산업 개발에 대한 논리이긴 하지만, 안동지역의 경우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성만큼이나 문화클러스터의 형성이 문화를 산업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클러스터의 개념을 가지고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자치단체간 협력을 창출한다면 안동의 처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산업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다.

나. '안동 상품화의 길'

위에서 제기한 장소마케팅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안동이 가진 문화적 자산에 대한 원론적 접근과 더불어 파생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지역에 형성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문화산업 클러스터가 아닌 문화클러스터를 산업자원화 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결정점은 안동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장소마케팅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장소 마케팅은 장소를 상품화하여 지역의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미인대회, 축제 등이 이러한 장소마케팅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장소 마케팅은 모든 지역이 추구하고 있지만 문화적 자산이나 생태적 자산을 갖춘 지역이 경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장소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소프트웨어, 문화와 관습, 가치규범 등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이며 경제활동이 이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연계되어 다른 장소로 이러한 조건을 옮기면 경제와 문화 환경 조성이 불가능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장소 마케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른바 배태성과 세계화에 따른 탈배태성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문화적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것이며, 소위 디지털과 정보의 발달에 따른 탈영역화(deterritorialzation) 현상이라는 것이다.[28] 말하자면 이것은 세계화가 초래한 장소의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를 활성화하여 경제기능의 영역화를 만들고 판촉 하는 전략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 판촉은 마을, 도시, 국가

28) 김현호, '장소 판촉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6권, 국토연구원, 2003.

모든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안동의 경우 문화권역으로 이를 설정하여 이미지화 하는 작업 역시 주효하다.

장소 판촉은 문화, 생태, 산업판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자산을 상품화시키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표와 같은 판촉형태가 중시된다.

〈표 3〉 장소마케팅의 구분

구분	산업적 장소 판촉	문화적 장소 판촉	생태적 장소 판촉
대상	기업	사람	사람
결과	입지	문화관광	생태관광
효과	고용창출	관광객유치	관광객유치

그런데 무엇을 판촉할 것인가? 장소 판촉의 상품대상이 되는 것은 문화자산, 정치자산, 물리적 자산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자산의 경우 생활방식이나 신뢰, 인간관계 등의 문화배태적 자산과 예술, 문화유산 등의 문화자본적 자산으로 나누어진다. 정치자산은 제도, 제도적 역량 등의 사회적 관계자산을, 그리고 물리적 자산은 정장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나 환경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3자의 자산은 서로 공동의 사슬을 연결하여 한 사회의 장소 판촉의 대상이 된다. 가령 문화자산의 경우는 그것이 지식노동자의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게 되므로 정치자산과 물리자산의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을 판촉유형과 결합시키면 아래와 같다.[29]

〈표 4〉 장소마케팅의 결합

	장소자산		
	문화자산	제도정치자산	물리적 자산
산업적 장소판촉	중요	중요	중요
문화적 장소판촉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생태적 장소판촉	중요	중요	매우 중요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장소판촉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각 지역의 다양한 이벤트, CI작업, 특산품 등을 통하여 장소판촉을 강화해 왔다. 이점에서 장소 판촉

29) 김현호, '앞의글'.

실제 강한 경쟁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 자산의 형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개발과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30]

그런데 이러한 장소 판촉은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즉 장소의 독특성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고, 또한 그것이 판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도시, 문화권역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도시와 마을은 이미 검증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미 검증된 장소 판촉 방법은 소위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정책과 경제적 투자에 대한 위험요소를 심정적 안정감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축제의 양상, 비슷한 CI 이미지 형성, 비슷한 정책의 개발 등은 이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정추구의 장소판촉 딜레마는 그러나 모방과 복제를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장소 판촉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과 모방을 벗어나 장소판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안동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면 먼저 안동시와 지역 산업체,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파트너쉽이 형성되어야 한다. 문화자산, 정치자산, 물리적 자산은 시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일관성, 기업의 참여와 애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과 사명감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투자를 지속시킬 때 이것이 장소 판촉 자산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장소 판촉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상호간에 상쇄시킬 수 있으며, 지역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두 번째로 안동의 경우 결국 문화와 생태판촉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문화적 이해도와 지역에 대한 지적 관심이 높을 때 생성되는 것이다. 가족, 단체, 기업내의 지역 애정과 문화적 감성을 판촉의 결과인 관광, 체험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

30) 영국의 경우 초기 장소부흥, 장소 판촉은 공공서비스 공급하기 위한 장소 형성에 거의 모든 관심을 기울였고, 반덴 버그 등은 도시마케팅이란 용어를 보다 넓은 의미로 사영하여 복지와 판촉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장소판촉은 실제 도시 경제의 모든 부면을 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세 번째로 인적자원, 특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리더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관계없이 장소 자산 형성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 헌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장소 자산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개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형, 유형의 자산을 이끌어 내는 것은 장소판촉에서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 리더는 이점에서 기반과 촉매제 역할을 담당해내기 때문이다.

보다 주목해야 할 문제는 문화자산을 형성하고 상품화 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안동의 경우 장소 판촉과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먼저 무형의 자산과 유형의 자산을 어떻게 전달하여야 할 것인가가 1차적 과제로 떠오른다. 이는 문화적 해석(cultural interpretation)과 관련된 문제로 특수한 문화의 보편적 이해 방식, 제공방식으로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보편적 문화를 품격 있는 문화로 재해석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상품화이건, 혹은 문화적 설득이건 장소의 문화자산 판촉에서는 매우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갈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하회별신굿을 말할 때 한국적 정서를 담은 탈춤, 전통 드라마라는 점을 들어 재해석의 길을 차단하거나 해학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품격과 격식 없이 대중들과 소통구조를 가진다면 이것을 장소판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회별신굿이 전통적 행위, 놀이라는 점이 인정되기에 더욱 외국인이나, 현대적인 감성을 갖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하회별신굿이 전통적인 양식이라는 점과 하회별신굿이 장소 판촉의 상품이라는 점은 실제 다른 가지의 열매이며 이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기울여질 때 판촉이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동에서 노력해야 할 방법은 먼저 시민적 학습시스템을 대중화시키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술한 문화자산의 형성에서 논의되었으나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문화유산의 설명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축제와 놀이방식도 학습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31] 두 번째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제도적인 것으로 문화적 자산을 국제기구(유네스코, 기타 문화관련 기구)가 지정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문화적 해석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이해전달의 코드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 해석의 지평을 확대시킨 점은 분명하다.[32]

31) 축제의 학습효과에 대해서는 김승현, 「축제만들기」 열린책들, 2000.

안동이 가진 문화자산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안동의 수려한 생태적 자산 위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장소 판촉의 최적지라고 할만하다. 한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지만 고집스럽게 그 문화적 전통을 이어왔고,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켜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문제는 덧붙혀 정치자산, 제도자산을 만들어 이를 보다 상품화 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았고, 현재 안동지역에 다른 산업판촉물이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어쩌면 안동의 적절한 선택이다.

다. 문화 마케팅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한가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문화클러스터에 대한 논의이다. 문화산업클러스터가 문화관광부의 대체적인 논의이지만 이것은 대도시에 적용되었을 때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동만의 클러스터, 오히려 산업클러스터가 가진 시스템에 대한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안동이 가진 자산을 문화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된다. 물론 이것은 장소 마케팅이라는 범주와 동시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안동지역 내부에서 간직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화산업 그 자체로 인정받는 점에서 조금은 다른 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길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간다. 굳이 비유한다면 두 가지 방식은 포장도로의 2차로를 만드는 것과 같다. 1차로보다 2차로의 교통소통의 속도는 4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결합이 중시되는 것이다.

문화클러스터의 중요한 논의는 지역 모든 문화적 영역을 산업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모든 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보고 그 활용가치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종합적인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키워드는 문화콘텐츠, 문화전달플랫폼, 문화터미널의 개념이다. 문화콘텐츠란 활용가치가 있는 문화자원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활용을 전제로 한 개념이며 보다 확대한다면 산업화 될 수 있는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문화전달플랫폼은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공원 등 공공의 인프라가 문화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물로 이것은 결국 대중과 문화콘텐츠가 만나는 장인 것이다. 문화터미널이란 대중과 문화

32) 김현호, '앞의 글'.

가 만나는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 쇼핑몰과 결합된 문화 공간, 공원과 결합된 문화 공간 등을 지칭하며 사람들이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킨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터미널은 굳이 문화적이라기보다는 소비를 통해서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방식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소비지향과 문화향유의 편리성을 합쳐놓은 것이다.[33]

문화클러스터가 산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된 하부의 3가지 범주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콘텐츠의 경우 대체로 문화산업과 등치되는 관점에서 디지털화 된 온라인 상의 콘텐츠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화클러스터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공간, 정보분야 콘텐츠, 지식분야의 콘텐츠 등 오프라이상의 콘텐츠와 공연, 예술 등의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행과 그 연행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형태의 연관 활동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의 자산으로 진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 공연의 경우 공연이 가능하게 되는 무대, 조명, 음향과 관계되는 다양한 정보나 경험들이 함께 콘텐츠로 인정될 때 공연과 관련된 기업체의 산업구조가 파악되고 이들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과 연관 업계의 흐름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문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지적 지식에 대한 문제 역시 콘텐츠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령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알고 있는 안동지역 내의 문중이나 향교, 유림의 경우 이들의 제사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디지털화 된 것만 문화콘텐츠로 인정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실제 이들의 제사 절차 자체가 문화관광의 중요한 이벤트 상품이며 동시에 지역의 문화산업의 중요한 재화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 전달플랫폼의 경우에는 문화콘텐츠를 연결하고 소비단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장치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산업화되지 않는다. 문화콘텐츠는 단지 재화일 뿐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가 소비되었을 때 비로소 재

33)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자원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5쪽. 여기서는 문화클러스터를 지방자치단체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동질의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넓은 범위의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문화콘텐츠, 문화전달플랫폼, 문화터미널과 함께 동일한 문화자원 개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안동의 경우 안동문화권이라는 측면과, 북부지역 유교문화권이라는 범주에서 동의하면서도 문화클러스터는 안동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클러스터 개념안에 콘텐츠, 플랫폼, 터미널의 개념을 하부단위로 포함시켰다.

화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문화콘텐츠가 소비되는 곳, 즉 재화로써 판매된 것은 문화 전달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 플랫폼에서는 콘텐츠가 연결되어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문화산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미디어, 컴퓨터라는 플랫폼을 거쳐서 재화가 된다. 제사라는 콘텐츠는 그냥 두어서는 콘텐츠일 뿐이지만 관광객과 만나는 시점에서 관광상품이라는 재화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전달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을 확보하여 어떻게 콘텐츠를 소비시키는 프로그램이 운영하는가가 지역 문화클러스터의 산업화 양상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터미널은 문화상품의 다양한 양상을 한곳에 집중시켜 방문객이나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비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문화관광에서도 거점 관광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듯, 문화소비에서도 소비될 수 있는 문화를 한 곳에 모아두는 집적 효과는 산업화에 매우 큰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더욱 이러한 집적기능은 다른 영역의 제품 소비와 더불어 문화소비를 결합시킴으로써 보다 넓은 소비자의 취향선택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문화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가령 공원인근에 박물관을 두고, 관련되어 지역내 골동품상을 두며, 미술관이나 기타 전통음식점을 함께 두고, 이곳에서 공연이나 기타 민속적 여행을 함께 한다면 그 자체로 좋은 문화산업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연구소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문화클러스터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생각할 때 이러한 산업적 원리보다는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정책을 전방위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덧붙혀 전영옥이 강조한 문화클러스터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 역시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전술한 북부지역 전체를 안동지역 문화산업의 내수시장으로 검토한 사안이나 안동문화권이라 이야기 하면 전통적으로 영주, 문경, 예천, 영양, 울진 등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일 것은 문화클러스터에서 주시하여야 할 것이 바로 문화예술자원이다. 안동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관통하는 예술적 활동역시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커다란 범주에서 문화자원은 실제 문화예술자원을 포괄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창의적 사고 속에서 생성되는 감각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조금 특수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며 동시에 모든 문화산업 역역의 기간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34]

마지막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 자체가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와 노동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인적 노동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애가 있는 노동, 즉 수공예의 제작개념을 충분히 주목하여야 하며, 생활의 예술화, 생활의 문화화가 문화경제시대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35] 이러한 창조적 도시 이미지 혹은 창조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는 그 자체로 문화산업 자원이다. 문화산업을 동심원에 비유할 때 창조적인 예술행위는 그 중심에 있고, 여타의 문화산업의 분야들이 외곽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영국은 이점과 관련하여 창조적인 산업체, 창조성의 사회적 구조 등을 강조하면서 창조산업, 즉 문화산업은 '개인의 창조성, 기술 및 재능에 기원을 둔 산업분야이며, 지적 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잠재적 부와 직업을 창출하는 분야'라고 지적한다.[36] 이러한 지적은 실제 안동지역의 문화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매우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결국 문화산업이 창의적인 문화활동에서 파생되는 산업적 결과물이며, 제조품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생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통해, 시민들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안동문화클러스터의 산업화는 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34)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문제는 많은 논의가 진전되어왔다. 특히 주목되는 논의는 정성옥 외.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전략 개발",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와 양종회 외, "영국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3.을 참조하기 바람.

35) Masayuki Sasaki, 'Creativity and Cities', 중앙민속박물관 개관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5.

36) DCMS,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1998. 2001. Masayuki Sasaki, 위의 글에서 재인용.

제5장
안동지역 문화산업 현황과 장르별 발전 과제

안동문화산업의 방향은 클러스터나 또는 대량소비의 디지털시장을 형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동의 역사와 문화적 조건위에서 산업화의 길을 모색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문화산업의 조류를 이해하면서 그 형성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참고하거나 혹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그리고 한국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방향에 동승하면서도 안동만의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인 세부안으로 그 전망과 활성화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고민의 출발점은 바로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다.

전술한 것처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제시한 문화산업 영역 중 안동의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항목은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밖에 전통의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등이다.

이것에 입각하여 먼저 안동지역에서 관련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현황과 결과물을 가볍게 검토하면 ① 디지털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 ② 여가, 레져, 관광업체, ③ 공예품 관련 업체, ④ 문화재 관련 업체, ⑤ 음식관련 업체, ⑥ 전통의상 업체, ⑦ 축제 이벤트, ⑧ 이벤트 업체, ⑨ 방송, 영상업체 디지털 설비업체, ⑩ 그리고 레져 스포츠 관련 업체 등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안동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안동지역 문화산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안동지역에 산업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업체들의 현황이 단지 수치상으로만 이해될 경우 업체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하는 현장감을 담아내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더욱 발전 전망치에 대한 운영

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면접촉 역시 일방적인 의사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아직 안동지역 문화산업체가 구체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반영된 것이다.

가.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된 데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바 크다. 대량 복제와 원도우형 멀티유스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은 문화콘텐츠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고 소위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됨으로써 문화의 상품화에 선

〈표 5〉 안동지역 디지컬문화콘텐츠 업체 현황

회사명	인력	주력 사업	시급한 과제	향후 전망
(주)이우텍	11	홈페이지제작	기술인력 확보	아주 긍정적
(주)멀티모아	10	교육콘텐츠 영상제작	공공부분재원확보	아주 긍정적
(주)안동인터넷	18	전자상거래구축 정보화마을사업	안동관련자료 멀티미디어DB구축	희망적
(주)포디컬쳐	7	3차원스캐너	공공부분재원확보	긍정적
(주)가람포럼	5	콘텐츠개발	인프라구축	부정적
강산방송	7	영상콘텐츠	자금유통,	긍정적
경북인터넷방송	7	콘텐츠, 영상,	기술인력 확보	긍정적
카카오스튜디오	4	애니,캐릭터,영상광고	기술인력	긍정적, 희망적
IMP	3	웹프로그램	기술인력확보,네트워크공유	다소부정적 기준이자주번복 특정업체로쏠림
ADI	2	홈페이지제작	기술인력확보	긍정적
디지털이펙트				
멀티영상	2	영상물제작	설비투자	수요多예상 시장개발必
문화영상기획	2	웨딩,홈비디오제작	설비투자	다소 부정적
웹지디	1	홈페이지제작	기술인력확보	긍정적
글로벌아트				
(주)한국디지털				
oneid.biz				
JIN커뮤니케이션				
아이매직	1	토탈악세사리	기술인력및설비투자	아주 긍정적
(주)푸드맨		시스템개발	공공부문재원확보	현재는 부정적이나 IT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희망적

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산업 논의의 중심에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이 있었다. 안동지역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고, 업체들과 성과물 역시 중소도시 규모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 있다.

안동의 디지털문화콘텐츠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콘텐츠 업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성과물을 집적하고 있다. 2D, 3D 애니메이션 제작물을 비롯하여, 게임과 인터넷 생중계, PDA 생중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제는 많다. 먼저 Scott가 제시한 것처럼 집적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업체가 전문적 영역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분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영역별로 보다 전문화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안동지역의 문화콘텐츠업체들은 이를 수행할만한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업체간의 컨소시움과 분업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동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2004년, 2005년 문화원형리소스 사업에서 안동지역의 업체들과, 서울업체간 컨소시움이 이루어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참여한 업체들에게 이 경험을 향후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다.

두 번째로 문화산업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가질 때 발전한다.[37] 말하자면 일정한 소비가 이루어질 때 생산투입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콘텐츠는 감성적 소비가 많아 내수시장의 일정한 규모를 가져야 하는 점도 문화산업 발전에 반드시 검토되는 사항이다. 이 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나 안동지역 문화산업을 검토할 때는 별개의 사안이 되지 못한다. 즉 안동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동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으로 아무리 소비인구를 많이 확보한다 해도 80만을 넘지

37) 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평균비용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생산이 많고 매출이 높은 상품의 평균 단가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을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특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데, 가령 CD에 담기는 영상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1차로 CD를 생산할 때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비가 높게 나타나지만 2차부터는 복사가 이루어져 생산비가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송경석, 한병완, “디지털 콘텐츠 산업”, 남두도서, 2002.

않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규모로는 내수시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안동지역 문화콘텐츠 업체들이 지향하는 것은 한국 이미지를 가지고 대도시와 한국문화상품 시장에서 경쟁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지역에 있지만 정보와 기술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이끌지 않으면 한국전체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 그러나 지역업체의 인력난과 기술력 부재 등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우텍의 경우 2003년 매출이 경북북부에 국한되었으나 2005년의 경우 안동을 제외한 외지 수주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 역시 경북 북부시장만으로 업체를 경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덧부쳐 여기에 안동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수시장의 부족을 파악하고 문화콘텐츠 박물관, 문화원형사업 등을 통해 공공재 생산을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시행하여 업체가 선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것과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업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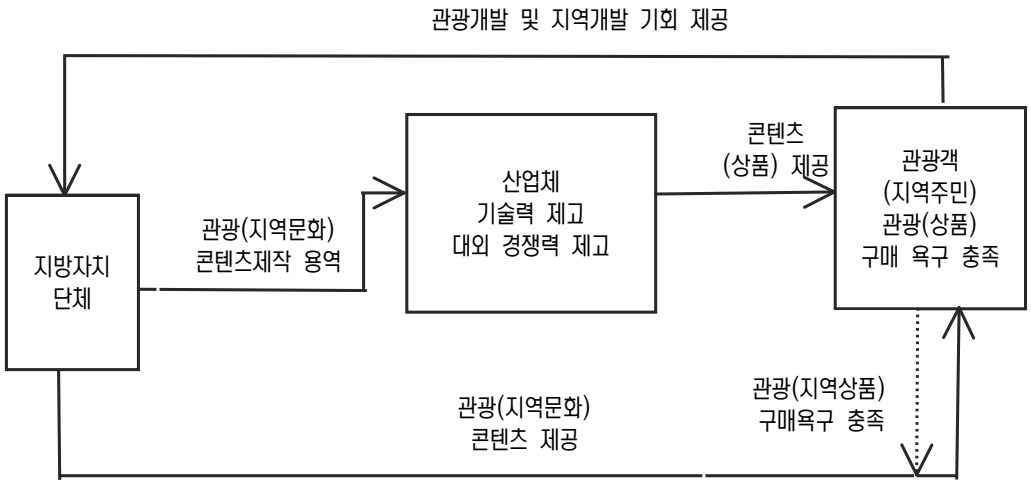
세 번째로 넘어야 할 것은 바로 안동지역 문화콘텐츠 업체들이 소비재를 양산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콘텐츠 상품은 제작과 동시에 소비자로 연결되는 측면이 강한데 안동지역 업체들의 매출구조를 보면 주로 관급 용역과 다른 기업체의 홈페이지 등 단위 용역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최근 탈춤영상CD와 전자상거래, 2D 3D 애니메이션 광고 등으로 문화콘텐츠 소비제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문화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소비재 상품의 경우 업체가 받아야 할 압박은 크다. 그 첫 번째로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발비를 투자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개발을 통해 상품을 만들었을 경우 유통시장이 성립되어야만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안동지역 문화콘텐츠시장은 소비유통구조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개발과 더불어 소비유통시장까지 개척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렇게 소비유통을 개척하였다 하더라도 문화콘텐츠의 수명은 길지 않기에 바로 투자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개발업체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안동지

역 문화콘텐츠 업체는 투자를 통한 소비재 품목 개발을 주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사업이나 홈페이지 등의 단위 콘텐츠제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안동 문화콘텐츠 산업이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하였지만 관광객은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더욱 소비지출이 일정하게 보장된 소비자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소비품목 개발한다면 개발투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안동시와 경상북도 역시 공공적 문화콘텐츠 생산을 관광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광자원으로 문화콘텐츠 생산을 바라볼 때 지역 정책적 효율성도 높아지게 되므로 지역업체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기술력과 관광인식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관광객 또한 제공된 문화콘텐츠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관광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이렇게 관광욕구를 충족한 관광객은 다음 관광에 대한 기대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한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2〉 안동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연계도

나. 여가 관광산업

안동지역의 아웃바운드 관광업체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외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소위 인바운드 업체는 많지 않다. 이것은 안동을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관광객의 모객 자체가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관광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설사 다른 방식을 써서 모객되었다 하더라도 홍보와 기타 대도시의 활동인력에 대한 투자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레프팅, 문화체험 형태의 인바운드업체가 안동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은 대체로 가족단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모객이 가능하거나, 안동문화답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험형 답사업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홍보가 없어도 문화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지를 통해 관광이나 기타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도시 현장에 홍보인력이 활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동 문화산업에 유념할 필요가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담당하는 산업체는 다음과 같다.

〈표 6〉 안동지역 인바운드 관광업체 현황

업체명	근무인력	주활동	비고
노리누리	3명	문화체험학습	
안동문화와레져	상시인원 5명 여름특수 20명	레프팅, 보트장	보트장 운영시 1억 이상 매출 예상
동신기획	4명	광고기획, 레프팅	
안동관광개발	3명	체험학습, 수학여행	

현재 이들 업체의 현황은 아직 유동적이다. 자연체험이나 기타 문화답사와 같은 프로그램은 계절적 이유로 인하여 모색되는 폭이 심하고 따라서 수익성도 그 유동성이 심하다. 이러한 관계로 연간 경영이 가능하여 관련 프로그램이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요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안동시 문화관광 발전은 결국 이러한 인바운드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 산업체의 활동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연간 예측될 수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지에서 참여관광객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동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안동지역 투어프로그램이 정착단계에 있지 못하며 숙식과 관련된 관광인프라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하여야할 과제이다.

이점에서 안동지역 인바운드 관광은 먼저 안동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안동문화답사라는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 수학여행, 안동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더불어 최근 안동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가민박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하다. 낙동강을 활용한 레프팅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관광상품이다. 안동에서도 3개 업체 이상이 이 레프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동의 유수한 문화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관광은 경영이 가능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조건위에서 발전된다. 말하자면 안동지역의 양질의 관광 프로그램이 수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관광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문화적 가치만을 제공하는 안동이 그러한 가치를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성이 보장받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가령 안동시가 주력하고 있는 고가민박 활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고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지만 관광객들에게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어떤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대중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잡혀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중에서 특히 누가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안동이 관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된 수익 보장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다.

현재 안동시는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안동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관광정보센터와 더불어 민간에서 관광과 관련된 산업체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관광관련 단체가 필요하다. 이들의 자율적 노력과 협력이 안동시의 다양한 문화관광 시스템을 바꿀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이들 업체의 관광 프로그램을 보다 조직적 차원으로 끌어 올려 수익성이 높은 관광도시 안동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공예 관련 산업

공예품은 최근 전통적 문화산업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문화산업 영역에 이미지 디자인이 중시되면서 그 결정체인 공예상품이 대두되었다. 안동지역의 경우 문화적 이미지를 상품화할 경우 그 결정체의 많은 부분이 공예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2005년 “공예문화전시관”을 개관하여, 체험장과 판촉 거점이 마련되었고, 현재 문화관광부, 경상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공예품 관련 공모전 이외에 2003년부터 안동시 주최로 매년 “안동시 관광기념품공모전”을 시행하여 지역 공예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안동지역 공예산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7〉 안동지역 공예산업체 현황

번호	업체명	취급품목	용도	인력
1	하회동탈박물관	나무탈		3
2	하회탈공방	나무탈	장식품, 공연용	2
3	한국관광명품	기념품	관광상품	15
4	우리도예	도자기	생활용품	2
5	남탑산방	국화차	차	2
6	안동한지공예	공예품	생활용품, 한지관련 체험	3
7	한지미술관	한지공예	미술품	2
8	알록달록칼라믹스	칼라믹스	장식품, 생활용품	3
9	쪼물딱칼라믹스	칼라믹스	장식품, 팬시	1
10	고려탈방	목공	장신구, 생활용품	1
11	그랑나	은제품	장신구	3
12	예인보석	금속공예	장신구, 생활용품	2
13	이브	은제품	장신구, 기념품	2
14	도경도예	생활도자기	생활용품,장식품	1
15	도연요	도자기	생활용품, 장식용	2
16	민속인형연구	토우	장식품, 생활용품	1

안동지역 공예업체의 거의가 개인사업체이며 이것은 한국 공예산업의 현황과 비슷하거나 열악하다.[38] 그러나 이러한 업체의 열악성은 공예산업이 장인형 산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산업 발전조건을 갖추고 있는 산업이라는 긍정성도 동시에 지닌다.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공예품은 도자기와 하회탈이라고 할 수 있다. 하회탈은 그 자체로도 판매가 꾸준하며 개량된 공예품의 경우 보다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가령 하회탈박물관의 김동표 관장이 목걸이로 개발한 것은 수백만 개가 판매되는 호가를 올렸다.[39] 하회탈 공예는 이외에도 다양한 장신구로도 활용되고 안동MBC,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정보대학에서 캐릭터로 만들어 관련 상품을 계속하여 만들어내고 있어 멀티유스의 전형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활용된다.

도자기의 경우 안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품화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도자기란 다양한 외부적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높다. 안동지역 도자기나 금속관련 인력들이 문화관광부의 공예품 관련 공모전에서 꾸준히 입상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지역내 공예관련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예품 관련 문화산업의 과제는 많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산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안동지역 공예품의 판매 유통구조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안동지역에 공예품 관련 판매장은 공예전시관과 안동시내 몇 개 판매점뿐이다. 전문 판매점 보다 중요한 것이 일상적인 판매처 형성인데 이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까닭에 현재 공예업체의 대부분이 이벤트형 체험학습, 즉 도자기 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동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 판매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소비대중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하고, 나아가 대외적 판매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수공업의 특징을 살리고 고급화를 통해 양질의 제품 제작을 통하여 대량생산제품의 특징인 가격경쟁력을 다른 측면에서 만회하여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공예인들만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안동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문화관련 인력들이 공예인들에게 끊임없는 이미지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공

38) 한국 공예사업체의 84.6%가 개인사업체이며 매출규모가 2000만원 미만이 16.9%였다. 문화관광부, “2004문화산업백서” 2004.

39) 권두현, ‘하회탈의 예술성과 상품성, 탈 전시와 판매의 조화’ 안동신문, 8월 7일자.

예인들의 창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하나의 공예품은 결국 개인의 창조적 작품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기에는 많은 다양한 예술적 기반이 확보될 때 사회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문화유산 관련 산업

문화재는 안동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276점이며,[40]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도 매우 중요한 문화재가 많고, 전적, 무형문화유산, 기타 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안동지역에는 이러한 문화재를 보수하는 업체만도 몇 개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면 문화재 관련한 문화활동, 예술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안동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련 단체들은 향교, 유림(문중, 서원 조직), 유도회, 박약회, 청년유도회, 안동문화지킴이, 선비문화수련원, 신우회, 예절학교 등 관련 단체들이 매우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같은 조직에 있지만 세부활동까지 포함한다면 안동지역이 가히 문화의 고장이라고 할 만한 수준인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안동지역의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단체들의 활동을 문화자산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자체로 문화산업적 마인드로 연결한다면 안동지역 문화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논의는 매우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에 원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만 검토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안동지역의 문화재 보수 업체이다. 안동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 중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문화재청에 인가를 받은 업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보수하는 사업 그 자체로 건축업과 문화산업의 축인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재 건축이 계속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고가 문화재가 집중되어있는 안동지역의 문화재 보수업은 유망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안동지역 문화재 보수업체는 일반 건설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40) 국보 4점, 보물 34, 기타 지정된 문화재가 238점이다.

〈표 8〉 안동지역 문화재 보수업체 현황

번호	업 체 명	상 근 인 력
1	동신건설(주)	정규 4
2	동신산업(주)	정규 4
3	(주)신화건설	정규 4
4	세방건설(주)	정규 20
5	필성건설(주)	정규 14
6	창성건설(주)	정규 14
7	성림건설(주)	정규 14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에서 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바로 박물관, 전시관과 같은 레져형 문화유산 관련 시설물들이다. 안동지역은 그 규모에 비하여 매우 많은 박물관,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9〉 안동지역 문화유산 전시관 현황

번호	명칭	위치	주요 전시	비고
1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시 성곡동	안동지역 민속자료 일반	
2	안동소주박물관	안동시 수상동	안동소주, 안동음식	
3	하회 탈 박물관	안동시 하회동	세계의 탈, 한국의 탈	
4	경북 산림박물관	안동시 도산면	산림자원, 산림관련 문화	
5	한국국학진흥원	안동시 도산면	국학관련 기획전시, 유학자료	
6	숭원각	안동시 와룡면	광산김씨 관련 유물	
7	옥진각	안동시 도산면	퇴계선생 관련 유물	
8	영모각	안동시 하회동	풍산류씨,서애선생 관련 유물	
9	운장각	안동시 서후면	의성김씨 문중유물	
10	봉정사 유물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 소장 유물	건립중
11	육사기념관	안동시 도산면	육사 이원록 관련 유물	
12	향토자료관	안동시 수하동	교육청 교육 자료 유물	
13	보물각	안동시 삼산동	삼태사 관련 유물	
14	한지 전승관	안동시 풍산읍	한지 관련 유물, 체험 답사	
15	독립기념관	안동시 천전리	안동지역 독립운동 관련 유물	건립중
16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시 송천동	전통의류,매장문화재 기획전시	
17	한미 미술관	안동시 예안면	사진작품 전시	
18	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시 옥정동	문화콘텐츠 관련 자료	건립중
19	공예문화전시관	안동시 상아동	공예품 미술품 전시	
20	안동삼베전시관	안동시 임하면	안동지역 삼베관련 전시관	건립중
21	물문화전시관	안동시 성곡동	수자원 관련 물 전시관	건립중

안동지역 문화유산 관련 박물관, 전시관에 전시된 문화유물들도 그 내용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건도 훌륭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박물관을 열고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문을 열어도 일반인이 관람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박물관이 아닌 곳은 공적 지원금이 아니면 박물관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중들과 만나는 박물관은 하회동 탈 박물관이다.[41] 하회동 탈박물관 연간 입장객은 유료입장객만 5만명 이상이다. 입장료는 2004년의 경우 약 7,000만원 정도로 하회탈박물관의 기획전시, 인건비, 기타 운영비로 충분한 금액이라고 한다. 대체로 박물관이 문화적 가치를 담보로 하여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회동 탈박물관에 입장한 7만명은 안동지역 다른 박물관에서 무료로 입장하는 관객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이러한 입장료를 통해 더욱 양질의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점에서 박물관은 문화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이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입장료를 받는 박물관은 탈박물관과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이외에는 없다. 박물관이 문화가치를 포장하고 양질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곳이라는 산업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 점에서 덴버 어린이 미술관의 사례는 다른 차원에서 의미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덴버 어린이 미술관'은 비영리 예술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재정 운영에 실패하여 문을 닫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1976년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서면서 미술관을 '공익적 기업'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한다. 회원제도를 다양하게 만들고, 가족 프로그램 등에 회비를 받으면서 그 내용성을 충실하게 가져간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덴버 미술관만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 결과 1981년 예산의 95%를 판매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었고, 과거 다른 기업, 행정기관의 후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내용과 경영 양

41) 박물관의 다른 기능인 연구 성과물 역시 대학박물관이나 국학원을 제외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면 모두 양질의 미술관으로 거듭난 것이다.[42]

덴버 미술관과 탈 박물관, 두 사례에서 보듯 안동지역 박물관이 보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경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경영이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형태와는 다르다. 보다 효율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곧 문화산업이며 그것이 문화를 보다 많은 대중들과 의미 있게 공유하는 길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마. 음식 관련 영역

농업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안동지역은 음식관련 업체가 매우 많다. 그러나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을 제조업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풍산김치, 안동참마, 안동간고등어, 북후산약, 안동소주, 일품소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경상북도 향토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안동지역 음식관련 품목을 보면 헛제사밥, 찜닭, 안동소주, 김치, 안동고추, 전통장류, 안동간고등어로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안동시가 향후 향토산업 선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생명의 콩, 산약(마), 안동식혜, 국화차, 기능성 청국장, 천연염색, 안동버버리찰떡, 안동문어, 한과(유과, 과상), 하회탈로 되어있다.[43] 이것은 향토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우선순위 인데, 이중에 식품과 관련된 것이 8개여서 결국 안동지역 향토산업의 중요한 것이 식품임을 알 수 있다.

식품과 관련된 업체와 영역은 실제 안동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영역이다. 안동에서 문화상품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안동간고등어, 안동참마 등은 모두가 식품이며, 이것이 안동의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성공하였던 만큼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졌고, 보다 심도있는 정돈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44]

바. 전통의상 업체

안동지역문화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 어쩌면 여성들의 문화역량이다. 여

42) 홍영준, “소비자 지향의 문화산업”, 집문당, 2003, 85쪽.
43) 경상북도·경북전략산업기획단, “경북향토산업육성계획수립 최종보고서”, 2005.
44) 이 부분에 논의는 별도의 장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성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매우 섬세하고 수공예적이어서 안동지역 문화산업의 품격을 높이면서도 장인생산형의 전형적 산업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통의상과 관련된 문화적 영역이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문화산업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통의상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0〉 안동지역 전통의상업체 현황

번호	명칭	영역	생산품목	인력
1	김춘화천연염색	천연염색	생활한복, 생활용품	1(유동적)
2	네추럴바이오	천연염색	공산품, 의류	교육생4
3	상정천연염색연구소	천연염색	의류	1
4	안동삼베	안동삼베	생활용품,액세사리	1
5	안동포특산단지	안동포	생활용품, 의류	13
6	김연호천연염색	천연염색,의류	천염염색, 전통의류	1

안동지역에서 전통의상과 관련되어 검토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안동포이다. 그런데 실제 안동포는 천을 생산하는 과정이 수공예로 이루어져 원가 생산가격이 매우 높아 다른 패션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매우 어렵다. 최근 안동포를 활용한 다양한 패션제품이 나오지만 이것이 상품으로 소비되기에는 그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으며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점에서 안동포에 대한 산업화는 어쩌면 원료생산에 주력하여 수의 등으로 판매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일견 수의만을 위한 안동포는 산업화의 전망이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내 수의시장이 매우 크고,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는 삼베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다른 패션상품으로 판로를 형성할 수 없기에 수의와 같은 특수한 소비가 보다 안동포 소비에 부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동포는 장인형문화산업 생산 시스템 속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의와 같은 소비에 초점을 두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주목하여야 할 영역이 바로 천연염색이다. 삶의 질을 고려하기 시작한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되어 천연염색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고, 안

동지역은 몇사람의 선구적인 작업을 통해 천연염색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신계남, 최옥자, 김연호, 김춘화 등의 개인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천연염색 제품들은 그 질적 수준이 매우 높아 고품격의 수공예 산업 생산품으로 손색이 없다.

현재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천연염색 의상은 개인적 판로를 통해 소수에 의하여 제품화되고 있다. 물론 최근 봉정사 입구에 들어선 천연염색 전문 매장은 천연염색 판매점에 대한 실험으로 주목할 만하지만 아직은 업체로써 유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천연염색과 관련되어 브랜드화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를 끈다. 그 내용은 안동지역 천연염색과 관련된 상품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장인들의 이름이 들어간 개별 브랜드를 가질 때 생산된 품목을 집적시켜 판매를 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개인적 판매보다는 분명 상품화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연염색은 개인적 관심으로 촉발되어 부분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업화의 길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일천한 수준이다.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하여 예술성을 살리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인가는 천연염색과 관련된 패션제품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축제 이벤트

문화산업에서나 장소 판촉 모두에서 이벤트, 축제 마케팅 시장확보, 이미지 제고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축제가 행사가 아닌 이제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검증된 것이다.[45]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2005년 생산유발효과는 199억여원이었으며 문화콘텐츠 생산과 기업체, 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성공을 바탕으로 안동지역 이벤트를 보다 정교하

45) 이렇듯 문화경제를 분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학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자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수요는 경제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 문화예술의 경우 아름다움, 문화적인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또한 반드시 화폐가치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충분히 긍정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황현탁(역), “문화경제학”, 나남, 1999.

게 다듬고 시기별 영역별로 배치하여 안동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일찍부터 대두되었다.[46] 지역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논의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의 재단법인화 논의를 거치면서 보다 본격화되었고, 이제 안동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기별로 장르별로 영역화시키자는 의견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하회탈춤의 정기공연, 국악 등 공연예술 이벤트를 공휴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려는 계획도 실행단계에 와 있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중 문화관광, 혹은 문화산업자원으로 가능한 축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47]

〈표 11〉 안동지역 문화축제 현황

명칭	시기	주최	내용
빙고 페스티벌(장빙제)	겨울	석빙고 보존회	장빙제, 겨울민속
여성민속한마당	4월 중순	안동문화원	여성들의 문화예술, 민속
안동 예술제	5월 초순	예총 안동지부	각 장르의 예술공연, 전시
성주풀이	6월 경	민예총 안동지부	고가, 문화재 현장 예술행사
군자리 풋굿축제	8월 경	안동문화원	전통 풋굿을 재현
하회마을 전통축제	8월 경	안동시	중단
유교문화축제	9월 말	안동시	중단
국화꽃(차)따기	9월 말	국화차 산업체	국화꽃을 따서 차를 만듬
국제 다례축제	8월 경	다례원	행다, 다구 전시 등
안동민속축제	9월 마지막주	안동문화원	안동민속문화 30여종
탈춤페스티벌	9월 마지막주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세계탈춤, 하회탈춤등
선유줄불놀이	탈춤축제기간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선유,줄불,예술공연 등
등축제	가을	봉정사	전통등 전시
장승축제	10월 말	장승촌	장승 퍼포먼스 등

46) 남치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중장기 발전방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2001. 안동권발전연구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2 조사연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 202. 등

47) 필자 임의로 경쟁력이 있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선정함

안동지역이 에딘버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의 고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상시라도 방문하였을 때 기대되는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48] 에딘버러가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의 성공을 도약의 계기로 삼았듯이 안동 역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이러한 이벤트 활성화 도약의 계기로 삼는 것이 요구된다.

아. 이벤트 업체

안동이 이벤트를 통해 문화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각 축제의 주최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진행자를 구비하여야만 한다. 이벤트 축제는 대중적 정서를 읽어내는 기획자와 경험과 감각을 갖춘 운영자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기술진용이다. 말하자면 이벤트 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벤트 업체의 육성없이는 실제 지역내 축제와 이벤트를 발전시키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축제의 경우 매년 행하는 연례행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해 한해 그 역량과 경험이 축적되어 새로운 문화역량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대중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축제 기획자와 이벤트 산업체는 면밀한 인간적 친밀감과 동시에 예술역량을 갖추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과 예술적 활동력이 축제와 이벤트로 이어지고 그 이벤트에 관광객이 참여하기에 결과적으로 문화산업 역량으로 이벤트 산업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벤트 업체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48) 에딘버러는 15세기 이래 스코틀랜드의 수도로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며, 1995년 에딘버러 신·구도시 모두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에딘버러에서 축제가 기획된 것은 1947년 2차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암울한 시민정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이후 에디버러 국제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 Festival)은 도시공간 전체를 활용한 세계적인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매년 8월에 개최되는 이 축제는 170여곳 1500여 공연이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프린지축제, 군악대축제, 재즈와 블루스 축제, 국제 영화제, 책축제, 과학축제가 지속적으로 열려, 축제를 통한 수입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역에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표 12〉 안동지역 이벤트업체 현황

번호	업체명	직원수	활동내역
1	대한기획	5명	종합 이벤트
2	블루이벤트	4명	음향
3	현악기사	3명	음향
4	한맥아트 프랜	1명	조명
5	한성방송연예기획	1명	무대
6	엑스엔터테인먼트	3명	무대
7	아리랑종합악기사	2명	음향
8	이벤트클럽	2명	이벤트
9	강산엔터테인먼트	2명	무대, 폭죽

현재 안동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이벤트 산업체는 안동만의 내수시장으로는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영역은 자연스럽게 대구 경북권, 나아가 전국적인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축적된 문화역량이 다시 안동지역 이벤트로 투여되기에 이들의 활동이 보다 더욱 중시되는 것이다.

자. 방송, 영상, 디지털 설비업체

안동을 포함 경북지역의 가장 큰 문화산업체라면 단연 방송사를 들 수 있다. 현재 안동지역에서 독자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는 방송사는 2곳, 지사를 포함하면 4곳으로 그 콘텐츠 생산능력과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영상제작업체와 디지털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설비업체를 포함하면 방송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현재 안동지역 방송관련 산업체는 다음과 같다.[49)]

49) 이외에도 디지털 설비업체인 하나로통신, 데이콤 파워넷, KT매가패스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 13〉 안동지역 방송관련업체 현황

업체명	근무인력	2003년 매출	2004년 매출	프로그램 주 몇시간	시민강좌 연 대략 몇회
안동MBC	85인	187억	180억	자체제작 주 60분 4개, 뉴스 4회 외주 프로그램 8시간	안동MBC아카데미 월 문화기행 월 임신육아교실 격달
영남방송	92인 영주,문경 포함	108억	134억	1주 12개 1주 자체 초방송 10시간 뉴스 매일 15분 4회 외주제작 4개사	75체널 정도
KBS안동	정규 45인 비정규 45인				국학강좌

〈표 14〉 안동지역 영상제작업체 현황

업체명	근무인력	2004년 제작편수	주요 제작 관련
멀티영상	2인	50편 정도	영남방송, 개인영상 수주
경북프로덕션	1(상근) 제작시 제작인력채용	50편	영남방송, 기타
K&C프로덕션	4인	50편	영남방송, 기타
제일미디어	2인	20편	지역방송, 이벤트 기타

안동지역 방송사의 경영실적은 MBC 지방사가 4,448억원으로 이중 안동MBC가 차지하는 비율은 4% 정도이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영남방송은 전체 케이블 방송 매출 1조 750억의 6% 정도이다.[50] 이러한 수치상의 의미는 별로 대단치 않지만 안동지역 방송사가 보다 많은 영역에서 콘텐츠를 생산할 경우 그 가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수치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디지털방송 시대가 개막함에 따라 방송과 인터넷, 휴대전화의 콘텐츠 영역 구분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위성방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을 활용한 방송 영역 구분 역시 의미가 약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방송관련 환경변화가 안동지역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속단하기에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방송산업이 안동지역 문화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에 방송 그 자체가 가지는 산업적 가치를 안동지역 모든 영역에서 고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0) 문화관광부, "2004 문화산업백서", 2004.

차. 레져 스포츠 분야

스포츠 역시 문화산업에 최근 부상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안동의 경우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 보다는 스포츠의 생활레져화, 즉 레포츠(레져형 스포츠) 관련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내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지만 소포츠와 관련된 펀드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숙박 등 관광과 관련된 소극적 측면에서 경제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골프장을 비롯한 관련 업체가 현재 안동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한다. 다만 안동지역의 문화자원 상품의 중요한 거점으로 레포츠가 분명하게 거론되어야 함은 강조점을 둔다.

카. 문화예술 활동

안동 문화산업을 문화라는 전방위적인 작업에 산업 마인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때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술활동을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예술은 그 자체로 문화산업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예술활동이 문화자원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인하여 영국에서는 문화산업을 창조산업이라 칭하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분류를 통하여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산업과 직접 연계시키고 있다. 베커(Becker)는 예술세계와의 관계에 따라 예술가를 '통합된 예술가' '이단적 예술가' '소박한 예술가', '민속예술가'로 분류하고 포스터(Foster)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대상으로 하는 공중을 기준으로 '헌식적(순수한 혹은 심각한) 예술가' '아마추어 예술가' '공예가'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가의 역할에 따라 ① 창조적 역할과 해석적 역할, ② 공연예술가와 비공연 예술가, ③ 예술가와 공예가, ④ 산업예술가, 광고예술가, 순수예술가, 예술교육자(시각예술의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의 분류이고 산업과 관련된 것은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로 나누고 있다. 문화산업은 1992년 표준산업분류(1992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의존하고[51] 문화직업은 1988년 표준직업분류(1988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에 의

51) 문화산업 분류로 나뉘어지는 산업 영역은 1.1 서적출판 1.2 음반출판 1.3 녹음 재생산 1.4 비디

존하여[52] 연관 경제적 효과와 기타 영향력을 범주화하고 있다. 세부적인 논의를 보다 진척시켜야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영국의 문화산업체계를 문화예술활동에서 시작하고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문화산업의 동력으로 삼아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에 다름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53]

이러한 영국의 입장은 안동지역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안동지역은 전통문화의 고장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안동지역에서 활동한 단체 내역만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15〉 해방이후 안동지역 예술문화단체 현황

분야	단체	개인
예술인단체 (사단법인)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동지부(민예총) • (사)한국예술인총연합(예총) • 안동문화운동연합회 • 안동문화원	
문학	• 안동문인협회 • 안동민족문학회 • 글밭 • 참꽃문학회 • 한겨레시읽기모임 • 한문학회 • 수필문학회 • 시조동인 오늘 • 목민 • 맥향 • 주부문학회, 기타	권정생
미술/서예	• 안동미술협회 • 이수회 • 향미일요화가회 • 토전 • 경북청년작가회 • 명륜미회 • 신세기청년작가회 • 안동조각회 • 도도회 • 안동공예인협회 • 명륜서도회 • 목연회 • 안동서도회 • 태화한마음회 • 안동서예회 • 서예교육연구회 등	
한국음악 관련 단체	• 풍물굿패 참넋 • 한미례 전통음악연구소 • 안동국악단 • 한음국악연구원 • 영가농악단 • 놀이패 둥근(과거) • 국악협회 • 제비원농악단 • 윤기명국악교습소 • 풍물마당 • 민족문화연구회 • 휘몰이 • 기타	

오 녹화재생산 1.5 컴퓨터 미디어 재생산 2.1 영화 및 비디오 생산 2.2 영화 및 비디오 분배 2.3 영화상영 3. 라디오 TV 활동 4. 예술적 문학적 창조적 활동 5. 예술설비 6. 도서관, 기록보존 활동 7. 박물관 활동 등이다.

52) 1. 오락 및 스포츠 경영자 2. 건축가 3. 사서 4. 기록보관자 및 학예사 5. 작가, 문필가, 저널리스트 6. 미술가, 상업미술가, 그래픽 디자이너 7. 산업 디자이너 8. 의상 디자이너 9. 배우, 엔터테이너, 무대관리사, 프로듀서, 감독 10. 음악가 11. 사진사, 카메라, 음향, 비디오 장비 조작자 12. 악기제조자, 피아노 조율사 등이다

53) 양종회, 권숙인, 김우식, “영국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3.

연극	• 극단 광장 • 극단 세상살이 • 극단 토담(안동대) • 마당(안동대) • 극예술연구회(상지대) 등	
음악	• 성가합창단 • 남성합창단 • 안동시민합창단 • 노래패 햇살 • 벨칸토성악연구회 • 아리랑팝스오케스트라 • mbc어린이합창단 • 새마을어머니합창단 • 안동교향악단 • 경북타악기앙상블 • 안동플릇앙상블 • 포크음악동호회 • 클래식기타동호회 등	권태호
사진/영상	• 안동사진협회 • 영가사우회 • 명승사우회 • 안동사진동호회 • 안동영상회 • 예진사우회 • 예향사우회 • 열린영상회 • 포크다큐 • 사계영상회	
무용	• 남향란무용단 • 솔뫼무용단(정숙희) • 수정발레 • 몸짓패 해오름(안동대) • ¯오숙자무용학원 • 무용협회	김상규
인형극	• 한국인형극연구회, • 각 유교과 동극단등	
문화단체	• 안동문화원 • 문화모임 사랑방 • 안동문화지킴이 • 안동문화연구회	
전통문화단체	• 차전놀이보존회 •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 저전동농요보전회 • 내방가사전승보존회 • 지례예술촌 • 영가시회 • 목석원 • 전통예절진흥회 • 하회마을보존회 • 놋다리밟기 보존회 • 나무마을 • 한지관련단체	

이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예술행사를 따지고 관련된 인력과 활동역량으로 여기고 보면 안동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은 이보다 그 범위가 크며 대중화 되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 즉 안동지역 문화예술과 안동지역 문화산업간의 고리를 어떻게 지역내에서 실제로 만들어내고 행정력과 기타 사회적 역량이 문화예술 활동에 포진되어 문화산업 진흥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덧부쳐 안동지역에 만연한 예술과 산업적인 문화활동간의 관련성을 내적으로 갈등없이 조화시키는 문제, 즉 순수예술과 예술산업이 문화산업이라는 커다란 틀속에서 긴밀한 내적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문제 등이다.[54] 덧부쳐 지역문화관광산업 역시 문화예술활동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도 직시하여야한다.

54) 이부분에 대한 논의는 정성욱 임상오,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전략 개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자료 참조

제6장
결 론

안동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의 중심에는 행정과 함께 기업이 있어야 하며, 클러스터의 기본개념에 충실한 학계, 관련 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에 있는 행정과 기업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 길을 모색하고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보다 깊이 인식되어야 한다. 행정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창업촉진과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여야 하며, 기업은 행정의 이러한 지원노력을 전문성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력 질주 하여야 한다.[55]

이러한 기본적 전제 위에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안동지역 산업발전 정책은 범 안동적차원에서 진행될 때 그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문화라는 개념은 속성상 교육(체험, 학습, 교육), 관광(답사, 이벤트), 체육(레져, 스포츠) 등의 기능과 결합되기 쉬우며 이에 대한 산업마인드를 높이는 길이 안동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동지역 문화산업은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아닌 문화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산업 마인드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때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문화산업의 영역을 볼 때 중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장인형 문화산업을 그 전략적 영역으로 삼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내용중 디지털문화콘텐츠, 문화재 관련 산업, 이벤트 산업 등의 구체적인 장르를 검토하고 그 장르를 연계하여 유통 소비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 북부지역의 80여만의 노령화된 인구를 대상으로 산업전략을 짜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노정된다. 따라서 안동지역 문화산업은 이를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하여 내수시장의 확대차원에서 관광, 제품의 질적 수준에서 한국 문화이미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55) 송영필, 박용규,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4.

이러한 입장에서 공공재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하여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의 업체들이 이러한 용역을 통하여 기술력과 일관성있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만들어진 공공재 문화콘텐츠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판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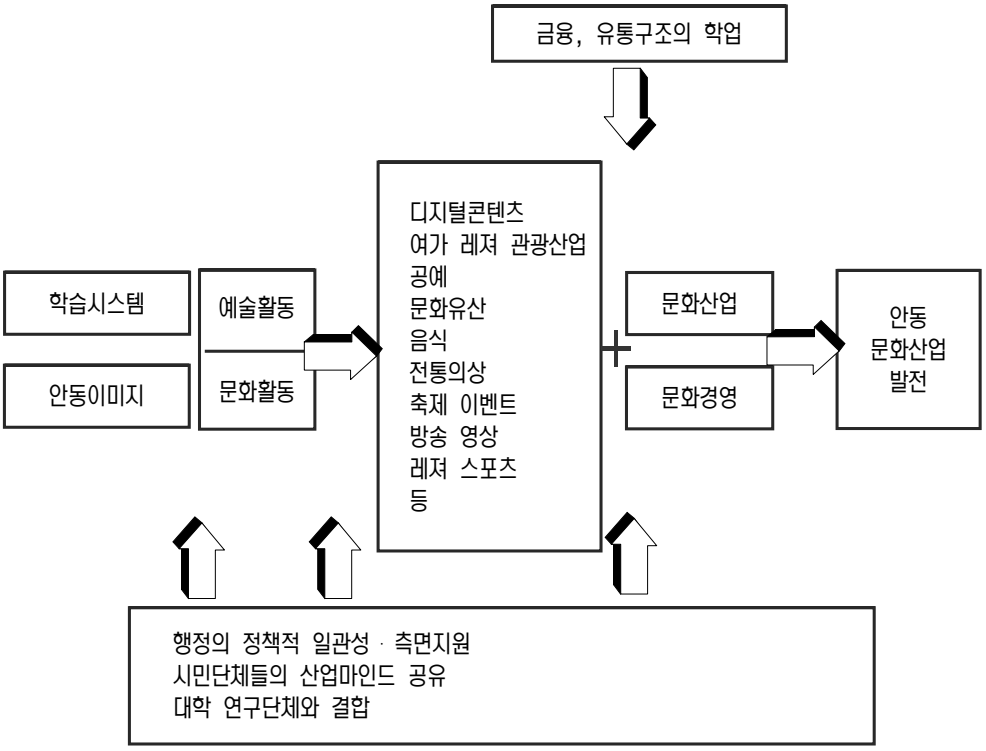
장소 판촉이라는 거시적 접근에서 안동문화를 자산화하여 자체를 문화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매우 유효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안동문화를 해석하는 방식과 국제적 단체에 공인을 받는 전략을 동시에 펼쳐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전망치속에서 다양한 세부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문화적 네트워크(network effect)를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상호 호환이 가능한 재화를 효용성을 높이는 이른바 FAX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소규모의 산업시스템의 가동성을 높여야 한다. 전통적인 안동문화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 자물쇠 효과(lock-in)로 살려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북부지역의 인적 넷트워크를 형성하여 창의성과 연대 소비효과를 증대시키고 열악한 콘텐츠 창작 조건 속에서 기업체간의 최대한 컨소시움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안동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 즉 디지털콘텐츠, 방송 영상, 공예산업, 전통의류, 천연염색, 이벤트, 레져 스포츠, 문화관광 등과 같은 영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치밀한 투자와 산업 유통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각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 기획안을 만들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감하고 발전전략을 공유하는 작업, 이른바 학습적 효과를 내는데에도 주력하여야 한다.

안동문화를 자산화 시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바로 안동지역의 왕성한 문화예술 활동을 상품으로 만들어 내놓는 것이다. 아마추어들의 문화활동의 건강함을 그 자체로 살려 포장하는 추진기구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아마추어들의 문화예술 정보가 규격화 되고 체계화 된다면 안동문화는 보다 큰 차원에서 창의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문화산업과 동시에 안동 문화민주주의 형성, 문화도시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의 인력들을 문화산업으로 투여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문화산업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인 층들에 맞는 활동 강화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구조를 정밀하게 짜야 한다. 마케팅, 문화예술경영이 곧 안동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시민사회에 확대되어야 하며 하회탈박물관에서 보이는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창출하고 이를 거점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안동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모델

사족으로 필자가 만들어낸 용어"눈사람 효과"를 피력하고 싶다. 즉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눈을 뭉쳐야 하며, 이렇게 뭉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의 몸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눈을 뭉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어렵고 기초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치부되기 쉬운 작업이다.

안동의 문화산업 활성화도 이와 같아서 먼저 눈을 뭉쳐야 한다. 많은 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으로 뭉칠 수 있는 단위만큼이라도 살뜰하게 뭉친 후 그 단단함으로 눈덩이를 굴려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Alf H. Walle, 안경모 역, “전략적 관점에서 본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2000.
강형기, “향부론”,비봉출판사. 2001.
경상북도, “경북향토산업육성계획수립 최종보고서”, 2005.
경상북도, “경북 문화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2005.
고승익, 문성종, 부석현,진현식, “관광 이벤트 경영론”, 백산출판사, 2002.
구문모, 외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2000
김현호, ‘장소판촉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6권, 2003.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대구 경북 전통문화산업 대 토론회” 자료집, 2005.
대구경북연구원, ‘전통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방향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5
문화관광부, “2004 문화산업백서”, 2004.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홀미디어, 2004.
복득규 외, “클러스터”, 삼성경제연구소, 2003.
서진수, “문화경제의 이해”,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5.
송도영,이호영,조헌영, “프랑스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 2004.
송영필,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
심상민,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2.
안동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유교문화디지털콘텐츠센터 심포지움 자료집”, 2005.
안동권발전연구소, “안동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 안동시, 2003.
안동문화산업협의회, ‘안동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방향’, 2004.
안병선, “21세기 황금시장 문화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0.
양종회,권숙인,김우식, “영국의 문화산업체계”,지식마당, 2004.
양종회, 김우식, 송도영, 이호영, “미국의 문화산업체계”, 지식마당.2004.
유재윤, 진영효, “도시문화산업의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2000.
이대희, “문화산업론”, 대영출판사, 2001.
인문콘텐츠학회, “경주문화콘텐츠•불교축제”심포지움 자료집, 2005.
일본 교통공사, 김성혁 옮김, “일본의 관광사업”, 일신사, 1996.

임은모, “디지털콘텐츠 입문론”, 진한도서, 2001.
전영옥,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4.
정성욱, 임상오,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전략 개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최양수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미디어”, 민음사, 2005.
한상근, 김나라, 전용석, “문화산업의 직업변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홍영준, “소비자 지향의 문화산업 정책”, 집문당. 2003.

연구자 소개

권 두 현(權斗鉉)

▷ 2002-2005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안동대학교 강사
▷ 현재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사무국장
▷ 현재 안동문화산업협의회 대표
▷ 현재 대구경북혁신위원회 위원

주요 연구실적

- 『일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영남사, 2002
- 「풍물의 기능과 연행양식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사물놀이 성립의 문화적 의의」, 실천민속학회 하계발표대회 논문집, 2001
- 「한국 현대축제의 실험과 과제」, 한국정부학회, 2003,
- 「문화콘텐츠로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가벼운 검토」,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학회 2003.
- 「소산동 가신신앙 조사연구」, 실천민속학회 동계발표대회 논문집, 2004.

경북 북부지역 주요 관광거점의 연계화 방안

-경상북도 북부 4개 도시를 중심으로-

하동현·남태석

목 차

■ 요약 / 351

제1장 서론 ····· 356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35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57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359
1. 연계관광개발 / 359
2. 선행연구 / 363

제3장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분석 ····· 367
1. 연구대상지역 설정 / 367
2. 관광자원현황 / 369

제4장 연계개발에 대한 실증분석 ····· 373
1. 연구의 설계 및 모형 / 373
2. 실증분석결과 / 374
3. 연계화 전략 방안 / 378

제5장 결론 ····· 384

■ 참고문헌 / 386

요 약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와 개발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정책개발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적 특색 및 특성을 가진 관광문화 자원의 적극적 발굴 및 관광상품화의 지역적 특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기반산업과 경제구조의 취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경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 내륙권에 위치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영주, 안동, 문경, 상주는 여러 가지 양질의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2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북부 거점도시간의 연계관광개발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연계관광개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연구수행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연계관광개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관광제도, 관광자원, 관광시스템, 관광재원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요관광거점인 4개 도시(문경, 상주, 안동, 영주)의 연계화 방안으로 연계화를 통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관광제도적 연계화 전략방안이 필요하다.

관광제도적 연계화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연계관광개발업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기구의 도입과 연계화를 위한 관광정책에 있어서 연계도시별 지역 관광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관광 특성화 전략을 위해 연계도시 특유의 환경·문화·역사에 중점을 둔 개

발정책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연속성,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며, 정책적 금융지원의 법제화, 지역민의 복지 및 이익에 우선하는 관광관련 법제의 확립, 연계관광개발(조직, 지원활동 등)을 위한 시 조례의 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관광자원의 연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문경·안동·영주·상주는 경상북도 북부 내륙에 위치하여 많은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산악자원을 이용하여 관광농장, 관광목장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농장체험, 환경생태학교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학습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안동댐, 임하댐, 경천댐과 같은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레저·스포츠 분야 상품개발, 테마형 문화관광상품개발, 전통음식, 술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관광시스템의 연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시스템에서는 관광교통은 다양한 연계교통수단의 개발 및 운영, 효율적인 역내교통·역간교통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실제 관광에서 교통은 관광객들의 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자원과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교통여건이 떨어지면 결국 매력성이 상실되어 관광 발전을 위한 수요의 창출이 어렵게 된다.

우선 지역내의 관광지와 4개 도시간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기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요금체계는 pass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범위를 확대시켜 4개 도시로의 접근이 가능한 타 교통수단(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과 관광지간의 교통을 연계한 연계교통시스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관광정보에서는 첨단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연계관광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4개 도시와 주민을 연결하는 관광행정 연계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4개 도시의 관광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통합 홈페이지구축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상세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3차원 또는 가상현실(VR)보기 등을 통하여 4개 도시의 현재와 문화재, 유물 및 유적 등을

안내함으로써 역사문화와 관광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직접 방문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4개 도시 관광업체와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격표 및 예약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서 사이버상에서 예약자 인증을 바탕으로 직접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광홍보에 있어서는 4개 도시는 관광홍보매체의 다양화, 홍보를 위한 전문 부서 및 인력확보, 홍보를 위한 외국의 여러 도시와의 교류 확대, 관광이벤트를 통한 홍보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4개 도시가 연계한 국내·외의 관광이벤트를 통해서 홍보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관광이벤트는 잠재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자극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제적·비경제적 파급효과의 수혜를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고양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관광시설에 있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 청소년 및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위한 수용시설, 실버타운개발, 요양관광을 위한 의료시설 및 서비스개발, 지역특화 숙박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4개 도시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텔과 콘도미니엄과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관광호텔이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규모로 영세하며, 서비스 수준 또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실버타운, 요양시설개발로 특수계층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4개 도시에 산재한 종가집, 고택, 서원 등을 지역특화 숙박시설로 이용하여 문화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광재원의 연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연계개발의 성패는 재원의 조달과 관리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가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역의 세수입만으로는 관광개발을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인 재정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방안(지방 관광세 신설, 지방 관광복권 발행, 지방채 발행, 지역관광개발기금 설

치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연계개발을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외자유치에 있어서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4개 도시가 연계관광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기업에게 세제 혜택, 행정규제 완화,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외 공공부문에서 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관광관련 사업은 특성상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크며,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참여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확대를 위해 4개 도시는 우선적으로 민자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인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여야 한다.

우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각종 인·허가의 간소화, 연계관광개발에 관련된 정보 제공, 국·공유지 매각 미 임대시 우선권 부여, 민자유치 전담 부서의 설립을 통한 홍보 및 지원 강화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종 개발기금·정부보조금의 우선 지원, 관광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의 융자알선 등을 제공하며, 셋째,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공공·민간부문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연계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른바 제3섹터 개발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연계관광개발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경영능력 및 전문인력이 부

족하여 민간자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부문도 신규 투자대상의 확보가 필요하고, 단독개발에 따른 행정규제 및 인·허가의 복잡함과 장기화에 대한 혜택 및 개발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자본부족·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업 이미지 제고효과 때문에 공공부문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연계관광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과 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념과 목표로 인한 대립, 경영권 문제, 특혜 등과 같은 단점을 잘 해결한다면 많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화, 남북교류의 확대 등 새로운 환경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속교통망의 확충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중앙정부에만 의존해 오던 지역경제와 개발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역의 개성화, 다양화, 역사성 및 문화성[1]이 중요시되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정책개발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적 특색 및 특성을 가진 관광문화 자원의 적극적 발굴 및 관광상품화의 지역적 특화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기반산업과 경제구조의 취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경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경상북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9.6%[2]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6.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1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경상북도 북부 내륙권에 위치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영주, 안동, 문경, 상주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 미만[3]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주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과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 유교문화중심의 문화관광도시로 강원권과 충청권을 연

1) Markusen, A., Profit Cycles, Oligopoly, and Regional Development(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9.
2) 통계청, KOSIS, 2005.
3) 정자립도는 영주 17.7%, 안동 16.7%, 문경 15.2%, 상주 13.6%로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서 각 7·8·9·1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며, 안동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속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진 도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대변하는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주는 경상북도 서북쪽의 내륙에 위치하여 중부지방과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북부지역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경은 지역기반산업이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열악한 상태였으나 1996년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관광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여러 가지 양질의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자원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잠재적 혹은 현재적인 특성에 따라 그 유효적절한 관광이용의 확대를 도모함을 의미하는 것[4]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으로는 영주, 안동, 문경, 상주를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거점도시로서 거시적으로 중부내륙권을 연계한 거점도시로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인지하여 북부 거점도시간의 연계관광개발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연계관광개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연구수행의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지역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거점도시인 영주, 안동, 문경, 상주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제1장은 본 연구의 수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연계개발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계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대상지역인 영주, 안동, 문경, 상주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연계관광개발지역으로 설정하게 된 근거와 이 지역이 지니

4) 신동주, 지역관광개발론, 대왕사, 2002, p.30.

고 있는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4개 도시의 연계개발에 대한 실증조사·분석으로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및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의 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관광 및 연계개발 등에 관한 저서, 연구논문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설정하고 둘째, 연구대상도시의 연계관광개발에 관한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대상지역과 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셋째, 연계관광개발 영향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설문항목을 설정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광관련 공무원, 관광관련학자, 지역 관광관련업체,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1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인구통계적 특성을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연계개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영향요인이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연계관광개발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고 주5일제 근무와 같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광욕구가 다양해져 레저뿐 만이 아니라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욕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즉 지역의 범위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초점을 두고, 정책위주의 개발을 추진하며, 지역성을 강조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하는 개발[5]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development)은 일종의 변화로 상향적이고 소망스러운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만, 기치판단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는 현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6] 즉, 개발을 발전적 변화과정으로 볼 때 증대(increase)와 확대(expansion)를 포함하는 성장[7]과 질적 변화의 발전을 의미한다. 성장은 발전과 구분되는데 성장이 양적 측면의 변화라면, 발전은 양적 변화를 포함하는 동시에,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전이 경과된 정태적 상태를 의미한다면, 개발은 이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의도적·계획적 모든 활동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8]

그러나 지역과 같은 공간영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쇄신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계획적인 과정[9]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개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관광개발이다.

관광개발은 지역을 기초로 해서 지역의 자원, 지역산업, 생활 및 환경여건에 이르기

5) 박종화 외2, 지역개발론, 박영사, p.7.
6) 김홍운·김사형,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7, p.13.
7) Isard, Walter,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Englewood Cliff :Prentice-hill, 1975, pp.372-375.
8) 신동주, 지역관광개발론, 대왕사, 2002, p.25.
9) 정지웅·임상봉, 지역사회개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38-40.

까지 현재 수준보다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관광개발을 통해 불리한 자연조건을 유리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며,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10]함으로써 지역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관광개발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조건이 따른다. 특히 지역주민, 관광객, 지방정부, 관광기업, 다자간의 상호이익이 동시에 고려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는 복합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11]

이러한 의미에서 연계관광개발은 지역과 관광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역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역산업 및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총체적인 계획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라마다 지역정책의 목표가 다르고 또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관광개발도 연구의 초점과 연구의 범위에 따라서 그 영역도 변화하는 것이며,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개념을 논하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연계관광개발에서 지역은 가장 중요한 기본단위이면서 기준이 된다. 지역개발은 지역공간에서의 인간 삶의 상향적 발전에 관여하는 만큼 내용이 포괄적이고 다루어야할 대상도 광범위하다.[12]

따라서 연계관광개발의 목표는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과 지역관광기업의 경제·사회·문화적 편익의 극대화와 지역관광자원의 가치 증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지역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국민들의 관광욕구의 증가로 획일적인 관광지를 벗어나 차별화된 관광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연계관광개발

10) 김진섭, 관광학원론, 대왕사, 1999, p.382.
11) 정홍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태백권의 지역관광개발 촉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34.
12)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6권, 제2호, 1994, pp.23-24.

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개발로 지역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기존의 일반관광개발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반관광개발과 연계관광개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개발목표에 있어서 일반관광개발은 고용창출, 세수증대,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연계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간의 균형적인 소득증대,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개발주체가 되어, 국토 전체 관광개발보다는 하위에 있고 도시지역단위 및 지구단위의 관광개발보다는 상위에 있으며 부분적 관광개발이나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개발[13]인 지역관광개발에 기초를 두고 연계관광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일반관광개발은 주로 민간 대기업이 중심이 된 대규모·집중적인 개발의 의미가 강하다.

〈표 1〉 일반관광개발과 연계관광개발의 차이점

구 분	일반관광개발	연계관광개발
개발목표	·관광객 만족 ·고용창출 ·세수증대 ·기반시설확충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간 균형적인 소득증대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간의 갈등해소 ·정체성, 자부심고취
개발주체	·국가·공공단체 ·민간사업자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역공공단체 ·지역주민, 지역(향토)기업
개발대상	·뛰어난 자연경관자원 ·온천 ·문화유적, 지정문화재	·지역 고유의 환경·문화 : 기후, 자연환경, 풍습, 생활, 축제 ·산업 : 농업, 수산업, 임업, 목장 ·지역단위 관광개발
개발내용	·관광시설 : 스키장, 골프장 ·숙박시설 : 호텔, 콘도 ·편의시설 : 수영장, 슈퍼마켓	·생산기반시설·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최소한의 관광객 편의시설 ·지역 특산품개발 및 판매
개발성격	·대규모, 집중적, 고밀도 ·자연파괴적 개발 ·단기적 개발	·소규모, 분산, 저밀도 ·환경 친화적 개발 ·장기적 개발
시장성격	·대규모 시장 ·하나의 지배적인 표적시장 ·높은 계절성	·소규모 시장 ·특정지배시장·계절성 없음

13) 김창수,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Vol.4, 1994, p.100.

개발대상에 있어서 일반관광개발은 뛰어난 자연경관자원, 온천, 문화유적,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면 연계관광개발은 지역 고유의 환경·문화 및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관광개발의 성격을 보면 일반관광개발은 대규모, 집중적, 고밀도, 자연파괴적 개발, 단기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면 연계관광개발은 소규모, 분산, 저밀도, 환경 친화적 개발, 장기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연계관광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 주도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연계지역내 관광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국가 상위개발계획의 개발대상요소인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요소 등을 전부 대상으로 하여 상호 보완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의 천연자원,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넷째, 연계관광개발로 인해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연계하여 공동 마케팅을 폄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상향식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14], 선정된 사업이나 목표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연계관광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이점으로는 첫째, 고용증대를 가능하게 하며, 둘째, 지역경제에 소득분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넷째, 지역소득과 고용의 불균형을 시정시켜 준다. 그 이유는 관광객이 주로 집중하는 지역은 주요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부터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관광유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여섯째, 지역 조세수입의 증가를 가능케 하며, 일곱째, 외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높여 주므로 외부로부터 투자증가를 촉진한다.

메치슨과 월(Mathieson & Wall)은 관광산업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경상수지의 균형발전과 소득증대, 고용의 창출, 조세수입의 증가 등이라고 하였다.[15] 이와 같은 경

14) 황명찬,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법문사, 1989, p.62.

제적 이점에 추가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발전의 촉진,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의 효과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관광기초부문인 운송·숙박·식음료서비스·오락 등의 발전이다. 이런 것들은 관광산업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준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도입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유발, 이익의 외부유출, 계절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복현상, 비수기의 실업상태 등으로 인한 영향과 모방심리에 의한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등을 초래[16]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아울러 정보화·산업화·도시화는 국민들의 레저욕구를 증가시켜 획일적인 관광지를 벗어나 차별화되고 독특한 문화체험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관광욕구에 부합하는 관광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연계관광개발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개발로 지역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기존의 일반관광개발과는 차이가 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관광개발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로 이장춘[17]은 2012년 한반도 통일시점과 연계하여 제주관광 개발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송악산 개발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관광개발·관광정책·관광계획에 대한 순기능 관계와 갈등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제주를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설정하고 있다.

이재섭[18]은 설악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한 정책적 대안과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살린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자연자원을 토대로 한 다양한 관광코스, 관광기반시설의 구축을 추진하고 관광개발시 지역주민 참여형태의 관

15) A. Mathieson & G. Wall, Tourism : Economic, Physical Impacts, Longman Inc., 1982, p.3.
16) J. Jafari, Understanding Socio-Cultural Structure of Tourism on its Effects, 1985, 한국관광학회 강연원고, p.33.
17) 이장춘, “제주 관광개발의 전략”, 한국관광정책학회 관광정책학연구, Vol. 7, No.3, 2001.
18) 이재섭, “환동해권시대의 설악산관광진흥 모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광진흥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홍윤[19]은 관광개발시 가장 큰 장애요인인 투자재원조달에 있어 지역관광개발과 투자재원조달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투자재원조달여건과 조달방향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여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개발시 합리적이고 유용한 투자재원 조달방안으로 관광진흥기금의 재원확충, 관광행정예산의 확충과 지역관광개발기금의 설치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창수[20]는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개발 환경속에서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응하는 지역관광개발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지역관광개발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관광개발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과 관광의 개념정립, 지역관광개발이론, 지역관광개발방식, 지역관광개발행정영역을 고찰하고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연적 환경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관광환경요인, 관련법제고 요인과 그 인자를 분석한 결과 그 지역사회를 특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광개발의 수립, 개발기술 및 기법의 도입, 환경보전 및 생태계 파괴대안 연구, 지역산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승담·조광익[21]은 지역관광개발과 거점개발전략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거점개발전략의 근간이 되는 성장거점이론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하여 성장거점전략의 일반적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관광개발과 연계해서 거점개발전략의 의의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거점개발전략을 강원도 지역 관광개발에 적용해 봄으로써 거점관광개발전략의 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최해수·김충기[22]는 지역 관광개발을 행정·법규·금융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현행 관광개발 관련 행정·법규·금융세제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개발과 지역관광개발의

19) 이홍윤 “지역관광개발 투자재원조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8호, 2000.
20) 김창수,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논문집, Vol.4, 1994.
21) 최승담·조광익, “지역관광개발과 거점개발전략 : 강원도 지역에의 적용”, 한국관광개발학회 관광개발논총 6-1, 2002, pp.171-187.
22) 최해수·김충기,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행정·법규·금융세제 개선 방안 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Vol.6, No.1, 1997, pp.189-216.

이론적 연구와 우리나라 지역개발과 관광정책을 통해 현행 관광관련 행정·법규·금융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송광인[23]은 한국과 일본의 그린 투어리즘의 형성과정을 분석해서 그린 투어리즘에 의한 관광개발과 지역진흥에 관한 방안을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린 투어리즘에 의한 지역활성화의 문제점인 관광객의 비숙박, 관광루트의 형성문제, 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의 소프트 개발문제, 농업경영자의 노령화 문제 등을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숙박시설의 건설을 통한 체재관광형으로의 전환, 주변 관광 포인트와의 연계에 의한 관광루트형성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oniface와 Cooper[24]는 관광자원 지리학적 입장에서 관광개발의 결정적 요인은 기후와 물리적 환경이라고 밝히고, 지방수준의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접근성이라고 강조하였다.

Murphy[25]는 관광개발과 지역사회가 상호공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모형에 따른 지역사회지향 접근방법에 의해 지역관광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역관광개발의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가 전제될 때 지역관광계획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eongh[26]는 지역관광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관광정보가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관광정보는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역관광개발계획의 공개성을 강조하였다.

Bale[27]은 지역관광개발의 국가적 관심에 따른 정치·경제적 접근과 관광수요, 관광지 특성, 방문객 특성, 관광개발의 영향과 관련된 기능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Lickorish[28]는 지역관광개발전략에서 정부의 역할을 행정이나 제도, 교육훈련 등의

23) 송광인, “그린 투어리즘을 통한 관광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4권 제2호, 2002, pp.121-142.

24) Boniface B. G. and C. P. Cooper, The Geography of Travela & Tourism London :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Ltd., 1988.

25) Murphy, P. E. Tourism as a Community Industry : An Ecological Model of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Vol.9, No.2, 1988.

26) Keongh, B. Public Participation in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7, No.3, 1990.

27) Bale, J. Tourism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 Routledge, 1988.

소극적 형태와 경영관리적 입장에서의 개발주체로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로 구분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분리하는 방어개발과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개발로 구분하였다.

Inskeep[29]은 피드백(feedback)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개발방침을 개선할 수 있는 연속성, 점진적 접근과 관련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체계적 접근, 자원의 손상없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환경보전적 접근, 주민의 의사와 참여, 이익환수 등의 지역사회 접근, 현실적 실행의 실행적 접근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Lewis 와 James[30]는 지역관광개발의 개발과정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지역관광개발이 매력적인 이유와 지방관광사업개발의 대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Weaer와 Wishard-Lambert, Virginia[31]는 미국 각지에서 지역관광개발에 의한 공원 미레크리에이션 부문의 기회를 다루고 있으며, 특별 이벤트 및 운동경기대회를 포함한 관광사업 프로젝트, 공식 관광단체와 리더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

28) Lickorsh, L. J. Developing Tourism Destination : Policies and Perspectives. London : Longman, 1991, pp.61-77.

29) Inskeep, E. Tourism Planning :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ＶＮＲ, 1991, pp.29-32.

30) Lewis & James B.,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5, Issue.3, 1997, pp.33-40.

31) Weaver & Wishard-Lambert, Virginia, “Community Tourism Development : An Opportunity for *Park and Recreation* Development,” Parks & Recreation, Vol.31, pp.78-83.

제3장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분석

1. 연구대상지역의 설정

기존의 지역관광개발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국민들의 관광·레저에 대한 욕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역개발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연계관광개발을 통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색과의 결합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인 영주, 안동, 문경, 상주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중심거점도시로서 유교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유교문화와 청정자원이 어우러진 한국적 문화 정체성을 구현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의 입지적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안동과 영주를 거점으로 유교·전통문화와 산악·온천·약수·호수자원이 연계된 한국적인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고, 둘째, 소백산, 청량산, 문경새재 등 풍부한 산림과 계곡자원을 활용한 산악형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며, 셋째, 안동·임하·경천댐 등 낙동강 유역의 수변자원과 주변 산악자원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 개발의 최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안동, 영주, 문경, 상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 및 친 환경적 문화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하며, 다섯째, 파급효과가 큰 유교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주제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체험관광, 주제가 있는 관광, 교육적 관광, 가족형 관광루트 개발이 가능하며, 여섯째, 고가, 종택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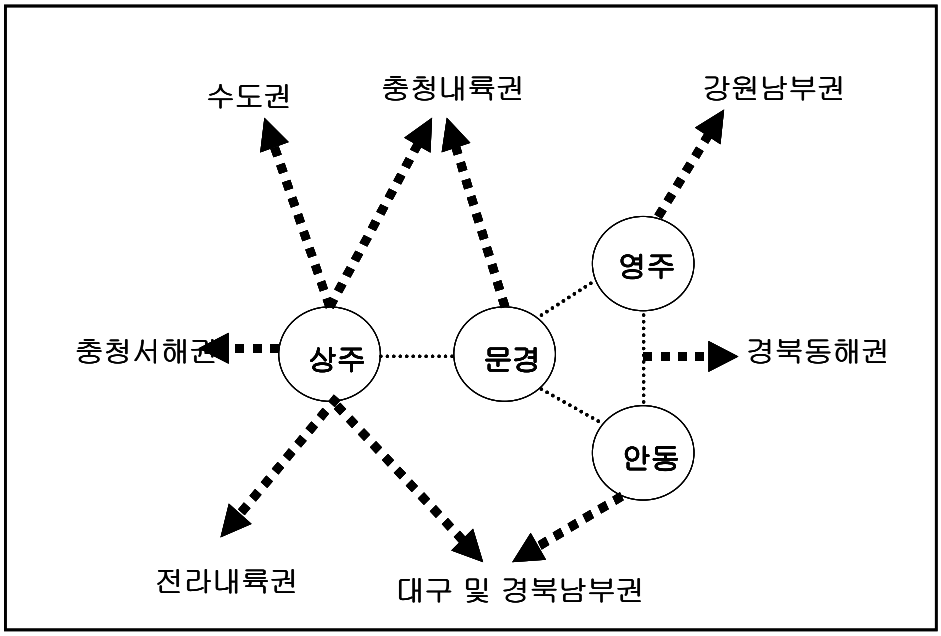
이러한 양질의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연계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문경, 안동, 영주, 상주를 본 연

구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안동, 영주, 문경, 상주지역으로서 중심도시와 배후도시, 관광거점과 관광지간의 자연·문화 탐방과 휴양·위락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관광루트를 설정하고, 관광활동의 선호도에 따라 목적 관광루트와 일반관광루트를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에 연계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지역별 관광 잠재력을 발굴하여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광역 교통망체계에 따라 형성된 광역 관광축을 중심으로 지역간·관광지간의 연결성을 감안하고 관광자원의 특성과 주변관광자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안동, 영주, 문경, 상주지역의 연계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지간의 연계 개념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4개 도시 연계화 개념

상주와 문경을 중심으로는 수도권, 대전, 충주, 청주의 충청권, 김천, 구미와 연결되며 경북 내륙권과의 축을 이루며, 안동은 대구광역권, 경주·포항·영덕 등의 동해권, 영주는 단양·제천을 중심으로 한 중부 내륙권, 태백, 영월을 잇는 강원권과 축을 이루고 있다.

2. 관광자원현황

1) 자연공원 현황

4개 도시의 자연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국립공원 3곳, 도립공원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이 상주와 문경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영주에는 소백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도립공원으로는 안동에 청량산 도립공원, 문경에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표 2〉 자연공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영 주	안 동	문 경	상 주
국립공원	1	-	1	1
도립공원	-	1	1	-
군립공원	-	-	-	-

2) 관광(단)지 현황

4개 도시의 관광지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04년을 기준으로 문경이 문경온천, 상리, 진남교반, 가은, 새재, 쌍용계곡을 포함한 6개소, 안동이 도산온천, 하회, 안동문화단지 등의 3개소, 영주가 순흥, 풍기온천, 영주부석 등 3개소, 상주가 경천대, 문장대온천, 용유계곡 등 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3〉 4개 도시의 관광지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영 주	안 동	문 경	상 주
관 광 지	순 흥 풍기온천 부 석	도산온천 하 회 안동문화단지	문경온천 상 리 진남교반 가 은 새 재 쌍용계곡	경 천 대 문장대온천 용유계곡
계	3	3	6	3

자료 : 4개 시 관광통계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2004년말 현재 경상북도내 관광(단)지는 총 54개소로 경주, 포항 등 5개 시·군을 포함한 동부연안권에 12개소, 김천, 경산 등 8개 시·군을 포함한 남부도시권에 14개소, 그리고 안동, 문경 등 9개 시·군을 포함한 북부자원권에 28개소가 있다. 이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상주, 문경, 안동, 영주에는 총 15개의 관광(단)지가 있어 북부자원권 전체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3) 문화재 현황

4개 도시의 문화재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2005년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인 국보는 영주가 7점, 보물은 안동이 34점, 사적은 영주가 3곳, 천연기념물은 안동이 6점, 중요민속자료는 안동이 25점, 무형문화재는 안동이 2점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지정 문화재로 유형문화재는 안동이 63점, 기념물은 상주가 19점, 민속자료는 안동이 45점, 문화재자료는 안동이 73점으로 가장 많이 분포 및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현황에서 안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문화지역답게 가장 많은 275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경이 52점으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적게 지정되어 있다.

〈표 4〉 4개 도시의 문화재현황

(단위 : 점, 개)

구 분		영 주	안 동	문 경	상 주
국 가 지 정 문화재	국보	7	4	-	-
	보물	21	34	8	14
	사적 및 명승	-		-	-
	사적	3	2	1	-
	천연기념물	3	6	3	2
	중요민속자료	1	25	-	-
	중요무형문화재		2	2	
소 계		35	73	14	16
지 방 지 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26	63	13	14
	기념물	4	16	6	19
	민속자료	7	45		7
	무형문화재	1	5	2	1
소 계		38	129	21	41
문화재자료		24	73	17	18
합 계		97	275	52	75

4) 관광객 현황

4개 도시의 관광객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2003년을 기준으로 내국인 관광객은 문경 2,671,819명, 안동 2610,679명, 영주 1,746,208명, 상주 516,642명이 방문하였으며, 이중에서 문경을 방문한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보면 안동이 49,730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였는데 이는 매년 거행되는 안동국제 탈 페스티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4개 도시의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년			2003년			증감율 (%)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안동시	2,610,759	2,566,731	44,028	2,660,409	2,610,679	49,730	2
영주시	1,402,843	1,401,251	1,592	1,749,599	1,746,208	3,391	25
상주시	584,466	584,118	348	516,711	516,642	69	-12
문경시	3,405,930	3,405,516	414	2,673,721	2,671,819	1,902	-21

자료 : 4개 시 관광통계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4개 도시의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영주가 전년도 대비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안동이 2% 증가하였다. 반면 문경과 상주는 각각 21%,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5) 관광사업체 현황

4개 도시의 관광사업체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2004년을 기준으로 일반여행업은 상주가 2개 업체이고 나머지 도시는 전무한 상태이고 국외여행업은 안동이 14개 업체, 국내여행업 16개 업체로 가장 많다.

관광호텔은 문경이 3개, 안동이 1개, 영주가 1개소가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포함한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기존의 숙박시설도 소규모로 전반적인 숙박시설 및 규모가 4개 지역 모두 상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주요 관광사업체는 4개 도시 모두 전무한 실정이다.

〈표 6〉 4개 도시의 관광사업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안 동	영 주	상 주	문 경
일반여행업	-	-	2	-
국외여행업	14	5	3	4
국내여행업	16	6	9	4
관광호텔	1	1	-	3
국민호텔	-	-	-	-
휴양콘도미니엄	-	-	-	-
가족호텔	-	-	-	-
한국전통호텔	-	-	-	-
자동차영업장	-	-	-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	-	-
전문휴양업	-	-	-	-
종합휴양업	-	-	-	-
관광유람선업	-	-	-	-
관광공연장업	-	-	-	-
관광유흥음식점업	3	1	-	1
관광식당업	-	-	-	1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
국제회의용역업	-	-	-	-

자료 : 4개 시 관광통계자료를 기초로 연구자 작성

제4장
연계개발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설계 및 모형

본 장에서는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인 안동, 영주, 문경, 상주 4개 도시를 대상으로 관광연계화 방안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조사를 위해서 관광연계화요인 변수를 관광제도, 관광자원, 관광시스템, 관광재원으로 설정하여 요인변수가 관광연계화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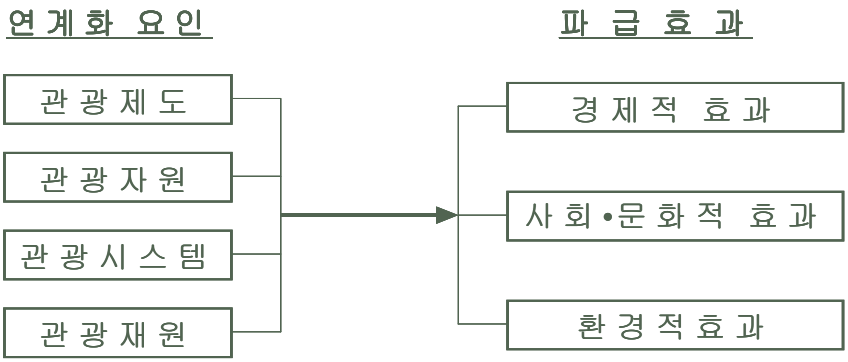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본 집단을 관광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광관련 전문가 집단으로는 실질적 지역의 정책입안자인 지방자치단체(안동·영주·문경·상주)의 관광행정관련 공무원, 관광관련업계와 학계 전문가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설문조사에서는 리커트(Likert) 5점척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연구자 본인이 조사의 목적과 설문지 개요를 설명한 조사자들에 의해 배포·회수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들은 후에 설문지에 나타난 지시어를 바탕으로 자기기입법(self-administed questionare survay method)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005년 10월17일부터 10월22일까지 6일간에 걸쳐 4개의 연구대상 지역에 각 25부씩 총 100부를 배포하여 100부를 회수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설문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Reliability)을 실시하고, 연계화 요인변수를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연계화 요인이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실증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가 89%(89명), 여자가 11%(11명)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 47%(47명), 40~49세가 33%(33명)순으로 30~40대가 전체의 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대졸이 전체 54%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관광관련업의 근무 년 수는 6~10년이 36%(36명), 11~15년이 27%(27명)로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내 용	빈 도 (명)	비 율 (%)
성 별	남 성	89	89
	여 성	11	11
연 령	29세 이하	5	5
	30 - 39세	47	47
	40 - 49세	33	33
	50 - 59세	14	14
	60세 이상	1	1
학 력	고 졸	1	1
	전문대졸	12	12
	대 졸	54	54
	대학원 이상	33	33
소 속	지자체 관광관련 공무원	21	21
	관광관련 교수 및 연구원	45	45
	관광관련업체	34	34

관광관련 근무 년 수	5년 이하	14	14
	6-10년	36	36
	11-15년	27	27
	16-20년	18	18
	21년 이상	5	5
근 무 지 역	문 경	25	25
	안 동	25	25
	영 주	25	25
	상 주	25	25

2) 연계화 요인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와 같이 분석되었다.

〈표 8〉 연계화 요인분석결과

설 문	요 인 명				α 계수
	관광제도	관광자원	관광시스템	관광재원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896				.938
연계개발시 행정절차의 간소화	.840				
연계개발 업무를 위한 독립기구의 신설	.839				
연계도시별 관광특화전략과 정책	.830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부여	.788				
연계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777				.905
관광개발에 따른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701				
연계개발시 지역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관련법제의 확립	.685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이 필요		.781			
테마형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776			
지역특산물 및 토산품의 관광상품연계의 필요		.768			
친환경 생태계중심의 체험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744			.927
지역의 전통산업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706			
지역특화 숙박시설개발이 필요		.605			
다양한 연계교통수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871		
연계관광 서비스 시스템 구축			.841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			.783		.927
관광행정연계 시스템이 필요			.753		
효율적인 역간교통 개발 및 운영			.655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				.820	
연계개발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787	
연계개발시 민간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유도가 필요				.746	
연계개발 투자시 세재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의 확대가 필요				.711	
연계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				.799	
아이겐값	8.791	3.133	1.162	1.042	
분산비율(%)	51.712	18.430	6.837	5.954	
누적분산비율(%)	51.712	70.142	76.979	82.933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인 회전방식은 직각회전의 한 방식인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을 분석한 결과 관광제도, 관광자원, 관광시스템, 관광재원과 같이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관광제도는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연계개발시 행정절차의 간소화, 연계개발 업무를 위한 독립기구의 신설, 연계도시별 관광특화전략과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부여, 연계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관광개발에 따른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계개발시 지역민의 이익에 우선하는 관련법제의 확립 등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비율이 51.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관광자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이 필요, 테마형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지역특산물 및 토산품의 관광상품연계의 필요, 친환경 생태계중심의 체험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지역의 전통산업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 지역특화 숙박시설개발이 필요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18.430%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인 관광시스템은 다양한 연계교통수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연계관광 서비스 시스템 구축, 특수계층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 관광행정연계 시스템이 필요, 효율적인 역간교통 개발 및 운영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6.837%의 설명력을, 네 번째 요인인 관광재원은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보장, 연계개발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연계개발시 민간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유도가 필요, 연계개발 투자시 세재혜택 등의 인센티브제도의 확대가 필요, 연계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 등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5.954%의 분산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검정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 계수가 관광제도 .938, 관광자원 .905, 관광시스템 .927, 관광재원 .9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연계개발요인과 파급효과간 영향분석

연계개발요인이 파급효과인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은 .298, 회귀분석 모형의

검정통계량인 잔차분산과 설명된 분산의 비를 나타내는 F 값은 2.692이며, 유의확률은 관광제도가 .048, 관광자원 .017, 관광시스템이 .033, 관광재원이 .0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효과에는 관광자원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관광시스템, 관광재원, 관광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개발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9〉 연계개발요인과 경제적 효과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관광제도	경제적 효과	.283	.145	.300	1.955	.048
관광자원		.327	.131	.347	2.497	.017
관광시스템		.309	.140	.328	2.212	.033
관광재원		.346	.163	.289	2.114	.041
R2 = .298 F = 2.692						

주 : p < 0.05

연계개발요인이 파급효과인 사회·문화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R2 은 .298, F 값은 3.342이며, 유의확률은 관광제도가 .027, 관광자원 .032, 관광시스템이 .029, 관광재원이 .0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효과에는 관광제도, 관광시스템, 관광재원, 관광자원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민에게 관광정책으로 인한 불편이나 민원을 해소시켜줌으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연계개발요인과 사회・문화적 효과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관광제도	사회·문화적 효과	528	.229	.439	2.306	.027
관광자원		.517	.233	.430	2.222	.032
관광시스템		.528	.232	.439	2.275	.029
관광재원		.515	.230	.428	2.237	.031
R2 = .298 F = 3.342						

주 : p < 0.05

연계개발요인이 파급효과인 환경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11>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R2 은 .458, F 값은 5.358이며, 유의확률은 관광제도가 .010, 관광자원 .004, 관광시스템이 .015, 관광재원이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효과에는 관광자원와 관광재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자원은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보전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양자 어느 측면이든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되는 바 환경적 효과에서 관광자원과 재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연계개발요인과 환경적 효과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관광제도	환경적 효과	.431	.160	.409	2.697	.010
관광자원		.435	.143	.403	3.033	.004
관광시스템		.319	.125	.344	2.553	.015
관광재원		.436	.145	.410	3.066	.004
R2 = .458 F = 5.358						

주 : p < 0.05

3. 연계화 전략 방안

본 연구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요관광거점인 4개 도시(문경, 상주, 안동, 영주)의 연계화 방안으로 연계화를 통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관광제도

본 연구의 목적인 주요 관광거점의 연계화는 지역사회를 기본 단위로 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벨트화하여 개발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힘으로써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 4개 도시의 관광제도 연계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관광제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조례제정 등) 부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제도,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강화, 관광지 관리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광산업을 육성·발전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정부주도의 관광개발정책으로 인한 관광제도에 대한 자율성의 부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광제도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어진 후에 세부적으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 관광지 관리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 등을 구체화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계관광개발업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기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바람직한 연계관광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계관광개발을 전담하여 연계관광개발업무의 지원, 지역특화상품개발,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수적이다.

셋째, 연계화를 위한 관광정책에 있어서 연계도시별 지역 관광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관광 특성화 전략을 위해 연계도시 특유의 환경·문화·역사에 중점을 둔 개발정책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연속성,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문경, 안동, 영주, 상주는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매력성이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특성화 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계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의 법제화, 지역민의 복지 및 이익에 우선하는 관광관련 법제의 확립, 연계관광개발(조직, 지원활동 등)을 위한 시 조례의 제정 등 법제화의 필요성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에 대한 계획·개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적 근거는 거시적인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며 실제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개발에 대해 정책적으로 재정 및 업무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분

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세분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례 제정시 지역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충돌이나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광자원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대상물이자 관광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문경·안동·영주·상주는 경상북도 북부 내륙에 위치하여 많은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산악자원을 이용하여 관광농장, 관광목장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농장체험, 환경생태학교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학습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안동댐, 임하댐, 경천댐과 같은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레저·스포츠 분야 상품개발, 테마형 문화관광상품개발, 전통음식, 술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문경과 영주는 산악자원을 활용한 레저·스포츠분야 상품개발에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문경은 페러글라이딩, 경비행기, 산악자전거(MTB), 사격 등이 가능한 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국제 페러글라이딩대회,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폐철로를 활용한 철로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어 레포츠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안동은 대규모 인공호수(안동댐, 임하댐)가 위치하여 수상레포츠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홍보, 마케팅의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레포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문경·안동·영주·상주는 전통적인 문화·역사의 도시로 많은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어 문화관광상품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안동·영주는 경상북도 북부를 대표하는 유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유교적 전통문화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유교문화체험, 유교(문화)축제 등의 상품개발이 가능하다. 이와 아울러 문경은 역사적으로 영

남지방의 관문으로서 영주, 안동의 유교문화와 연계한 상품개발(과거길 재현 프로그램, 역마기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함께 발전한 지역음식과 술(헛제사밥, 안동소주, 호산춘, 풍기인삼 등)을 테마로 한 이벤트 상품(유교음식문화축제)의 개발이 가능하다.

3) 관광시스템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시스템에서는 관광교통은 다양한 연계교통수단의 개발 및 운영, 효율적인 역내교통·역간교통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실제 관광에서 교통은 관광객들의 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자원과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교통여건이 떨어지면 결국 매력성이 상실되어 관광 발전을 위한 수요의 창출이 어렵게 된다.

연계교통수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4개 도시를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의 개발이다. 우선 지역내의 관광지와 4개 도시간의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기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관광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요금체계는 pass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범위를 확대시켜 4개 도시로의 접근이 가능한 타 교통수단(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과 관광지간의 교통을 연계한 연계교통시스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관광정보에서는 첨단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연계관광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4개 도시와 주민을 연결하는 관광행정 연계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4개 도시의 관광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통합 홈페이지구축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상세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3차원 또는 가상현실(VR)보기 등을 통하여 4개 도시의 현재와 문화재, 유물 및 유적 등을 안내함으로써 역사문화와 관광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직접 방문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4개 도시 관광업체와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격표 및 예약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서 사이버상에서 예약자 인증을 바탕으로 직접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광홍보에 있어서는 4개 도시는 관광홍보매체의 다양화, 홍보를 위한 전문 부서 및 인력확보, 홍보를 위한 외국의 여러 도시와의 교류 확대, 관광이벤트를 통한 홍보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4개 도시가 연계한 국내·외의 관광이벤트를 통해서 홍보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관광이벤트는 잠재관광객의 방문동기를 자극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제적·비경제적 파급효과의 수혜를 통한 지역발전 효과를 고양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관광시설에 있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의 유치, 청소년 및 대규모 단체 관광객을 위한 수용시설, 실버타운개발, 요양관광을 위한 의료시설 및 서비스개발, 지역특화 숙박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4개 도시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텔과 콘도미니엄과 같은 대규모 숙박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관광호텔이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규모로 영세하며, 서비스 수준 또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실버타운, 요양시설개발로 특수계층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4개 도시에 산재한 종가집, 고택, 서원 등을 지역특화 숙박시설로 이용하여 문화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광재원

연계개발의 성패는 재원의 조달과 관리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가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역의 세수입만으로는 관광개발을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인 재정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방안(지방 관광세 신설, 지방 관광복권 발행, 지방채 발행, 지역관광개발기금 설치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연계개발을 위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외자유치에 있어서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4개 도시가 연계관광개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자유치를 확대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기업에게 세제 혜택, 행정규제 완화,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외 공공부문에서 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관광관련 사업은 특성상 초기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크며,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부문의 참여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계관광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의 확대를 위해 4개 도시는 우선적으로 민자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인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하여야 한다.

우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규제완화, 각종 인·허가의 간소화, 연계관광개발에 관련된 정보 제공, 국·공유지 매각 미 임대시 우선권 부여, 민자유치 전담 부서의 설립을 통한 홍보 및 지원 강화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각종 개발기금·정부보조금의 우선 지원, 관광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의 융자알선 등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공공·민간부문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효과적인 연계관광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른바 제3섹터 개발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연계관광개발이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경영능력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부문도 신규 투자대상의 확보가 필요하고, 단독개발에 따른 행정규제 및 인·허가의 복잡함과 장기화에 대한 혜택 및 개발규모의 거대화에 따른 자본부족·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업 이미지 제고효과 때문에 공공부문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하여 연계관광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과 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념과 목표로 인한 대립, 경영권 문제, 특혜 등과 같은 단점을 잘 해결한다면 많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제5장
결 론

본격적인 자방자치제실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정책과 개발이 지방정부의 큰 과제이며, 그 대안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관광산업육성으로 그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취약한 재정자립과 경제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경쟁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을 최대한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일환으로 연계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거점도시인 상주, 문경, 안동, 영주의 4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들 4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잠재력을 토대로 관광연계화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이드 라인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연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화 요인으로 관광제도, 관광자원, 관관시스템, 관광재원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권한 및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연계관광개발업무를 위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 기구의 도입, 연계도시별 지역 관광특성화 전략, 정책적 금융지원의 법제화, 지역민의 복지 및 이익에 우선하는 관광관련 법제의 확립, 연계관광개발(조직, 지원활동 등)을 위한 시 조례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관광자원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관광시스템에서는 교통, 관광정보, 관광홍보,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광재원은 정부가 재원조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체적으로 연계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연계화를 위한 민자 및 외자유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민자와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는 각종 규제완화, 인·허가의 간소화, 연계관광개발에 관련된 정보 제공, 국·공유지 매각 미 임대시 우선권 부여, 민자유치

전담 부서의 설립을 통한 홍보 및 지원 강화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적으로는 각종 개발기금·정부보조금의 우선 지원, 관광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신용보증 및 저금리의 융자알선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관광개발은 기존의 개념과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 지역이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상호 보완적 입장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러한 지역을 벨트화하여 연계함으로서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역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개발하여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총체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병호,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6권, 제2호, 1994.

김진섭, 관광학원론, 대왕사, 1999.

김창수, “지역관광개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논문집, Vol.4, 1994.

송광인, “그린 투어리즘을 통한 관광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4권 제2호, 2002.

이재섭, “환동해권시대의 설악산관광진흥 모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홍윤 “지역관광개발 투자재원조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8호, 2000.

정홍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태백권의 지역관광개발 촉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최승담·조광익, “지역관광개발과 거점개발전략 : 강원도 지역에의 적용”, 한국관광개발학회 관광개발논총 6-1, 2001.

최해수·김충기, “지역 관광개발을 위한 행정·법규·금융세제 개선 방안 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Vol.6, No.1, 1997.

황명찬,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법문사, 1989.

김홍운·김사형, 관광개발론, 형설출판사, 1997.

박종화 외2, 지역개발론, 박영사,2002.

신동주, 지역관광개발론, 대왕사, 2002.

정지웅·임상봉, 지역사회개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통계청, KOSIS, 2005.

국외문헌

Bale, J. Tourism and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 Routledge, 1988.

Boniface B. G. and C. P. Cooper, The Geography of Travela & Tourism London :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Ltd., 1988.

Inskeep, E. Tourism Planning : An Integrat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New York : ＶＮＲ, 1991.

Keongh, B. Public Participation in Community Tourism Plann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7, No.3, 1990.

Lewis & James B.,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5, Issue.3, 1997.

Lickorsh, L. J. Developing Tourism Destination : Policies and Perspectives. London : Longman, 1991.

Markusen, A., Profit Cycles, Oligopoly, and Regional Development(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Murphy, P. E. Tourism as a Community Industry : An Ecological Model of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Vol.9, No.2, 1988.

Weaver & Wishard-Lambert, Virginia, "Community Tourism Development : An Opportunity for Park and Recreation Development," Parks & Recreation, Vol.31,1990.

Isard, Walter, Introduction to Regional Science, Englewood Cliff :Prentice-hill, 1975.

연구자 소개

남 태 석(南泰錫)

▷ 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학박사)

주요 연구실적

- 제4회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평가보고서 (연구보고서)
- 문경시 정보화 기본계획 (연구보고서)
- 제5회 문경전통 찻사발축제 평가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38회 단종문화제 평가보고서 (연구보고서)
- 2004 소백산 철쭉제 평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 특1급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체인호텔 타당성 평가 (연구보고서)
- (주)티아라투어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 (주)호텔뱅크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 문경 휴양리조트 타당성 분석 (연구보고서)
- 관광도시의 관광자원· 상품연계 개발에 관한 연구(논문발표)

  외 다수

하 동 현(河東賢)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관광대학 교수
▷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주요 연구실적

- 관광학원론(저서)
- 여가와 인간행동(역서)
- 신관광사업론(저서)
- 호텔경영과 실무(저서)
- 호텔식음료경영론(저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전보경·성희자

목 차

■ 요약 / 391

제1장 서론 ····· 393
1. 연구의 필요성 / 393
2. 연구목적 / 396
3. 연구내용 및 방법 / 397

제2장 공동체 의식과 지역발전 ····· 401
1.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 / 401
2. 공동체 의식과 지역발전 / 402

제3장 예천지역의 공동체의식과 특성 ····· 414
1. 예천지역 현황 / 414
2. 예천지역 특성 / 417
3. 지역공동체 의식 / 420

제4장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 전략 ····· 425
1.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 기본 방향 / 425
2. 공동체 기반형 지역활성화 전략 / 427

제5장 결론 및 제언 ····· 431
1. 주요내용 요약 / 431
2. 제언 / 432

■ 참고문헌 / 434

■ 부록 / 436

요 약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과 지방의 낙후성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어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의 지방분산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는 지속되었고, 특히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지방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수도권과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방의 분권화와 재정이양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자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간의 격차는 정치경제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기대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탐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농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유출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도시는 녹지가 줄어들고 있고,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그린투어리즘이 농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은 국토를 유지·관리하며 천연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민속 및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그리고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촌과 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된 경상북도 북부권인 예천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성비는 남녀 1:1의 비율이었다. 연령상의 인구구조는 농촌이 대부분 동일한 특성을 가지듯이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2)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높았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절대적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타지역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공동체 의식수준이 높았다.

3) 예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민의식, 마을입지조건, 지도자의 지도력, 정부의 지원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발전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 즉 합의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지역 발전을 위한 출자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체의식이 지역발전을 위한 행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역량축적과 체제혁신 그리고 성공적인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도시민의 욕구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형서비스뿐만 아니라 무형의 부가적 서비스를 원활케 하여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적절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예천지역의 회룡포마을과 금당실마을의 '녹색농촌체험'의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적, 지리적,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 함께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하여 지역이 고유성과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한 방문객을 확보하고 재방문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정비와 같은 제반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관광과 더불어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역의 발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활동의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파트너쉽의 형성없이는 불가능하다. 체계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리더를 양성하고 주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촌의 복지문제가 정책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에서 그 기저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복지증진이나 개발사업이 부락단위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부락민의 태도나 행동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태도나 행동은 우리의식(we-feeling)과 부락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농촌의 지역사회개발은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동이 중요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나타내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성과 지방의 낙후성이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은 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의 지방분산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평등문제는 지속되었고, 특히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지방경제가 전반적으로 쇠퇴하여 수도권과의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제반 삶의 기회 및 기반시설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다(박양호, 2001).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자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방의 분권화와 재정이양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있지만 소수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간의 격차는 정치 경제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기대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활발하게 탐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개발사업은 중앙정부가 특정 농촌개발사업을 정책화하고 사업의 추진도 중앙정부의 지시와 지침에 의한 하향식 개발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농촌개발

의 방향은 도시적 편의성을 농촌에 전파하고 이식하는데 치중함으로써 농촌이 지니고 있는 다원적 기능인 자연환경의 보전, 전통문화와 계승, 관광 및 휴식의 장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박대식, 2000;118).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박덕병(2002)의 연구에 의하면 그린투어리즘의 개발방식을 지역사회개발의 접근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나 개입이 정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지역주민이 경제적인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전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생태마을 공동체의 사례는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게 해준다. 이 마을은 전주이씨와 창원 황씨 등이 정착하여 오리농법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생태농업 마을공동체이다. 이 마을의 총 가구수는 90호이며 마을주민은 285명이다. 마을 주민 중 약 30%가 20대에서 40대의 중장년층이며 농가의 반 이상이 마을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문당마을에는 풀무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문당마을의 공동체운동을 실천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는 생태평화 공동체의 구현이 지역역량강화의 목적이다. 문당마을의 공동체 운동에서 나타난 성과는 공동체 의식이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환경농업을 통한 환경생태성 보장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적 복지건설, 그리고 오리농법을 통해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통한 이익의 형평성과 함께 노동 및 배분의 형평성까지 얻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당 생태마을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또한 마을의 차원을 넘어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지로 선정되어 홍동 문단권역에 2006년까지 약 70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발전하고 있다(김용배, 2004. 재인용).

공주시 상서마을은 함평오씨 집성촌으로 가구수는 144호이고 마을주민은 887명으로 혈연의식이 강하고 빈곤을 없애고 경제적 복지마을 건설을 목적으로 혈연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새마을운동과 접목되면서 공동체 운동이 활

성화되었다. 상서마을은 혈연중심의 한 지도자의 전통적 권위형 리더쉽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운동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차원을 넘어 전국적 수준에서 경제복지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차원의 새마을 운동이 침체와 새마을 지도자의 노쇠로 인하여 마을의 활기가 이전과 같지 않은 실정이다.

위의 두 사례를 살펴 볼 때, 마을 주민 사이의 공동체적 유대감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며, 초기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 사이의 전통적 유대감이나 종교적 일체감 혹은 상호 신뢰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의식은 마을 발전과 연계시키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례(장성 한마음 공동체 사례[1], 광양 청매실농원 사례[2])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생활질서와 이기주의적 사회관계의 확대에 대한 비판 및 과도한 국가주도적 사회정책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운동가들은 빈곤이 생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배의 문제이며,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생산을 극대화하고 풍요로움이 있다 하여도 인간은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대안적 삶의 양식으로 제시되는 현대의 공동체 운동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인간과 조직을 평가와 더불어 좀 더 평등한 공존의 인간관계,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최근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그 지역내의 경제발전에 운영주체가 되며 사회적 연계를 증가시켜 지역을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1) 전남 장성군 남면 마령리에 소재하고 있는 한마음 공동체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광주시내 농산물직거래 상설매장을 운영함으로서 2001년의 공동체 소득이 20억원 정도이며 교회공동체가 주축이 되었지만 '농촌생활 속의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2)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에 있는 청매실농원은 주로 매실을 재배하여 다양한 매실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곳으로써 2002년 현재 총 매출액 40억 규모로 성장하였고, 10년동안의 노력으로 광양시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 이전에 이 지역은 광양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낙후한 지역이었다. 2000년 기준으로 62호의 가구에 가구당 논은 200평도 안될 정도로 적고, 밭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득으로는 가구당 쌀 10가마가 전부인 정도였다.

2. 연구목적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삶의 양식의 선택으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이에 대한 실천적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해방후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개인의 자율성은 공식적인 교육의 목적이 되었고, 이는 전통적인 도덕적 유산들을 해체하는데 기여했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개인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자본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배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전통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배타성과 경쟁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전통과는 다른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을 가진 한국에 이런 자유주의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개인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가족주의로 인해 한국사회는 일상생활과 개인의 업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친족을 가족단위로 인정하던 전통적 우리의식이 급격한 근대사의 흐름에서 생존의 위협과 사회갈등의 과정을 겪으며 핵가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고, 가족주의는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연고적 요소에 왜곡되어 적용되었다. 현대 한국사회에는 자유주의 이념, 시장경제적 가치와 전통적 우리의식이 한꺼번에 혼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경쟁위주의 시장경제적 질서가 일반적 인간관계의 주된 근간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오늘날 한국의 농촌사회를 진단하는 연구들에 의하면, 정부가 직접 농촌개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지녀 온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고 지도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어 정책집행이 고비용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허장, 2003). 따라서 주민의 자율적, 주도적 참여에 의한 방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주민공동체 조직이 이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의 한계가 많지만 자연경관이 보존되어 있는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직접 경제효과와의 연관성은 추후에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선행연구나 성공사례를 볼 때 공동체의식은 지역발전에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충만된 느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는 구성원 연대의식(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onnection)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구성원 연대의식(membership)은 소속해 있다는 느낌이나 개별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경계(boundaries), 정서적 안정, 소속감 및 동일시 감정, 개인적 투자, 공통적 상징체계라는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 내외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상호영향의식(influence)은 중요하다는 느낌, 즉, 구성원이 집단에 중요하다는 느낌과 집단이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포함한다. 욕구의 통합과 충족감(integration & fulfillment of needs)은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얻게 되는 자원을 통하여 욕구가 충족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연계 혹은 친밀감(emotional connection)은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유된 정서적 관계는 역사의 공유에 기초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에 동일화되어야 한다. 공유하고 있는 사건이나 그 사건의 특정 속성 내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공동체를 강화하거나 억제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관련된 문항, 예천지역의 소득과 발전정도, 만족도에 대한 문항, 지역인지도, 지역친밀도와 더불어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1〉 조사내용 구성

구 분	내 용	문 항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택소유형태, 가구 세대수	8문항
주거지 관련	거리, 주거기간, 거주형태	3문항
지역공동체 의식	욕구의 충족감	6문항
	상호영향의식	4문항
	정서적 친밀감	4문항
	연대감	4문항
지역관련 특성	발전정도, 소득정도, 공동출자의지, 생산물 구입의도, 생활만족도, 관심정도, 이주시 감정 등	9문항

2) 연구방법

예천군에 살고 있는 전체 가구의 비례 확률 표집으로 직접방문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설문지는 읍면별 가구로 나누어 조사대상을 200부로 선정하였고, 조사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훈련시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제대로 응답되지 않은 사례를 제외하고 191부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2.0을 활용하였다.

〈 표 2 〉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구분	인구	세대수	설문부수
예천읍	18,750	6,653	61
용문면	2,977	1,326	13
상리면	1,350	565	5
하리면	1,724	682	7
감천면	3,551	1,528	15
보문면	2,202	950	10
호명면	3,158	1,322	13
유천면	3,663	1,473	15
용궁면	3,708	1,530	15
개포면	2,255	979	10
지보면	3,972	1,717	17
풍양면	4,822	1,910	19
계	52,132	20,635	200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예천지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49.7%, '여자'가 50.3%로 남녀의 성비가 거의 같았으며,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23.6%, '40세~49세' 36.1%, '50세~59세 이하' 26.7%, '60세 이상'이 13.6%로 분포되어 있었다.

〈표 3〉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95	49.7
	여성	96	50.3
연령	39세 이하	43	23.6
	40-49세 이하	57	36.1
	50-59세 이하	45	26.7
	60세이상	26	13.6
결혼상태	기혼	166	88.3
	미혼	19	10.1
	기타	3	1.6
교육수준	초졸이하	30	16.1
	중졸	35	18.8
	고졸	87	46.8
	대졸이상	34	18.3
평균소득	100만원미만	57	31.5
	100-150만원	40	22.1
	150-200만원	37	20.4
	200만원이상	47	26
직업	농업,축산업	65	34.4
	자영업	38	20.1
	주부	38	20.1
	공무원	10	5.3
	생산,노무,기술직	5	2.6
	사무,관리,경영,전문직	19	10.1
	무직, 퇴직, 기타	14	7.4
주택소유형태	자택	157	84.9
	전세	16	8.6
	사글세	5	2.7
	월세	0	0
	빈집에 그냥산다	7	3.8
전체세대수	1세대	102	54
	2세대	69	36.5
	3세대	13	6.9
	4세대	5	2.6

결혼상태는 '기혼'이 88.3%, '미혼'이 10.1%, 기타의 경우가 1.6%를 이루고 있다. 교육수준은 '초등졸'이 16.1%, '중졸' 18.8%, '고졸'이 46.8%, '대졸'이상이 18.3%로 학력수준은 농촌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평균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원미만'이 31.5%, '100~150만원' 22.1%, '150~200만원'이 21.1% '200만원이상'이 26%정도로 나타났다. 직종별 분포는 '농,축산업'이 34.4%로 가장 많은 직종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하였다.

①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 주택소유형태, 가족전체 세대수와 같은 인구학적 변수에 대해서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② 거주지 관련변수와 공동체의식을 평균차이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③ 지역의 발전정도,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현재상태의 이유에 대해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④ 지역발전정도, 소득수준, 공동출자의향, 지역에 대한 만족도, 관심도, 이주시 정서 등에 대해서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에 대한 평균차이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제2장
공동체 의식과 지역발전

1. 공동체와 공동체 의식

1) 공동체 이론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인간관계와 사회문화적 위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때 더욱 활발해진다. 18세기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산업화가 성숙해가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사회적 갈등과 개인의 소외현상이 심각해지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주로 공동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논의와 실천이 중심을 이루었다(이춘옥, 2001:1).

신을 중심으로 한 윤리체계와 귀속적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서구의 폐쇄적 중세사회는 인간의 이성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개인의 합리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근대사회로 변화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율성은 공동체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했지만,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은 철학적,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주장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개인은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격은 자기의식적인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제 1차적인 도덕적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데 자유주의는 이런 도덕적 판단의 토대가 될 적절한 맥락을 상실하였으며,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몰락을 가속화하였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공동체를 복귀하고자 하는 공동체주의와 계몽주의 이후 서구사상의 근간이 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켜 왔다. 이런 논쟁은 20세기 후반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차 대전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질적 조건은 풍요해졌지만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거세어졌다. 국가는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를 복지프로그램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위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국가의 복지정

책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삶의 질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은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관련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삶의 질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삶의 수준이 양적인 측면에서 계속 향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성공만이 아니라 과거에 비중을 갖던 목록들이 의사소통의 새로운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국가의 목표도 부유한 사회를 추구하는데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보다 문화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삶에 대한 객관적 조건의 향상이나 주관적 만족만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삶에 대한 욕구는 삶의 질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참여가 늘어가고 있고 이것이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사회복지의 실천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서비스의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 개인들의 이익이 상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줄이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하여 개인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개인적 이익의 제한과 양보를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라는 용어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로 쓰거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혼합하여 주로 사용하여 왔다(신용하, 1987: 1-25. 재인용).

첫째, 공동체는 때에 따라서 감옥이나 종교적 조직체들, 소수의 집단들, 동일 직종의 구성원들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집단의 성격이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사성과 관련 없이 단순히 사회집단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의 형식으로 공동체를 연구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개념의 규정이 너무나 확장되어 있고 모호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회 조직체의 범주를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심성적 혹은 정신적인 현상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것은 이웃사람들과의 공동의 유대관계,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족적이며

우애적인 유대를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족적이며 우애적인 유대를 확장시키는 개념이다. 인간이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촘촘하게 짜여진 의미 있는 관계의 망에 스스로 포함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근대사회의 성립으로 인해 인간이 원자화를 경험하고 소외되어 가는 상황에서 인간에게 안정감과 귀속감,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발달된 개념이다. 니스벳(R. Nisbet)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로서, 니스벳이 언급한 19세기의 공동체 사상은 공동체의식과 정신에 대한 모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19세기 공동체적 사회관의 핵심적 용어는 사회적 응집, 도덕적 헌신, 구성원 의식과 인격적 친밀 등으로 대표된다. 이는 개인주의 의지, 이성, 합의, 계약 등의 모델을 주장하는 자연법적 사회관이나 계몽주의 사회모델과 대조를 이룬다(박호강,1992:94).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는 단순히 지역사회(local community) 이상의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19-20세기 사상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공동체는 고도의 개인적 친밀성, 감정적 깊이, 도덕적 확신, 사회적 응집 및 시간적 영속성의 특징을 갖는 모든 형식의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동체는 인간이 사회질서에서 차지하는 개인적인 역할보다는 그의 전체에서 파악된 인간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체는 단순한 의지나 이해관계의 수준보다 더 깊은 수준의 동기에서 그 심리적 힘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편의나 합리적인 동의의 통합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개인적 의지와 침잠에서 실현된다. 공동체는 감정과 사상, 전통과 확신, 멤버쉽과 의지의 융합이다”(R. Nisbet, 1966. 박호강, 1992:9-10. 재인용)

이 두 번째 정의는 개인주의적 성격의 근대사회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공동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인간들의 친밀한 사회관계를 표현해 주는 적절한 용어로 인정되고 있다.

셋째,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마을이나 읍·도시 혹은 거대도시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 단위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즉, 공동체란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고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의 대부분을 해나가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위의 개념들에서 볼 때 공동체의 핵심요소는 정신적 측면인 공동체성 또는 사회성

(communality or sociality)과 공동의 지역적 기반으로서의 지역성(locality or territoriality)으로 추출될 수 있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다양성을 띠는 원인은 학자의 개념 규정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정신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 중 어느 요소를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이론의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가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이론의 흐름은 크게 보수주의 공동체이론과 개인주의 공동체이론, 수정주의 공동체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보수주의 공동체이론은 폐쇄적이고 집합적인 전통적 공동체를 옹호하는 이론이다. 개인주의 공동체이론은 자유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에 따라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수정주의 공동체이론은 보수주의 공동체이론에 개인주의 공동체이론의 개인의 자율성, 합리성의 개념을 흡수하여 발전시킨 공동체 이론이다. 이론이 그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구성,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주의 공동체이론은 지역구성원들이 동일한 규범하에 일체감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대 이전의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됨으로써 발생한 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서구의 중세시대는 봉건주의와 공동체 주의가 번영한 시기로서, 인지, 우애, 협동, 뿌리의식 그리고 권위와 전인격성, 역할분담, 규범 등의 공동체 덕목과 가치들이 사회적, 도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들의 강력한 연대성과 결합은 중세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중세의 도시공동체에서는 조합(길드)과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생활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도시는 대체로 격자형 망상(網狀) 구조로 형성되면서 중심가에 시장을 형성하였다. 이곳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공동체 우선의 규범이 지배적이었다(김영섭외, 1994:24).

17-18세기 자연법 사상과 산업혁명, 근대산업자본주의로의 변화는 18세기 이후 공동체적 결합의 해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호강, 1987:231). 개인의 자연권을 주장하고 이러한 선천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결사체를 구성하며 경제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가 보편화됨으로써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공동체 해체에 따르는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개인의 원자화나 대중의 출현에 따른 비인간화,

인간 소외현상의 증가 등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자, 19세기 후반의 사회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런 반공동체적인 사회변동에 대한 반발과 불신을 나타내며, 19세기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산업사회에 대한 반동운동을 전개한다. 즉, 유럽의 구질서와 귀족사회를 옹호하며 나타난 것이 바로 보수주의 공동체이론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와 비인격적 개인주의 간의 대비를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 가족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길드, 코뮨과 같은 집단들에서 나타났던 공동체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이 당시에 있어 주된 요건들이라고 주장하였다(신용하 편, 1987:109). 이러한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구성원들간의 강력한 연대는 지역성을 근거로 하고 동일한 문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지역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개인주의 공동체이론은 보수주의 공동체 이론가들이 현대 도시사회의 익명성과 도덕적 무질서, 개인의 원자화를 개탄하는 것에 반박하면서 이런 점은 개인의 자율, 자유,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사상은 종교나 도덕의 문제에 있어 판단의 권위를 로마의 교황에게서 구하던 타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적인 신탁(神託)으로서 개인의 이성에 의한 자율성(이춘옥, 2001:12 재인용)을 추구한다. 이는 근대 서구의 역사에서 볼 때, 구제도를 타파하고 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찾겠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열망이 표현된 관념이었으며, 이 관념은 구제도를 파괴하는데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즉, 사회적 조건이나 역사적 맥락을 초월한 인간의 자연상태를 상정함으로써 구제도로 대표되는 임의적인 권위에의 종속상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이 이론에서 공동체는 일단의 행위자들이 상호협동과 부담의 수용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유사한 '공유된 최종 목적'을 가질 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동기에 의해 연합한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체에 우선한다. 인간은 이성과 자율로서 무엇이 선(善)인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의해 공동체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합리성은 곧 계산적 추론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개념은 공동체에 우선하는 개인의 특성을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입장으로는 공동체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기 어렵다.

수정주의 공동체이론은 보수주의 공동체이론과 개인주의 공동체이론 사이의 논쟁을 수립하는 입장으로서, 희랍의 전통적 공동체관을 보유하면서도 자유주의의 장점을 수용하여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추구한다. 자유주의자들의 지적처럼 일방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다보면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며, 전통과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고, 사회의 비판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보수주의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도한 공동체에 따라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획일화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범웅, 1997:3).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회학이나 지역사회개발이론에서 자주 지역사회나 지역공동체로 번역 사용되고 있다. 맥클리버(Maclver)는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 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곧 커뮤니티의 확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즉, 공동사회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차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공동체의 공동관리방식인 정치활동도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복잡해진다. 공동체는 점차로 보다 더 큰 공동체로 병합되면서 공동체의 기본적인 역할인 공동생활의 기본조건을 공동으로 부여하는 기능이 약화된다. 공동체는 마침내 해체되었고, 여기에 공동체가 지역사회로 전의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하여 그동안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사학 및 역사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 또한 같은 학문분야에서도 학자에 따라 각기 상이한 개념이나 이론을 펴왔다. 사회학에서 퇴니스는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고의성이 없는 본질의지에 입각한 어떤 사회적인 실체의 일반개념을 추출하여 공동사회(gemeinschaft)라 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생성된 합리적 선택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이익사회(gesellschaft)와 대비하고 있다.

Hillery는 「공동체의 정의들 : 합의의 영역들」이라는 연구에서 1950년대 까지의 영미 사회학자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94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학자들의 커뮤니티란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한 가지 공통요소는 인간집단을 이룬다는 점이고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지리적 영역, 공동유대, 사회적 상호작용을 내포한다는 점이라고 하였다.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밑에서 공동의 유대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집단이라고 하였다(정지웅·최상호, 1983:64).

공동체하면 오늘날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

된 의식을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설명기준으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지리적 영역(territory)과 함께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대감, 공동의 결속 등의 개념은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로서 인간 존재의 규정과 지역사회 및 조직의 형성·유지·발전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경준, 1998:1).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결속력을 형성시키는 것 혹은 이를 향상시키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 편안함과 안정감(Allen and Morgen, 1999; Goodsell, 1995) 및 소속감(Rubin & Rubin, 2001)을 제공받아 지역사회를 “단순한 주거 공간(space)”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의미를 주는 주거 장소(place)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철희·홍현미라, 2002:43 재인용).

2) 공동체 의식

일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평균적인 주민들에게 공통된 감정과 신념의 총체가 형성하는 확고한 체계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집합의식은 개인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의식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지며, 각 세대와 더불어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는 세대들을 연결시켜 준다고 보고 있다(한상복, 1982:2).

그러나 이를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동질성, 상호의존성, 책임감 공유, 대면적 관계, 공통목표 등의 특성이 농촌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충성, 헌신 및 사람들 사이의 일차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Glynn, 1981:791).

우리나라의 경우는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하여 강한 문화적 배경 및 언어, 풍습, 생활습관 등이 범 사회적 규범으로서 정착되면서 정신적 기초로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었다. 가족중심의 연대의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승국, 1994:6).

한편 공동체의식은 공동체만큼이나 통일된 개념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점과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해체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즉,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나 쇠퇴는 지속적인 아노미, 소외, 고립 그리고 외로움의 감정, 지역사회 내의 자율성 및 개별적 참여 기회의 상실, 그리고 상호의존적 관계의 상실 등 수 많은 결핍되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공동체의식의 해체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속감, 동일화 감정, 공동성에 대한 열망 등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inar & Greer는 공동체에 대해 이웃사람들과의 공동의 유대관계, 또한 우리들 주위의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표시하며,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친족적이며 우애적인 유대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김경준, 1998; 17-18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발생되는 사적 이익의 극단적 추구를 제어할 역할로서 희생과 양보, 참여와 주체의식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이 이해관계에만 입각한 비인간적 사회관계를 인간화시키려는 대안의식이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수복, 1995:7-8).

공동체 의식에 대한 실증적인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Davidson & Cotter(1986: 608. 김경준, 1998 :18에서 재인용)는 공동체의식에 대해 지역사회 심리학에서 중심적 가치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과 주거지, 일터, 학교, 사회적·정치적·종교적·임상처치적·문화적 집단 등 사회환경 사이의 특별한 애착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소속감은 그 핵심적 위치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즉, 공동체의식의 긍정적 의미는 구성원 의식, 역사 및 가치의 공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및 욕구의 강화, 의사전달을 위한 상호작용 및 안전과 의존에 대한 느낌 등 여러 유형의 이론적인 구성요소로 예시된다고 하였다.

또한 MacMillian & Chavis(1986:9) 이론은 공동체 의식을 논증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진술로 경험적인 영역에 점증적인 자극을 주어왔다. 즉, 맥밀란과 채비스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 구성원들의 욕구가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충족된다는 공유된 믿음 그리고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맥밀란와 채비스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정의적 틀을 제시할 때 공동체 사용의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이웃이나 도시와 같은 장소에 관계되는 공동체에 대한 지역(territorial) 또는 지리적 개념이고 둘째, 인간관계의 특성에 관계되는 '관계적인(relational)'생각이다. 공동체의식의 조작적 정의는 장소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내는 경계내에 인간 상호작용의 특성이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공동체의식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데 공통체의식의 구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를 살펴보면 작업공동체로부터 공동체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동체라 할 수 있는 두레에서는 공동체적 구속력과 민주주의적 운영, 공동부조, 규율, 주체적 자부심과 공동체적 평등주의, 연대관념, 우리감정, 형제애 등의 공동체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신용하, 1988:438-442).

두레공동체로부터 출발한 전통적 공동체의식은 우리의식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그 원초적인 형태가 무리의식이고 공동주의적 생활의식, 자연주의적 세계관, 친화적 협력생활관념으로 통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의 본질적인 기본구조는 사회의식과 지연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의식의 내용으로 원초적 무리의식(마을, 국가의식)·사회적 생활의식(사회, 사물의식)·통일적 우리의식(친애, 협화의식)·자연적 종교의식(경천·애인사상)·자치적 연대의식(자조·협동의식)이 포함된다. 지연의식은 창조적 터전의식(창조적 생활의식)과 신성의 복지의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남구, 1992: 10-55).

임희섭(1991)은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①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 애정, 긍지, 충성심 등, ② 구성원들에 대한 동일시 감정, ③ 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정도, ④ 공식적, 비공식적 공동체 조직에의 참여정도, ⑤ 구성원들에 의한 공동행동의 양과 질, ⑥ 공동체 내 갈등조정기제의 효율성 정도, ⑦ 공동체 규범을 지키는 규범의식 정도, ⑧ 공동체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구성원의 사기 정도를 들고 있다. 이 요소들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자세와 마

음가짐을 공동체의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서양에 있어서는 공동체의식의 구성과 관련하여 포플린(Poplin), 니스벳(Nisbet), 웅거와 완더스만(Unger & Wandersman)등의 논의가 있다. 포플린은 심성적 공동체의 속성으로서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identification), 공동목적을 추구한다는 일체감(moral unity), 자발적 참여의식(involvement),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들어 대중사회와 구분하고 있다(포플린, 1985. 김경준, 1998. 재인용).

니스벳은 공동체의식에 대해 우리의식(we-feeling), 역할의식(role-feeling), 의존의식(dependency-feeling)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식이란 분할이 가능한 통일체에 더불어 참가하고 있다는 공존의 감각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또한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나 그 이해관심이 지역사회, 지역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역할의식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가진다고 하는 역할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맡아야 할 역할, 즉, 결국 각자에게 부여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의존의식은 역할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사람들간의 물적욕망은 우선 지역사회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으로 물질에의 의존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개인과의 심리적 의존이 생겨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권순복, 1989:7-8에서 재인용).

이에 대하여 Unger & Wandersman(1985)는 공동체의식에 대한 3가지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정서적, 도구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는 사회적 구성요소(social component), 물리적 환경과 상징적 의사전달에 대한 인식지도를 포함하는 인지적 구성요소(cognitive component), 그리고 개개인이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 가지는 정서적 애착인 정의적 구성요소(affective component)가 포함된다(김경준, 1998:21 재인용).

한편, 글린(Glynn, 1981)은 공동체의식을 공동체 구조의 객관적인 평가, 공동체 내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유형, 공동체에의 참여, 공동체 환경의 특성, 공동체 안전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되는 항목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Nasar & Julian(1995)은 이를 근린공동체에 한정된 내용만으로 축소하여 공동체 내의 지원적인 관계, 공동체 주민들의 유사성 및 관계 유형, 공동체에의 참여, 공동체 안정의 4개 차원만으로 공동체의식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Macmillan & Chavis(1986)는 전체적인 공동체 의식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로 구성원 감정(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김경준, 198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김경준의 정의 즉,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충만된 느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라는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공동체 의식과 지역발전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은 물적자본도 필요하지만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도 매우 필요하다. 다소 물적자본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자본을 통하여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인적자본은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나 지식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된 것을 말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을 육성하게 되면 당사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력에 증진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조직, 관습, 사회적 가치와 규범, 신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웃이나 다른 구성원들과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개인들은 행동해야 하는 가치와 규범, 집단 안에서의 역할과 기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 등이 형성된다.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지역사회나 집단은 인적자본이나 물적 자본의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이 습득하거나 사회속에 내재된 가치와 규범을 통해 행위나 일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사회적 자본의 유형은 크게 신뢰, 관습과 규범, 사회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다. 이들은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지역사회에서 상호신뢰는 주민의 단결과 믿음을 강화해주고 공동체적 규범을 통

해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지 않은 도시나 이주지역이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지역에 비해 경제사회발전이나 개인들의 경제발전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Narayan & Prichett, 1997; Collier,1998, 허장, 2003에서 재인용).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점차 관습이나 규범으로 고착된다.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운영과 존립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행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이러한 기대가 종국에는 관습과 규범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역사회의 관습과 규범은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고 공동의 사회적 가치관을 지니게 하여 효율적인 공동체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상호신뢰와 관습 및 사회적 규범은 사회조직이나 집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농촌주민들은 동계(洞契)를 비롯한 여러 사회집단 속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연대를 구축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와 같은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을 상실할 경우 지역사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푸트남(Putnam, 200)은 미국의 지역사회가 주민사이의 연대의식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붕괴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침체된 농촌의 경제적 안정화와 지역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농촌개발의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농림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의 각 부처들은 그린투어즘을 경쟁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 대상마을을 선정할 때는 생각이 앞서가는 지도자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열의가 높은 준비된 마을을 기본적 요건으로 Eco-Green-Tour마을로 육성이 가능한 성공 잠재력이 높은 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정책은 첫째,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책이 거시적인 접근이나 포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이면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실천적인 대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주민협력의 관계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각 부처가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요구하였던 것이며 또한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을 주민들, 인근 주민들의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이다. 관계의 형성은 마을 주민을 구심체로 하여 관련 참여기관, 단체 등과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건전한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투입된 시설이나 예산, 체험프로그램은 정부가 직, 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마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시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나아가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3장
예천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특성

1. 예천지역의 현황

1) 예천지역의 특성

예천지역은 20,698세대 51,751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상북도 북부권 농촌지역으로 <표 4 ><표 5 >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고령화 농촌지역의 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4〉 경북 북부권 지역 인구변화

(단위: 명, 세대, %)

구 분	2004		2005. 6.		증감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비율	세대
합계	2,718,613	985,475	2,714,607	996,575	-4,006	-0.15	11,100
안동시	174,596	62,202	173,715	62,710	-881	-0.50	508
영주시	121,908	43,648	120,861	43,781	-1,047	-0.86	133
문경시	79,820	29,771	78,889	29,923	-931	-1.17	152
의성군	66,507	27,140	65,779	27,137	-728	-1.09	-3
청송군	30,197	12,503	29,800	12,538	-397	-1.31	35
영양군	20,275	8,314	20,195	8,402	-80	-0.39	88
예천군	52,311	20,635	51,751	20,698	-560	-1.07	63
봉화군	37,662	14,997	37,244	15,038	-418	-1.1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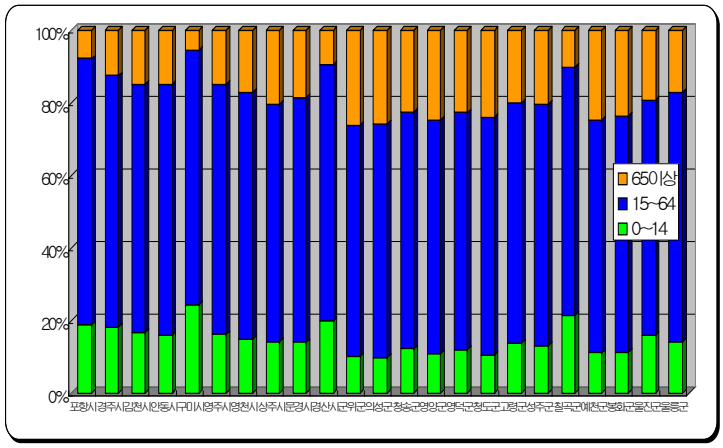
〈표 5〉 예천군의 연령별 인구구조

(단위: 명, %)

구 분	2003		2004		2005. 6.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유년인구(0-14)	501,448	18.4	484,317	18.0	476,054	17.68
경활인구(15-64)	1,884,586	69.3	1,862,842	69.1	1,860,938	69.11
노인인구(65이상)	334,798	12.3	348,758	12.9	355,536	13.20
계	2,720,832	100.0	2,695,917	100.0	2,692,528	100.0

※ 초고령사회: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10개 시군)

〈그림 1〉 경상북도 시군별 인구구조



〈표 6〉 경북 북부권 지역 인구구조

(단위: 명, %)

구 분	합계	0~14세	구성비	15~64세	구성비	65세 이상	구성비
안동시	173,068	27,941	16.14	119,185	68.87	25,942	14.99
영주시	120,319	19,505	16.21	82,824	68.84	17,990	14.95
문경시	78,626	10,990	13.98	52,979	67.38	14,657	18.64
의성군	65,371	6,480	9.91	41,994	64.24	16,897	25.85
청송군	29,693	3,625	12.21	19,332	65.11	6,736	22.69
영양군	20,130	2,223	11.04	12,958	64.37	4,949	24.59
예천군	51,539	5,730	11.12	33,022	64.07	12,787	24.81
봉화군	37,118	4,199	11.31	24,179	65.14	8,740	23.55

2) 예천군의 산업구조

〈표 7〉 예천군 산업구조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도소매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예천군	74.8%	1.7%	2.8%	10.7%	10.0%

예천군의 산업구조<표 7>를 보면 농림어업이 전체 산업구조의 74.8%를 차지하고 도·소매·숙박업이 10.7%,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이 10.0%, 전기·가스·수도·건설업 2.8%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작사업을 육성하여 주요특작물 재배현황을 살펴보면 < 표 8>과 같다. 예천군은 주요 특작물을 재배하여 특작사업을 육성하고 있고 생산된 특작물을 청결고춧가루 처리장이나 양잠협동조합 등을 통해 가공 처리하여 예천 특산물로 판매하고 있다.

〈표 8〉 예천군 특작사업 현황

구 분	품 목	재배면적(ha)	농가수	재배지역
과수	사과	797	981	상리,하리,감천,지보
	호도	9.6	137	상리
채소	시설수박	127.2	287	용궁
	시설참외	62	1,862	호명,지보
	시설토마토	30.2	69	감천
	시설풋고추	185.7	708	개포,유천
	건고추	1,047	4,995	용문,감천
	마늘	170	2,102	용문,상리,지보
특작	참깨	568	3,592	지보,보문
	땅콩	181	1,269	유천,개포
	오가피	11.3	53	보문
	상황버섯	780평	3	용문
잠업	누에가루	1,983상자	132	예천,보문
	동충하초	12상자	2	예천

3) 예천의 특성

예천은 경북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660Km(임야 56%, 농경지30%, 기타 14%)이며, 총인구는 50,951명(2004년 경북 통계기준)으로 그 중 남성이 25,084명이고 여성이 25,867명이다. 총 가구수는 20,705세대이다.

예천군의 총 예산은 1,8181억원이며 재정자립도 10.1%로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예천군의 역점시책은 5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친환경 웰빙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이다. 둘째, 생동감 넘치는 지역개발이고, 셋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넷째, 긍지 높은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섯째, 참여정부의 국정에 맞는 자치역량 강화이다.

예천군의 관광자원으로는 용문사(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 보물 제 457호인 예천권씨 종가별당과 종택, 초간정(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번지), 금당실 전통마을(용문면 상금곡리), 명봉사(예천군 상리면 명봉리 501), 정충사(예천읍 고평리 466), 보문사(보문면 수계리 158)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예천온천, 회룡포체험관광, 예천진호국제양궁장, 가오실수변휴식공원, 흑응산 봉덕산, 산택연꽃 공원, 예천 전문과학문화센터, 선몽대, 두메산장, 용두분재농원, 학가산 우래자연휴양림, 삼강주막, 미호천유원지, 석송령 등이 있다.

2. 예천지역 특성

1) 예천지역 주민들의 특성

조사대상인 예천지역 주민들의 주거관련 특성 분포를 <표 9>로 보면 거주지가 주요 행정 관청이나 문화시설 등의 중심에 위치한 응답자는 7.9%에 머물렀다. '가까운 곳'(35.1%)과 '조금 떨어진 곳'(53.4%), 그리고 '아주 많이 떨어진 곳'(3.7%)에 살고 있었는데 중심지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역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1.1%가 되어 농촌이라는 지리적 광역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예천주민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지역 중심지와의 위치	아주 가까운 곳	15	7.9
	가까운 곳	67	35.1
	조금 떨어진 곳	102	53.4
	아주 많이 떨어진 곳	7	3.7
거주기간	3년 미만	10	5.2
	3년-5년 미만	5	2.6
	5-7년 미만	3	1.6
	7년-10년 미만	10	5.2
	10-15년 미만	18	9.4
	15년-20년 미만	14	7.3
	20년-25년 미만	27	14.1
	25년-30년 미만	18	9.4
	30년 이상	86	45
거주지역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	38	19.9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	49	25.7
	내가 태어난 곳	10	5.2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자란 곳	6	3.1
	이사 온 지 오래된 곳	58	30.4
	최근에 이사 온 곳	20	10.5

<표 9>의 거주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3년 미만' 거주자는 5.2%, '3년~5년 미만'은 2.6%, '5년~7년미만' 1.6%, '7년~10년 미만' 5.2%, '10년~15년 미만'이 9.4%, '15년 미만~20년 미만' 7.3%, '20년~25년 미만'이 14.1%, '25년~30년 미만'은 9.4%이고, '30년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는 45%이나 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9%,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은 25.7%, '내가 태어난 곳'은 5.2%,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자란 곳'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1% '이사 온 지 오래된 곳'은 30.4%, '최근에 이상 온 곳'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0.5%가 되었다. 특히 고향은 아니지만 이사 온 지 오래된 지역(30.4%)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우리지역 발전내용 및 지역관심 · 만족정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발전정도	높은 편이다	5	2.7
	비슷하다	48	25.7
	낮은 편이다	134	71.7
발전원인	지도자의 지도력	39	21.1
	지역주민의 의식	75	40.5
	마을이 위치한 입지조건	44	23.8
	정부의 지원	27	14.6
상대소득	높은 편이다	7	3.7
	비슷하다	49	25.8
	낮은 편이다	134	70.5
소득원인	지도자의 지도력	27	14.5
	지역주민의 의식	80	43.0
	마을이 위치한 입지조건	47	25.3
	정부의 지원	32	17.2
공동출자	예	95	50.0
	아니오	35	18.4
	생각해본적 없다	60	31.6
우선구입	예	174	91.6
	아니오	14	7.4
만족도	만족스럽다	53	27.7
	그저 그렇다	110	57.6
	불만스럽다	28	14.7
관심도	아주 많다	53	27.9
	조금 있다	81	42.6
	그저 그렇다	44	23.2
	없다	10	5.3
	전혀 없다	2	1.1
이주느낌	슬프다/섭섭하다	105	55.0
	그저 그렇다	70	36.6
	기쁘다/홀가분하다	16	8.4

이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지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좋은 여건임을 알 수 있다.

2) 예천지역의 발전 관련 내용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수준의 상대적 발전 정도에 대해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7%, '비슷한 수준'은 25.7%,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1.7%으로 응답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의 발전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발전 수준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지도자의 지도력'이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21.1%이고, '지역 주민 의식'의 경우 40.5%, '마을이 위치한 입지조건'은 23.8%, '정부의 지원정도'의 경우는 14.6%였다.

지역 주민 의식이 지역의 발전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70.5%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의 발전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지도자의 지도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14.5%이고, '지역 주민 의식'이 43.0%, '마을이 위치한 입지조건'이 25.3%, '정부의 지원정도'의 경우는 17.2%로 응답하였다.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이나 소득수준의 정도는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의식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출자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출자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 50.0%로 절반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출자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경우 18.4%였다. 그리고 우리 지역 생산물에 대한 우선 구입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91.6%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 구입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3) 지역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 27.7%이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57.6%고, '불만스럽다'라고 응답한 경우 14.7%가 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발생하는 일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엔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

우가 70.5%를 차지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주민이 지역의 발전가능성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경우 이주시 느낌에 대한 질문엔 '슬프다/섭섭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5.0%이고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36.6%, '기쁘다/홀가분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8.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발전 전략 수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의식

1) 성별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서 설명되어야 하겠지만, 남성들은 조직생활을 한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 성별 지역공동체 의식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공동체 의식	남성	90	3.42	0.54	1.406	0.222
	여성	81	3.31	0.49		

2) 결혼상태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기혼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였고, 미혼은 아주 소수였다. 결혼상태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은 기혼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2〉 결혼상태별 지역공동체 의식

	결혼상태	N	평균	표준편차	t	P
공동체 의식	기혼	148	3.39	0.4971	2.236	0.061
	미혼	18	3.11	0.6601		

3) 소득별 공동체 의식의 차이

소득별로 공동체 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소득별 지역공동체 의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100만원 미만	54	3.24	0.53	2.232	0.087
100-150만원 미만	34	3.40	0.50		
150-200만원 미만	34	3.44	0.50		
200만원 이상	41	3.50	0.53		
합 계	163	3.38	0.52		

4) 세대별 공동체 의식의 차이

가구내 몇 세대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2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가구가 3세대 이상의 가구보다는 공동체의식이 높았다.

〈표 14〉 세대별 지역공동체 의식

	N	평균	표준편차	F	P
1세대	91	3.33	0.47	1.262	0.286
2세대	65	3.45	0.57		
3세대 이상	14	3.29	0.54		
합계	170	3.37	0.52		

5) 소득수준에 따른 공동체의식

예천지역의 소득이 다른 지역의 소득수준과 비교해 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절대다수였다. 소득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보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5$).

예천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때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발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지역주민의 의식 때문에 더 발전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지역주민의 의식, 마을의 입지조건, 지도자의 지도력, 정부의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표 15〉 소득수준별 지역공동체 의식

	소득 수준	N	평균	표준편차	t	p
공동체 의식	비슷하다	47	3.53	0.40	2.899	0.013
	낮다	123	3.31	0.54		

6) 발전수준 인식정도에 따른 발전원인

예천주민들도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 즉, 합의된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16〉 발전수준 인식정도에 따른 발전 원인

	지도자의 지도력	지역주민의 의식	마을이 위치한 입지조건	정부의 지원	전체
발전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	14	29	3	5	51
	27.5	56.9	5.9	9.8	100.0
발전수준이 낮다	25	46	40	20	131
	19.1	35.1	30.5	15.3	100.0
전체	39	75	43	25	182
	21.4	41.2	23.6	13.7	100.0

$\chi 2=15.653(a)$ df=3 p= .001

7) 공동체 의식과 발전 인식 정도

예천군민은 예천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발전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

람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예천지역의 발전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공동체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p<0.001$). 공동체 의식의 하위영역중에서는 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족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대감에 대해서는 발 전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나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연대감은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공동체 의식과 발전 인식 정도

	내 용	N	평균	표준편차	t	P
충족감	발전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	46	3.51	.40	4.692	.000
	발전수준이 낮다	128	3.13	.62		
상호영향	발전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	50	3.52	.63	2.610	.010
	발전수준이 낮다	130	3.23	.79		
정서친밀	발전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	52	3.62	.54	2.643	.009
	발전수준이 낮다	132	3.35	.63		
연대감	발전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	51	4.00	.45	.411	.682
	발전수준이 낮다	133	3.97	.56		
전체	발전수준이 비슷하거나 높다	52	3.59	.37	4.005	.000
	발전수준이 낮다	134	3.29	.53		

8) 공동 출자 의지와 공동체 의식

예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동출자를 하겠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출자의향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의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면에 의향이 없다는 사람과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사람간에는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이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p<0.001$).

〈표 18〉 공동 출자 의지와 지역공동체 의식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공동체 의 식	출자의향	88	3.52	0.43	8.344 (1),(2) (1)(3)차이	0.000
	의향없음	30	3.14	0.70		
	무관심	53	3.26	0.46		
	합 계	171	3.37	0.52		

즉,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자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것 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출자 의향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지보다는 차라리 무관심한 경우는 인식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9) 공동체 의식과 주민 만족도

예천군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가, 불만족해하는가 하는 질문에서 대답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응답한 사람중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족해하는 사람보다 공동체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9〉 지역공동체 의식과 주민 만족도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공동체 의 식	만족	48	3.67	0.39	5.658	0.086
	불만	25	3.06	0.52		

제4장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 전략

1.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의 기본 방향

경상북도 예천군의 특성상 농업, 축산업이 주 산업구조이며,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다른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천지역 역시 농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농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촌의 매력을 관광상품화하여 도시와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포함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린투어리즘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을 등 지역사회를 추진주체로 하고 지역주민의 합의, 자발성과 창의를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가꾸기, 마을가꾸기를 추진하고 일반관광의 아류로서가 아니라 농촌의 맛과 멋을 살려나가면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 특산물 생산사업도 활성화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촌은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체험, 휴양 공간이 되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지역발전의 기본적 방향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갈 농촌관광을 지향해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도시민의 편리한 숙박공간이나 기존의 농촌체험을 위한 유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물건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수적 서비스의 원활함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정부) 차원에서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휴양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연계하여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이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육성 및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리더, 여성, 귀농자, 노인들이 지역개발의 필요성과 구체적으로 내방객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서 오늘날 농촌지역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공동체 기반형 지역 발전을 시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역량축적이다. 이는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와 실험을 통해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역사, 자연, 생태, 설화, 지역산업, 인물 등에 문화관광의 자원을 심도 있고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잠재적인 지역의 역량을 축적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둘째, 체제혁신이다. 훌륭한 사업 테마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에 관련된 정부, 시민, 기업, 시민단체, 자원봉사기관 등의 연계활동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연계단위들의 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파트너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략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전략에 대한 실행이다. 다른 지역산업보다 경쟁의 우위를 지키면서 지역자체의 잠재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장소마케팅과 문화관광 마케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쌍방향의 의사소통, 지역의 자원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의 포탈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의식을 동반하는 사업을 지향해야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을 지향하며, 지역의 물적, 사회적, 인적 자원의 체계적 연계를 구축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체 기반형 지역 활성화 전략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자체의 장,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인식전환과 인재육성을 통한 역량확충이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지역발전 사업의 목표와 이미지 정립,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지역의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성공 요소는 3C 즉, 컨텐츠(contents)와 커뮤니티(community), 수익(commerce)이다. 독특한 시설, 체험, 서비스, 차별화된 이미지를 핵심 컨텐츠로 하여 관광객이나 방문객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마케팅과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추진 수단으로 된다.

넷째, 인터넷의 포탈 서비스화(portal service)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 및 평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시민들간의 공동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장소마케팅과 상품의 전략화를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고 분산화된 각종 지역 발전 제도를 통합화하여 개최하도록 한다.

1) 목표 설정 명확화 및 이미지 정립

자연 및 문화 그리고 농촌자원을 테마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성이 크다. 예천의 경우 회룡포마을과 금당실마을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고려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다소 부족하고 특징을 지닌 지역 이미지가 미흡하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그린투어리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차별적으로 설정하여 일관된 프로그램 기획 및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

2) 커뮤니티를 통한 방문객 확보

예천지역 출향민과 내방인을 중심으로 정보의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의 형성 즉 방문객의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인과 내부인들이 안전한 먹거리, 합리적인 가격, 쾌적한 시설, 체험, 역사의 인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린투어리즘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교류와 분석을 통해 어떻게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 다른 지역과의 자매 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동호회 지원, 출향민 등을 통해 재방문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수익창출

수익창출은 그린투어리즘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과 특산품, 캐릭터, 중소기업의 생산물,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이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사업기회를 발굴할 때 나타난다. 그러나 예천의 회룡포마을, 금당실마을의 경우 수익이 적어 '녹색농촌체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얻어지는 수익이 적어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마을의 방문동기, 지역, 태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별화, 집중화 전략을 채택하여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 파트너쉽 관리

성공적인 그린투어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 기업 등 지역의 모든 단위들의 적극적인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그린투어리즘이 바로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기업은 적절한 스폰서쉽과 상품판매망의 확대를 통해 경제가치를 확대하고 동시에 시민들은 그린 투어리즘을 통해 자긍심을 확보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그린 투어리즘이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의 발전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주민의식'이므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주민태도와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 협조는 각 영역에서의 파트너쉽을 형성케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5)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기존의 예천지역의 '녹색농촌체험' 일환인 회룡포 마을과 금당실마을의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리적 자원을 활용한 여느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소득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적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적어 호응도가 떨어지고 마을의 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불안이 있어 '녹색농촌체험'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고 기존의 '녹색농촌체험'의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6) 역할 모델 정립

그린투어리즘을 상시적으로 관리·개발할 수 있는 추진 주체나 리더 그룹을 통해 역할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그린투어리즘이 유형의 자원만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과 문화, 자연자원등과 함께 상품화시켜 이를 내방객의 수용에 맞추어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산업이다. 따라서 사업 운영자나 농가의 책임,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주체(전문가 그룹)을 마련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과 내방객 접대, 예약관리 등 마케팅믹스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팀을 구축해야 한다.

농촌마을은 공동체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마을어른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종래의 생활패턴속에서도 이제껏 생활해 왔다는 의식이 있으므로 새로운 자극에 대한 변화와 갈등구조를 반기지 않는다.

또한 마을의 고령층은 새로운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젊은이에 대한 평가도 도시로 나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패배의식이 높게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패배의식(피해의식)이 농촌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된 것이라기보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중심에서 이탈된 외부적인 결과일지라도 이는 주민참여를 바탕에 둔 그린투어리즘을 전개하는 데 큰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결국 훌륭한 자연자원과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어떻게 소화시키고 관광객에게 이를 전파할 사람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농촌·농업에 마케팅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식을 개혁, 사람을 변

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마을내 리더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녹색마을 체험'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혹은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성과에 대한 명확히 보상하여 리더가 역할모델자가 되어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지역사회내의 분열과 갈등이 형성되어 지속적인 체험마을로 이어지기 어렵게 된다.

이것은 앞선 연구결과에서 지역의 발전과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주민의식과 더불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주요내용 요약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농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급격한 산업화·도시화가 빚어낸 도시 녹지의 감소가 더욱 현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는 점차 도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를 점차 증대시켜가고 있다.

이에 기존의 단순관광이라는 개념 대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적극 강조하는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되어졌고 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산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보고 사는 것'만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는'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농촌관광을 개발·이용함으로써 도시인들의 보건·휴양·정서 함향을 도모하려는 새로운 녹색농촌체험관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토를 유지·관리하며 천연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민속 및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그리고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촌과 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욕구와 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을 측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농촌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조사결과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천지역의 인구구조의 성비는 약 1:1의 비율이다. 인구구조상의 특성 중 하나는 모든 농촌이 대부분 동일한 특성을 가지듯이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2)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높았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절대적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타지역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공동체 의식수준이 높았다.

3) 예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민의식, 마을입지조건, 지도자의 지도력, 정부의 지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 즉 합의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출자의지와 공동체 의식을 보면 출자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출자의향이 없는 집단이 공동체 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공동체 기반형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역량축적과 체제혁신 그리고 성공적인 전략에 대한 실행을 위한 방향성을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민의 욕구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형서비스 뿐만 아니라 무형의 부가적 서비스를 원활케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적절하게 연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주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제언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예천지역의 회룡포마을과 금당실마을의 '녹색농촌체험'의 그린투어리즘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적, 지리적,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다 함께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농촌체험의 참여객들의 욕구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방객들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에 대한 향수 때문에 방문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내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지속적인 방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음은 앞의 '회룡포마을'나 '금당실마을'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그린투어리즘과 관련하여 지역이 고유성과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차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 설정에 대한 명확화와 지역의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커뮤니티를 통한 방문객을 확보하고 재방문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다각적 관리는 농촌의 수익창출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린투어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사업운영의 강력한 동기인 경제적 측면과 지역발전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차별화되고 집중화된 전략으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지역주민 공동체 의식을 통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헌조사 및 본 연구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활동의지는 지역 관광서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파트너쉽의 형성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내 자원을 활동한 독창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이끌어갈 전문가 그룹이나 리더의 역할모델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성공하는 중요한 핵심이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한두명의 리더만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이 움직이는 농촌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대기(2004),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강용배(2004),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 8권, 제 4호. pp.5-30.

강철희·홍현미라(2002), “지역사회결속력(Community Solidar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권 pp.43-77.

고순철(1992), 제주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권순복(1990), 도시공동사회의 형성과 발전방향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김경준(1999),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영섭외(1994),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연구보고서 제 3집.

김찬호(1997),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도시 재생과 주민참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형용(2000),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노진철(1997), “현대사회의 성찰적 자기기술로서 삶의 질”, 경북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 9집.

박경철·김성수(2002),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간 지역사회 친밀도 비교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 9권 제 1호, pp.87-100.

박대식(2000), “바람직한 농촌개발의 방향-Sustainable Development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0:105-127.

박덕병(2002),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로서 그린투어리즘”, 「지역사회개발연구」, 제 27집 1호.

박양호, “분권과 혁신을 향한 지역균형발전방안”. http//tiss.re.kr/divpower8/index.html.

박호강(1992), 공동체와 유토피아,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박호강(1988), “공동체 가치의 현대적 실현가능성”,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서울:한길사.

박호강(1980), “공동체의 개념적 분석과 이념적 역할”, 「지역사회개발논총」 제 3권.

윤은주(2001), 사회적 산물로서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두레 마을 공동체 사례를 중심

으로-,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윤찬영(2003),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 vol.16. pp.27-41.

이범웅(1997), “공동체주의의 복합적 기능에 관한 복합체계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춘옥(2001), 공동체의 ‘우리’의식과 노년기 삶의 질-노인생산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이형하(2005), “대도시 지역 노인과 농촌지역노인의 공동체 의식 관련 요인 비교연구”,「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pp.231-254.

정지웅·최상호(1983),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 선일문화사.

정현욱·서휘석·이동기(2002), “농촌개발을 위한 그린투어리즘과 지방정부의 역할”,「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14권 제 4호(통권40호), pp.1-19.

조난심(1991), 도덕교육의 목적으로서 자율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허장·정기환(2003), “농촌마을의 발전과 새로운 리더쉽”,「농촌사회」.제3집. pp.51-83.

홍원표(1997), 지역쇠퇴에 대응한 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Dennis E. Poplin, Communities :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9. 신용하 편,「공동체이론」, 서울:문학과 지성사, 1987.

〈부록〉

지역사회 공동체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현재의 각박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촌을 잘 가꾸어 나가고자 애쓰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 조사는 농촌주민 여러분이 평소에 농촌지역사회(면단위 포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바쁘고 힘드신 줄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신 것은 단지 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한 문항도 빼지 말고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 10.

우리복지센터 대구경북 사회복지연구소

연락처 : 전 보 경 경도대학 교수 (010-3055-9491/cool-jbk@hanmail.net)
성 희 자 위덕대학교 교수 (018-506-7869/joy-7869@hanmail.net)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 하거나 (　　)안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2.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지는 주요 행정관청이나 문화시설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　)

① 아주 가까운 곳　② 가까운 곳

③ 조금 떨어진 곳　④ 아주 많이 떨어진 곳

3.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의 주거기간은?

(　　년)(　　월)

4.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　　)

①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곳

② 부모님 때부터 살고 있는 곳

③ 내가 태어난 곳

④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자란 곳

⑤ 이사 온 지 오래된 곳

⑥ 최근에 이사 온 곳

Ⅰ.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또는 동네)에 대한 느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지역사회에만 있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곳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노력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지역사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이 곳에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은 힘을 모아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곳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주민들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주민들은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14. 이웃이 잘 되면 나에게 좋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지역사회에는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이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 지역에 속해 있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Ⅱ. 우리지역 전반에 관한 질문

1.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높은 편이다　　② 비슷한 수준이다　　③ 낮은 편이다

1-1. 우리 지역 발전수준이 이 정도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도자의 지도력　　② 지역주민의 의식

③ 마을이 위치한 입지조건　　④ 정부의 지원

2. 우리 지역(예천)의 소득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높은 편이다 ② 비슷하다 ③낮은 편이다

2-1. 우리 지역의 소득수준이 이 정도인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도자의 지도력 ② 지역주민의 의식

③ 마을이 위치한 입지조건 ④ 정부의 지원

3.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공동출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생각해본 적 없다

4.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공산품, 농산물)이라면 우선적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귀하는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① 만족스럽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불만스럽다

6. 귀하께서는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① 아주 많다 ② 조금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없다 ⑤ 전혀 없다

7. 귀하가 만약 어떤 일이 있어서 귀하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① 슬프다(섭섭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기쁘다(홀가분하다)

Ⅲ. 일반적 사항

※ 아래의 사항 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표 해 주십시오.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 )세
결혼 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 )
교육수준	① 초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이상
직업	① 농업, 축산업 ② 자영업 ③ 주부 ④ 공무원 ⑤ 생산, 노무, 기술직 ⑥ 사무, 관직, 경영, 전문직 ⑦ 무직, 퇴직, 기타
한달 평균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③ 150-200만원 ④ 200-250만원 ⑤ 250-300만원 ⑥ 300만원 이상
주택소유형태	① 자택 ② 전세 ③ 사글세 ④ 월세 ⑤ 빈집에 그냥 산다
가족전체 세대수	① 1세대 ② 2세대 ③ 3세대 ④ 4세대 이상

♡ 감사합니다. ♡

연구자 소개

전 보 경(全普敬)

▷ 경북도립 경도대학 행정복지계열 교수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주요 연구실적

- 불교사회복지실천과제와 전략(저서)
-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실천(저서)
- 실버타운 인프라 구축 및 Leisure-Care 산업 육성(연구보고서)
-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학회 논문) 외 연구실적 다수

성 희 자(成熙)子)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연구실적

-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형성방안(보건과 사회과학, 제 18집, 2005)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소고(사회복지정책, 23집, 2005)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수퍼비전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 16집, 2003.)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및 활동유지에 관한 연구-U대회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수탁과제 보고서)
- 사회복지개론(삼우사) 공저 등

2006 경북 북부지역 연구총서

2006년 6월 20일 인쇄
2006년 6월 25일 발행

발행인 : 홍 철
발행처 : 대구경북연구원

(706-7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대통타워 18·19층
TEL. (053) 770-5000
FAX.(053) 770-5039

인 쇄 : 명인출판사 (T. 422-5558)

<비매품>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드시 대구경북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